www.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일시 2013. 11. 1(금) 10: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육아정책연구소 8주년 기념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일시 2013. 11. 1(금) 10:00~18:00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초·대·의·말·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가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육아정책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창립 8주년을 기념하여 11월 1일(금)에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에서는 미국 UC Davis에 재직 중인 Belsky 교수의 기조강연과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에 걸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논문 발표, 그리고 종단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에 대한 특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시작한 「한국아동패널」은 올해 6차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 심층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은 국내 유일의 전국 단위 출생 패널 연구로서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가정, 사회, 국가 수준의 변인들을 추적 조사하여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아동 발달과 아동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과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아동,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개발의 기초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육아정책연구소 창립 8주년 기념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뜻 깊은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환 · 영 · 사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가을날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8주년 기념행사로 “행복한 유아,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회 한국아동패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아교육과 보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쁜 일정 속에 축하메시지를 보내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격려사를 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육아 관련 정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소관 국가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지난 8년 동안 많은 정책 방안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는 아시아 유일의 전국 단위 출생패널 연구로서,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한국아동의 성장과 발달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가정, 사회, 국가 수준의 변인들을 추적조사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초로 아동 발달과 성장하고 있는 아동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환경과 국가 정책의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행복과 나라의 행복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패널연구는 2006년 모형개발을 시작으로 2008년도 1차년도 조사, 2009년 2차년도 자료와 더불어 일부 패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심층조사의 자료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3차년도 조사와 함께 2010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횡단적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2013년 현재는 6차조사를 완료하였고, 2차 심층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2008년도에 연구대상으로 참여했던 아동이 어느덧 만 5세가 지나고 내년이면 초등학교 학생이 됩니다. 이에 따라 본 패널자료가 훨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이 자료를 이용하여 더욱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한국아동패널연구를 책임지고 있는 도남희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기조강연을 해주실 UC Davis에 재직중인 Belsky 교수님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 특강을 해 주실 서울대의 강상경 교수님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분들의 강연은 정책입안가들과 전문가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세션에서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교수님들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들, 지난 여름 더위에도 불구하고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작성하여 발표에 참여해주신 연구자분들, 특히 멀리 미국에서 오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동학, 유아교육학, 보육학, 아동청소년학, 사회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언어병리학, 아동미술디자인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분들과 석·박사 과정 학생분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아동패널연구에 더 관심을 가지고 국제비교 등 패널자료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육아정책연구소의 창립 8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학술 토론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Program

시간	프로그램	
10:00-10:30	**등 록**	
1부 육아정책연구소 8주년 기념행사		사회: 장명림 기획경영실장
10:30-10:50	**개회식** 대통령 축하 메시지 격려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육아정책연구소 이영 소장	
10:50-11:00	**육아정책연구소 소개**	
2부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사회: 이미화 정책연구실장
11:00-12:00	**기조 강연** Jay Belsky (UC DAVIS 교수)	
12:00-12:10	**휴 식**	
12:10-12:30	**한국아동패널 소개**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책임연구자)	
12:30-12:40	대학원생 논문 시상	
12:40-13:40	**오 찬**	
13:40-14:30	**특별 강연**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30-14:45	**휴 식**	
14:45-16:15	**Session1. 아동발달의 현주소**	
16:15-16:30	**휴 식**	
16:30-18:00	**Session2. 건강한 양육환경**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국제 회의장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1

강연자: Jay Belsky (Professor of UC DAVIS)

중회의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 25

강연자: 강상경 (서울대학교 교수)

14:45 ~16:15

Session 1. 아동발달의 현주소

소회의실 4

제 1 주제: 사회성 발달 관련 제요인 분석

사회: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1.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토론자: 위영희 (서원대학교 교수) 63

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연구자: 김영희 (한경대학교 교수)
박지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토론자: 이희선 (가천대학교 교수) 84

3.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이일랑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이경옥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102

* 발표자

소회의실 3

제 2 주제: 육아환경과 언어발달 간 관계 분석
사회: 정미라 (가천대학교 교수)

4. 3세 아동용 간편 어휘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123
연구자: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경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혜원 (울산대학교 교수)

5.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140
연구자: 박찬화* (한국무역보험공사 Kids-sure 어린이집 원장)
이윤선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연구·훈련센터 센터장)
토론자: 권희경 (건국대학교 교수)

6. Associ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he Mediating Role of Peer Interactions 167
연구자: 이일랑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신유림 (가톨릭대학교 교수)

소회의실 2

제 3 주제: 발달의 종단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사회: 양옥승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7.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발달과정 탐색연구 187
연구자: 이귀옥* (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토론자: 배지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8.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in South Korea 206
연구자: 김현식* (경희대학교 조교수)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한유미 (호서대학교 교수)

9.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224
연구자: 오승아 (경동대학교 조교수)
유준호* (을지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정책연구센터 센터장)

* 발표자

16:30 ~18:00 | Session 2. 건강한 양육환경

소회의실 4 | **제 4 주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사회: 정계숙 (부산대학교 교수)

1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연구자: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강지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251

11.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연구자: 김정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김옥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토론자: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교수) 272

12.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연구자: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영환 (전북대학교 교수) 290

소회의실 3 | **제 5 주제: 어머니의 취업과 행복한 육아**
사회: 옥선화 (서울대학교 교수)

13.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연구자: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자: 이완정 (인하대학교 교수) 307

14.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연구자: 금지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동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토론자: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28

* 발표자

15. An Analysis of Self-efficac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연구자: 박성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강사)
James Hoo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Professor)
신혜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박사 수료)
토론자: 조성연 (호서대학교 교수) 347

소회의실 2

제 6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사회: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6.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자: 이정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보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369

17. 영아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연구자: 허청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388

18. Relations among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and Early Social Development in Korean Infants

연구자: 차기주*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박사과정) 406

* 발표자

※ 본 원고의 내용은 한국아동패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기 조 강 연 ◈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rof. Jay Belsky
(UC DAVIS)



Jay Belsky

Belsky 교수는 2011년부터 UC Davis 인간 생태학과의 Robert M. and Natalie Reid Dorn Professor로 재직 중이다. 1978년에 코넬대학교의 인간발달 및 가족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Penn State University에서 21년간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6년에 걸쳐 Distinguished Professor로 선정되었다. 그 후 11년간은 영국 Birkbeck University of London의 심리학과 교수와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ildren, Families and Social Issues의 기관장(director)으로 재직하였다. Belsky 교수는 미국 NICHD Study of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와 영국 National Evaluation of Sure Start의 창립자이며 공동 연구자이다.

아동발달과 가족학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가로서, 어린이집 효과, 애착 등 영유아기 부모와 자녀 관계, 부모기로의 전환, 아동학대의 원인, 부모와 자녀 기능의 진화론적 근거, 어머니와 자녀관계 등을 연구해 왔다. 또한 직접 관찰을 통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와 결혼 및 가족 관계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아동의 뇌 발달,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발달의 가소성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Belsky 교수는 2001년에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으로부터 Highly-Cited-Researcher로 인정받았다. 2007년에 미국심리학회가 수여하는 Urie Bronfenbrenner Award for Lifetime Contribution to Developmental Psychology in the Service of Science and Society를 수상하였고, 2010년에 Academia Europaea로 선출

되었다.

활발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Belsky교수는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al Development,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Society,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등 여러 학회의 회원이며,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Early Education and Child Development, Psychiatry 등 저널에서 편집자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Why Should Early Experience Shape Later Development?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Jay Belsk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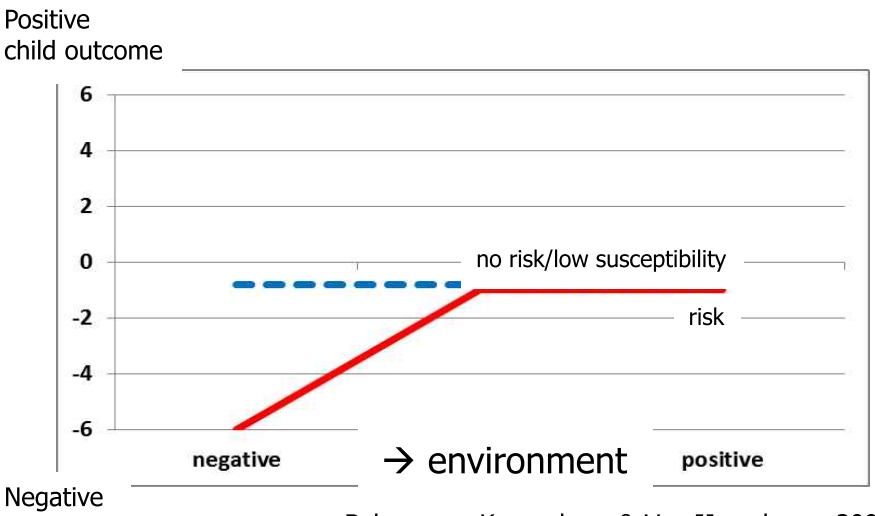
--The future is uncertain.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One prevailing model of how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ose experienced early in development, shapes human development is the dual-risk or the diathesis-stress model of environmental action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Diathesis-Stress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6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Why would nature craft a developmental system for generating disturbances in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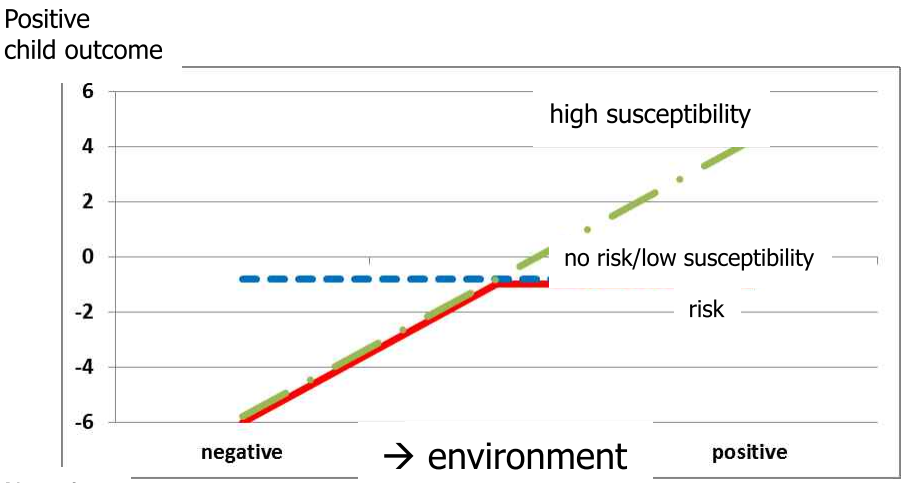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HOW DIFFERENTIAL SUSCEPTIBILTY DIFFERS FROM DIATHESIS STRESS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Diathesis-Stress v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6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Evidence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emperament

--Candidate Genes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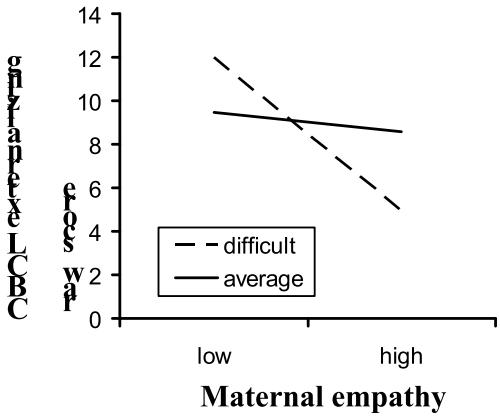


INFANT TEMPERAMENT AS A SUSCEPTIBILITY MARKER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Maternal Empathy and Externalizing Problem Moderated by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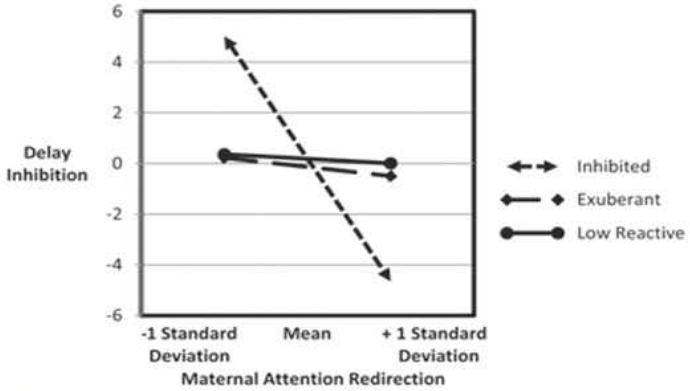


Pitzer M, Jennen-Steinmetz C, Esser G, Schmidt MH, Laucht M.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the role of early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problems. *Comprehensive Psychiatry*; 52, 650-8

UC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Maternal Attention Redirection of 4.5 Year-olds Task Focused Behavior (Intrusive Mothering?) and Child's Capacity to Inhibit/Delay Contact with Attractive Toys Moderated by 2-Year Temperamental Type (Inhibited: High Negativity + Low Approa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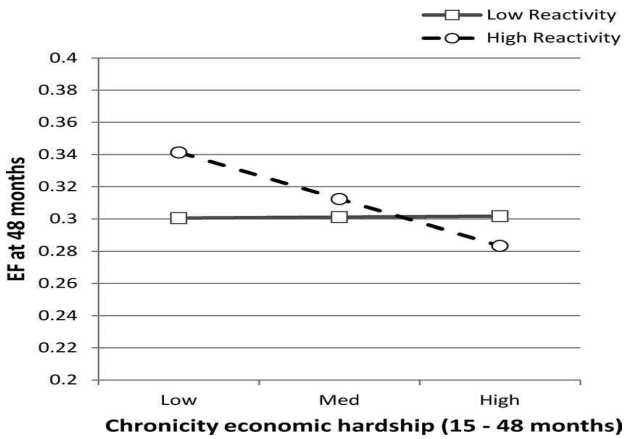


Conway, A. & Stifter, C. (2012). Longitudinal antecedents of executive function in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83, 1022-1036.

UC 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Chronicity of Economic Hardship (15-48 mos.) And 48-month Executive Function Moderated by 7-Month Negative Reactivity



Raver, C.C. et al. (2012). Poverty as a predictor of 4-year-olds?executive function: New Perspectives on models of differential susceptibi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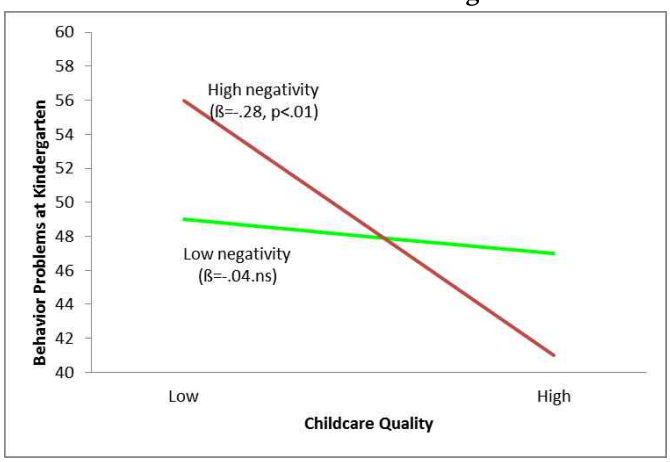


What About Child Care?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Observed Quality of Child Care and Teacher-Rated Behavior Problems in Kindergarten



Pluess, M., & Belsky, J. (2009).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Rearing Experience: The Case of Childcar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Institute for the Study of Children, Families and Social Issues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BEYOND TEMPERAMENT : *Genes as Moderators of Environmental Effects (G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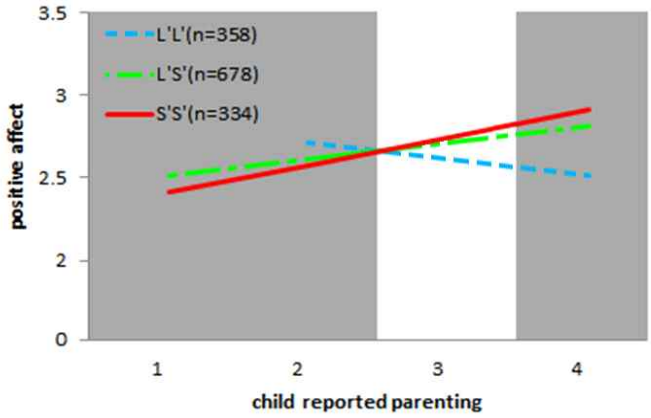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The 5-HTTPLPR Gene

The serotonin-transporter gene (5-HTTP) is a good gene to consider becaus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infants carrying the short (vs. long) allele are more negatively emotional as newborns (Auerbach et al., 2005). Short alleles have also been linked to depression in females and vulnerability to the depression fostering effects of negative life events in adulthood (Caspi et al., 2003).

Positive Parenting and 8-12 Year Old Positive Affect Moderated by5-HTTLPR



Hankin, B. et al. (2011). Differential susceptibility in youth: evidence that 5HTTLPR x positive parenting is associated with positive affect 뭔or better and worse? Translational Psychiatry, 1, e44.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and Conduct Problems Moderated by 5-HTTL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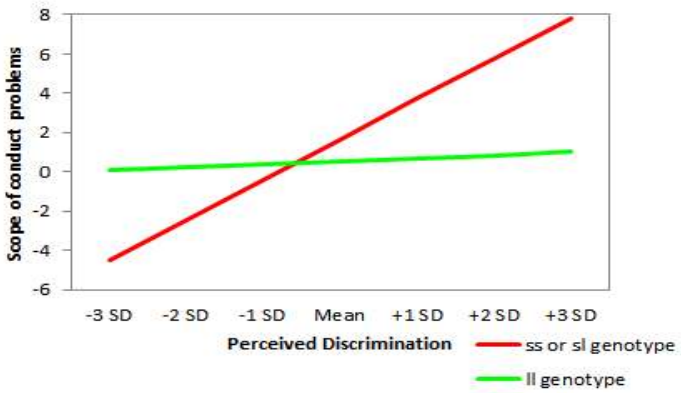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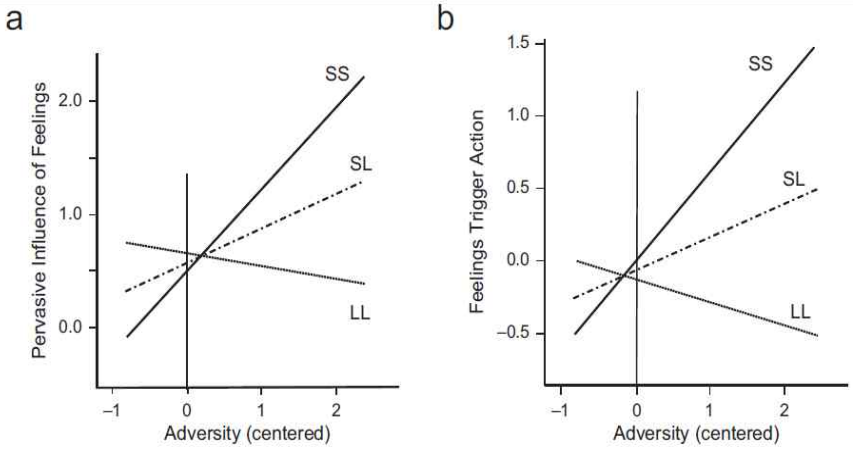


Figure 2. Results of the analysis for male youths only. Slopes of conduct problems fo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ranging from -3 to +3 standard deviations from the sample mean, plotted separately for male youths with the *ll* genotype and male youths with the *ss* or *sl* genotype.
Brody, G.H., et al. (2011). Perceived discrimination, serotonin transporter linked polymorphic region status, and the development of conduct problem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3, 617-627.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Retrospectively Reported Childhood Adversity and Aspects of Impulsivity in College Students Moderated by 5-HTTLPR



Carver, C.S. et al. (2011). Serotonin transporter polymorphism interacts with childhood adversity to predict aspects of impulsivity. Psychological Science, 22, 589-595.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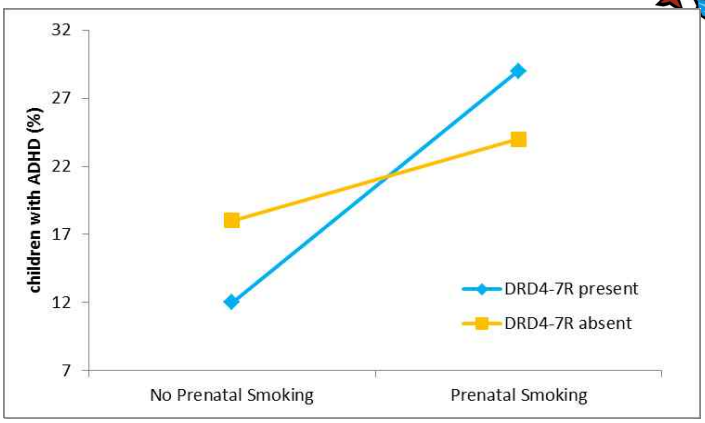


GXE: The DRD4 Gene

The *DRD4* gene codes for a type of dopamine receptor, with the dopaminergic system involved in attentional, motivational, and reward mechanisms in the brain. One variant of this gene, the 7-repeat DRD4 allele, has been linked to lower dopamine reception efficiency, and thus to ADHD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children, as well as behavioral difficulties, including substance abuse and aggression, in adulthood, .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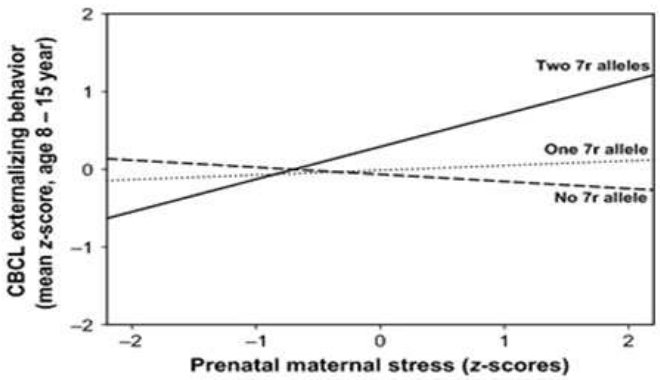
Prenatal Smoking & ADHD



Pluess, M., Belsky, J., & Neuman, R.J. (2009). Prenatal Smoking and ADHD: DRD4-7R as a Plasticity Gene. Biological Psychiatry, 66, e5-e6.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natal Stress and Children's Anti-Social Behavior Moderated by DRD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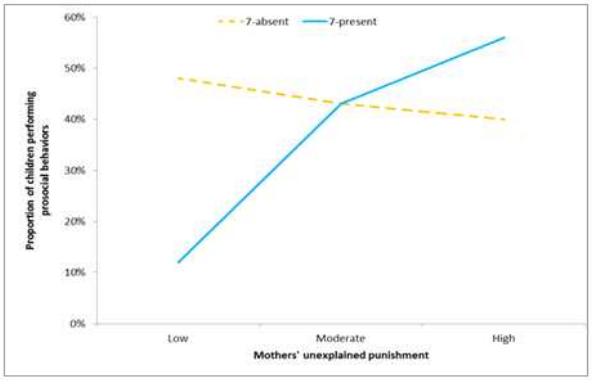


Zohsel, K. et al. (2013). Mothers' prenatal stress and their children's antisocial outcomes—a moderating role for the Dopamine D4 Receptor (DRD4) gen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Mother's Unexplained Punishment and Preschooler's Observed Prosocial Behavior Moderated by DRD4



Knafo, A. et al. (2011). Heritability of children's prosocial bhavior and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parenting by variation in the dopamine receptor D4 gen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3,* 53-67.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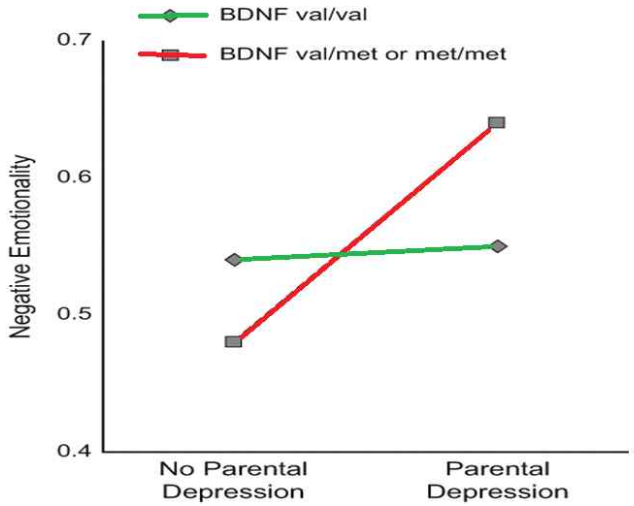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 has also been implicated in the etiology of depression,with evidence linking the Methionine (Met) allele of BDNF Val66Met polymorphism to anxiety in humans and mice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Parental Depress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in 3-Year Olds: Moderated by BDN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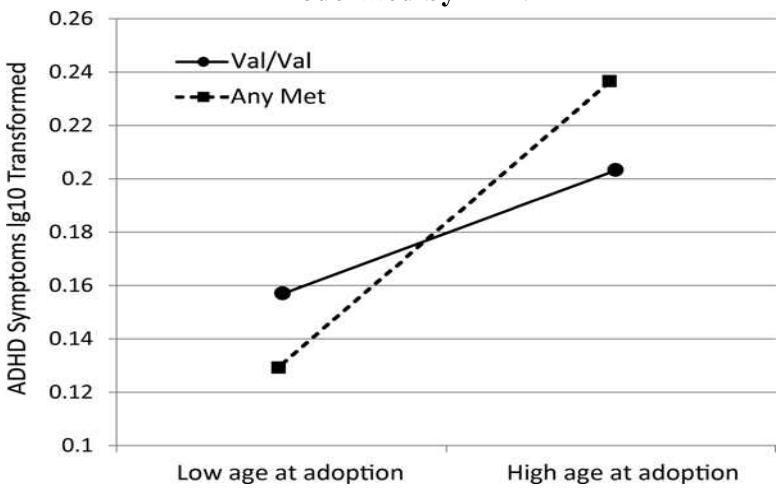


Hayden, E. P. et al. (in press). The role o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genotype, parental depression, and relationship discord in predicting early-emerging negative emotionality. Psychological Science. .2010;0956797610385357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Early Deprivation/Institutionalization Effects on Attent Problems at age 10-12 Years Moderated by BDN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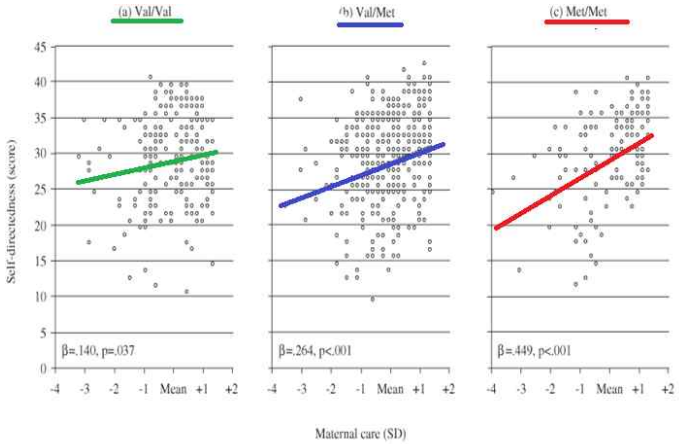


Gunnar, M.R. et al. (2012). The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Val66Met polymorphism moderates early deprivation effects on attention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4, 1215-1223.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Parental Rearing on Personality (Self Directedness) Moderated by BDNF



Suzuki, A. et al. (2011). The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Val66Met polymorphism modulates the effects of parental rearing on personality traits in healthy subjects. Genes, Brain and Behavior, 10, 385-391.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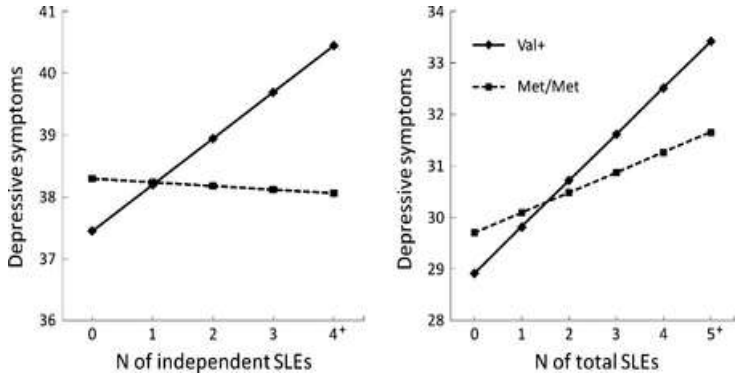


ETHNIC/RACIAL DIFFERENCES IN PLASTICIT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Independent* and Total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Moderated by BDNF



*Independent Stressful life events: largely out of the children 뭘 control (e.g., death of family members)

Chen, J. et al. (2013). The interacting effect of the BDNF Val66Met polymorphism and stressful life events on adolescent depression is not an artifact of gene–environment correlation: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twin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1066-1073.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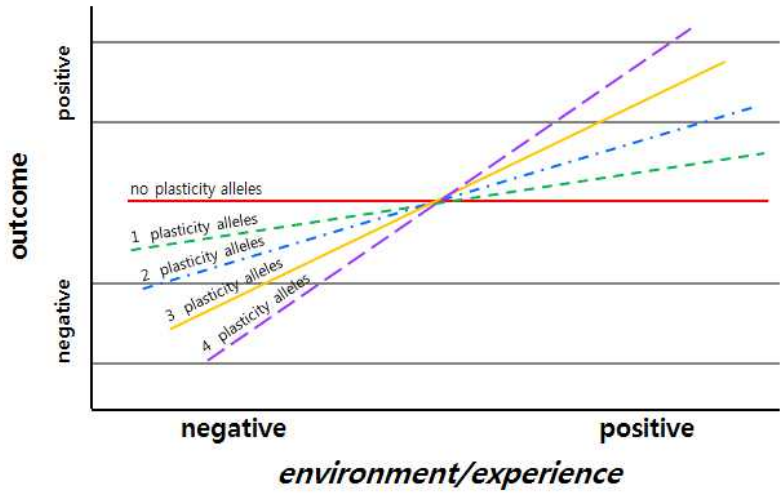


BEYOND SINGLE GENES: CUMUALTIVE GENETIC PLASTICIT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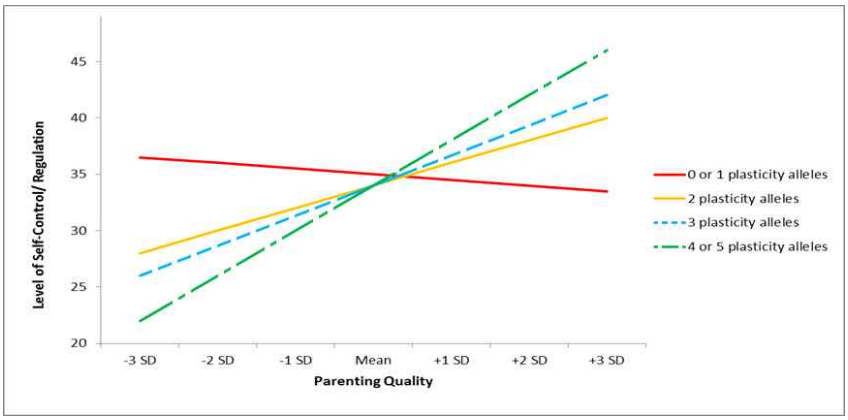
THEORETICAL MODEL OF GENETIC-PLASTICITY GRADIENT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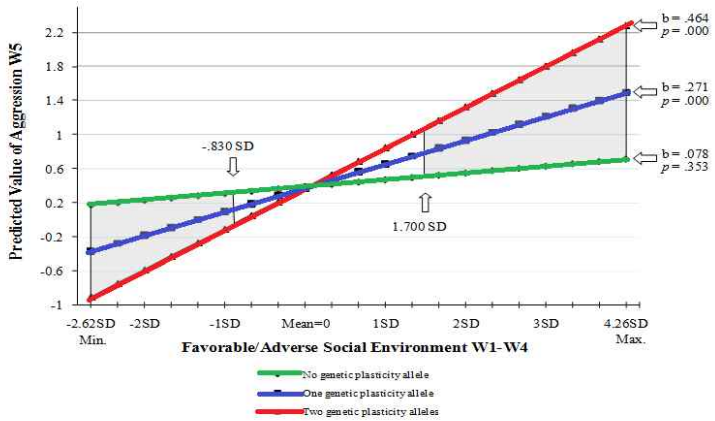
Parenting and Adolescent Boys? Self-Control Regulation Moderated by Cumulative Genetic Plasticity
(DAT1, DRD2, DRD4, 5HTTLPR, and MAOA)



Belsky, J., & Beaver, M. (2011). Cumulative-Genetic Plasticity, Parenting and Adolescent Self-Control/Regul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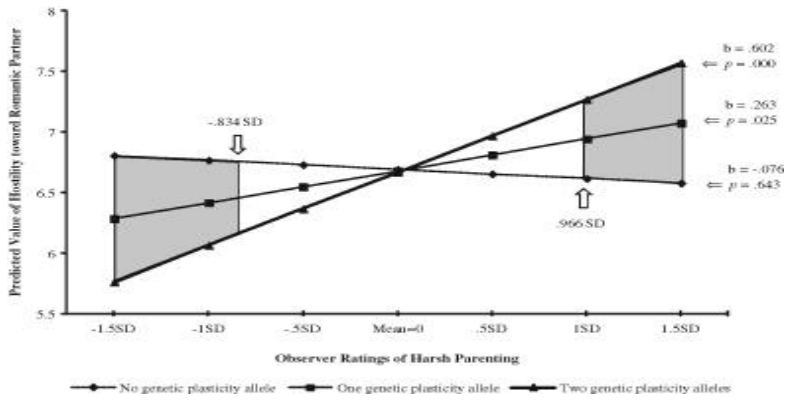
Social Environment and Aggression Moderated by Cumulative Genetic Plasticity (5-HTTLPR and DRD4)



Simons, R.L. et al. (2011). Social environmental variation, plasticity genes, and aggression: Evidence for the differential susceptibility hypo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 883-912.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Genetic Moderation of the Impact of Parenting age 10-12 on Hostility Toward Romantic Partners in Early Adulthoo… (GABRA2 rs279858, rs27837)



Simons, R.L. et al. (2013). Genetic moderation of the impact of parenting on hostility toward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325-341.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CAN WE MOVE BEYOND CORRELATIONAL EVIDENCE TO EXPERIMENTAL DATA?

--negative emotionality

--candidate ge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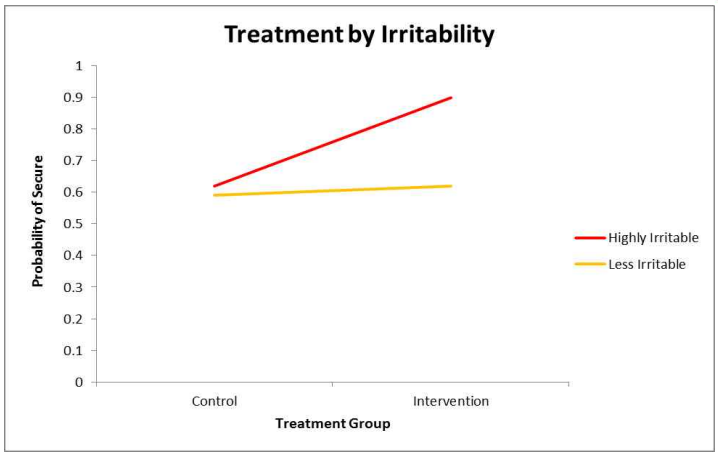
DRD4

5HTTLPR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Experimental Enhancement of Maternal Sensitivity via Circle of Security: Effects on Attachment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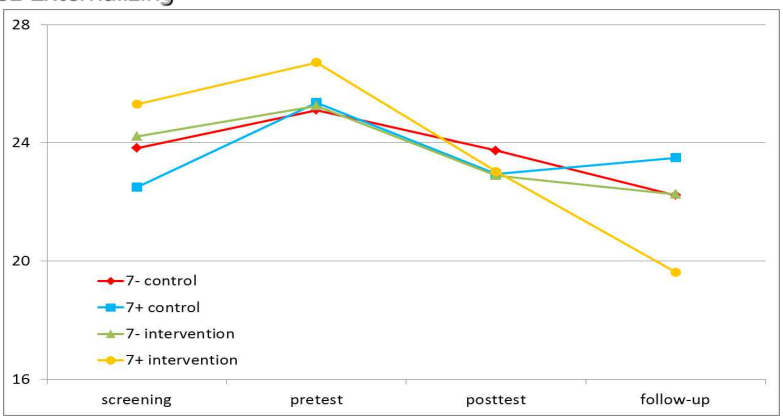
Cassidy, J., et al. (2011). Enhancing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 examination of treatment efficacy and differential susceptibil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for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s By DRD47-Repeat Allele

CBCL Externaliz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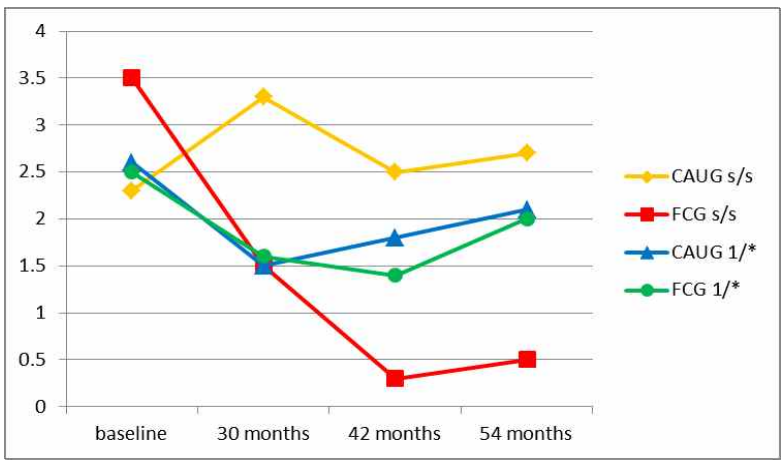
Bakermans-Kranenburg et al. (2008). Experimental evidence for differential susceptibility: Dopamine D4 receptor polymorphism (DRD4 VNTR) moderates intervention effects on toddlers' externalizing behavior in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Developmental Psychology, 44, 293-300.*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Intervention Effects on Indiscriminant Social Behavior Among Institutionalized Romanian Children Moderated by 5-HTTLPR

(CAUG: Care as Usual Group; FCG: Foster Care Group)



Drury, S.S. et al. (2012). Genetic sensitivity to the caregiving context: The influence of 5httplor and BDNF val66 met on indiscriminant social behavior. Physiology and Behavior.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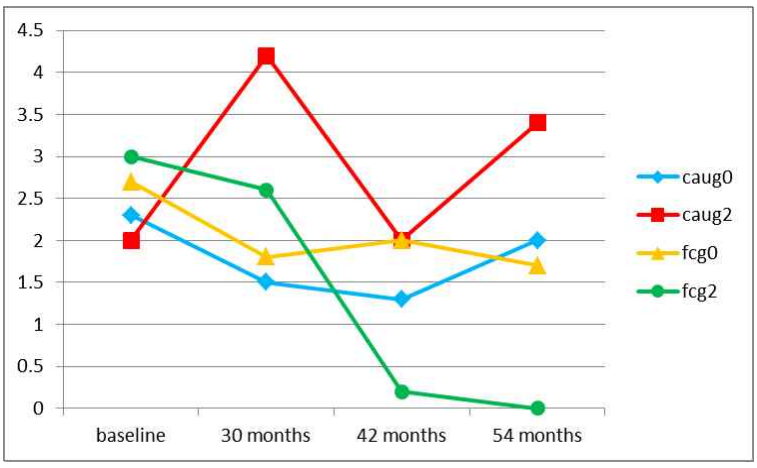


Repeated Measurements, Multiple Genes and Experimental Intervention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Intervention Effects on Indiscriminant Social Behavior Among Institutionaliz
Romanian Children
Moderated by Cumulative Genetic Plasticity:
5-HTTLPR *and* BDNF
(CAUG: Care as Usual Group; FCG: Foster Care Group)



Drury, S.S. et al. (submitted). Genetic sensitivity to the caregiving context: The influence of 5httplor and BDNF val66 met on indiscriminant social behavior.

UCDAVIS
UNIVERSITY OF CALIFORNIA



CONCLUSIONS

--Language for "upside plasticity"?
--Domain specific or domain general?
--Susceptibility: born or made or "born to be mad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Efficacy vs. Equity?

◈ 특 별 강 연 ◈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종단분석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데이터분석:
전통분석방법과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2013년 11월 1일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의개요

- 연구과정 및 잠재성장모형의 위상
  1. 잠재성장모형은 데이터 분석법의 하나
- 전통분석방법 개관: 잠재성장모형의 필요성
  1. 횡단자료 및 횡단분석의 한계
  2. 전통적 종단분석의 한계
  3. 전통적 종단분석 대비 잠재성장모형의 강점
- 잠재성장모형의 분류
  1. 구조방정식적 접근
  2. 다층모형적 접근 (mixed effects 모형)
-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
  1. Unconditional Model
  2. Conditional Model
- 잠재성장모형 분석 예시
- 전통분석방법과 잠재성장모형 비교정리

2

연구과정

1. 연구과정 (잠재성장모형의 위상 – 분석)

연구(Research)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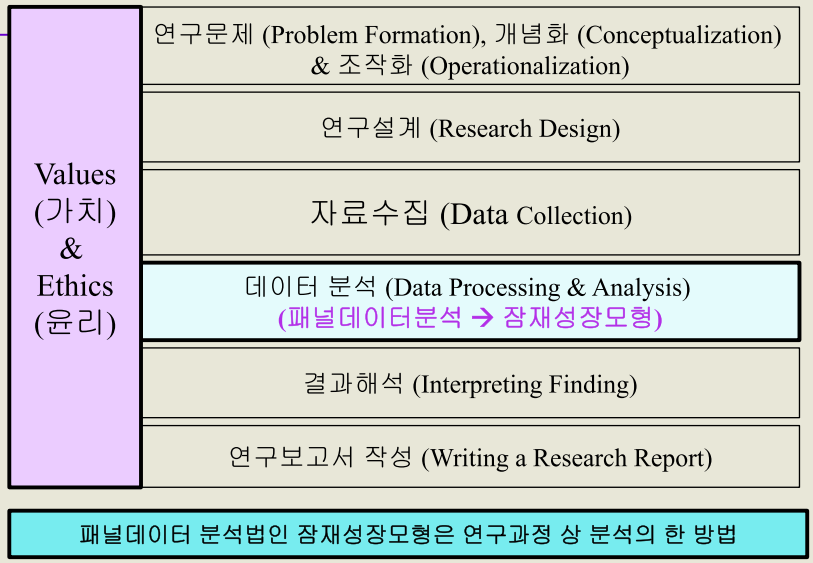
- 논리와 관찰을 통한 지식의 발전 **(Knowledge** development through **logics** and **ob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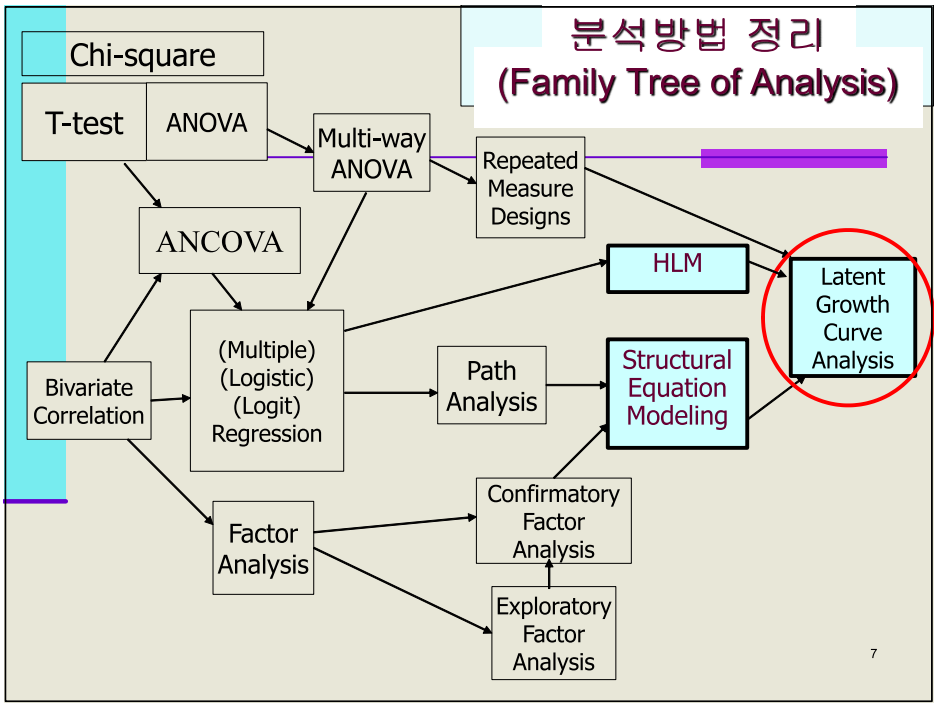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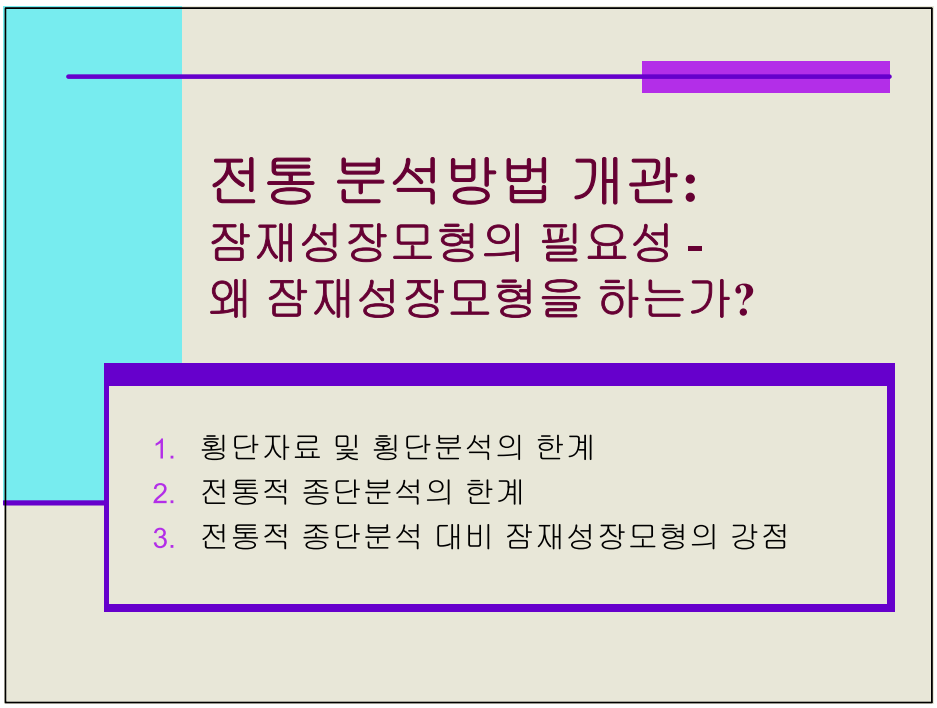
연구과정
(Research Process)

연구수행 절차는?
(How do we conduct research?)

Big Picture: Research Process (연구과정)




분석방법 정리
(Family Tree of Analysis)
Chi-square
T-test
ANOVA
Multi-way ANOVA
Repeated Measure Designs
ANCOVA
HLM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Bivariate Correlation
(Multiple) (Logistic) (Logit) Regression
Path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7


전통 분석방법 개관:
잠재성장모형의 필요성 -
왜 잠재성장모형을 하는가?
1. 횡단자료 및 횡단분석의 한계
2. 전통적 종단분석의 한계
3. 전통적 종단분석 대비 잠재성장모형의 강점

횡단자료 및 횡단분석의 한계

종단분석의 필요성

개념: 횡단자료 (종단자료)

- 횡단자료 (Cross-sectional Data)
  - 한 시점에서 여러 units으로부터 자료를 모은 것
    - Units (Level of Interests)
      - 개인, 부부(쌍), 가구, 조직, 지역사회, 국가, etc.
- 종단자료 (Longitudinal Data, Panel Data)
  - 여러 시점에서 여러 units으로부터 자료를 모은 것
    - Units (Level of Interests)
      - 개인, 부부(쌍), 가구, 조직, 지역사회, 국가, etc.
  - Balanced Panel Data vs. Unbalanced Panel Data
    - Balanced Panel Data (예: 복지패널, 노동패널, 고령자패널, 등)
      - 각 Wave에서 같은 units를 반복 추적 조사하는 것.
    - Unbalanced Panel Data
      - 각 Wave에서 같은 units를 반복추적조사하지 않았지만,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형성한 것.

10

횡단자료 및 횡단분석의 한계

- 연구의 관심대상인 Units (level of interest)는 불변의 성격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예: 몸무게, 키, 성적, 소득, 건강상태, 등
- Units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횡단분석은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나 두 변수간의 변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하지만 종단분석을 통해서는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횡단분석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 뒤에서 좀더 자세히?

11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

- 두 변수간의 공변량이 유의할 때 → 상관관계가 높다
- 하지만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가 유의하면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원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회귀모형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모형이 두 변수의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있을 때)
- 실제 인과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할 때?

12

변수 A와 B 사이의 인과관계

-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의 3 조건 (가정)
  1. 변수 A가 B보다 시간적으로 선행
  2. A와 B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다
  3. A가 B에 영향을 주는 것 외에 다른 외부적인 변수가 B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인과관계 측면에서 횡단분석의 한계
  - 횡단분석은 위의 세 조건 중 조건 2만을 충족시키는 것
    - 인과관계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 종단분석은 위의 세 조건 중 조건 1과 2를 만족시킬 수 있다.
  - 3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전사후 실험조건에서 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
    - 종단분석에서는 영향을 주는 외부적 변수를 통제하는 선에서 해결

종단데이터 및 종단분석의 필요성: 종단분석이 횡단분석 보다는 유용하다

전통적 종단분석 개관 및 한계

종단자료 및
전통적 종단분석의 한계 ➔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분석의 필요성

종단자료 (앞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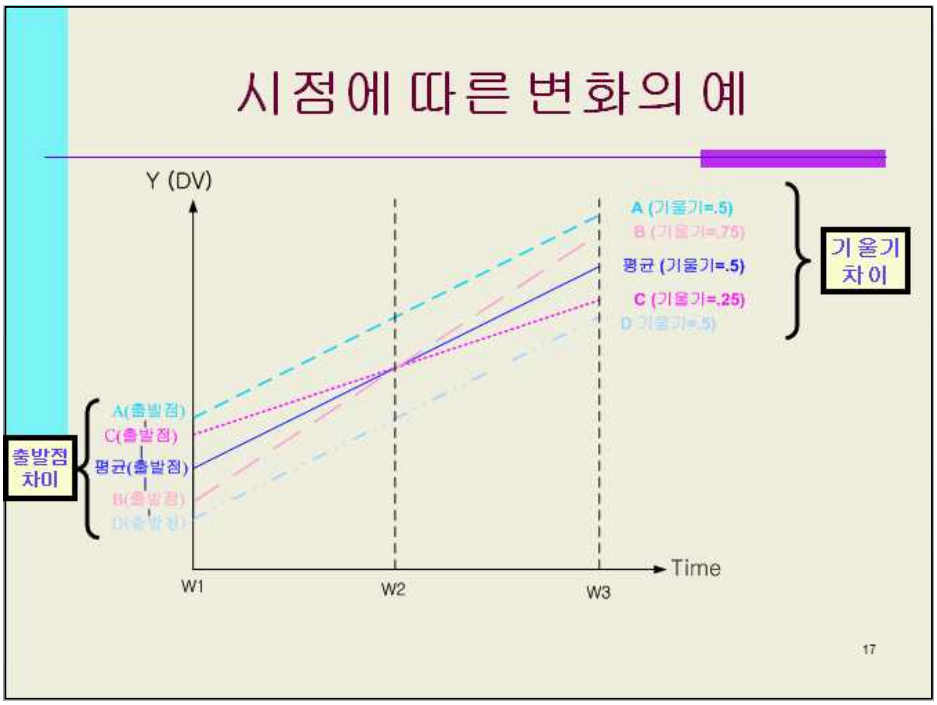
- 종단자료 (Longitudinal Data, Panel Data)
  - 여러 시점에서 여러 units으로부터 자료를 모은 것
    - Units (Level of Interests or analysis)
      - 개인, 부부(쌍), 가구, 조직, 지역사회, 국가, etc.
  - Balanced Panel Data vs. Unbalanced Panel Data
    - Balanced Panel Data
      - 각 Wave에서 같은 units를 반복 추적 조사하는 것.
    - Unbalanced Panel Data
      - 각 Wave에서 같은 units를 반복추적조사하지 않았지만,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형성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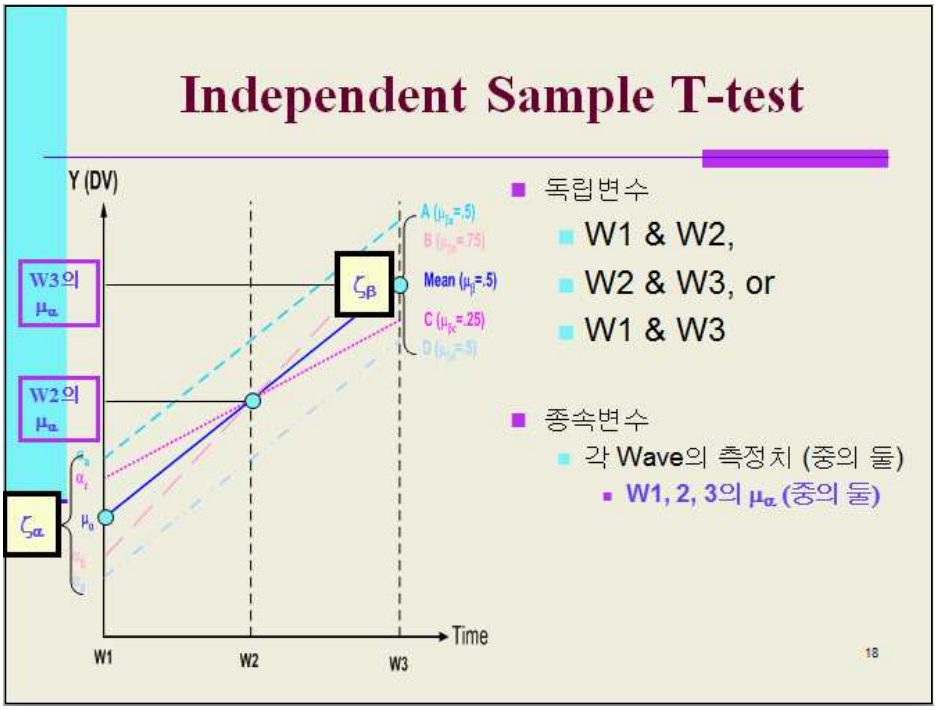
15

종단데이터 분석방법

- 종단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예들 (회귀분석까지 배운 방법위주로)?
  - Independent T-test
  - Paired t-test
  - Oneway ANOVA
  - Repeated Measure ANOVA
  - 회귀 분석: Auto Regressive Regression or Wave 간 차이를 계산해서

16


시점에 따른 변화의 예
Y (DV)
A (기울기=.5)
B (기울기=.75)
평균 (기울기=.5)
C (기울기=.25)
D 기울기=.5)
기울기 차이
A(출발점)
C(출발점)
평균(출발점)
B(출발점)
D(출발점)
출발점 차이
Time
W1
W2
W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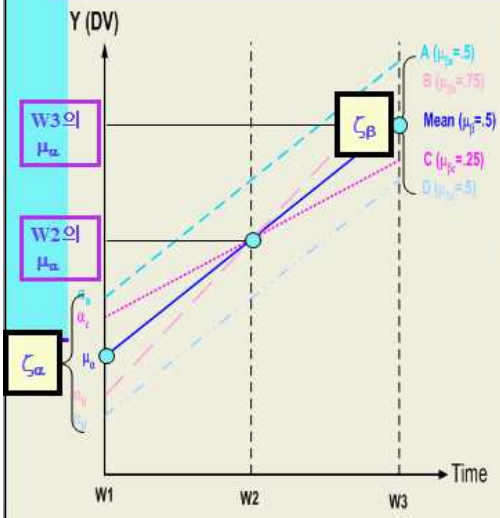

Independent Sample T-test
Y (DV)
W3의 μα
W2의 μα
ζβ
ζα
A (μA=.5)
B (μB=.75)
Mean (μT=.5)
C (μC=.25)
D (μD=.5)
Time
W1
W2
W3
18
독립변수
W1 & W2,
W2 & W3, or
W1 & W3
종속변수
각 Wave의 측정치 (중의 둘)
W1, 2, 3의 μα (중의 둘)

Independent Sample t-test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 두 시점을 각각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두 시점의 평균비교
  - Stacked data 필요
- 한계
  - 실제 두 집단으로 개념화 된 두 집단(wave)은 independent 하지 않고, 반복 측정된 것(dependent)이다.
  - → Paired t-test로 해결
  - 두 시점 비교만 가능
  - → ANOVA로 어느 정도 해결 (vs. Repeated Measure ANOVA)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시점간의 평균 비교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a – d의 다양한 변화율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Wave 사이의 시간의 interval의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못함
    -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19

Paired Sample T-test



- 독립변수
  - W1 & W2,
  - W2 & W3, or
  - W1 & W3
- 종속변수
  - 각 Wave의 값 (중의 둘)의 쌍
    - 즉 W1, 2, 3의 측정치 (중의 둘)의 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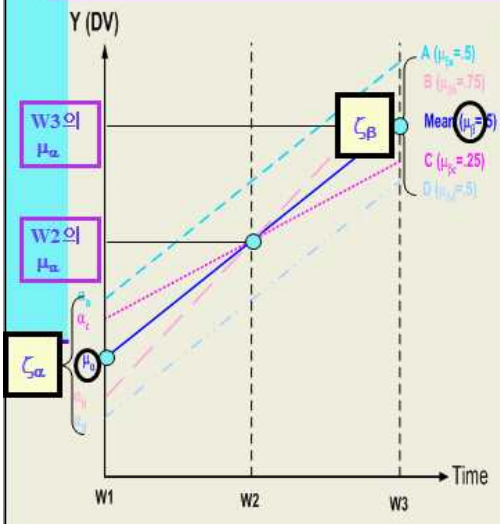
20

Paired Sample t-test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 두 시점을 각각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 가정하지 않고 동일모집단으로 가정하고 두 시점 사이의 unit 내의 변화를 고려
  - Stacked data 불 필요
- 한계
  - 두 시점 비교만 가능
  - → Repeated Measure ANOVA로 어느 정도 해결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시점간의 unit 내 평균변화만 비교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a – d의 다양한 변화율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Wave 사이의 시간의 interval의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못함
    -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21

Oneway ANOVA



- 독립변수
  - W1, W2, & W3 (세개이상)
- 종속변수
  - 각 Wave의 값
    - W1, 2, 3의 μ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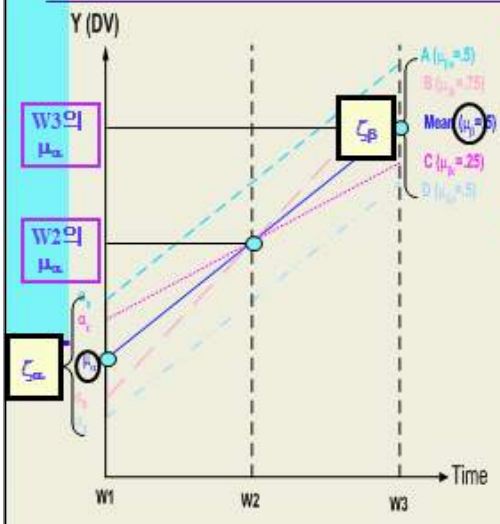
22

Oneway ANOVA 분석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 세+ 시점을 각각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 가정하고 세+ 시점의 평균비교
  - Stacked data 필요
- 한계
  - 실제 세+ 집단으로 개념화 된 세+ 집단(wave)은 independent 하지 않고, 반복 측정된 것이다.
  - → Repeated Measure ANOVA로 해결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시점간의 평균 비교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a – d의 다양한 변화율의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Wave 사이의 시간의 interval의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못함
    -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23

Repeated Measure ANOVA



- 독립변수
  - 시간(W1, W2, & W3) - within
  - 명목변수 – between
- 종속변수
  - 각 Wave의 측정치의 쌍
    - W1-W2-W3 - within

24

Repeated Measure ANOVA 분석의 특징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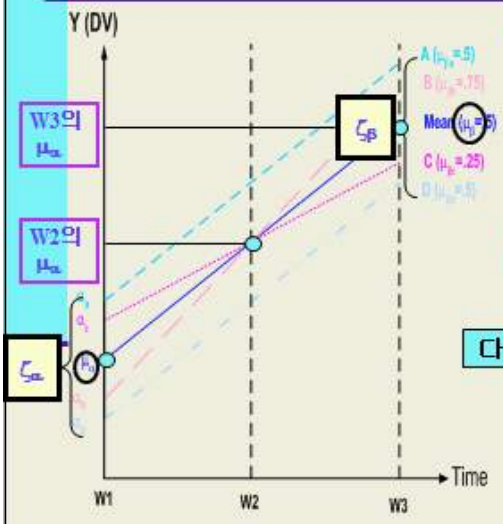
- 특징
  - 세+ 시점을 각각 서로 다른 모집단으로 가정하지 않고 세+ 시점 동안 within subject 변화 고려 (선형, 곡선)
  - Within subject effects 와 between subject effects 고려
  - Stacked data 필요 없음

- 한계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시점간의 평균 비교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개인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개인별 변화율에 대한 모수화 보다는 trend만 고려 (상호작용)
    - Wave 사이의 시간의 interval의 개인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못함
    -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25

(Simple) Autoregressive Model



-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
Wave2 FHI	Wave1 FHI
Wave3 FHI	Wave 1 or 2 FHI

단순: $Fhi_{it}=\alpha_t + \rho_{t,t-1}fhi_{i,t-1} + e_{it}$

다중: $Fhi_{it}=\alpha_t + \rho_{t,t-1}fhi_{i,t-1} + \Sigma\beta_{t,t-1}X_{i,t-1} + e_{it}$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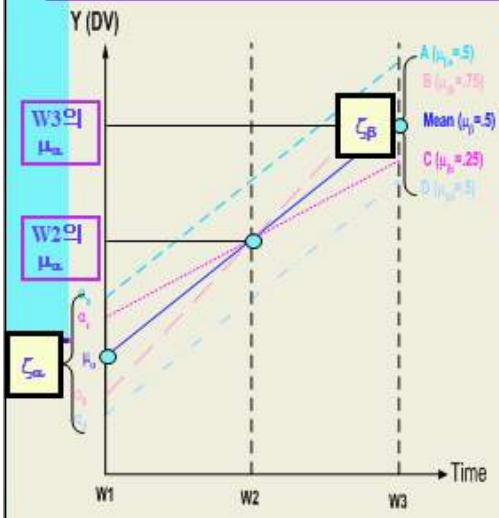
Autoregressive Model 분석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 종단데이터 상에서 특정 wave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 이전 wave의 영향 변수를 살펴볼 때.
  - 단, 변수 Y_t 를 종속변수로 할 때, 반드시 그 이전 Y_{t-n}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들 (X_{t-n})을 투입해야 한다.
  - 두 Wave 만 볼 수 있다.

- 한계
  - 개념상 시변변수(time-varying variable)일 수 있는 변수들 (예, cci – 질병수)을 시변변수로 모형화 하지 못한다.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상관관계만 보여준다.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개인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개인별 변화율에 대한 모수화 보다는 영향요소만 고려
      - 변화와 변화사이의 관계를 모수화 하지 못함
      - ➔ Difference 를 계산해서 (다음에)
    - 차이가 있을 때 이러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27

Difference에 대한 회귀분석



- 독립변수
  - 변수들의 W2 – W1 차이, W3 – W2 차이, W3 – W1 차이
  - 기준점의 변수들
- 종속변수
  - W2 – W1 차이
  - W3 – W2 차이
  - W3 – W1 차이

28

Difference 회귀분석의 특징 및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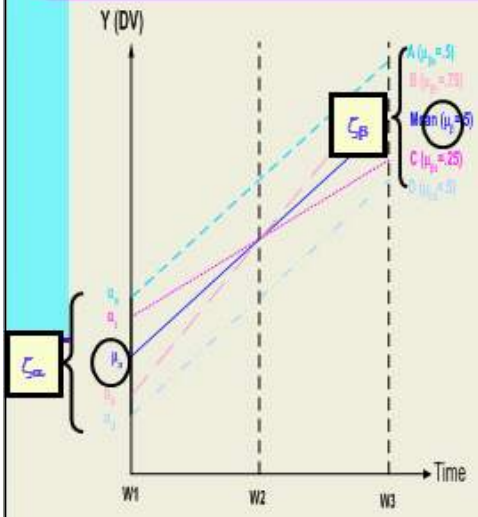
- 특징
  - 종단데이터 상에서 종속변수의 변화와 독립변수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
- 한계
  - 두 개의 wave 간에만 분석이 가능하다.
    - 세 개 이상의 wave 간에는 분석 못함
  - 다양한 변화(a-d)를 무시하고 상관관계만 보여준다.
    - a – d의 다양한 출발 시점의 개인 변량을 모수화 하지 못함
    - 개인별 변화율에 대한 모수화 보다는 변화율 간의 상관관계만 고려
    - 변화변수간 관계가 있을 때 왜 이러한 관계가 생겼는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

➔ 잠재성장모형으로 해결

29

기존 분석의 한계 및 잠재성장 모형의 필요성

기존분석의 한계정리



- 좌측 편의 그림을 보면 변화는 출발점에서의 변량과 기울기에서의 변량으로 구분된다
- 하지만 기존의 분석방법은 출발점과 기울기를 동시에 모수화 하지는 못함
- 모수화를 못하므로 기울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 Wave 간의 time interval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다.

31

잠재성장모형 이해

1. 구조방정식적 접근
2. 다층모형적 접근

잠재성장모형의 개관

- 구조방정식과 다층모형을 이용한 접근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구조방정식 접근법)
  - **Multilevel modeling** (다수준 모형)
    - 유사용어 - HLM, Mixed Regression, Mixed effects model, Random effects model, etc.)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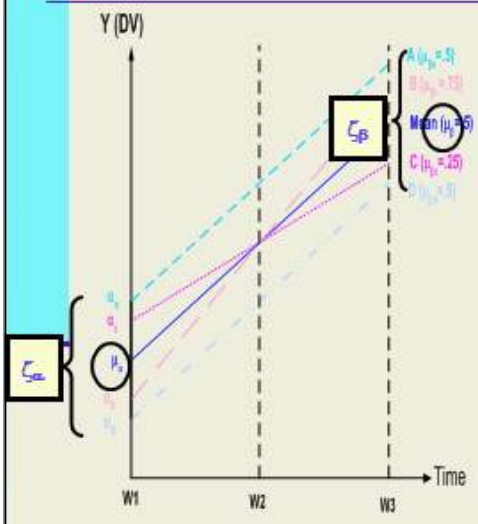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 분석 소프트웨어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구조방정식 접근법)
  - Software:
    - AMOS, LISREL, M+, EQS, SAS Prelis, etc.
- **Multilevel modeling** (다수준 모형)
  - Software:
    - HLM, MIXREG (MIXOR), SAS Proc Mixed, etc.
- 비고:
  - M+, R, etc.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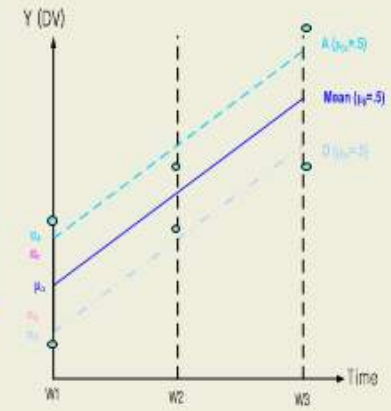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개념적 이해

잠재성장모형은?



- Wave 간의 time interval 차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 (출발점과) 기울기를 모수화 할 수 있는 분석방법
- 모수화를 할 수 있으므로 (출발점 및) 기울기의 변량과 관계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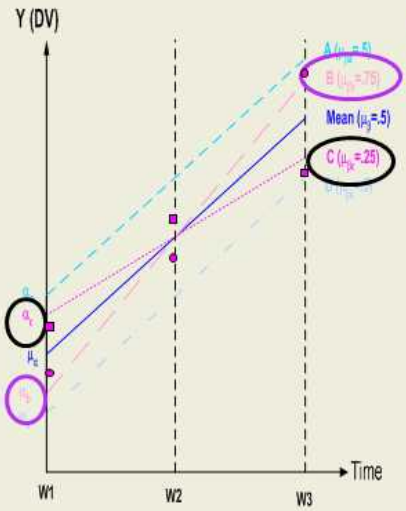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개념적 이해



- 옆의 그림은 a와 d 2개의 단위의 변화를 예로 든 것임
  - Mean은 두 궤적의 평균
- 세 Wave의 측정치가 주어지면 한 단위 내에서의 변화의 회귀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Unit A의 회귀선
    - Unit A (2수준)아래 세 개의 하위측정치 (1수준)가 있다 (다층모형적 이해)
  - Unit D의 회귀선
    - Unit D (2수준)아래 세 개의 하위측정치(1수준)가 있다 (다층모형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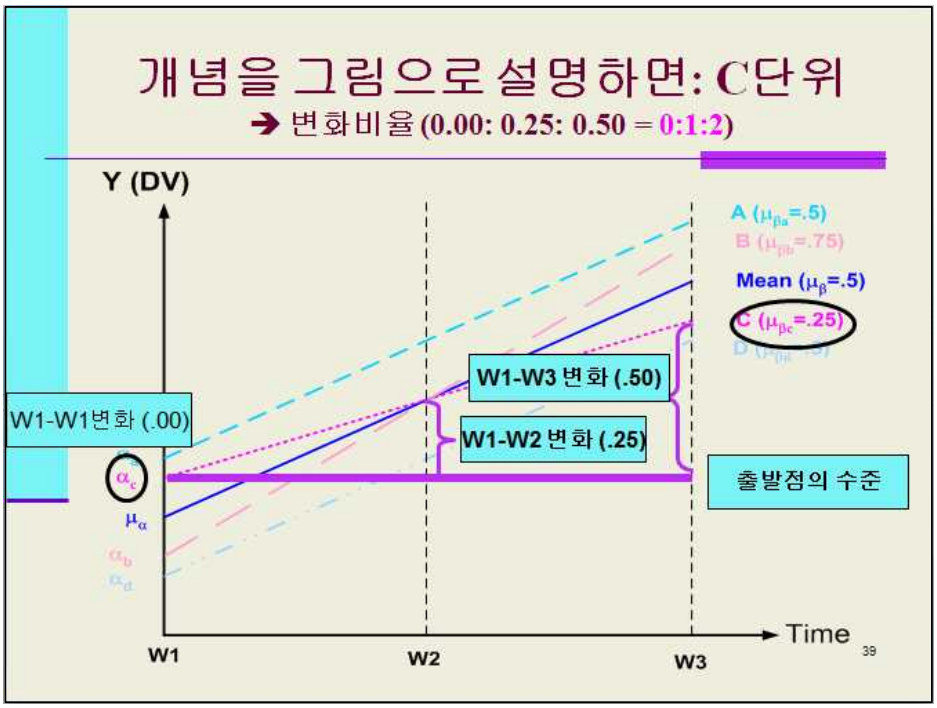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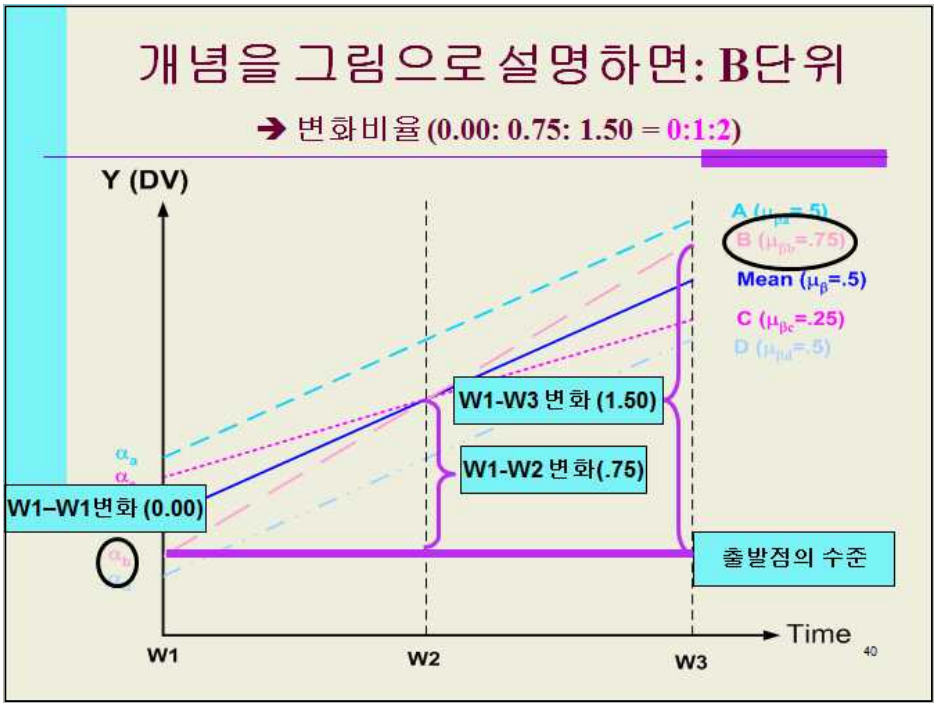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개념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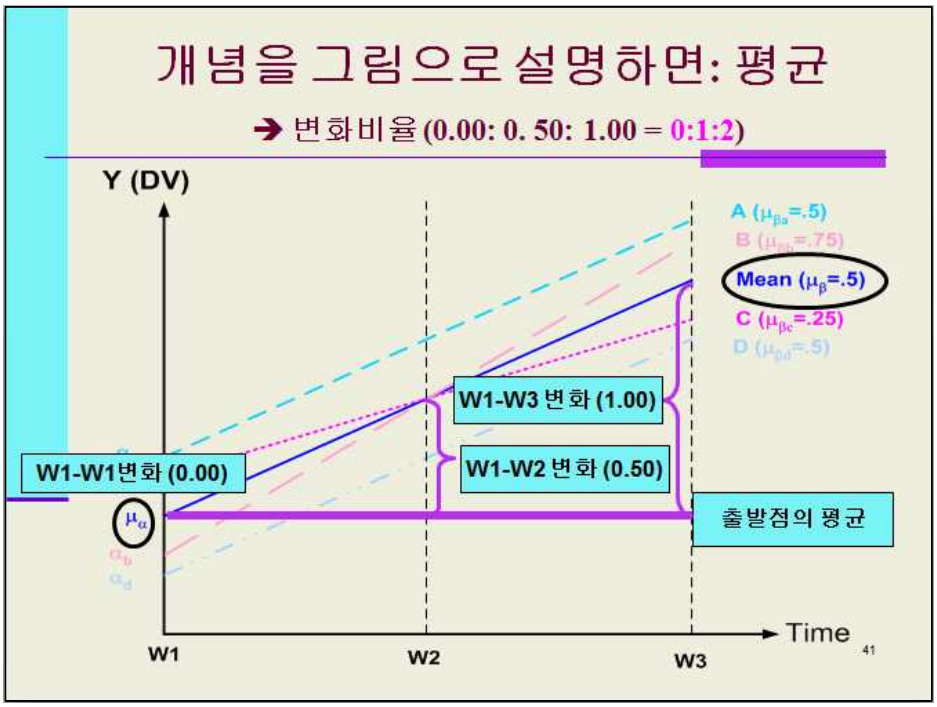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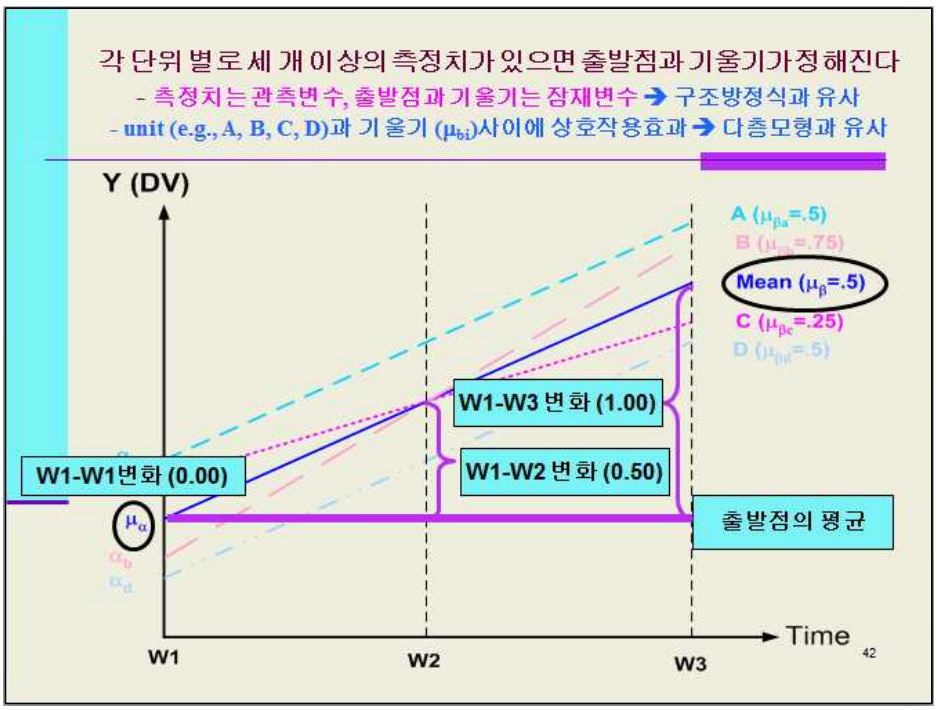
- 이러한 unit 별 Wave 별 측정치에 따라서 각각의 unit 에 대한 변화궤적의 회귀선이 도출될 수 있다.
  - 옆의 그림은 unit A, B, C, D의 변화궤적의 회귀선과 4궤적의 평균을 그림으로 도식화 한 것임
- 만약 B와 C의 두 개 단위만을 고려한다면
  - B단위는 출발은 (W1) 낮게 했으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했고
  - C단위는 출발은 (W1) 높게 했으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성장했다
  - 다층모형적 이해: unit과 시간에 따른 기울기 사이의 상호작용이 있다

38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C단위
➔ 변화비율 (0.00: 0.25: 0.50 = 0:1:2)
Y (DV)
A ($\mu_{\beta a}$=.5)
B ($\mu_{\beta b}$=.75)
Mean (μ_{β}=.5)
C ($\mu_{\beta c}$=.25)
D ($\mu_{\beta d}$=.5)
W1-W3 변화 (.50)
W1-W2 변화 (.25)
W1-W1변화 (.00)
출발점의 수준
α_c
μ_{α}
α_b
α_d
Time
W1
W2
W3
39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B단위
➔ 변화비율 (0.00: 0.75: 1.50 = 0:1:2)
Y (DV)
A ($\mu_{\beta a}$=.5)
B ($\mu_{\beta b}$=.75)
Mean (μ_{β}=.5)
C ($\mu_{\beta c}$=.25)
D ($\mu_{\beta d}$=.5)
W1-W3 변화 (1.50)
W1-W2 변화(.75)
W1–W1변화 (0.00)
출발점의 수준
α_a
α_c
α_d
Time
W1
W2
W3
40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평균
➔ 변화비율 (0.00: 0. 50: 1.00 = 0:1:2)
Y (DV)
A ($\mu_{\beta a}$=.5)
B ($\mu_{\beta b}$=.75)
Mean (μ_{β}=.5)
C ($\mu_{\beta c}$=.25)
D ($\mu_{\beta d}$=.5)
W1-W3 변화 (1.00)
W1-W2 변화 (0.50)
W1-W1변화 (0.00)
μ_{α}
α_b
α_d
출발점의 평균
Time
W1
W2
W3
41


각 단위 별로 세 개 이상의 측정치가 있으면 출발점과 기울기가 정해진다
- 측정치는 관측변수, 출발점과 기울기는 잠재변수 ➔ 구조방정식과 유사
- unit (e.g., A, B, C, D)과 기울기 (μ_{bi})사이에 상호작용효과 ➔ 다층모형과 유사
Y (DV)
A ($\mu_{\beta a}$=.5)
B ($\mu_{\beta b}$=.75)
Mean (μ_{β}=.5)
C ($\mu_{\beta c}$=.25)
D ($\mu_{\beta d}$=.5)
W1-W3 변화 (1.00)
W1-W2 변화 (0.50)
W1-W1변화 (0.00)
μ_{α}
α_b
α_d
출발점의 평균
Time
W1
W2
W3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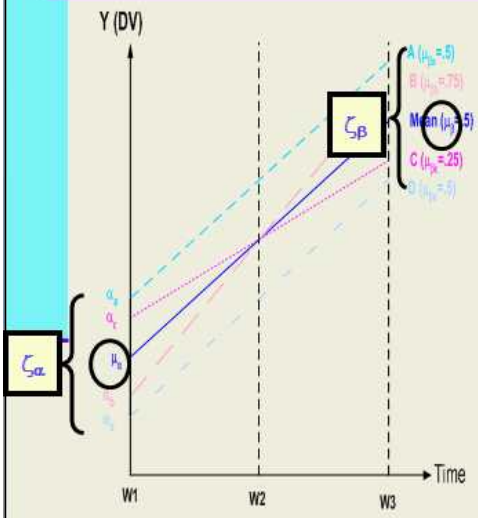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구조방정식적 이해

- 확인적 요인분석
  - 측정변수
    - 실제 관측된 값
  - 잠재변수
    - 실제 관측된 값을 토대로 **measurement error**을 고려한 상태에서 형성된 잠재변수
- 잠재성장모형
  - 측정변수:
    - **Wave 1, 2, 3** 에서 측정된 값
  - 잠재변수
    - **Wave 1, 2, 3**에서 측정된 값으로 형성되는 출발점과 기울기

그러므로, 잠재성장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잠재성장모형의 다층분석적 이해

(HLM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옆의 그림을 a, b, c, d 4개의 상위단위의 변화라고 하면
  - a, b, c, d 모두 W1, W2, W3의 하위단위 관측치를 갖는다.
  - a, b, c, d를 조직 같은 상위단위로 생각하면 4개의 상위단위는 각각 3개의 하위단위 측정치를 갖는다.

44

정리

- 같은 unit을 세 wave 이상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경우
  -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적 접근 가능
    - 측정변수 (각 wave 별 측정치)를 통한 출발점과 기울기의 잠재변수화
  - 다층모형을 이용한 잠재성장모형적 접근 가능
    - 2수준 unit 아래 반복적으로 측정한 wave 별 측정치가 nest 되어 있다.

45

잠재성장모형

1. 무조건부 모형 (Unconditional Model)
2. 조건부 모형 (Conditional Model)

잠재성장 모형의 연구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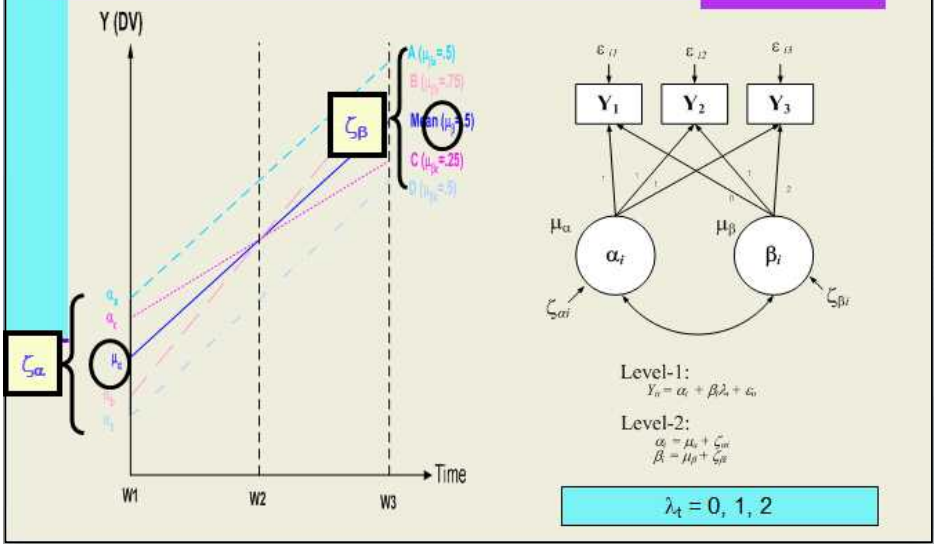
-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 **Q1:** 전체 집단의 변화궤적은 어떠한가**? (What is the trajectory for the entire group?)**
  - **Q2:** 각 개인별 궤적을 볼 필요가 있는가**?** 즉 궤적의 개인간 변량이 유의한가**? (Do we need distinct trajectories for each case?)**
- 조건부 모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 **Q3:** 변량이 유의하다면, 변량을 설명하는 예측변수들은 무엇인가**? (If so, can we identify variables to predict these individual trajectories?)**

47

무조건부 모형
(Unconditional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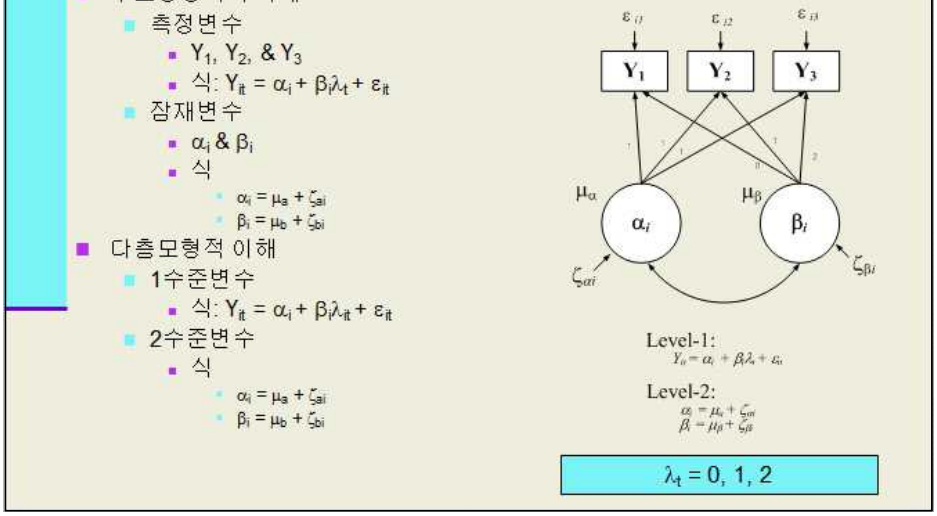
- **Q1: What is the trajectory for the entire group?**
- **Q2: Do we need distinct trajectories for each case?**

그림설명(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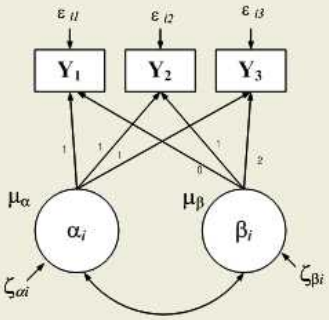


그림설명(1수준 모형, 2수준 모형)

- 구조방정식적 이해
  - 측정변수
    - Y_1, Y_2, & Y_3
    - 식: $Y_{it} = \alpha_i + \beta_i\lambda_t + \varepsilon_{it}$
  - 잠재변수
    - α_i & β_i
    - 식
      - $\alpha_i = \mu_a + \zeta_{ai}$
      - $\beta_i = \mu_b + \zeta_{bi}$
- 다층모형적 이해
  - 1수준변수
    - 식: $Y_{it} = \alpha_i + \beta_i\lambda_{it} + \varepsilon_{it}$
  - 2수준변수
    - 식
      - $\alpha_i = \mu_a + \zeta_{ai}$
      - $\beta_i = \mu_b + \zeta_{bi}$



그림설명 (통합모형)



Level-1:

$Y_{it} = \alpha_i + \beta_i\lambda_t + \varepsilon_{it}$

Level-2:

$\alpha_i = \mu_\alpha + \zeta_{\alpha i}$

$\beta_i = \mu_\beta + \zeta_{\beta i}$

통합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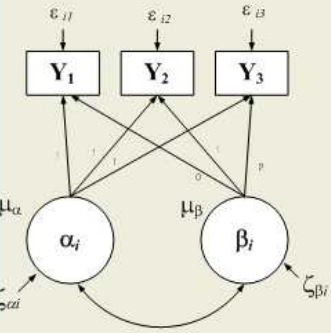
$Y_{it} = (\mu_\alpha + \lambda_t\mu_\beta) + (\zeta_{\alpha i} + \lambda_t\zeta_{\beta i} + \varepsilon_{it})$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그러므로, mixed effects model이라고도 한다

Unconditional Model 정리



Level-1:

$Y_{it} = \alpha_i + \beta_i\lambda_t + \varepsilon_{it}$

Level-2:

$\alpha_i = \mu_\alpha + \zeta_{\alpha i}$

$\beta_i = \mu_\beta + \zeta_{\beta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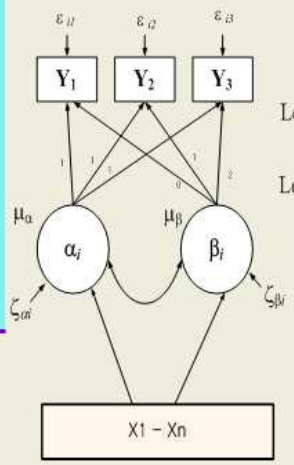
- 측정변수 (각 wave의 측정치)를 바탕으로 출발점과 기울기를 잠재변수화 (모수화)하는 과정
  - 출발점: 로딩 1,1,1을 통해서 Wave 2와 3에서 Wave 1이 갖는 만큼 출발점(α_i)으로 saturate 시킴.
    - 출발점의 평균이 μ_α
    - 출발점의 개인간 차이 (변량)가 $\zeta_{\alpha i}$
  - 기울기: λ_t (즉, 0,1,2)를 통해서 선형, 비선형 결정
    - 기울기의 평균이 μ_b
    - 기울기의 개인간 차이 (변량)이 ζ_{bi}
- 출발점과 기울기의 모수화 → 출발점(의 변량)과 기울기(의 변량)의 설명변수는?
- 그러므로, $\zeta_{\alpha i}$와 ζ_{bi} (즉 출발점과 기울기의 변량)이 유의해야 conditional model로 넘어갈 수 있다.

52

조건부 모형
(Conditional Model)

Q3: If so, can we identify variables to predict these individual trajectories?

조건부 모형
(Conditional Model)



- 연구질문:
  - 출발점 (α_i)의 변량(즉, $\zeta_{\alpha i}$)과 기울기 (β_i)의 변량(즉, $\zeta_{\beta i}$)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무엇인가?
- 접근법:
  - Unconditional Model을 통해서 α_i와 β_i의 변량이 유의한 것이 확인되면 설명변수 (X1-Xn)를 투입

➔ Conditional Model

54

아동패널 1, 2, 3차 년도를 이용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예

자존감의 궤적 분석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절차

- First Step (Unconditional model)
  - Estimates intercept (출발점 - α_i) and linear trajectory (기울기 - β_i)
    - The subsequent analyses sought to explain individual differences (i.e., random effects) in intercept (α_i) and linear trajectory (β_i) through the addition of the two types of predictors (i.e., fixed effects)
- Second step (Conditional Model)
  - Unconditional model에서의 intercept 와 기울기에 나타난 변량을 설명하려는 것.
  - 이론적 모형검증 (이론에 기반한 모형형성)
    -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were added to the Attrition Model.

56

Time-invariant 변수들

- 개념적
  - 개념적으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들
    - 예: 성별
- 실제적
  - 데이터상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변수들
    - 예: 아동 부모님의 학력, 아동 조부모의 소득, 등
  - 변하는데 변화의 속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변수
    - 예: 나이

57

Time-varying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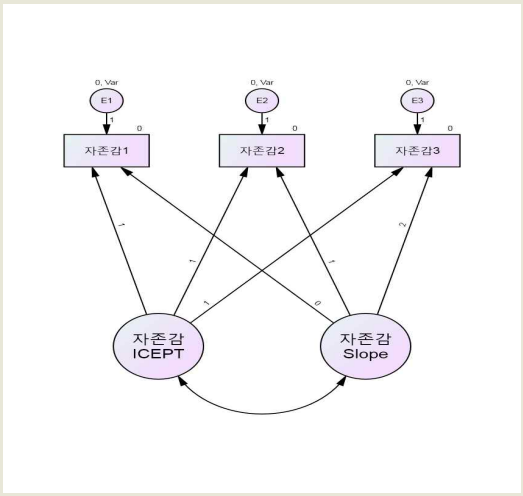
- 개념적
  - 개념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변수
    - 예, 건강, 소득, 등
- 실제적
  - Unconditional model 분석결과 기울기의 변화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58

무조건부 모형
(Unconditional Model)

구조방정식에서 척도모형을 보는 것과 유사
➔ 모형 적합도와 변량이 유의해야
Conditional Model 로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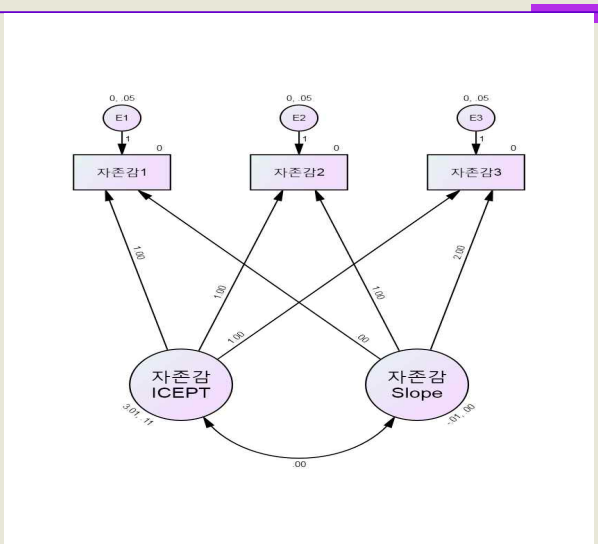
예: 자존감의 궤적
(무조건부 모형)



60

Input File 모형적합도

(IFI=.99; CFI=.99; RMSEA=.014) ➔ 모형적합



61

결과: mean

질문1: 궤적은 어떠한가?
Means:

해석

	Estimate	S.E.	C.R.	P
자존감_Int	3.01	.009	337.498	.00
자존감_Slope	-.01	.004	-3.40	.00

Covariances: (Group number 1 - Default model)

해석

			Estimate	S.E.	C.R.	P
자존감-Int	<-->	자존감-Slp	-.004	.002	-2.036	.04

62

결과: variance

질문 **2:** 변량은 유의한가?
Variances:

해석

	Estimate	S.E.	C.R.	P
자존감_Int	.115	.005	21.478	***
자존감_Slope	.005	.001	3.316	***

Slope 의 변량이 유의하므로
conditional model을 통해서 설명변수를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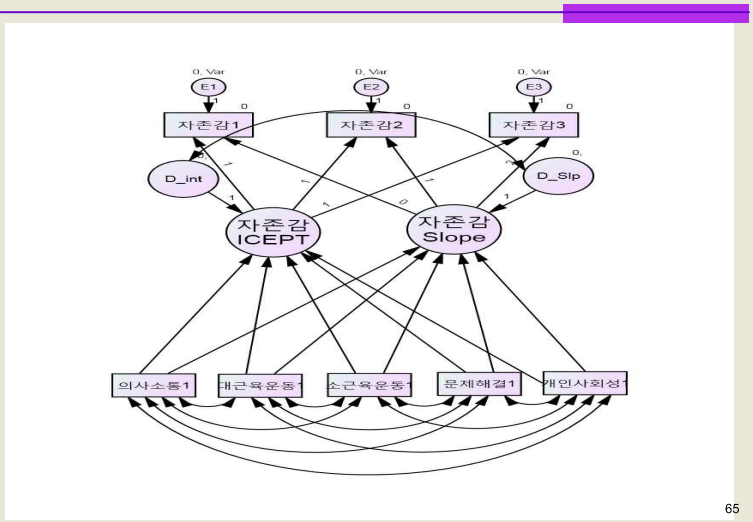
63

예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자존감 궤적의 조건부 모형

아동발달 변수와의 관계

Input File: Conditional Model

(IFI=1.000; CFI=1.000; RMSEA=.005) ➔ 모형적합



65

질문 3: 예측요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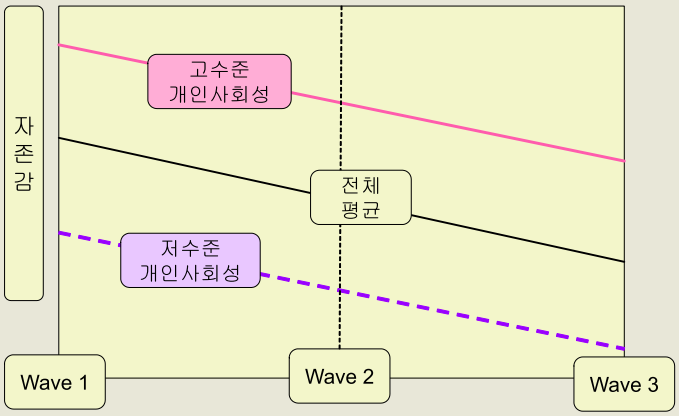
결과: Regression Weights

해석

			Estimate	S.E.	C.R.	P
자존감_ICEPT	<---	의사소통1	0.001	0.001	1.156	0.248
자존감_Slope	<---	의사소통1	-0.001	0.001	-1.649	0.099
자존감_ICEPT	<---	대근육운동1	0	0.002	0.22	0.826
자존감_Slope	<---	대근육운동1	0	0.001	-0.367	0.714
자존감_ICEPT	<---	소근육운동1	0	0.001	0.038	0.97
자존감_Slope	<---	소근육운동1	0	0.001	0.304	0.761
자존감_ICEPT	<---	문제해결1	-0.001	0.002	-0.546	0.585
자존감_Slope	<---	문제해결1	0	0.001	0.401	0.688
자존감_ICEPT	<---	개인사회성1	0.004	0.001	2.985	**0.003**
자존감_Slope	<---	개인사회성1	-0.001	0.001	-0.749	0.454

66

해석:
개인사회성 수준별 자존감 궤적



'개인사회성' 수준에 따른 자존감 궤적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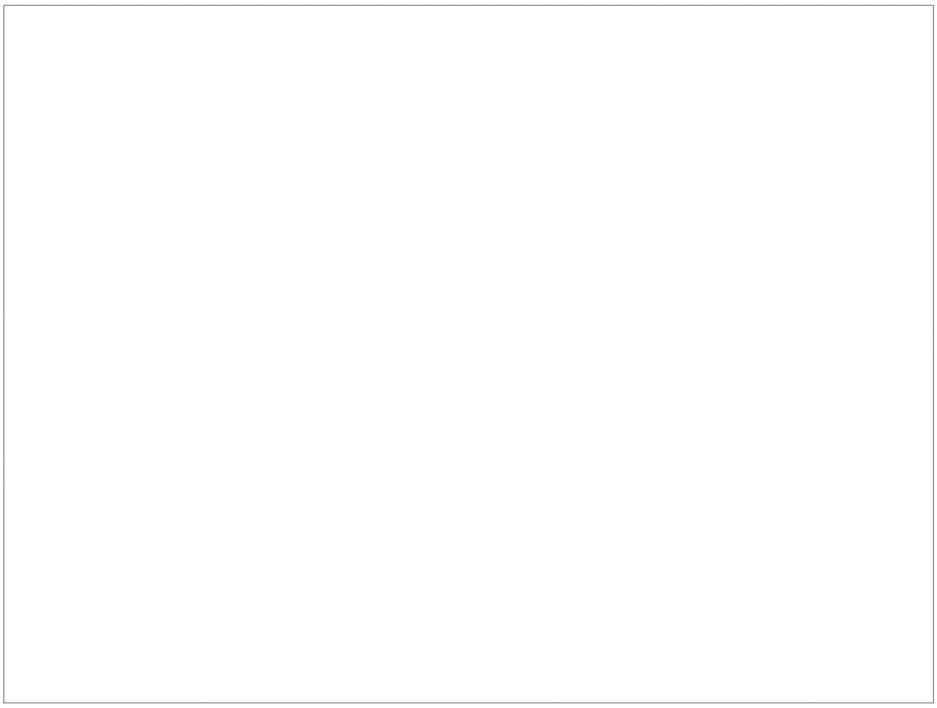
결론:
기존분석과 잠재성장모형 비교

- 시간에 따른 한 unit의 변화는 출발점에서의 변량과 기울기에서의 변량으로 구분된다

- 기존분석
  - 출발점과 기울기를 동시에 모수화 하지는 못함
  - 모수화를 못하므로 기울기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다.
  - Wave 간의 time interval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다.

- 잠재성장모형
  - 출발점과 기울기를 동시에 모수화 할 수 있다
  - 모수화가 가능하므로 출발점 및 기울기의 변량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을 살펴볼 수 있다
  - Wave 간의 time interval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하지 못한다.

68



◈ Session 1 ◈

제 1 주제

사회성 발달 관련 제요인 분석

사회: 우남희 (동덕여대 교수)

1.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조운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김영희 (한경대학교 교수)
   박지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3.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이일랑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Predicting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from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조운주[1] · 김은영[2]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individual backgrounds and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th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Data examining temperaments, parenting styles, and peer interaction from the total of 1,754 young children among participants of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re-analyzed. Results indicated that, in terms of the factors of individual background, girls exhibited relatively higher peer interaction scores than boys, and boys displayed higher scores of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The effect of birth order accounted for second child's higher play disruption. As to peer interaction in a relation with the effect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social and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emotionality of temperament, and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father were positively related to peer interaction and their effect size was 15%. In regard to peer disruption,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and father had a negative relation.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of tempera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and their effect size were 10.3%. With respect to peer disconnection, social parenting behavior of the mother and father was negatively related to and emotionality and activity of temperament were positively related to and their effect size were 13.3%. With the results given,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1) 한국교통대학교 교수(wjcho@ut.ac.kr)
2)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keycandy@kicce.re.kr)

Ⅰ. 서 론

또래 상호작용은 두 명 이상의 유아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교류를 의미한다(Acar, 2013). 유아는 걸음마기 시기에 또래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시작하여 점차 성장하면서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한다(Ramani, Brownell, & Campbell, 2010).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는 질서를 지키고, 돕고, 협동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배우며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게 된다. 더 나아가 또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정을 발달시킨다(Denham, 2007).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교육기관에 더 잘 적응하게 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또래 상호작용의 실패는 공격성, 수줍음, 부정적 자기 인식, 적응의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후에 부적응과 낮은 학업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Asher, 1990; Szewczyk-Sokolowski, Bost, & Wainwright, 2005). 이처럼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유아 시기의 정서·사회 발달과 도덕적 성장뿐 아니라 이후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특성,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다(Eivers et al., 2012. Acar, 2013. 재인용).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형제순위 등 한 개인의 배경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질은 사람, 사건, 상황 등의 환경에 대한 감각 민감성, 정서, 운동, 주의집중 등의 생물학적 반응 특성과 자기 조절 능력의 개인적인 차이이다. 기질은 반응 강도, 지속성, 한계, 회복시간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충동성, 분노와 좌절, 두려움, 슬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서적 특성들을 포함한다(국립국어원, 2013; Rudasill, 2011; Rothbart, 2012; Zenter & Bater, 2008).

기질을 연구한 Thomas, Chess와 Birch(1968)는 유아의 기질 특성을 활동성 수준, 리드미컬, 접근과 위축, 적응성, 반응의 한계, 반응 강도, 관심 주기와 지속성, 산만함, 기분 등으로 인식하였다. 유아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로 범주화하였다.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자주 강한 충동, 분노, 좌절, 두려움, 슬픈 행동을 나타내고, 쉬운 기질의 유아는 반대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Karreman, de Haas, Van Tuijl, Van Aken, & Dekovic, 2010. 재인용). Rothbart(1981)는 3-12개월 영아의 기질 특성을 활동

수준, 미소와 웃음, 지속성, 부드러움, 두려움, 제한에 대한 고통으로 제시하였다. Rothbart, Ahadi, Hershey와 Fisher(2001)는 3-7세 유아의 기질을 부정적 정서, 외향·긍정 정서, 자기조절로 제시하였다. Zentner와 Bater(2008)는 기질 특성을 행동 꺼림과 두려움, 짜증과 좌절, 긍정적 정서, 활동성 수준, 주의집중과 지속성, 감각 민감성으로 제안하였다. Putnam, Gartstein, Rothbart(2006)는 1.5~3세 유아의 기질을 부정적 정서, 외향·긍정 정서, 통제 노력 유형으로 제안하였다(Valles, 2012). 이러한 기질 특성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기질은 정서, 주의집중, 활동 수준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Berk, 2012).

이러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행동을 예언할 수 있다. 순하고 융통성이 있고, 집중하는 유아는 적응을 잘 한다. 한편,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외향적 행동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더 많이 상호작용하여 친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나, 자기조절이 낮을수록 방해행동, 놀이단절, 갈등이 증가한다. 통제조절이 높고 수줍음이 많은 유아는 공격성과 갈등이 적고, 감정이입을 잘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할 수 있다(황윤세, 2007; Acar, 2013; Degnan, Hane, Henderson, Moas, Reeb-Sutherland, Fox, 2011; Rudasill & Rimm-Kaufman, 2009; Struby, 2012). 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또래에게 더 많이 거부된다(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즉, 기질 특성 중 부정적인 반응, 높은 활동 수준, 적은 접촉, 부족한 과업 완수는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고, 낮은 활동 수준, 많은 접촉, 높은 과업 완수는 긍정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 기질 특성은 또래 뿐 아니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유아의 과제 지향적 기질이 높을수록 교사와 갈등이 적었으나 교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Oren & Jones, 2009).

기질 특성은 유전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출생 시 나타나서 아동기 중기까지 안정성을 보이며, 청소년 및 성인의 성격 특성의 기초를 제공하지만 발달함에 따라 변화한다. 즉, 기질은 생물학에 기반을 둔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받는다(Rudasill, et al., 2009; Karreman, et al., 2010). 사회적 환경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양육경험은 유아의 정서·사회적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는 유아의 발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소로 그 영향력은 유전과 부모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험에서 나온다. 부모의 양육방식과 믿음은 유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Eisenberg et al., 2006. Struby, 2012. 재인용).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부

정적인 개입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개입과 따뜻함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유능하게 돌봐주는 성인은 유아들의 융통성을 증진시키고, 심각한 행동장애의 발달 가능성을 감소시킨다(Oren & Jones, 2009). 연구에 의하면, 애정적 양육행동이나 긍정적 정서, 정서적 공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많았고, 유아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친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었다(윤현숙, 2007; 이영, 나유미, 1999; 정다우리, 2012; Cipriano & Stifter, 2010). 부모의 비판, 무시, 과잉 관섭이나 부정적인 통제와 같은 권위적인 양육, 따뜻함(미소, 웃음, 스킨쉽)의 부족은 유아의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Casas, Weigel, Crick, Ostrov, Woods, Jansen Yeh, Huddleston-Casas, 2006; Karreman etal., 2010).

이상 살펴본 것처럼 유아의 기질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된 관련 연구를 보면, 외국에서는 Karreman과 동료들(2010)이 36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기질과 양육행동, 문제행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Valles(2012)는 부모 양육과 기질의 중재에 따른 유아공격성을 연구하였다. Struby(2012)는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또래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David와 Murphy(2007)는 3-6세 유아의 부모와의 갈등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기질의 중재역할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숙과 임지영(2012)이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실행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이지희, 김혜연(2012)은 기질, 어머니의 정서표현 등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관련 변인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정옥분,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경은(2011)은 영아기 정서 및 기질, 양육태도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기질과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일부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다 대다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대다수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2.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매년 구축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대상 중 2011년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이다.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동은 총 1,754명으로 남아가 903명, 여아 851명이다. 응답자는 어머니가 99.3%로 대다수였고, 아버지는 0.4%, 친조부모 0.2%, 외조부모 0.1%, 친인척 0.1%이었다.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46.5%, 둘째42.2%, 셋째가 10.2%이었다. 아동의 연령은 조사일 기준으로 38개월이 27.3%로 가장 많았고, 39개월23.0%, 37개월 18.3%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

구분		사례 수	비율
성별	남아	903	51.5
	여아	851	48.5
응답자	부	7	0.4
	모	1741	99.3
	친조부모	4	0.2
	외조부모	1	0.1
	친인척	1	0.1
출생순위	첫째	816	46.5
	둘째	740	42.2
	셋째	179	10.2
	넷째	17	1.0
	다섯째	2	0.1

2. 연구도구

1) 유아 기질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는 유아 기질 조사도구로 Buss와 Plomin(1984)가 개발한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기질척도를 사용하였다. EAS 기질척도는 부모평정용으로 1세 영아부터 성인기까지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이다. 5점 척도이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구성은 <표 2>와 같다. 허미경, 이소은의 연구(2010)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서성 .82, 활동성 .73, 사회성.61이었다(부모용). 본 연구에서의 문항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50이다.

〈표 2〉 기질척도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역코딩)
정서성	잘 울고, 감정적이고, 쉽게 기분 나빠지고, 화를 내는지 등의 특성	5문항	2, 6, 11, 15, 19(5문항)
활동성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격렬한 활동을 보이는 특성	5문항	4, 7(역코딩), 9, 13, 17(역코딩)
사회성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	10문항	1(역코딩), 3, 5, 8, 10, 12, 14(역코딩), 16(역코딩), 18(역코딩), 20

2) 부모 양육방식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는 부모 양육방식 조사도구로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와 Pecheux(1996)의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의 세 가지 방육방식(사회적, 가르치기, 한계설정) 중 사회적 양육방식(social interaction) 9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복희, 이진숙, 이홍숙, 권희경(1999)의 연구를 참고로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 조사를 위해서 개발한 통제적 양육방식 8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 양육방식 조사도구는 총 17문항(4점 척도)으로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양육방식의 신뢰도 계수는 Bornstein(1996)의 연구에서

.68, 육아정책연구소(2007) 연구에서는 .75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 양육방식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3이었고, 사회적 양육방식은 .87, 통제적 양육방식은 .78이었다. 아버지 양육방식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82, 사회적 양육방식은 .88, 통제적 양육방식은 .81이었다.

〈표 3〉 부모양육 방식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사회적 양육방식	부모의 유아와의 놀이시간, 반응, 기본 욕구 만족, 관심, 융통성, 유아 욕구인식, 사회적 경험 제공 등의 양육방식	9문항	1, 2, 3, 4, 5, 6, 7, 8, 9,
통제적 양육방식	엄격한 예절,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 부모 순종, 규칙제공, 행동 제한을 통한 가정교육, 짜증 수용하지 않음, 공중도덕 준수, 공격행동 준수 등의 엄격한 훈육 방식	8문항	10, 11, 12, 13, 14, 15, 16, 17

3) 유아 또래상호작용

한국아동패널(육아정책연구소, 2011)에서 유아의 또래 유아상호작용은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1998)가 개발한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도구를 사용하였다. PIPPS 도구는 놀이방해,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의 3가지 하위범주로 문항 구성되어 있고, 30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범주와 문항 수는 <표 4>와 같다.

황윤세(2007)의 연구에서 PIPPS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놀이방해 .84, 상호작용 .82, 놀이단절 .84였다. 최인숙, 천은영(2005)의 연구에서 PIPPS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놀이방해 .79, 상호작용 .83, 놀이단절 .7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또래유아 상호작용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73이었고, 놀이방해 .73, 상호작용은 .80, 놀이단절 .81이었다.

〈표 4〉 유아 또래상호작용 범주별 내용 및 문항수와 문항번호

범주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역코딩)
놀이 상호 작용	친구와 생각 공유, 친사회적 행동, 대인간 기술, 자기통제, 언어적 주장 등 긍정적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9문항	1, 12, 18, 20, 22, 24, 27, 29, 30
놀이 방해	또래와 싸움을 하거나 불평·불만, 공격적 행동,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관련된 부정적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13문항	2, 4, 6(역코딩), 9, 11, 13, 14(역코딩), 15, 17, 19, 21, 25, 28
놀이 단절	놀이상황에 끼지 못하고, 배회하거나 또래에게 무시당하는 등 위축되고, 회피하는 등의 또래놀이와 관련된 행동	8문항	3, 5, 7, 8, 10, 16, 23, 26

3. 분석방법

SPSS PC 18.0을 활용하여 유아의 개인적 배경(성별, 형제 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차이에 대해서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기질 유형(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및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방식(긍정적, 통제적)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절차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는 2011년 6월 13일(조사대상 아동이 생후 만3세 이후 시점)에 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11월 19일에 완료하였다.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각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방식을 조사하는 설문지를 우편으로 각 가정에 송부하거나 웹을 통해서 부모가 자율적으로 완성하게 하였다.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방법

도구(내용)	주응답자	자료수집 방법
어머니 대상 질문지 (유아 기질, 어머니 양육태도, 유아또래 상호작용)	어머니	우편조사 또는 웹조사
아버지 대상 질문지(아버지 양육 태도)	아버지	우편조사 또는 웹조사

Ⅲ. 연구결과

1. 유아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자유도
또래 상호작용	남	843	30.36	4.30	-6.547***	1656
	여	815	31.73	4.26		
또래 방해	남	849	31.87	5.02	5.964***	1661
	여	814	30.39	5.08		
또래 단절	남	853	15.83	3.61	2.615**	1665
	여	814	15.37	3.54		

** $p < .01$, *** $p < .001$.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여아의 또래 상호작용은 평균 31.73(표준편차 4.26)로 남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평균 30.36(표준편차 4.3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547, p<.001). 반면 또래 방해는 남아(평균 31.87, 표준편차 5.02)가 여아(평균 30.39, 표준편차 5.0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또래단절도 남아(평균 15.38, 표준편차 3.61)가 여아(평균 15,37, 표준편차 3.54)보다 높았다.

유아의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기술통계와 분산분석의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형제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기술통계

독립변인	형제 순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또래상호작용	1(a)	776	31.15	4.42
	2(b)	698	30.96	4.14
	3(c)	165	30.92	4.61
	4(d)	17	29.83	5.35
	5(e)	2	33.00	4.24
	전체	1658	31.03	4.33
또래방해	1(a)	776	30.61	5.27
	2(b)	702	31.71	4.87
	3(c)	166	31.36	5.01
	4(d)	17	30.82	5.94
	5(e)	2	29.00	0.00
	전체	1663	31.15	5.10
또래단절	1(a)	776	15.75	3.61
	2(b)	705	15.48	3.48
	3(c)	167	15.37	3.76
	4(d)	17	16.65	4.26
	5(e)	2	15.00	1.41
	전체	1667	15.61	3.58

<표 7>에 의하면 형제순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은 다섯째(평균 33.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으로 나타났다. 또래방해는 둘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셋째, 넷째, 첫째, 다섯째 순이었다. 또래단절은 넷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형제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방해, 단절의 분산분석

독립변인	변산원(형제순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사후검증)
또래 상호작용	집단-간	48.62	4	12.16	0.65
	집단내	31073.62	1653	18.80	
	전체	31122.24	1657		
또래 방해	집단-간	463.71	4	115.93	4.49**(b>a)
	집단내	42794.61	1658	25.81	
	전체	43258.31	1662		
또래 단절	집단-간	56.22	4	14.06	1.10
	집단내	21296.05	1662	12.81	
	전체	21352.27	1666		

** $p < .01$.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또래 상호작용이나 또래 단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또래 방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첫째보다 둘째가 유의미하게 또래를 더 많이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행동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R^2 변화량	F
	(상수)	12.201					
또래	모의 사회적 양육	.287	.297	11.911***		.12	
상호	모의 통제적 양육	.161	.138	5.710***	.15	.021	67.01***
작용	유아기질의 정서성	.171	.081	3.421***		.006	
	부의 사회적 양육	.057	.062	2.550*		.004	

* $p < .05$, *** $p < .001$.

<표 9>에 의하면 F값이 67.01($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상호작용의 15%를 설명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은 12%이고, 여기에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첨가되므로 설명력이 2.1%로 증가하였고, 유아 기질의 정서성 추가되면서 0.6%,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면서 0.4%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방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 기질 및 부모양육태도가 또래방해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R^2 변화량	F
또래방해	(상수)	29.642					
	모의 사회적 양육	-.269	-.237	-9.502***		.068	
	유아기질의 사회성	.321	.145	5.820***	.103	.026	44.64***
	부의 사회적 양육	-.076	-.070	-2.825**		.004	
	유아기질의 정서성	.170	.068	2.740**		.005	

** $p < .01$, *** $p < .001$.

<표 10>에 의하면 F값이 44.64($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사회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또래 방해를 10.3% 설명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은 6.8%로 이었고, 여기에 유아기질의 사회성이 추가되므로 설명력이 2.6% 증가하였고,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므로 0.4%,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추가되면서 0.5%가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또래 방해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사회성과 정서성은 또래 방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어머니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 및 아버지의 양육방식(사회적 양육, 통제적 양육)이 또래 단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단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유아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또래단절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R^2	R^2 변화량	F
또래단절	(상수)	16.656					
	모의 사회적 양육	-.229	-.287	-11.718***		.094	
	유아기질의 정서성	.285	.163	6.857***	.133	.021	60.05***
	유아기질의 활동성	.241	.127	5.327***		.016	
	부의 사회적 양육	-.038	-.049	-2.016*		.002	

* $p < .05$, *** $p < .001$.

<표 11>에 의하면 F값이 60.05($p<.001$)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준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유아기질의 활동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또래 단절을 13.3% 설명하였다. 그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의 설명력은 9.4%이고, 여기에 유아기질의 정서성이 추가되므로 설명력이 2.1% 증가하였고, 유아기질의 활동성이 첨가되므로 1.6%,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추가되므로 0.2%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즉,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또래 단절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정서성, 활동성은 또래 단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표집한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개인적 배경 중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또래 상호작용은 여아가 높았고, 또래 방해와 단절은 남아가 높게 나타났다. 이지희와 김혜연(2012)의 연구, 문혜련과 엄정애(2009)의 연구, 박화윤, 마지순, 천은영(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고,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나 놀이방해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다. 또한 선행연구(김효정, 성소영, 2011; 송유진, 이연선, 2006; 이재연, 이완정, 2006)에서 놀이활동 시 여아들은 주로 협력과 배려 전략을 사용하고, 남아보다 또래에 대한 신뢰감과 의사소통 정도를 높게 지각하고, 민주형 리더십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 남아보다 언어발달과 심리적 성숙이 빠른 반면, 남아의 경우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비언어적 적대행동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지희, 김혜연, 2012; 장윤희, 2010)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형제순위에 따른 상호작용을 비교한 결과, 또래 상호작용과 또래 단절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또래 방해만 첫째보다 둘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수경(2009) 연구에서 형제순위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이나 사회적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형제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을수록 또래 유능성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기현주, 김희진, 2004)에 근거할 때, 형제순위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형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래와의 경험이 또래

관계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Howes, Rubin, Ross, & French, 1988)에 근거할 때 형제순위보다 또래와의 놀이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기질 및 부모의 양육방식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과 통제적 양육방식, 유아기질의 정서성,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의 설명력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의 설명력이 1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 공감, 온정·격려 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들의 상호적 또래놀이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윤현숙, 2007; 이진화, 2009; 정다우리, 2012; Cipriano & Stifter, 2010) 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도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긍정적 통제를 많이 할수록 유아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공격성을 덜 나타냈다는 선행연구(정옥본 외, 2011)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유아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래 방해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부적 영향을 미쳤고, 유아기질 중 사회성과 정서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3%의 설명력 중 또래 방해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의 설명력은 6.8%이고, 유아 기질 중 사회성의 설명력은 2.6%로 두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를 지지하며, 어머니가 한계설정 행동을 많이 할수록 놀이 방해 행동이 적게 나타난다는 연구(이진화, 2009) 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머니의 통제적 양육방식보다는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방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유아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 기질의 사회성이 또래 방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성 기질이 낮은 영아가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는 하지영과 서소정(2012)의 연구와는 상반되지만, 높은 활동 수준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Oren과 Jones(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사회성 기질

을 가진 유아가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하며 그만큼 또래와의 접촉 횟수가 많고, 이러한 결과로 또래방해 행동도 함께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아 기질의 정서성이 또래 방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적 반응표현이 격렬하고, 부정적 기분을 많이 지니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성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또래 간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이다(조영아, 김수영, 2009).

또래 단절의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부적 영향을 미치고, 유아기질의 정서성, 활동성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3%의 설명력 중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의 설명력은 9.4%이고, 유아기질의 정서성의 설명력이 2.1%로 두 가지 요인이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사회적 양육방식을 보일수록 또래 단절은 감소하는데, 이는 어머니의 자율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적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 기질의 정서성이 높을수록 또래 단절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유아의 기질 중 정서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높다는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와 일치한다. Szewczyk-Sokolowski 등(2005)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으로 까다로운 유아의 기질이 또래 거부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는 정서적으로 위축된 유아들은 사회적 두려움으로 인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정옥분 외, 2011). 한편, 유아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또래 단절이 많이 나타나는 결과는 활동성이 높고 외향적인 기질은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사회적 문제행동인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이지희와 김혜연, 2012)와 일관성이 있다. 이는 활발한 기질의 유아는 외향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자기조절이 낮아서 방해행동, 놀이단절,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황윤세, 2007; Acar, 2013; Degnan, et al, 201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기질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보다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영아의 기질은 다소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Asher, 1990; 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조절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강화하고, 부모의 긍정적인 조절과 따뜻함은 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완충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과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은 유아의 성, 형제순위, 기질에 따라 놀이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놀이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상호작용적 또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발달과 유아기 이후의 원만한 사회적 능력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진화, 2009), 기질은 그 자체로 아동의 상호작용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에 놓여있는가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하지영, 서소정, 2012), 이를 감안하여 유아의 특성에 따른 놀이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다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다.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유아의 기질과 아버지의 양육방식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놀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모교육은 이미 존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비롯한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놀이 방해와 놀이 단절 행동은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고(R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 Debnam, 1995, 박화윤 외, 2004, 재인용),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는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Asher, 1990; Szewczyk-Sokolowski, et al., 2005). 따라서 사회성 기질이 낮은 유아들의 놀이 상호작용이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적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한된 조사도구로 인한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특성에 따른 세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개별 특성,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이외에 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유아의 기질 특성에 따른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공영숙·임지영(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2**(2), 351-375.

기현주·김희진(2004). 어머니의 형제대우, 형제 상호작용, 그리고 또래 유능성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4**(4), 5-32.

김남숙··김미경(2011). 한국과 인도네시아 부모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과 또래 유능성 비교 연구. **비교유아교육연구, 21**(5), 149-170.

김효정·성소영(2011). 유아의 인기유형과 성별에 따른 리더십과 놀이성의 관계. **어린이미디어연구, 10**(3), 157-182.

문혜련·엄정애(2009). 만 5세 남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간 관계. **교육과학연구, 40**(2), 159-181.

박지영·강성단·권경숙(2010). 유아의 기질, 또래 유능성,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 ~ 162.

박화윤·마지순·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9), 285-298.

손유진·이연선(2006). 자유놀이에서의 남아와 여아의 담화전략 및 권력관계에 관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5), 269-290.

우수경(2009). 형제수, 형제 성구성 및 출생순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 능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367-388.

윤현숙(2007).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다중지능 그리고 또래놀이상호작용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1**(4), 389-405.

이재연·이완정(2006). 출생순위와 형제간 성별 구성에 따른 형제관계의 질과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2), 129-146.

이영·나유미(1999). 유아의 애착 및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 또래 상호작용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3), 19-32.

이지희·김혜연(2012). 유아기 긍정적·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이진화(2009). 어머니의 놀이긴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3**(2), 327-344.

정다우리(2012). 어머니 역할행동 및 창의적 가정환경과 유아의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79-97.

정옥분·박성연·윤종희·도현심·김경은(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조영아·김수영(2009). 영아의 기질 요인에 따른 영아-교사 간 애착 안정성 및 또래 간 상호작용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207-229.

최인숙·천은영(2005). 유아의 성격 유형에 따른 놀이 형태와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169-186.

하지영·서소정(2012). 영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141-166.

황윤세(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허미경·이소은(2010).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과 조화 적합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5**(3), 353-373.

Acar, I. H. (2013).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emperament and prosocial behavior(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braska.

Berk, L. E. (2012). *Child development.*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Inc.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Casas, J. F., Weigel, S. M., Crick, N. R., Ostrov, J. M., Woods, K. E., Jansen Yeh, E. A., & Huddleston-Casas, C. A. (2006). Early parenting and children's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the preschool and home contexts.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09-227.

Cipriano, E. A., & Stifter, C. A. (2010). Predicting preschool effortful control from toddler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1*, 221-230.

Degnan, K. A., Hane, A. A., Henderson, H. A., Moas, O. L., Reeb-Sutherland, B. C., & Fox, N. A. (2011). Longitudinal stability of temperamental exuberance and social-emotional outcomes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7*(3), 765-780.

Denham, S. A. (2007). Dealing with feelings : How children negotiate the worlds of emotions and social relationships. *Cognition, Brain, Behavior, 11*(1), 1-48.

Howes, C., Rubin, K. H., Ross, H. S.. & French, D. C. (1988).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1), 1-99.

Karreman, A., de Haas, S., Van Tuijl, C., Van Aken, M. A. G., & Dekovic, M. (2010). Rel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problem behavior in young childre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33,*

39-49.

Oren. M., & Jones, I. (2009).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 temperament,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eacher-child interaction.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2*(4), 122-132.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9*, 386-401.

Ramani, G. B., Brownell, C. A., & Campbell, S. B. (2010). Positive and negative peer interaction in 3-and 4-year-olds in relation to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1*(3), 218-250.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_____ (2012). Advances in temperament: History, concepts, and measures. In M. Zentner & R. L. Shiner(Eds.), *Handbook of temperament*. (pp. 3-20). NY: Guilford Press.

Rothbart, M. K., Ahadi, S. A., Hershey, K. L., & Fisher, P. (2001). Investigations of temperament at 3-7 years: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72*, 1394-1408.

Rudasill, K. M., & Rimm-Kaufman, S. E. (2009).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lity: The roles of child temperament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2), 107-120.

Rudasill, K. M. (2011). Child temperament,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from first to third grad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6*, 147-156.

Szewczyk-Sokolowski, M., Bost, K. K., & Wainwright, A. B. (2005). *Attachment, tempera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eer acceptance.* MA: Blackwell Publishing Ltd.

Struby, J. D. (2012). *Preschoolers. parents, and peers: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predictors of peer play*(Master's thesis). Appalachian State University.

Thomas, A., Chess, S., & Birch, H. G. (1968). *Temperament and behavior disorders in children*. New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ERIC Number ED025066)

Valles, N. (2012). *The moderating role of child temperament in the relation between harsh and deficient parenting and child aggressive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Zentner. M., & Bates, J. E. (2008). Child temperament: An investigative review of concepts, research programs and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Science, 21*(1), 7-37.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의 조절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Peer Play Behaviors Among Young 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Teacher Partnerships

김영희[1] · 박지현[2]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he parent-teacher partnerships on the peer play behaviors among young children. We use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800 3-year-old children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1, where the measurements are recorded by using PlPPS(Fantuzzo et al., 1998). The data is analyzed by the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nerships between parent and teacher in preschool settings are needed to be active in the contents as well as the type. Second, after controlling the young children's characteristics, the quality of the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he parent-teacher conferencing are associated with positive and negative peer play behaviors. Finally, the parent-teacher conferencing moderates the association between the quality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the peer play behaviors among young children. Therefore, the parent-teacher partnerships focused on teacher's close communication with parents are necessary for young children to improve their peer play behaviors positively.

1) 한경대학교(ykim@hknu.ac.kr)
2) 성균관대학교(parkjh05007@gmail.com)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사회에서 누리과정 및 무상보육의 시행 등 보육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조사(2011)에 따르면, 만 3세 유아의 67.5%가 어린이집 등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설, 2012). 이렇듯, 많은 유아들이 어려서부터 육아지원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며 자연스레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아에게 있어 또래는 사회적 강화자이고 모델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유아기에 또래와 만족스런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이후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정대현, 지성애, 2006; Hartup, 1983; Parker & Asher, 1987). 즉, 또래관계가 원만한 유아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적응을 잘 하며,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는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성장 후에 학교적응 어려움과 부정적 행동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학교집단 내의 따돌림, 소위 왕따와 같은 현상이 학령기 아동들에게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또래관계의 상당한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현상으로서(이미희, 이순복, 2013), 이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등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육아지원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아에게 보육교사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Howes, Matheson & Hamilton, 1993; Pianta, Nitmetz & Bennett, 1997). Birch와 Ladd(1997)는 친밀한 교사-유아관계는 유아가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반면에 교사와 갈등적인 관계를 경험한 유아는 외로움을 느끼며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교사-유아 관계를 친밀한 관계인 긍정적 측면과 갈등적 관계인 부정적 측면으로 양분하여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데, 윤수정과 신유림(2012)에 의하면 교사와 유아의 관계가 갈등적일수록 또래선호가 낮아지는 반면에 친밀감 정도가 높을수록 또래선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지희와 문혁준(2010)도 교사-유아간 안정적이며 친밀한 관계가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교사-유아간 양분된 관계 뿐 아니라 교사의 실천적 측면으로 유아

발달 과정에서 훈육하고 교수하는 교사의 역할과 같은 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의 중요성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다. 서유현(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유아에게 언어적으로 발달을 자극하고 개별화 반응이나 지도행동을 보일 때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수연(2000)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도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반면, 교사와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이 낮은 유아가 또래와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신혜영과 최혜영(2008)이 보육실내 교사-유아간 상호작용을 관찰한 결과, 교사가 유아와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거나 개입하지 않을 경우 보육실내 유아의 부정적 행동이나 목적 없는 행동이 증가함을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기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놀이행동의 맥락 안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래놀이행동은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 공격성과 관련된 놀이방해, 위축 적이며 회피적인 행동을 하는 놀이단절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Fantuzzo, Mendez & Tighe, 1998). 따라서 교사-유아간 온정적이며 반응적인 긍정적 상호작용의 정도, 즉, 상호작용의 질을 측정하고 질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서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두 제도간 상호연계의 맥락 속에서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학교간 영역중첩모델(Epstein, 1987)에 의하면 부모와 교사간 공동 목표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때 부모참여가 아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아동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부모참여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는데(El Nokali, Bachman & Votruba-Drzal 2010; Epstein & Sheldon, 2002; Galindo & Sheldon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다양한 참여행동을 탐색한 몇몇 연구들은 가정 내 학습활동이나 교사와의 면담, 자원봉사 등을 통한 학교단위 참여행동이 유아의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도(Lau, Li & Rao, 2011) 또는 또래놀이행동으로 측정한 사회적 유능성(McWayne, Hampton, Fantuzzo, Cohen & Sekino, 2004)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에 유아교육기관에서부터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유아교육 현장에서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장려하게

되면서 부모참여 프로그램이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었다(배지희, 2002). 그동안 국내의 연구들은 교사 및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참여의 형태, 요구도 등 실태를 파악하였는데, 최근 들어 부모참여를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여 가정과 유아기관의 협력관계(Family-school partnership), 즉, 부모와 교사 협력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강민정과 유희정(2012)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들은 기관과 밀접한 관계로 일관성 있게 그리고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이루어질 때 부모참여의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모-교사 간 양방향적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부모-교사 협력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나, 교사들은 가끔 유아발달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낮은 수준에서 정서적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임우영, 안선희, 2011). 또한, 부모-교사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많이 할수록 유아들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및 교사가 인식하는 부모-교사 협력의 형태는 어떠하며 어느 정도인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협력의 양상 또는 또래놀이행동과 관련된 부모-교사 협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교사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부모와의 협력 및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세 변인의 유기적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여 가설적 관계를 설정하고 그 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다른 변인 즉, 부모-교사 협력과 복합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말하자면, 부모-교사 간 협력정도가 높은 경우 협력정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의미 있게 상승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영향이 부모-교사 협력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한

다. 이때 종속변수인 또래놀이행동을 긍정적 놀이행동과 공격적이거나 회피적인 부정적 놀이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또래들 간의 놀이행동은 유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정선교, 안선희, 2006)에 따라 유아의 성과 연령을 통제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및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부모-교사 협력의 형태 및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교사 협력,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부모-교사 협력은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간 관계를 조절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4차 년도(2011)자료 중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만 3세 유아 8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 404명(50.5%), 여아 396명(49.5%)으로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편이며, 유아의 평균 월령은 38개월로 가장 낮은 월령은 35개월, 가장 높은 월령은 42개월이다. 조사대상 어머니는 48.6%가 취업(학업 포함)을 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 미만이 20.9%, 400-500만원 미만이 1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다니는 육아지원기관은 대부분이 어린이집(95.9%)이며, 유치원이 1.0%이다. 유아 담당교사의 최종학력은 고졸 13.3%, 전문대 졸 51.8%, 대졸 24.4%, 대학원 졸 1.5%이었으며, 대부분의 교사(96.9%)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담당교사의 재직경력을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재직 경력이 전체 중 85.0%로 가장 많았고, 기관별 재직기간은 어린이집 평균 59.10개월, 유치원 39.87개월, 반일제 이상 학원은 40.79개월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1)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은 Fantuzzo 등(1998)이 개발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 척도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국내 아동에 적용하여 검증한 교사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13문항), 놀이단절(8문항)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30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행동을 긍정적 측면(9문항)과 부정적 측면(21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측면에 대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긍정적 놀이행동 0.76, 부정적 놀이 행동 0.85이다.

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은 Bredkamp(1985)의 ECOI(Early Childhood Observation Instrument)중 Staff-Child Interaction과 Child-Child Interaction을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보육교사가 유아와 얼마나 온정적, 반응적이며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총 10문항의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3) 부모-교사 의사소통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에서 자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여 4문항을 측정하였다. 교사 보고식 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들간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값 .82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의 사회 인

구학적 배경 및 부모-교사 협력 형태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등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부모-교사 협력이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 변수를 구성한 후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그림을 통해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1. 부모-교사 협력의 형태 및 정도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모가 인식하는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와 부모 및 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참여 프로그램 유형, 참석정도 및 의사소통 정도를 분석하였다.

1) 부모의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

본 조사대상 부모가 인식하는 지난 1년간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월에 1-2회 19.1%, 월 1회 18.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 1회 이상 자주 방문하였다고 보고한 비율이 40.6%로 나타나, 과반수 정도의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기관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보고한 부모들의 응답비율 또한 15.5%로 꽤 높게 나타났다.

〈표 1〉 부모가 인식한 육아지원기관 방문빈도

단위:%(명)

구분	거의 방문안함	1년간 1~2회	반년에 1~2회	반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주 2~3회	무응답	계(수)
방문빈도	15.5	12.9	19.1	7.9	18.6	7.5	7.6	6.9	4.0	100.0(800)

2) 부모 및 교사가 인식한 부모참여 프로그램 유형 및 참석 정도

본 조사대상 육아지원기관은 지난 1년간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평균 6.47회(표준편차=9.06)실시하였는데, 이들 프로그램 중 부모들은 각종 프로그램에 평균적으로 1~2회 정도 참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부모 및 교사가 인식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부모 및 교사가 인식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유형

단위: 회, %

부모인식 참석횟수			교사인식 정도	
프로그램	평균(회)	표준편차	최다 참석 프로그램	빈도(%)
아동행사	1.84	1.18	아동 행사	43.9
담임교사 상담	1.72	1.71	자녀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	29.9
원장상담	1.60	1.41	부모교육 프로그램	2.9
부모교육프로그램	1.54	1.23	가정통신문 활용	21.3
기타	1.21	0.56	기타(기관운영의사결정, 자원봉사 등)	2.0
			전체	100.0

<표 2>와 같이 지난 1년간 조사 대상 부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은 소풍, 재롱잔치 등 아동관련 행사로 년 평균 1.84회(표준편차 = 1.18)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담임교사와의 상담 1.72회(표준편차 = 1.71), 원장과의 상담 1.6회(표준편차 = 1.41), 강연회, 워크숍 등부모교육 프로그램 1.54회(표준편차 = 1.2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가 가장 많이 참석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이 무엇인지 교사의 지각정도를 살펴본 결과, 아동관련 행사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생활과 발달에 대한 체크(상담, 공개수업 등) 29.9%, 가정통신문 활용을 통한 참여 21.3% 순이었다. 이는 부모와 교사 모두 기관에서 실시한 참여프로그램 중 아동관련 행사에 부모가 가장 많이 참석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회, 운영위원회 등 기관운영 의사결정이나 자원봉사 등에 대한 부모참여 정도를 높게 인식한 교사들은 2.0%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3) 부모-교사 의사소통

보육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조사한 결과 평균 4.43점

(표준편차=0.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교사가 부모와 가정통신, 전화 및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교사 의사소통,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과의 관계

연구문제 2인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교사 협력,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은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r = .20, p<.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부정적 또래놀이행동(r = -.22,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 증가하고 부정적 놀이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사 협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한 부모의 기관방문빈도 및 부모-교사 의사소통과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기관방문빈도는 또래놀이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부모-교사 의사소통은 긍정적 놀이행동(r = .18,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그리고 부정적 놀이행동(r = -.20, p<.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 증가하며 부정적 놀이행동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측정변수들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5	6	7
유아 성[a]	1						
유아월령	-.03	1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03	.03	1				
부모 기관방문빈도	.04	.01	-.03	1			
부모-교사 의사소통	-.01	.06	.51**	.01	1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20**	.09*	.20**	-.03	.18**	1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8**	-.01	-.22**	.02	-.20**	-51**	1
평균		38.2	42.3	3.9	17.7	27.3	40.9
표준편차		1.44	4.65	2.13	2.12	3.82	8.76

[a]dummy화(1=남)하였음.
* p < .05, ** p < .01.

3.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놀이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인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에서 부모-교사 협력이 조절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51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성 및 월령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함께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부모-교사 의사소통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4〉 유아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유아 성[a]	-.12***	-.12***	-.12***	.13***	.13***	.12***
유아월령	.02**	.02*	.01*	-.00	.00	.00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11***	.12***		-.13***	-.15***
부모-교사 의사소통		.06*	.08**		-.11***	-.14***
교사-유아 상호작용 × 부모-교사의사소통			.07**			-.12***
R^2	.043	.089	.097	.028	.095	.111
$\triangle R^2$	.041	.084	.091	.026	.090	.106
F	18.10***	19.32***	17.05***	11.53***	20.76***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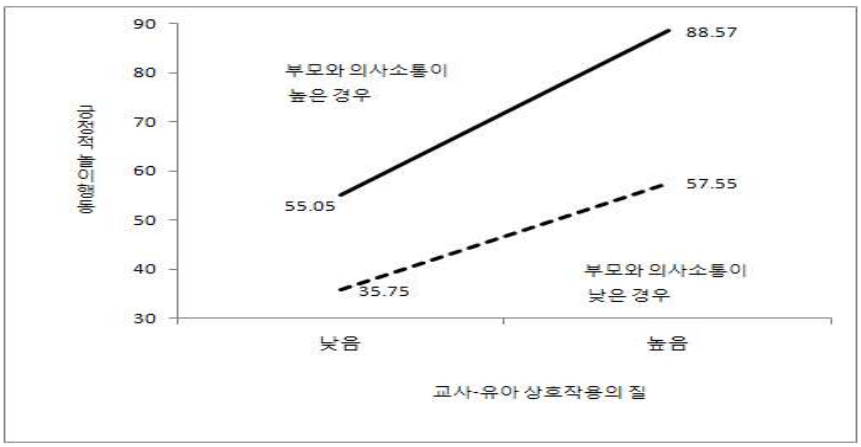
[a]dummy화(1=남) 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1단계 유아의 성과 월령을 투입함으로써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부모-교사의 의사소통을 추가로 투입하고, 3단계에서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시 독립변수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되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 값에서 각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4>의 왼쪽에 제시된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유아의 성(β=-.12, p<.001)과 월령(β=.02, p<.01)이 유의한 변

수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유아의 성과 월령을 통제한 후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β=.11, p<.001)과 부모-교사 의사소통(β=.06, p<.05)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단계보다 4.6% 증가한 8.9%였다(F=19.32, p<.001). 3단계에서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상호작용 효과(β=.07, p<.0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설명력 또한 2단계보다 0.8% 증가하여 9.7%를 나타냈다(F=17.05, p<.001).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유아 질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부모-교사 의사소통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표 4>의 오른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1단계에서 유아의 성과 월령이 2.8% 설명해 주었다. 2단계에서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β=-.13, p<.001)과 부모-교사 의사소통(β=-.11, p<.001)이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변수들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력은 1단계보다 6.7% 증가한 9.5%로 나타났다(F=20.76, p<.001). 3단계에서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변수가 1.6%의 추가 설명력(F=19.87, p<.001)을 가지며,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β=-.12, p<.001)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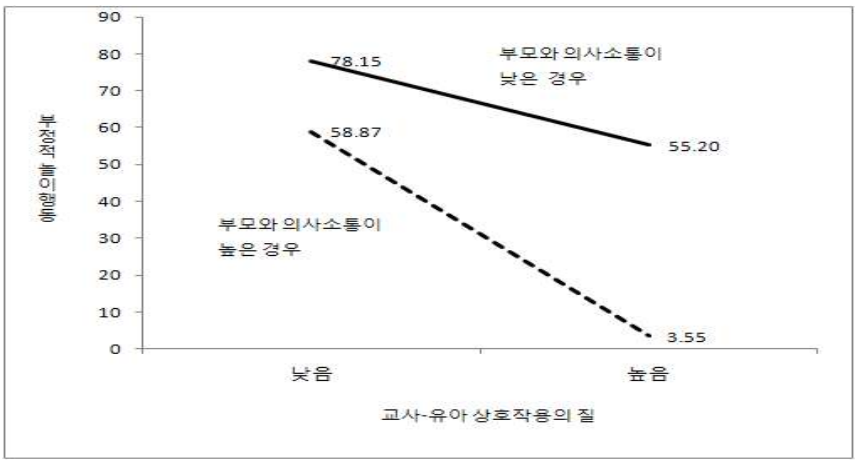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과 부모-교사 의사소통 점수 각각의 산술평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 변수의 2 표준편차만

큼 떨어져 있는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과 부모-교사 의사소통 점수를 구한 후, 이 값들을 위에서 추정한 회귀결과에 대입하여 각 경우에 해당하는 또래놀이행동 점수를 비교하였다.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그림 1]과 [그림 2]에서 두 직선의 차이로 나타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는 보육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 질의 향상에 따른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의 증가 또는 부정적 놀이행동의 감소를 나타낸다.

먼저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높을 때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부모-교사 의사소통정도가 낮은 경우 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도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35.75→57.55),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높아지면 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 질적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유아의 긍정적 놀이행동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55.05→88.57)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조절효과

[그림 2]에 의하면,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낮을 때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도 부정적 놀이행동이 감소하는(78.15→55.20) 폭이 완만했으나, 부모와 교사간 의사소통 정도가 높아지면 유아의 부정적 놀이행동이 감소하는(58.87→3.55) 폭이 보다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경우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놀이행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중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만 3세 유아 800명을 대상으로 또래놀이행동의 관련변인을 파악하고 관련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모-교사 협력의 형태 및 정도를 살펴보고,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 부모-교사 협력과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또래놀이행동을 긍정적 놀이행동과 부정적 놀이행동으로 구분한 후 보육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가 부모-교사 의사소통 같은 협력정도에 의해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에 따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 육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사가 인식하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는 꽤 높은 정도로 나타난 가운데, 부모가 인식하는 기관방문이나 부모참여프로그램 참석정도가 그에 못 미쳐 부모참여의 내용이나 형태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본 조사대상 부모의 40.6%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육아지원기관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였으며,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부모참여 프로그램에도 년 평균 1~2회 정도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부모 및 교사가 지각하는 참여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 교사 모두 소풍이나 운동회 등 아동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사와의 상담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관 및 참여수업, 개별면담 순으로 부모참여 경험을 보고한 강민정과 유희정(2012) 연구와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해진 부모면담 시간이외에 대부분의 담당교사들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접촉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부모와 정기적으로 자주 의사소통하고 있는 바, 교사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노력이 부모들의 다양한 인식 및 요구를 반영하여 양방향적 소통으로 연결된다면 협력적인 파트너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모참여의 형태와 내용 측면에서 보면, 보육교사들은 일일 교사 등 자원봉사나 부모회, 운영위원회 같은 기관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부모참석

정도가 매우 낮다고 인식하였다. 즉, 부모들은 기관업무의 협력자로서의 역할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특별한 행사 등 소극적인 유형에 더 많이 참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부모참여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주장(Powell, 1989)과 같은 맥락에서, 보육현장에서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정도가 자연스럽게 제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말을 이용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부모회, 운영위원회 등을 특정시간이외에 개별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기 초에 실시하는 오리엔테이션은 가정과 기관간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하여 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필히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지난 1년간 육아지원기관을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부모들도 15.5%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조한 방문빈도를 나타낸 대상자들의 부모참여 장애물을 살펴보고 기관과 접촉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주 기관을 방문하는 대상자와의 비교분석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교사와 유아간 상호작용의 질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대상 만 3세 유아들은 긍정적 놀이행동을 때때로 많이 하거나(M=27.3), 부정적 놀이행동을 거의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M=40.9) 분석되었다. 이처럼 또래집단내 긍정적 또는 부정적 놀이행동이 빈도는 차이가 있으나 자연스럽게 함께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교사가 유아와 양질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아의 말이나 행동을 자극하고 확장하는 칭찬을 하거나 갈등상황에서 적절한 개입을 보이는 등 긍정적 상호작용의 빈도를 늘리기 위한 적절한 교수전략이 중요하고, 이와 아울러 긍정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내 유아 수 등의 환경요인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정적이며 반응적인 질적 수준의 교사행동이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도와줄 수 있는 교사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셋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유아의 성과 연령이 유

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긍정적 놀이행동을 더 많이 하고, 남아는 여아에 비해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 같은 부정적 놀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정선교, 안선희, 2006)를 지지하는 것으로, 남아들이 놀이상황에서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성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예를 들어, 놀이방해 행동을 하거나 놀이집단에 참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유아들을 놀이상호작용 기술이 우수한 유아, 특히 남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부모와 교사와의 의사소통 정도가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의 긍정적 및 부정적 또래놀이행동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낮은 경우 교사-유아 상호작용 질의 높고 낮음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적은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교사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경우 긍정적 놀이행동을 증가시키거나 부정적 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효과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원만한 또래관계 등 자녀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위하여 부모-교사 의사소통을 통한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보호적인 역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즉, 자녀에게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양이나 종류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부모들이 보육현장에 얼마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협력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어머니 취업률이 늘어나고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가족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참여가 도전받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또한, 부모-교사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는 기관운영측면에서 가정과 육아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같은 사회적 발달과 적응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는 인식하에 육아지원기관은 부모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력관계를 통해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자 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보육현장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동등한 입장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부모참여 프로그램에 동참하도록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장지원, 2004), 정책적 지원면에서도 기존의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현실적으로 구체화한 부모와

교사의 효율적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변수에 대한 척도들을 보육교사가 평정하였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교사-유아 상호작용을 측정시 추후에는 측정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객관적 방법의 관찰평정도구 또는 기관평가 자료 등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모형이 횡단적인 방식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요한다. 향후 연구에서 누적되는 패널데이타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의 조절효과에 대한 인과론적인 검증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변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일에 제약이 있었다. 추후 교사 및 유아의 배경변인이나 기관의 특성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유아의 또래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전국적으로 표집된 대규모 자료를 사용하여 만 3세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관련변인들 간 복합적 관계에 대한 국가수준의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강민정·유희정(2012). 유아교육기관과 부모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위한 부모들의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50**(2), 25-38.

김은설 (편)(2012). **아동패널연구 2012 심층분석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배지희(2002). 유아교육과 부모참여의 의미와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탐구. **유아교육연구, 22**(4), 5-28.

박광배(2003). **변량분석과 회귀분석**. 서울: 학지사.

서유현(2002). 유치원에서 교사-유아 상호작용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신혜영·최혜영(2008). 유아의 부정적 행동 및 목적없는 행동에 미치는 교사변인

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4), 25-35.

안수연(2000).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난 교사-유아 상호작용과 유아-유아 상호작용.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윤수정·신유림(2012).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 또래선호 간의 관계에서 교사-유아 관계의 매개 및 중재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50**(5), 67-77.

이미희·이순복(2013). 동화를 이용한 갈등상황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마음이론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3), 293-306.

이지희·문혁준(2010).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임우영·안선희(2011). 유아교사-부모 협력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4), 323-350.

장지원(2004). 부모-교사의 협력적 관계형성 및 상호이해를 위한 부모참여 활동.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정대현·지성애(2006). 유아의 또래상호작용, 유아-교사관계, 다중지능과 초등학교 적응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6**(3), 201-221.

정선교·안선희(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학회지, 13**(4), 217-236.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놀이 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1), 61-79.

EL Nokali N. E., Bachman H. J., & Votruba-Drzal E. (2010). Parent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1*(3), 988-1005.

Epstein, J. L. (1987). Toward a theory of family-school connections: Teacher practices and parent involvement. In K. Hurrelmann and F. Kaufmann (Eds.), *Social interventio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121-136). Berlin: Walter De Gruyter.

Epstein, J. L., & Sheldon, S. B. (2002). Present and accounted for: Improving student attendance through family and community involv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5*, 308-318.

Fantuzzo, J., Mendez, J., & Tighe, E. (1998). Parental assessment of peer pla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 version of the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4), 659-676.

Galindo, C., & Sheldon, S. B. (2012). School and home connections and children's kindergarten achievement gains: The mediating role of family involvement.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 90-103.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P. H. Musse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New York: Wiley: (pp. 103-196).

Howes, C., Matheson, C. C., & Hamilton, C. E. (1993). The changing experience of child care; Changes in teachers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Early Child Research Quarterly, 8*, 15-32.

Lau, E. Y., Li, H., & Rao, N. (2011). Parental involvement and children's readiness for school in China. *Educational Research, 53*(1), 95-113.

McWayne, C., Hampton, V., Fantuzzo, J., Cohen, H. L., & Sekino, Y. (2004). A multivariate examination of parent involvement and the social and academic competencies of urban kindergarten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41*(3), 363-377.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Pianta, R. C., Nimetz, L., & Bennett, E. (1997). Mother-child relationships,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outcomes in pre-school and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263-280.

Powell, D. R. (1989). *Families and early childhood program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Marital Satisfaction and Conflict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김근규[1] · 이일랑[2] · 나종민[3]

Marital satisfaction-conflict is one of significant factors to influence o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is study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marital satisfaction-conflic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provided raw data dealing with marital satisfaction, conflict,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relationship.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descriptive statistics, corelation, and path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relation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conflict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toward asocial, disruptive, and aggressive behaviors. These peer conflict were each associated with more overt conflict behaviors by mothers and fathers. In addition, children's social representations of parent-child relations served as a mediator between marital satisfaction-conflict and children's concepts about conflict behaviors towards peers.

Ⅰ. 서 론

살아가면서 교우관계만큼 중요한 인간관계도 없다. 우리말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나, 서양속담 "새도 같은 깃털을 가진 친구와 모

1) Delaware State University (clintkim@gmail.com)
2) University of Florida (irtomato@gmail.com)
3) 국민대학교 (rems2002@gmail.com)

인다" 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친구는 십대 이후의 삶에서 부모보다 더 영향력 있는 대상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교우관계란 사람의 전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중의 하나로 교우관계는 동년배의 또래관계로 시작해서 연배가 높거나 낮은 폭넓은 친구관계로 이어지며 나중에는 나이와 성별이 상관없는 사회적 인간관계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사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화와 자살 및 학교폭력의 문제가 원만하지 못한 교우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렇듯 중요한 교우관계의 기본이 되는 인간관계의 틀은 가정에서 형성되고 보다 더 광범위한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해간다는 점이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간관계 기본적인 틀은 부모자녀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부모자녀관계는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부부관계를 유심히 관찰하고 모방하며 학습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면서 체계화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최근 선행연구에서도 가정변인과 유아의 교우관계의 연관성에 관한 사실들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우선 아버지관련 연구를 대표할만한 Parke과 그의 동료들(2001)과 부부공동육아의 주요연구자인 McHale(2007), 그리고 Cummings와 Davies(2002) 등은 공통적으로 부부간의 관계의 질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좋은지 나쁜지 여하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부부사이가 원만하고 화목하며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면 부모 자녀 관계역시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룰 개연성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Joorman & Gotlib, 2006). 반면, 부부사이 갈등이 심하고 폭언과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부모자녀 관계 역시 갈등이 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신체적-언어적 학대를 가하는 아버지들을 보며 자녀들은 학대받는 어머니를 측은하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동일시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고하고 있다(Cunradi, Caetano, & Schafer, 2002). 일찍이 프로이트는 성역할과 성정체성의 심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살부본능(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을 소개한 적이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얻고자하는 열망에서 비춰지듯이 아들은 아버지를 동경하고 흠모하는 모델링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아버지는 자신이 사랑하는 어머니

를 빼앗아가는 경쟁자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렇듯 어머니를 자신의 여인으로 지키고자하는 열망과 심리적인 기제가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발동하여 아버지에 대한 반항이나 반발심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만약 자신을 어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학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들이 심리적 기제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이러한 복수심을 가정 밖 교우나 또래관계에서 해소하게 되는 것이다. 여아의 경우도 학대받는 엄마를 보면서 자신도 엄마와 똑같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일시 현상을 여러 연구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Cunradi et al., 2002).

가정에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인으로 형제자매간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관계의 영향이 크지만, 형제자매간의 관계역시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한 자녀가정이 늘고 있어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가정이 한국의 가족구조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2009년도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가정의 56%이상이 두 자녀 내지는 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0대미만의 가정에는 36%). 형제나 자매관계, 혹은 오누이관계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어린 사람을 대하게 되는 행동양식과 인간관계의 패턴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자매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갈등을 화해로 잘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우위나 불평등한 관계가 지속이 되면서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게 되어 좌절이나 낙담의 심리적 기제가 무의식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족변인과 교우관계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도 이전에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연구주제였다(Cummings et al., 2002). 1990년도 중후반부터 Ladd를 비롯한 Cummings와 Davies 등 여러 연구자들은 유아들의 교우관계와 상호작용의 본질이 부부갈등을 포함한 가족 내에서 비롯된다는 가능성을 다루기 시작하였다(Parke et al., 2001). 가정변인 중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은 부모자녀관계를 비롯한 형제자매와 교우관계 모두와 깊은 연관된다고 밝혀졌다

(Stocker & Youngblade, 1999).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부부간 갈등이 적은 가정에서 자란 아동보다 교우관계에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Vandewater & Lansford, 1998). 여러 연구들 중에서도 특히 Cantrell과 그의 동료들(1995)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의 부모가 가정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한 폭력적이고 공격적 전략들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아동의 행동과 감정의 결과의 강한 지표임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언어적 분노, 신체적 공격행동 그리고 부부갈등의 다른 부정적 형태들은 아동이 교우관계에서 사회적 내면화(예: 내재적 잠재요인)와 외현화(예: 문제행동의 표출) 문제를 고조시키면서 불안과 슬픔, 공격성과 같은 고통과 외부세계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반응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Cummings & Davies, 2002; Grych & Fincham, 2001). 반면, 부모가 갈등상황을 협력, 상호간의 대화, 문제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통해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때, 자녀들의 부정적인 감정들은 줄어들고 대신 아이들은 긍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고 독립적이며 부모와의 오락 활동에도 더 많이 참여하고 놀이상황에서 부모와 많은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s & Davies, 2002).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다소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서 어떠한 갈등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우와의 갈등양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부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하며 두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배경과 범위를 넓히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Rubin, Bukowski, & Parker, 1998).

부부갈등과 교우관계 연구에서 유아의 초기 경험은 한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기대의 형식으로 내면화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행동의 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식(Schema)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만 한다. 소위말해서 도식은 한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지 잘 설명해주는데, 개인의 도식이 사회적 적응과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의 교우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이들이 사회적 도식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우선 가정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을 통해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의 틀을 형성해간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와 가정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학습은 아이들이 가정보다 더 큰 사회로 적응해 가는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Coie & Dodge, 1998; Ladd et al. 1993).

선행연구 중에서는 유아의 교우관계는 유아의 인지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연구들이 있다(Boivin & Hymel, 1997). Boivin과 Hymel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에서의 사회적 유능감(social competence)이 유아 자신의 인지적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부모와 가족관계에서 부정정인 인지표상을 가지고 있을 때, 교우관계에서도 고도의 집단 따돌림이나 사교능력의 부족,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McHale, Johnson 그리고 Sinclair(1999)는 미취학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계가 교우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는데 교우관계에서 갈등을 반복하는 유아들 중 다수는 가족변인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부부갈등이 아동의 기질과 성향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Davies와 Cummings(1994)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적 기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정서안정성 가설을 소개하였다. 정서안정성 가설은 부부갈등이 가족기능과 관련된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 정서적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은 또래집단속에서 정서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부모-자녀관계속에서 사회 정서적 안정감이 있다면 교우관계속에서도 갈등상황에서 가정에서 학습한 사회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Cummings & Davies, 1996).

Shamir 등(2001)도 엄마와 아빠의 부부갈등양상이 아이의 사회 정서적 안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꼽았다. 부모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보아온 아이들은 가족관계와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부모-자녀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특징을 보인다. 반면 가정 밖에서는 또래집단에서도 갈등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공격적 성향을 발산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부부갈등을 경험한 다른 그룹의 아이들은 교우간 갈등 상황에서 가정에서와 같이 불이익을 묵묵히 감수하거나 친구

들을 회피하는 등 수동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부모가 갈등상황에서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화해하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Ladd et al. 1993). 이러한 가족관계에서 획득된 긍정적 사회 정서적 안정감은 교우관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은 가정환경과 부모변인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아동의 기질 및 교우관계에서 또래갈등의 매개로써 아동의 내적 표상에 대한 아동의 사회 정서적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부부관계로 인한 아동의 사회 정서적 내적 표상을 평가하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유아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또래간의 놀이행동에서 놀이단절과 놀이행동, 그리고 놀이방해 행동등을 교우관계의 하위범주로 두고 조사하였다. 부모의 결혼 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정 관계와 이러한 관계에 대한 일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맥락은 부모변인과 자녀의 교우관계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포함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부부간 불화나 갈등의 요소는 자녀의 교우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며 아동의 성향 기질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아의 사회 정서적 내적 표상은 이미 Baron과 Kenny의 기준(1986)에 의해 평가 보고되었는데 부부갈등과 교우관계에서 또래 갈등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사이에서 매개요인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아이들의 교우관계에서도 놀이와 상호작용의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유아의 기질과 교우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부의 갈등은 아이의 기질과 교우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는 교우와의 놀이상황에서 부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차년도에 일반조사의 참여율은 1,754명이였으나 수집된 표본 중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결측치를 지닌 사례들을 분석에서 제외하는 방식(listwise deletion)을 사용하여 최종 1,609명 표본을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사용 변인

(1) 결혼만족도

부부관계를 설명해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인 결혼만족도는 결혼 생활 전반에 걸친 부부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규정되는 상호만족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Chung, 2004). Chung(2004)은 Schumm, Nicols, Schectman과 Grigsby(1983)이 계발한 결혼만족도 측정도구(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는데,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20점 사이 점수범위를 가진다. 문항의 신뢰도는 .93으로 알려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 α계수를 사용하였는데 결혼만족도에 대한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2) 부부간의 갈등

Markman, Stanley와 Blumnerg(2001) 개발한 척도를 정현숙이 6점 척도로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부부의 갈등을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연구에서는 5점리커드 척도로 된 8개 문항으로 수정하여 구성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8~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한국아동패널 연구에서는 Chronbach α는 .90으로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연구결과 분석과정에서도 이 척도에 대한 Cronbach α 도 .888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아이의 기질

아이의 기질은 부모용 EAS기질 척도로 서문희 외(2007)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는 정서성 (5문항), 활동성(5문항), 사회성(10문항)의 3개 하위범주로 구성되어있다. 아이의 기질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신뢰도 Cronbach α 는 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주지해야할 사실은 아이의 정서성은 아이의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성의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의 기질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또래집단간의 관계

또래집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Fantuzzo, Sutton-Smith, Coolahan, Manz, Canning, Debnam(1995)의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과 최혜영·신혜영(2008)이 국내적용을 한 자료를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이방해(13문항), 놀이상호작용(9문항), 놀이단절(8문항)의 세 개 하위범주로 나누어져있다. 각 문항은 최저 1점에서 최고 5점의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의미한다. 놀이 단절에 대한 문항은 8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Cronbach α 가 .7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놀이 상호작용은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Cronbach α 는 .79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놀이 방해는 12문항으로 이루어졌는데 Cronbach α 가 .76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SPSS 18.0과 Mplus 4.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SPS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경로계수 추정치 및 효과분석을 위해서 Mplus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남아는 821명(51.2%), 여아가 788명(49.0%)이다. 어린의 평균연령은 38.26개월이며 표준편차는 1.4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졸업이 10명(.6%), 고등학교 졸업이 474명(29.5%), 전문대 졸업이 422명(26.2%), 대학교 졸업이 620명(38.5%), 대학원 석사 졸업이상이 80명(4.9%)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으로는 대도시에 638명(39.7%), 중소도시 621명(38.6%), 읍면지역 350(21.8%)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많은 가정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 및 상관관계

<표 1>은 부부의 만족도, 부부간의 갈등, 아이의 기질(협동심, 사회성, 정서성), 또래와의 상호관계(놀이단절,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에 대하여 서술적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결혼만족도	14.96	2.91	-.67	.65
부부갈등	16.80	6.06	.631	.050
아이기질				
협동성	10.98	1.87	.359	.570
사회성	31.18	3.64	.095	.307
정서성	13.27	2.17	.387	.193
또래집단과의 관계				
놀이단절	15.59	3.55	.023	.255
놀이상호작용	30.27	4.34	-.326	1.01
놀이방해	29.03	4.70	-.21	.39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사이에는 부정적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나타나고 있다(r = -.69).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높으면 아이들의 놀이단절(r = -.15)과 놀이방해(r = -.15)를 줄이고 또래집단관의 상호작용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아이들의 협동성과 사회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갈등이 증가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놀이단절(r = .23)과 놀이방해(r = .22)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상호작용을 감소 (r = -.11)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결혼만족도 (1)	1.00							
부부갈등(2)	-.69**	1.00						
협동성 (3)	-.01	.08**	1.00					
사회성 (4)	-.01	.10**	-.18**	1.00				
정서성 (5)	-.41**	.67**	.21**	.20**	1.00			
놀이단절(6)	-.15**	.23**	.21**	.02	.24**	1.00		
놀이상호작용(7)	.11**	-.11**	-.11**	.15**	.01	-.36**	1.00	
놀이방해(8)	-.15**	.22**	-.01	.26**	.16**	.49**	-.08**	1.00

** $p < .01$.

3. 가설적 모형의 검정

1)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검정

가설로 제시된 경로분석의 모형은 just-identified 모형인 관계로 CFI, RMSEA 등 모든 모형 적합지수는 가설로 제시된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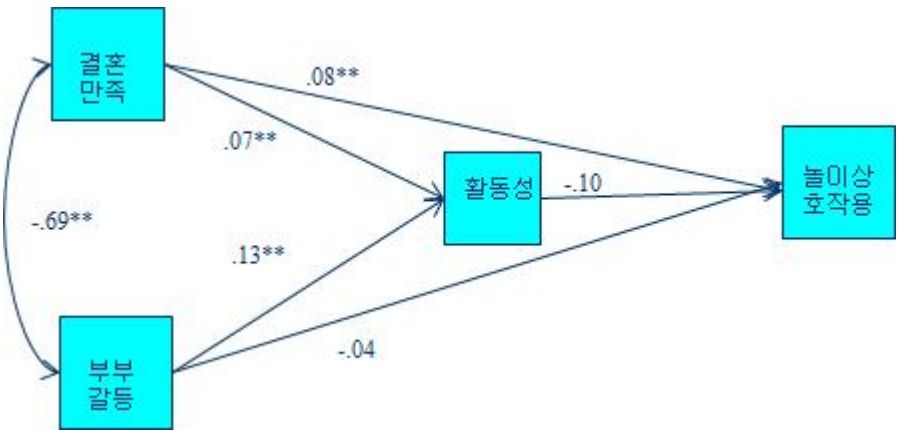
2)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1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모수를 추정한 결과로서 각 경로의 모수추정치(β)의 값을 중심으로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 도형(Path diagram)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아이의 기질 중 협동성과 부부간의 결혼만족

(β = .07, p < .05)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결혼 만족이 아이들의 협동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미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간의 갈등도 아이들의 협동성 기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 .13, p < .05).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아이의 협동적 기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결혼생활만족도는 아이의 놀이상호작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β = .08, p < .05).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아이의 놀이사호작용 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β = -.04, p >.05).



** p < .01.

〔그림 1〕 가설적 모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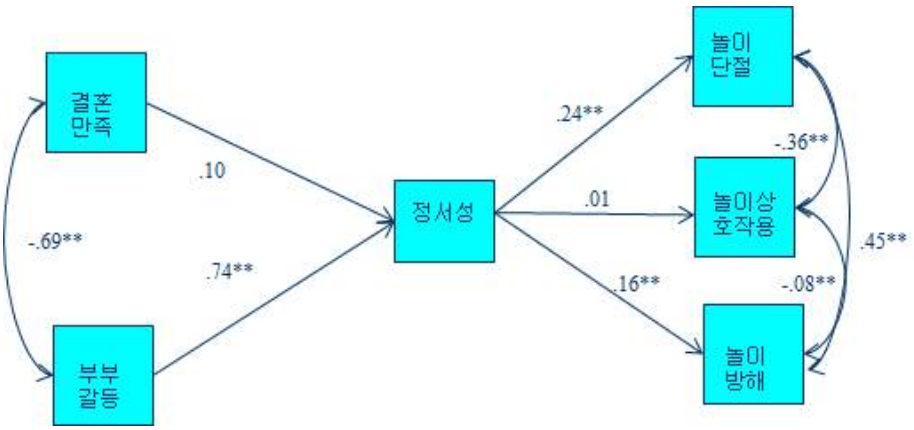
2) 가설적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2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적 모형에 대한 경로 도형(Path diagram)과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가설적 모형의 경로 추정치에서 아이의 기질 중 정서성[4](점수가 높을수록 아

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의미)과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다(β = .10, p > .05). 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아이들의 정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β = .74, p < .05).

부부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 아이의 정서성은 또래집단관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성이 높은 아이는 놀이의 단절(β = .24, p < .05), 놀이방해(β = .16, p < .05)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 p < .01.

〔그림 2〕 가설적 모형2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결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의 양상과 교우관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Stocker, Ahmed, & Stall, 1997)와 일치하고,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Cantrell et al., 1995; Erel, Margolin, & John, 1998; McHale et al.,

4) 정서성은 아이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

1999; Stocker & Youngblade, 1999; Vandewater & Lansford, 1998)과도 일치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족관계, 특히 부모의 결혼만족도가 자녀들의 활동성과 놀이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갈등을 경험하고 학습한 아이들이 교우관계 속에서 놀이단절이나 놀이방해 등 공격적인 성향이나 문제해결 능력의 부족 등으로 갈등의 양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사회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rockenberg & Langrock, 2001; Grych & Fincham, 1990)를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 중 Stocker와 Youngblade(1999)의 연구는 부부간의 갈등이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내적표상을 심어준다고 소개하였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부갈등을 통해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적대감이 자녀의 교우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눈여겨 볼만하다.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기질적인 측면, 즉 정서안정감 가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과분석의 가설모형2에서도 나타났지만 아이들의 정서안정감을 위협하는 부부간의 갈등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갈등상황(놀이단절과 놀이방해)의 재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질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 대해서는 가설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자녀의(긍정적) 활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갈등이 유아의 활동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가설과는 상반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러한 연구가설과 상반된 결과는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연구도구의 결함이 있거나 원도구를 번안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를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질문문항의 신뢰도나 데이터수집과정에서 어머니 한쪽만의 자료수집이 가지는 한계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부갈등연구도구를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부부갈등의 종류도 세분화하여 갈등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 중립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어머니 한쪽의 설문조사보다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도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연구결과는 갈등상황을 잘 극복하는 부부모형이나 결혼 만족도가 높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교우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재현이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교우관계에서 갈등상황을 직면할 때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학습한 부모의 갈등 양상과 해결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했을 때, 아이들은 교우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기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의 갈등상황 해결방식이 폭력적이고 일방적이라면 그러한 해결방식을 교우와의 갈등상황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자녀들의 교우관계에서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행동과 태도를 부정적인 해결방법과 양상, 긍정적인 해결방법과 양상, 중립적인 양상을 범주화하여 가정변인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러 교우관계에서 갈등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들 부모의 갈등양상을 살펴보고, 부부간의 갈등이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황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는 없는지 세세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우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상황을 재현하는 아이들에게 부부갈등 이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자녀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지만,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와 갈등을 부부변인 하나로 놓고 보았을 때, 부부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심층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혹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요소, 즉 부부관계, 가사의 문제, 육아와 교육 등의 요인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조사결과는 아동의 교우관계를 비롯한 사회 정서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위한 설명적 기제로서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가통계포털(2009). 전국출산력 및 보건복지실태조사. http://kosis.kr/nsikor/view/stat10.do

서문희·신나리·유은영(2007).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및 기능강화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여성가족부.

최혜영·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 행동척도(PIPPS-P)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학교폭력 청소년 문제와 정신건강. 서울: 한울.

Baron, R. M., & Kenny, D. A. (1986).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1182.

Boivin, M., & Hymel, S. (1997). Peer experiences and social self-perceptions: A sequential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3*, 135 - 145.

Cantrell, P. J., MacIntyre, D. I., Sharkey, K. J., Thompson, V. (1995). Violence in the marital dyad as a predictor of violence in the peer relationships of older adolescents/young adults. *Violence and Victims, 10*(1), 35 - 41.

Cassidy, J. (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 olds. *Child Development, 59*, 121 - 134.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Coie, J. D., & Dodge, K. (1998).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779--862). New York: Wiley.

Crockenberg, S., & Langrock, A. (2001). The role of specific emotions in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test of th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163 - 182.

Cummings, E. M., & Davies, P. T. (1996). Emotional security as a regulatory process in normal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23 - 139.

Cummings, E. M. & Davies, P. T. (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 31- 43.

Cummings, E. M., Goeke-Morey, M. C., Papp, L. M., & Dukewich, T. L. (2002). Children's responses to mothers' and fathers' emotionality and conflict tactics during marital conflict in the hom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478 - 492.

Cunradi, C. B., Caetano, R., & Schafter, J. (2002). Socioeconomic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coupl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377-389.

Davie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3), 387 - 411.

Erel, O., Margolin, G., & John, R. S. (1998). Observed sibling interaction: Links with the marital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4*(2), 288 - 298.

Fantuzzo, J. W.,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 105-120.

Grych, J. H., & Finchman, F. D. (2001).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Joorman, J., & Gotlib, I. (2006). Is this happiness I see? Biases in the identification of emotional facial expressions in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5*, 705 - 714.

Ladd, G. W., LeSieur, K. D., & Profilet, S. M. (1993). Direct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children's peer relations. In S. Duck (Ed.), *Learning about relationships: Under standing relationship process series.* Vol. 2 (pp. 152-183).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cHale, J. (2007). *Charting the bumpy road of coparenthood: Understanding the challenges of family life.* Washington: Zero to Three Press.

McHale, J., Johnson, D., & Sinclair, R. (1999). Family dynamics, preschoolers' family representations, and preschool peer relationships.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0*(3), 373 - 401.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1997).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Association with children's narrative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 284 - 294.

Parke, R. D., Kim, M., Flyr, M., McDowell, D. J., Simpkins, S. D., Killian, C. M., & Wild, M. (2001). Managing marital conflict: Links with children' 's peer relationships. In J. Grych &F. Fincham (Eds.),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development* (pp. 291--31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619--700). New York: Wiley.

Schuman, W., Nicols, C., Sche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 53*, 567 - 572.

Shamir, H., Du Rocher Schudlich, T., & Cummings, E. M. (2001). Marital conflict, parenting styles, and children' s representations of family relationship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 123--151.

Stocker, C., Ahmed, K., & Stall, M. (1997). Marital satisfaction and maternal emotional expressiveness: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s. *Social Development, 6*(3), 373 - 385.

Stocker, C. M., & Youngblade, L. (1999).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hostility: Links with children's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598--609.

Vandewater, E. A., & Lansford, J. E. (1998). Influences of family structure and parental conflict on children's well-being. *Family Relations, 47*, 323--330.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 -2511.

Warren, S. L., Emde, R. N., & Sroufe, L. (2000). Internal representations: Predicting anxiety from childrens' play narrativ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00 - 107.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Session 1 ◈

제 2 주제

육아환경과 언어발달 간 관계 분석

사회: 정미라 (가천대 교수)

1. **3세 아동용 간편 어휘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김영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홍경훈 (나사렛대학교 교수)
   김수진 (나사렛대학교 교수)

2.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찬화 (한국무역보험공사 kids-sure 어린이집 원장)
   이윤선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연구·훈련센터 센터장)

3. **유아의 기질과 언어발달과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이일랑 (University of Florida, Adjunct Faculty)
   김근규 (Delaware State University, Professor)
   나종민 (국민대학교 조교수)

3세 아동용 간편 어휘력검사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Screening Version of REVT for the Korean Children at age 3

김영태[1] · 홍경훈[2] · 김수진[3]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detect late-talkers or language delayed children of the age of 3, very few tests were developed to screen the at-risk language delayed children. Many researchers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arly intervention for those children at-risk in language development.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hildren's language tests in Korea is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VT). Since REVT is a comprehensive vocabulary test and covers wide range of ages, it is often used to test those children who had already showed some language problems. Thu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conduct 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screening version of REVT for the 3-year-old Korean children. The present study analyzed 1,754 data of 3-year-old children collected by KICCE(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 2011. Full version of REVT were administered with the participants. Data were rearranged in three versions: (1) full version of REVT-R(receptive version) or REVT-E(expressive version), (2) odd-half version, which consists of odd number items from REVT-R or REVT-E, and (3) even-half version, which consists of even number items from REVT-R or REVT-E. Results of the study showd that (1) the correlations among the three versions were very high; (2) all three versions showed a slightly positively skewed distribution; and (3)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versions except between the full version of REVT-R and the odd version of REVT-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 overall, odd-half or even-half version of REVT could be used to assess 3-year-old children's vocabulary abilities. However, further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test validity of these short versions of REVT by longitudinal study with catch-ups and language impairments(SLI).

1) 이화여자대학교(youngtae@ewha.ac.kr)
2) 나사렛대학교(ghun@kornu.ac.kr)
3) 나사렛대학교(sjkim@kornu.ac.kr)

Ⅰ. 서 론

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중재는 아동의 현재와 후일의 언어 결함을 최소화하고, 언어발달을 최대한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ossetti, 2001). 조기중재를 제공하기 위한 우선적 절차는 장애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별(screening)이다. 조기중재의 제공은 아동의 개인적 발달의 촉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와 국가의 다방면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영아들의 발달에 대한 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의 조기발견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와 장애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소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제공하고,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2013). 따라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 보육 및 교육 시설의 관련자들이 빠르고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발달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3세를 전후하여 영아기와 유아기를 구분한다(서소정 등, 2008). 3세 이전의 아동들 중 표현언어발달에서 지체를 나타내더라도 다른 발달 영역에서 뚜렷한 결함이 없는 아동들을 언어발달장애로 진단을 내기기 어렵다. 이는 3세 미만의 발달기는 개인차에 의한 정상적 변이(variability)의 범주가 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래수준 도달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직접적인 검사의 수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표현언어발달 영역에서만 지체를 나타내는 3세 전의 아동들을 '언어발달지체'나 '언어발달장애'로 진단하기보다는 '말늦은아동(late-talk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험군(at-risk)'으로 분류한다. '말늦은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이들이 3세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또래수준에 도달하지만(Paul, 1991; Rescorla & Schwartz, 1990; Rescorla, 2002), 이들 중 상당수(20-50%)가 지속적인 언어발달 지체나 결함을 나타내고, 4세 이후 단순언어장애(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로 진단되며, 후일 담화나 읽기와 같은 상위 언어영역과 학업

에서도 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ual, 1991; Rescorla, 2002; Girolametto et al., 2001; Leonard, 1998). 따라서 언어발달의 예후를 고려할 때 3세는 자연적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지속적인 지체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선별하여, 적절한 조기중재를 제공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아동들이 3세가 되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 본격적으로 노출되는 사회-환경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이 시기 이후부터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평가에서 보육 기관의 관련자들은 부모나 양육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아이들을 보살펴야 하며, 언어발달에 대한 비전문가인 보육 기관의 교사들이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별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언어발달 선별검사의 선택에서 실시의 '용이함'과 '소요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한국판 발달 선별검사들로 3세 아동의 언어영역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검사들로는 한국형 덴버II 검사(신희선, 한경자, 오가실, 오진주, 하미나, 2002),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장혜성, 서소정, 하지영, 2011), 한국판 DIAL-3(전변운, 조광순, 이기현, 이은상, 임재택, 2004),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KCDR-R)(김정미・신희선, 2011), 아동발달검사(K-CDI)(김정미, 신희선, 20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검사들은 언어영역뿐만 아니라 인지, 사회성, 적응/자조행동, 운동성 등과 같은 전반적 발달 영역을 평가하며, 넓은 검사연령대로 인하여 3세의 언어영역에 대한 검사문항은 극히 소수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언어발달에서만 지체를 나타내는 3세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부모보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부모보고 형식의 검사는 직접검사가 어려운 아동들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지적수준과 같은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고려하면, 양육자의 우리말 능력 등의 부모관련 요인들이 검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제한점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3세 아동의 언어발달 선별검사로 부모 관련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좀 더 언어에 중점을 둔 선별검사의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언어발달이 지체된 3세 아동의 선별을 위해서는 어휘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통사, 형태, 음운, 의미, 화용의 언어하위 영역들 중 3세 아동에게 직접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뚜렷한 지체나 결함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의미론 즉, 어휘이기 때문이다. 특히 표현어휘발달 수준이 '말늦은아동'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이들의 언어발달 예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하면, 어휘발달 선별검사의 유용성이 증가한다.

우리말을 사용하는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도구로는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5)가 있다. REVT는 2세 6개월의 아동부터 16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어휘검사로 여러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REVT는 선별보다는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검사로 사용하기에는 검사량(검사문항수)이 많아 검사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어휘 선별검사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량의 관련 문헌의 검증 및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검사 문항의 개발부터 예비검사를 통한 검사문항의 선별 그리고 표준화를 위한 대규모 검사 실시를 통한 자료 수집 및 통계 분석까지 방대한 시간과 금전적 비용 그리고 노력이 소요된다. 아직 우리말을 사용하는 영유아들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언어발달 선별검사가 없는 현실과 우리나라 언어치료 학문의 연구비 투자 실정을 고려할 때, 선별검사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예측력이 높은 선별검사를 개발하는 '최소의 비용을 통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최선일 것이다. 그러므로 REVT의 문항을 사용한 3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의 개발은 (1) 선별검사 개발에 필요한 다방면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 언어에 초점을 둔 선별검사이고, (3) 표현과 수용 어휘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휘 영역별로 지체 여부의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어휘뿐만 아니라 수용어휘에서도 지체를 나타내는 경우에 언어발달의 예후가 더 나쁘다(Thal et al, 2004; 홍경훈·김영태, 2005). 따라서 이런 아동들은 보다 즉각적인 진단과 조기중재의 대상자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표준화된 어휘검사도구인 REVT를 활용하여 가정이나 보육현장에서 비전문가가 쉽고 빠르게 3세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선별검사 방법과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육아정책연구소(2011년)에서 전국의 3세 아동 1,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REVT의 검사자료를 사용하여, 수용 및 표현 어휘 검사 영역별로 전체문항, 홀수문항 및 짝수문

항의 평균, 백분위 등의 규준 점수를 구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 및 차이를 분석하여 축소된 검사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그 활용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를 실시한 전체 대상은 1,754명이다. 이 가운데 다음과 같은 대상자 배제 조건(비동거 부부, 부모 장애, 아동 장애, 다문화 가정 아동)을 설정하고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대상자는 총 1,725명이다. 전체 아동의 월령 평균은 38.27개월(표준편차 1.75)로 80%가 37개월에서 40개월로 만 3세 초반이며, 42개월 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성비는 남아가 51%, 여아가 49%, 출생순위는 첫째가 46%, 둘째 이상이 54%이었다.

2. 연구도구

아동의 어휘발달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수용·표현어휘력검사(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 2009)를 이용하였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 능력과 표현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표준화검사이다.

수용어휘검사는 네 개의 그림 중에서 검사자가 말하는 어휘와 가장 일치하는 그림 하나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제이다. 품사별로 명사가 55%, 동사가 35%, 형용사 부사가 10%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수용어휘는 185문항이다.

표현어휘검사는 검사책자의 그림을 보고 이름대기를 하는 과제이다. 품사별 구성은 수용어휘와 유사하며 전체 문항 수 역시 185문항으로 같다. 표현어휘검사는 그림을 보고 목표어휘를 예상하여 산출해야 하는 검사의 한계성을 고

려하여, 문항별로 아동에게 최대 3회의 반응기회를 제공한다. 단 2차와 3차의 반응 기회 부여는 아동의 이전 반응이 검사문항의 그림이나 목표어휘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검사자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생활연령에 따른 시작 문항이 있으며, 문항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8개의 문항 가운데 6개의 문항이 연속적으로 틀리면 검사를 중지한다. 문항번호는 표준화 과정에서 난이도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검사를 중지한 문항을 최고한계선이라고 하며, 최고한계선 문항에서 틀린 문항을 제외한 숫자를 최종점수로 한다. 일반적으로 수용어휘검사가 끝나면 표현 어휘검사를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간편 검사는 두 가지로 편의상 '짝수검사' 와 '홀수검사' 라고 한다. 짝수문항만 채점한 점수는 짝수검사, 홀수문항만 채점한 점수는 홀수검사 결과라고 하였다. 전체 문항을 채점한 원래 점수는 '전체검사' 라고 하였다.

3. 검사 절차

육아정책 연구소 한국아동패널연구 2011년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원을 대상으로 REVT 검사도구 실시방법에 대한 설명과 실습 워크샵(3시간)을 수행하였다. 훈련을 받은 면접원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면접 전후로 아동에 대한 검사를 직접 수행하였다. 검사 수행과정은 검사도구의 원래 수행방법 그대로 기초선과 최고한계선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4. 자료 및 통계 분석

수용 및 표현 어휘검사의 각 문항별 점수는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으로 처리하고, 이를 총 합산하여 총점을 구하는 방식이었다. 채점 후 통계분석을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의 4차년도(2011) 자료를 SAS 9.3을 이용하여 수용 및 표현 어휘 점수별로 '전체검사' , '짝수검사' , '홀수검사' 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범위 그리고 분포도와 백분위 점수 등을 구하였다.

전체검사, 홀수검사 및 짝수검사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각 검사의 평균을 사용하여 피어슨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백분위 점수의

분포도를 사용하여 각 검사별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표현어휘 및 수용어휘 별로 전체점수의 절반과 홀수문항 점수, 짝수문항점수 세 가지 점수 간 차이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전체검사와 짝수검사 및 홀수검사의 평균과 상관

만 3세 아동 1,725명의 검사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수용어휘력은 29.80, 표현어휘력은 33.13으로 표현어휘력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짝수검사와 홀수검사는 각각 문항 중 절반을 채점한 것으로 수용은 16점, 표현은 15점, 대략 전체점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로 나타났다. 수용과 표현 모두 홀수검사의 점수가 약간씩 높았다.

〈표 1〉 수용표현어휘검사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전체 수용	33.13	15.90	0-95	전체 표현	29.80	13.80	0-69
홀수 수용	16.52	7.45	0-35	홀수 표현	15.14	7.13	0-34
짝수 수용	16.15	7.71	0-35	짝수 표현	14.24	7.16	0-34

전체검사와 짝수검사 및 홀수검사의 상관은 <표 2>와 같다. 전체검사와 짝수검사 혹은 전체검사와 홀수검사의 상관은 모두 .98로 매우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홀수검사와 짝수검사의 상관은 수용어휘와 표현어휘 모두 .93으로 전체검사와의 상관보다는 낮았다.

〈표 2〉 전체검사, 짝수검사, 홀수검사의 상관

	짝수 수용	홀수 수용		짝수 표현	홀수 표현
전체 수용	.98	.98	전체 표현	.98	.98
짝수 수용		.93	짝수 표현		.93

2. 수용어휘력

1) 기술통계

세 가지 형태의 수용어휘 검사점수의 평균값과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및 범위는 <표 3>과 같다. 전체 수용어휘 검사점수는 약 33점이며 짝수검사점수와 홀수검사점수는 절반인 16.5점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표 3〉 수용어휘 검사점수의 기술통계

	Mean	Median	Mode	SD	Range
전체 수용	33.13	32	35	15.90	95
짝수 수용	16.15	16	16	7.71	35
홀수 수용	16.52	16	18	7.45	35

2) 수용어휘 검사점수 차이 검정

세 가지 검사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검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세 검사점수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전체검사 점수는 산술적으로 반으로 나눈 값(전체절반검사 점수)과 홀수 문항만으로 구한 홀수검사 점수 짝수 문항만으로 구한 짝수검사 점수 세 값을 비교하였다. 짝수검사 점수와 홀수검사 점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절반 점수와 홀수 점수간의 차이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수용어휘 검사점수의 차이 검정

	평균	표준편차		F	p
전체절반	16.56	7.95	전체-홀수	1.14*	0.0068
홀수	16.52	7.45	전체-짝수	1.06	0.2066
짝수	16.15	7.71	홀수-짝수	1.07	0.1489

* $p < .05$.

2) 백분위 점수와 분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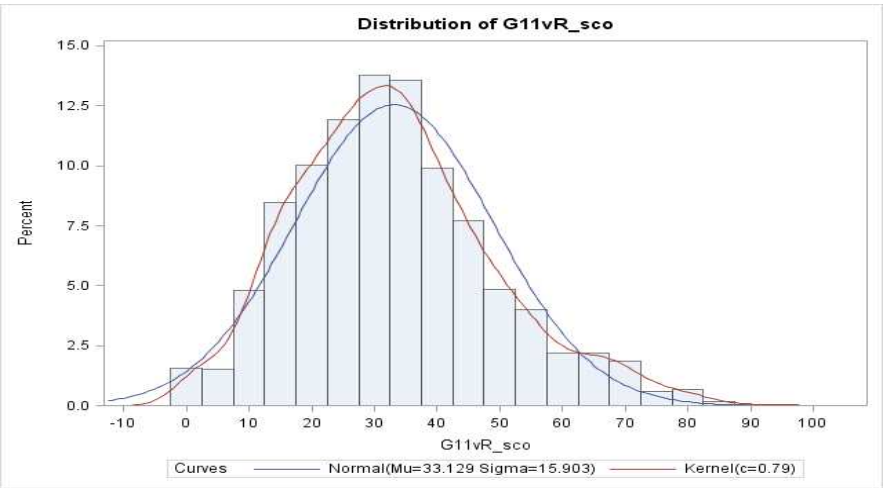
(1) 백분위 점수의 분포

세 가지 수용어휘 백분위별 점수 분포는 <표 5>,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다. 수용어휘 검사의 백분위 점사에서 20%ile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검사 점수는 19점이었으며 홀수검사 점수에서는 10점, 짝수검사 점수에서는 9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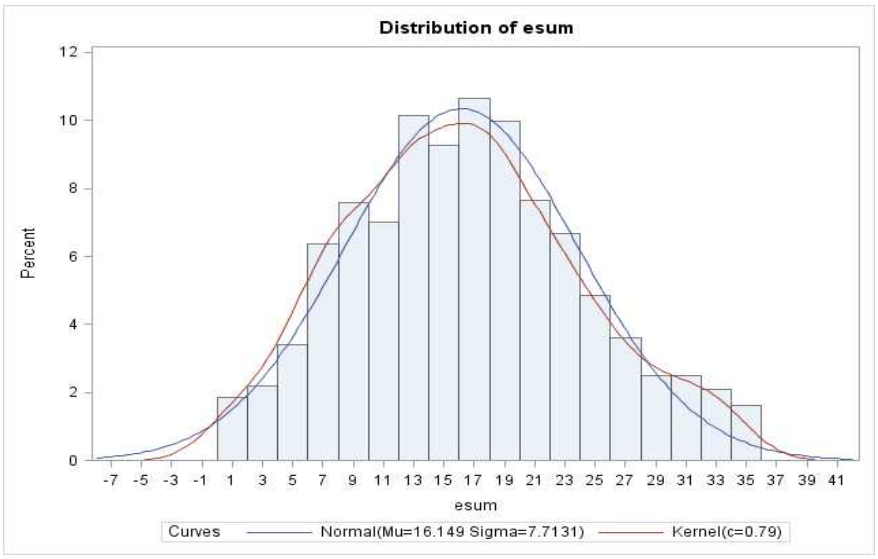
〈표 5〉 수용어휘 검사별 백분위 점수

백분위 (%ile)	100	99	95	90	75 (3Q)	50 (med -ian)	25 (2Q)	20	15	10	5	2.5	1	0
전체 검사	95	77	64	54	42	32	22	19	17	14	10	5	2	0
홀수 검사	35	34	31	27	21	16	11	10	9	7	5	3	1	0
짝수 검사	35	34	31	27	21	16	10	9	8	6	4	2	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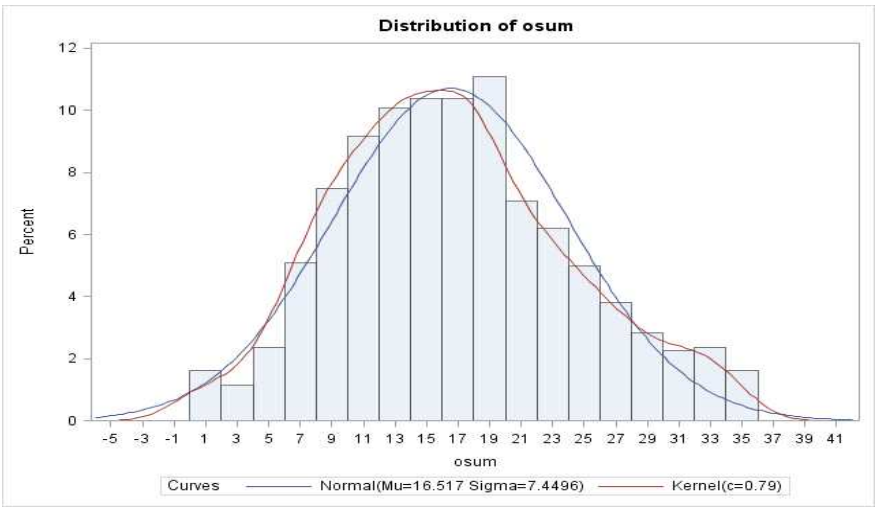
그림에서 막대그래프는 각 점수대역 별 빈도수를 의미하며 파란 선은 가장 근접한 정상분포이며 붉은 선은 실제 데이터 분포를 의미하는 커네트(Kernet) 커브이다. 세 가지 검사점수는 모두 정상분포가정을 위배하며, 정적편포(right skweness)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전체 수용 백분위 분포도



〔그림 2〕 홀수 수용 백분위 분포도



〔그림 3〕 짝수 수용 백분위 분포도

3. 표현어휘력

1) 기술통계

세 가지 표현어휘 점수의 평균값과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및 범위는 <표 6>과 같다. 전체 표현어휘 검사점수는 약 30점이며 짝수검사점수와 홀수검사점수는 절반인 14.9점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표 6〉 표현어휘 검사점수의 기술통계

	Mean	Median	Mode	SD	Range
전체 표현	29.80	13.80	0-69	13.80	69
홀수 표현	15.14	7.16	0-34	7.13	34
짝수 표현	14.24	7.13	0-34	7.16	34

2) 표현어휘 검사점수의 차이 검정

표현어휘 검사점수의 차이 검정결과는 <표 7>과 같다. 세 검사점수의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 수용어휘와 마찬가지로 전체검사 점수는 산술적으로 반으로 나눈 값(전체절반검사 점수)과 홀수 문항만으로 구한 홀수 검사 점수 짝수 문항만으로 구한 짝수검사 점수 세 값을 비교하였다. 세 가지 점수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7〉 표현어휘 검사점수의 차이 검정

	평균	표준편차		*F*	*p*
절반	14.90	6.90	절반-홀수	1.08	0.1151
홀수	15.14	7.16	절반-짝수	1.07	0.1631
짝수	14.24	7.13	홀수-짝수	1.01	0.8561

3) 분포도와 백분위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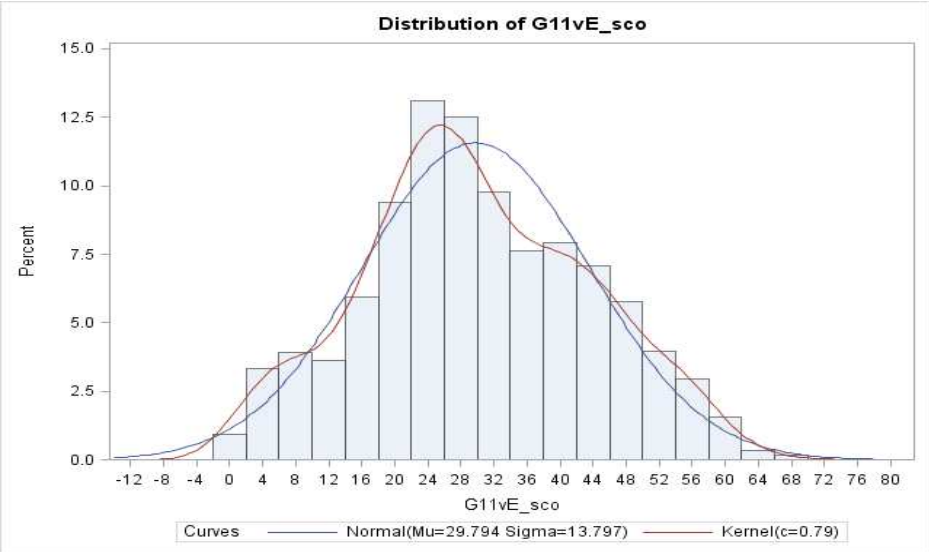
세 가지 표현어휘 백분위별 점수 분포는 <표 8>, [그림 4], [그림 5], [그림 6]과 같다. 표현어휘 검사의 백분위 점사에서 20%ile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검

사 점수는 19점이었으며 홀수검사 점수에서는 9점, 짝수검사 점수에서는 8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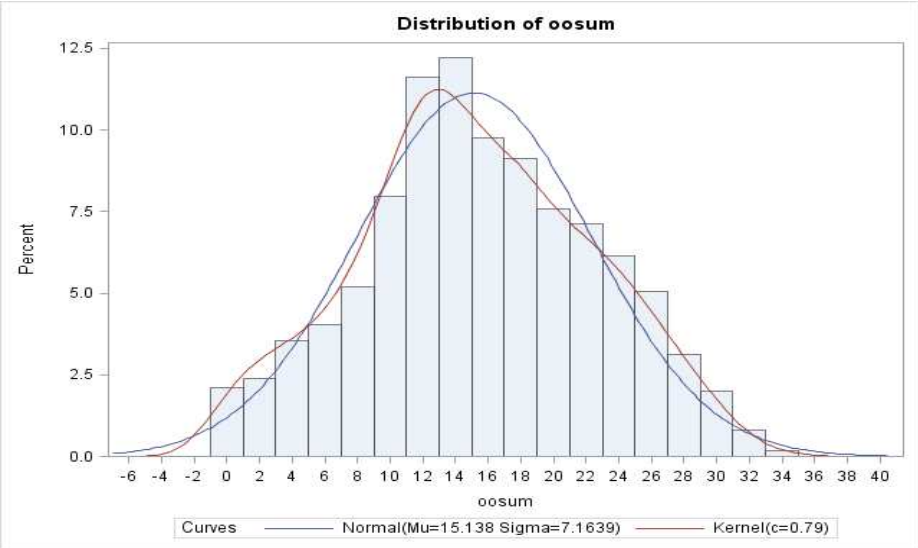
〈표 8〉 표현어휘 검사별 백분위 점수

백분위 (%ile)	100	99	95	90	75 (3Q)	50 (median)	25 (2Q)	20	15	10	5	2.5	1	0
전체 검사	69	59	54	49	40	29	20.5	19	16	12	6	4	2	0
홀수 검사	34	30	27	25	20	15	10	9	8	6	3	1	0	0
짝수 검사	34	30	27	24	19	14	10	8	7	5	2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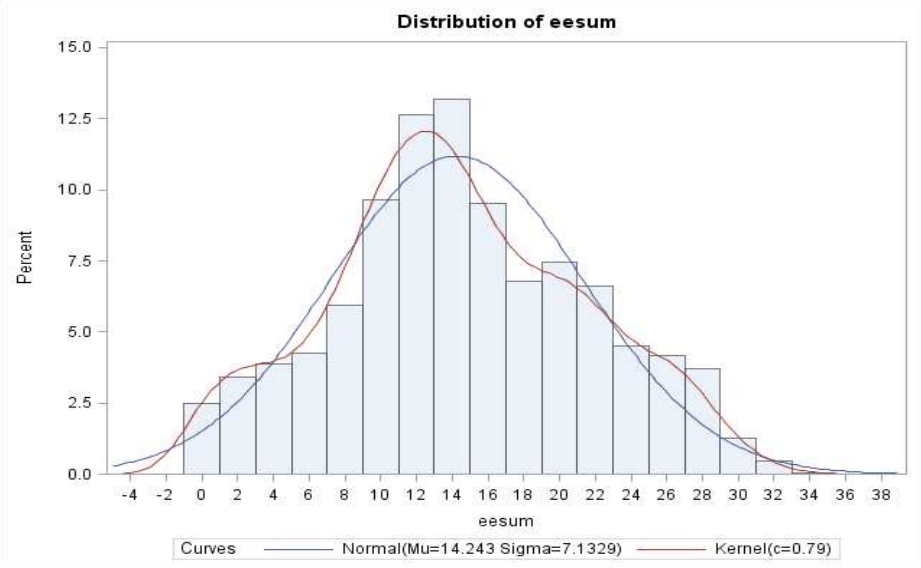
세 가지 표현 어휘검사 점수의 분포 역시 수용어휘 점수와 마찬가지로 정상분포 가정을 위배하였으며, 실제 데이터 분포는 약간의 정적 편포를 보인다.



〔그림 4〕 전체 표현 백분위 분포도



〔그림 5〕 홀수 표현 백분위 분포도



〔그림 6〕 짝수 표현 백분위 분포도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3세 아동들의 언어발달지체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간편 그림어휘검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5,00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REVT 전체 문항 중 짝수와 홀수 문항을 반분하여 따로 분리하고, 3세 아동 1,7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 간 상관도와 유의도 및 백분위 분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체 수용어휘검사와 짝수 또는 홀수 수용어휘검사(REVT-R) 간에는 .98의 매우 높은 상관도가 나타났으며, 전체 표현어휘검사와 짝수 또는 홀수 표현 어휘검사(REVT-E) 간에도 매우 높은 상관도가 나타났다. 이는 김영태 외(2009)가 REVT 개발을 위해 실시한 신뢰도 연구에서 보고한 학령전기의 수용어휘 반분검사 신뢰도 .940, 표현어휘 반분검사 신뢰도 .953보다 다소 높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짝수 검사나 홀수 검사 하나만으로도 전체 검사와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3세 선별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홀수검사와 짝수검사는 수용어휘 및 표현어휘 모두에서 두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홀수검사 또는 짝수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선별검사로 두 가지 모두 사용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전체점수를 반으로 추정한 수용어휘 점수와 홀수검사의 수용어휘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용어휘 점수에 있어서 홀수검사보다는 짝수검사가 좀 더 전체반분 점수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셋째, 수용어휘검사의 백분위점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짝수 및 홀수 수용어휘검사 모두, 전체 수용어휘검사에서와 같이, 약간 정적편포 경향을 보였다. 가장 근접한 정상분포 곡선과 비교할 때, 홀수 반분검사가 짝수 반분검사에 비해 다소 일치도가 높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넷째, 표현어휘검사의 백분위점수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수용어휘에서와 같이, 모두 약간 정적편포 경향을 보였다. 가장 근접한 정상분포 곡선과 비교할 때, 수용어휘검사에서와 같이, 짝수 표현어휘검사에 비해 홀수 표현어휘검사의 일치도가 다소 나은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차이는 그리 두드

러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적어도 3세 아동들을 위한 선별검사로 REVT 문항의 반분검사가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짝수 반분검사나 홀수 반분검사 모두 전체검사와의 상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각 검사의 짝수 대 홀수 반분검사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포도 분석에서는 홀수 반분검사가 다소 편차가 적게 나타났으나, 이 결과를 검사간 차이검증 결과와 종합하여 해석한다면, REVT-E 검사는 짝수 또는 홀수 반분검사가 모두 신뢰롭게 사용될 수 있고, REVT-R 검사는 홀수보다는 짝수 검사가 다소 신뢰로울 것으로 보인다.

REVT 검사는 검사대상 연령이 폭넓기 때문에 문항의 수가 많고, 그림책을 활용하기 때문에 검사도구의 양이 너무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반분 REVT 검사를 통해 '말늦은아동'을 선별할 수 있는 간편 어휘검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멀티미디어 및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요즘 세대들에게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그림어휘를 탑재하고 자동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어휘검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주연, 김영태(2009)가 중학생들에게 그림책으로 하는 개별검사와 교실 스크린을 통한 집단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수용어휘력검사에서는 검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현어휘력검사 간에는 검사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검사의 경우 집중력 통제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림책 대 스크린의 차이일 수도 있다. 따라서 3세 유아를 위한 개별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기기 검사의 타당도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타당도 연구가 뒷받침 된다면 자동화 평가를 통해 시간절약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간편 어휘검사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 어휘검사는 선별용으로만 사용하고, 일정 기준 미만의 아동에게는 정밀 언어진단평가를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언어발달지체 위험군 아동을 조기에 찾아내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선별검사들은 -1 표준편차 미만의 점수를 추가검사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대략 20퍼센타일, -1 Z-점수, 40 T-점수, 85 표준점수, 3 스테나인 점수 미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aul, 2001). 따라서 간편 선별검사에는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여 추가 진단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모두 3세

전반부 아동들인 점을 감안하여, 3세 후반부 아동에게는 좀 더 엄격한 선별기준(예, 25퍼센타일)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REVT 전체검사는 4-6세의 일반 아동과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변별 타당도 검증이 보고되었으나(김영태 외, 2009), 3세 아동에 대한 집단비교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3세용 간편 어휘선별검사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언어발달 위험군에서 정상으로 발전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하고 언어장애로 머무르는 아동들에 대한 후속 타당도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교육부(20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 교육부.

김영태·이주연·홍경훈·김경희·장혜성(2009). 수용·표현 어휘력검사(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의 타당도 연구: 취학 전 언어발달지체아동을 중심으로. **언어치료연구, 18**(1), 57-72.

김정미·신희선(2011).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CDR-R).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김정미·신희선(2012). 아동발달검사(K-CDI).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2011년). http://www.kicce.re.kr

서소정·하지영·장혜성(2008). 0-36개월 영아발달선별 검사도구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5), 13~30.

신희선·한경자·오가실·오진주·하미나(2002). 한국형 덴버II 검사. 서울: 현문사.

이주연·김영태(2009). 청소년 어휘검사에 있어서 개별검사와 집단검사 방법 간의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8**(1), 129-143.

장혜성·서소정·하지영(2011).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전변운·조광순·이기현·이은상·임재택(2004). 한국판 DIAL-3,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홍경훈·김영태(2005). 종단연구를 통한 '말늦은아동(late-talker)'의 표현어휘발달예측요인분석.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0*(1). 1~24.

홍경훈·김영태·김경희(2009). 수용·표현 어휘력검사의 개발연구: 문항개발 및 신뢰도 분석을 중심으로.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4*(4), 34-45.

Girolametto, L., Wiigs, M., Smyth, R., Weitzman, E., & Pearce, P. S. (2001). Children with history of expressive vocabulary delay: Outcomes at 5 years of age. *American Journal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10*, 358-370.

Leonard, L. B.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The MIT Press.

Paul, R. (1991). Profiles of toddlers with slow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1*(4), 1-13.

Paul, R. (2001).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2nd ed.).* St. Louis, MI: Mosby.

Rescorla, L. (2002). Language and reading outcomes to age 9 in late-talking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5*, 360-371.

Rescorla, L., & Schwartz, E. (1990). Outcome of toddlers with specific expressive language delay. *Applied Psycholinguistics, 11*. 393-407.

Rossetti, L. M. (2001). *Communication intervention: Birth to three.* NY: Singular, Thomson Learning, Inc.

Thal, D. J., Reilly, J., Seibert, L., Jeffries, R., & Fenson, J. (2004).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at risk for language impairment: Cross-population comparisons. *Brain and Language, 88*, 167-179.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기 자녀의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Depression on Children's Vocabulary Development during Early Childhood

박찬화[1] · 이윤선[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children's book reading and vocabulary development. The subjects were 1033 pairs of 36 to 41 months 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They belonged to the 2010-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 large population-based stud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Maternal depression was measured with K6 (Kessler et al., 2003). EC-HOME was used to assess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the minutes of children's book reading was reported by par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path analysis of maternal depression influencing children's vocabulary revealed two different patterns: (1) Earlier maternal depression was directly associated with later maternal depression and indirectly influenced children's expressive vocabulary development through the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But this pathway was not expected to children's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2) Later maternal depression affected by earlier maternal depression contributed to both children's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via the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and child's book reading.

1) 한국무역보험공사 kids-sure 어린이집(chanhwap1014@hanmail.net)
2)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 · 훈련센터(pica71@naver.com)

Ⅰ. 서 론

우울은 개인이 겪는 슬픔(sadness), 무기력(hopelessness)과 실망(discouragement)의 감정으로 정의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일반적으로 여성의 1/4에서 1/3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주우울증(major depression)을 경험한다고 한다(Cummings, Keller, & Davies, 2005; Paulson, Dauber, & Leiferman, 2006). 그리고 이러한 주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major depression disorder)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많이 나타난다(Kessler et al., 1994).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우울은 특히 여성인 어머니의 산전과 산후에 많이 발생하고 산후 우울이 만성우울로 발전하기도 한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산후 우울은 여성이 어머니로서 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여성심리학적 관점의 논의가 요구되는 주제이다(이경숙, 2012).

산후 우울은 자녀와의 첫 상호작용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Grace, Evindar, & Stewart, 2003), 우울한 부모에게는 따뜻함, 함께 책읽기, 긍정적인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같은 양육행동이 부족하게 된다(Cummings, Keller, & Davies, 2005; Paulson et al., 2006).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양육행동의 부족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 외현화 행동, 인지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정서적 어려움과 신체적 건강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Beardslee, Versage, & Gladstone, 1998; Downey & Coyne, 1990; Paulson, et al., 2009). 산후 우울을 겪는 어머니는 덜 긍정적이고 영아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덜 친밀하며, 과도한 자극을 사용하거나 자극을 거의 주지 않고 언어적 상호작용과 놀이 상호작용을 덜 하는 경향이 있었다(Campbell, Cohn, & Meyers, 1995; Righetti-Veltema, Bousquet,& Manzano, 2003). 반면에 따뜻하고 반응적이며 친밀한 어머니의 행동은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능력의 출현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Landry, Smith, Swank, Assel, & Vellet, 2001). Hay 외(2001)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산후우울과 유아의 인지적 발달과는 11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산후 우울과 유아의 5세 때 인지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Murray, Hipwell, Hooper, Stein, & Cooper, 1996; Grace, Evinder, & Stewart, 2003) 있

어서 어머니의 산후우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성을 갖는지의 여부는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우울은 특히 유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Field, 1995). 산후우울을 겪는 어머니는 유아에게 말을 덜하고 유아의 언어산출 시도(attempt at language production)에 덜 반응하게 된다. 일례로 우울한 어머니는 3개월 영아와 질문형태의 말을 덜하였다(Bigatti, Cronan, & Anaya, 2001). 특히 만성적 우울은 주로 언어적 상호작용에서 유아가 받는 자극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Brennan et al, 2000). 유아의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상상놀이, 함께 책읽기와 같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며 이는 어머니에게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에 어머니 자신의 우울은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기술을 확장시키는 놀이와 함께 책읽기 기회를 사용하는 능력을 방해한다(Sohr-Preston & Scaramella, 2006). 자녀가 걸음마기에 접어들면 부모는 함께 놀이를 함으로써 유아의 놀이수준을 확장시키고 인지적, 언어적 능력을 격려하게 되는데(Tamis-LeMonda, Uzgiris, & Bornstein, 2002) 심한 만성적 우울증을 보이는 어머니는 자녀와 상상놀이에 덜 참여함으로써(Tingley, 1994) 유아의 추상적 사고와 언어기술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걸음마기 동안 책읽기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맥락을 제공하며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에 주는 혜택이 크다. 더 자주 읽어주는 어머니의 자녀는 더 정교한 언어능력을 보이고(Bus, van IJzendoorn, & Pellegrini, 1995; Scarborough & Dobrich, 1994), 학교 입학 때 더 높은 읽기능력을 보였다(Bus & van IJzendoorn, 1988).

또한, 초기 책읽기는 공동주의집중을 이끌어 내고 일상 언어로부터 다양화된 복잡한 언어에 노출시키며 어휘학습 기회와 읽기습관을 길러주게 된다(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그러나 1세에서 3세 연령의 자녀를 둔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책을 자주 읽어 주지 못하였고 책읽기 시간은 더 짧고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도 더 적게 하는 것이 나타났다(Bigatti, et al., 2001). 어머니와 유아의 함께 책읽기는 유아의 어휘력을 증가시키는 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유아가 그림책 보기를 공유하는 것은 책을 함께 보고 어머니가 유아와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말과 글의 관계를 알게 되며 유아에게 필요한 언어적 자극을 풍부하게 지원하게 되므로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된다(Blewitt, Rump, Shealy & Cook, 2009; Bus, et

al., 1995; Sénéchal & Cornell, 1993; Sénéchal, LeFevre, Hudson, & Lawson, 1996). 결과적으로 유아기 동안 이루어지는 어머니의 반응적 양육은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발달을 강화하며(Cicchetti, Rogosch, & Toth, 2000; Landry et al., 2001), 유아기 동안 우울감이 높았던 어머니의 유아들은 인지적, 언어적 결핍이라는 위험에 처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Reissland, Shepherd, & Herrera, 2003).

Zajicek-Farber(2010)는 유아의 출현적 언어는 가정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맥락 내에서 발달한다는 점을 밝혔다. 양육지식과 어머니의 산후 우울 징후는 긍정적 양육실행의 결핍, 문해지향활동과 출현적 언어에의 노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 가정은 언어와 문해를 처음으로 접하는 장소가 된다(Purcell-Gates, 1996). 즉 부모 또는 다른 성인과 유아가 함께 책을 읽을 때, 부모가 문해를 가치 있게 여길 때, 문해, 언어활동과 자료가 풍부할 때, 전반적인 가정환경이 지지적일 때 유아의 출현적 문해능력이 더욱 커진다(Burgess, 1997; Sénéchall, LeFevre, Thomas, & Daley, 1998). Bradley 외(2001)는 가정환경자극척도(HOME)의 간편형인 HOME-SF(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Short Form)와 영유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가정환경 자극 요인 중 학습적 자극, 반응성이 어휘력 점수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그 중 반응성은 영유아의 연령이나 인종, 부모의 저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연관성이 나타나 어머니나 양육자가 반응적일수록 영유아의 어휘력 점수가 높음을 나타냈다.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어휘력을 살펴 본 NLSY-CS(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Child Supplement)에서 EC-HOME과 5개의 영유아 발달 관련 데이터 자료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인종, 교육, 결혼상태, 미혼모 여부를 통제한 후에도 3세 유아의 어휘력은 부모의 온정성, 부모의 적대감이 없는 것, 학습자극, 읽기에 대한 접근, 활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venthal, Martin & Brooks-Gunn, 2004). 3세 유아의 언어능력을 포함한 인지발달검사에서도 가정환경자극의 하위 요인인 학습적 자극, 언어적 자극 요인, 물리적 환경 요인, 반응성 요인, 학업적 자극 요인, 모방 요인, 다양성 요인, 수용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adley, 1993; Jackson, Brooks-Gunn, Huang & Glassman, 2000). 즉 가정환경에서 어머니가 학습적 자극과 언어적 자극을 많이 주고 물리적 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록, 유아가 모방할 기회가 주어지고 학업적 자극과 반응성, 다양성, 수용성을 많이 보일수록 유아의 언어능력이 촉진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가정문해환경 중 어머니의 책읽기 횟수나 책 소장의 권수는 유아의 어휘력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신혜영, 김명순, 2008) 부모가 다양한 도서, 읽고 쓰는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마련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녀와 상호작용을 잘 할수록 유아의 어휘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진, 김수영, 2009). 부모가 자녀와 책읽기를 하고 읽기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모델링 해주며 문해 학습을 돕는 가정문해 환경은 부모의 다문화 배경 및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 어휘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졌다(이태경, 2012). 또한 책을 함께 보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표지판이나 음식 포장지 등 유아 주변의 친근한 환경 인쇄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가정문해 활동이 많을수록 유아의 언어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현이, 2005). Zajicek-Farber(2010)는 부모-자녀 문해 활동 참여가 16-18개월 유아의 어휘이해와 산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은 부정적 양육행동과 문해활동 참여를 매개로 유아의 어휘이해와 산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영유아의 어휘발달은 언어발달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언어발달의 전체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으나 언어의 의미발달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언어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문숙 외, 2011). 초기 어휘발달은 언어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며 후기 유아의 언어능력에도 신뢰할 만한 예측변인이 된다. 그리고 영유아의 어휘력 발달 중 3세의 어휘력은 구어발달 외에 문어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지표가 된다(김명순, 김의향, 이유진, 200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출현적 언어와 어휘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머니의 우울, 문해환경을 포함한 가정환경 자극, 그리고 부모-자녀의 문해활동인 함께 책읽기 활동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진행된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같은 부적응 행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언어능력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로는 가정의 재정적 자원이 어머니의 우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은 부모-자녀관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언어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

업수행능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은해・이정림・김명순・전혜정(2010)의 종단적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정도가 그림어휘력(수용어휘력) 및 읽기이해력, 언어지능 등의 언어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매개로 유아의 언어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Paulson 외(2009)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이 아버지-자녀 함께 책읽기 빈도, 어머니-자녀 함께 책읽기 빈도를 매개로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언어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어머니의 우울이 그 다음 해에도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고,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적함으로써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읽기 시간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이 심한 어머니의 자녀들의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문해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가지고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우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 3세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우울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만 3세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1], [그림 2]와 같으며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을 매개로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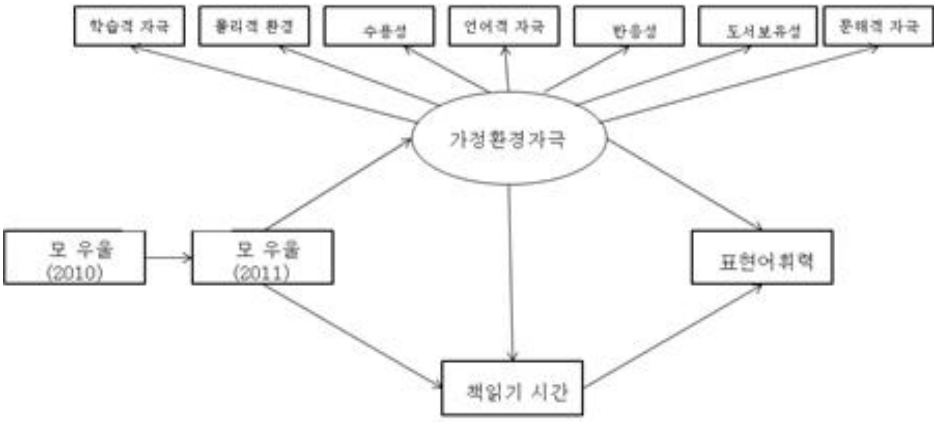
<가설 3>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연속적으로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이라는 2개의 변인을 통하여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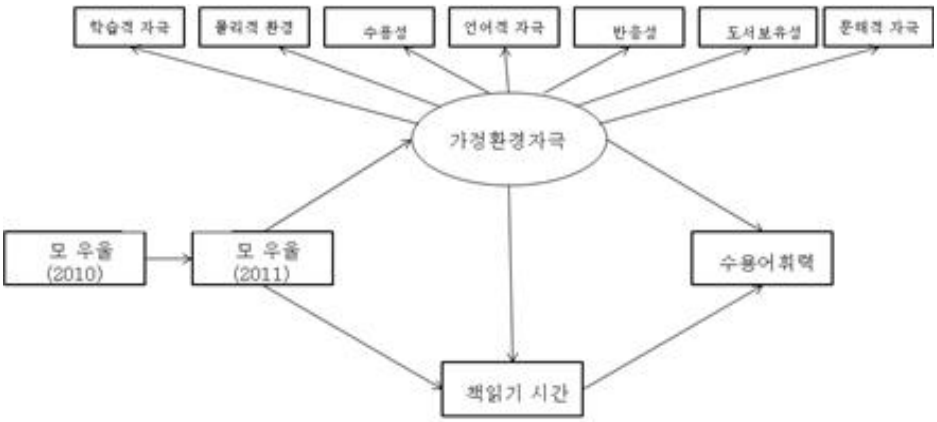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을 통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을 통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자녀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만 3세 때도 영향을 미치고 이때의 우울이 연속적으로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이라는 2개의 변인을 통하여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표현어휘력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형



〔그림 2〕 수용어휘력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3차년도(2010년)와 4차년도(2011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4차년도 응답패널 1859명 중 3차년도와 4차년도 모두 어머니 질문지에 응답을 하였고, 4차년도에 HOME 질문지에 응답을 한 대한민국 국적인 어머니들이었다. 그리고 4차년도(2011년)에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를 모두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36개월~41개월 사이의 유아들도 분석대상이었다. 4차년도 유아의 연령 분포는 35개월~42개월이었으나 35개월이 1859명 중 1.9%, 42개월이 1.3%로 다른 월령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나 이 연령대를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킨 최종분석 대상은 어머니-유아 1033쌍이었다.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유아 중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유사하며 연령은 38개월이 가장 많으며(27.4%) 41개월이 가장 적었다(6.1%). 연령 구성을 36개월부터 41개월로 제한한 것은 35개월과 42개월 유아의 비율이 극히 적은 이유와 더불어 어휘력 평가의 범위가 6개월이기 때문이다. 유아들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둘째보다 약간 더 많은 편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1세에서 35세 사이가 과반 수 이상이며 (52.2%),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36.7%) 차지하였다. 어머니들 중 55.8%가 취업 중이었으며 취업모의 직업은 전문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13.5%)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1-400만원이 가장 많으며(55.4%), 401-600만원, 200만원 이하, 601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N=1033)

		빈도(%)			빈도(%)
성별	남아	519(50.2)	모의 취업 여부	취업	457(44.2)
	여아	514(49.8)		미취업	576(55.8)

		빈도(%)			빈도(%)
출생 순위	첫째	486(47.0)	모의 학력	고졸 이하	322(31.2)
	둘째	425(41.1)		전문대학	285(27.6)
	셋째 이상	122(11.8)		4년제 대학교	379(36.7)
모의 연령	30세 이하	190(18.4)		대학원 이상	43(4.2)
	31-35세	539(52.2)		무응답	4(.4)
	35-40세	261(25.3)	모의 직업종류	전문직	139(13.5)
	40세 이상	43(4.2)		사무직/관리직	118(11.4)
유아 월령	36개월	111(10.7)		판매/서비스직	46(4.5)
	37개월	192(18.6)		기능/단순/노무/농림	9(.9)
	38개월	283(27.4)		전업주부	576(55.8)
	39개월	253(24.5)		무응답	145(14.0)
	40개월	131(12.7)	가정의 소득	200만원 이하	128(12.4)
	41개월	63(6.1)		201-400만원	572(55.4)
				401-600만원	251(24.3)
				601만원 이상	82(7.9)

〈표 2〉 모의 우울과 유아의 어휘력 수준

(N=1033)

		빈도(%)
모의 우울 정도(2010)	정상	713(69.0)
	경도	240(23.2)
	중도	78(7.6)
	결측	2(.2)
모의 우울 정도(2011)	정상	721(69.8)
	경도	237(22.9)
	중도	75(7.3)
유아의 표현어휘력 정상성 규준	정상발달	751(72.7)
	유의요망	205(19.8)
	표현어휘력 발달지체	77(7.5)
유아의 수용어휘력 정상성 규준	정상발달	860(83.3)
	유의요망	127(12.3)
	수용어휘력 발달지체	46(4.5)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우울수준과 유아의 어휘력 발달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2세 때인 2010년과 3세 때인 2011년도 측정치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 어머니가 느끼는 우울은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2011년도 측정치에서 정상수준이 69.0%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

고 경도가 23.2%, 중도는 7.6%로 나타났다. 유아의 어휘력 점수를 정상성 규준으로 분류하면 정상발달, 유의요망, 발달지체 세 집단으로 구성된다. 표현어휘력의 경우, 정상발달이 72.7%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약간의 지체를 보이는 유의요망이 19.8%이며 어휘력 발달지체는 7.5%였다. 반면에 수용어휘력의 경우, 정상발달이 83.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고 약간의 지체를 보이는 유의요망이 22.9%이며 어휘력 발달지체는 7.3%였다. 따라서 수용어휘력이 표현어휘력에 비해 정상발달 비율이 더 높았다.

2. 연구도구

1) 사용 변인

(1)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Kessler 우울 척도(K6)를 통해 측정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K6는 Kessler, Andrew, Cople, Hiripi, Mroczek, Nprmand, Walters와 Zaslavsky(2002)가 일반인의 정신 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도구로 미국 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에서 사용되었다.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안 느낌'에서부터 '항상 느낌'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고 가능한 점수 범위는 6~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으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증도 우울, 19~30점은 중도 우울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인 Cronbach α는 2010년 자료에서 .92, 2011년 자료에서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2) 가정환경자극

가정의 환경자극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에서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를 통해 얻은 결과를 사용하였다.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는 Caldwell과 Bradley(2003)가 3~6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55개 문항, 8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의 8개 하위요인은 학습적 자극 11문항, 언어적 자극 요인 7문항, 물리적 환경 요인 7문항, 반응성 요인 7문항, 학업적 자극 요인 5문항, 모방 요인 5문항, 다양성 요인 9문항, 수용성 요인 4문항,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가정환경 자극척도(EC-HOME)

는 조사원에 의해 관찰, 면접, 또는 관찰과 면접을 통해 작성되며 각 문항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를 번역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해야하고,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계수인 Cronbach α가 .25에서 .68까지 낮게 분포되어 있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ing), 요인회전은 직각회전 방법인 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과정 중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0.4이하인 문항을 삭제하여 총 7개 요인, 32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7개 하위요인은 학습적 자극 8문항, 언어적 자극 요인 4문항, 물리적 환경 요인 6문항, 반응성 요인 7문항, 수용성 요인 3문항, 도서보유량 요인 2문항, 문해자극 요인 2문항이었다. 수정된 가정환경자극척도(EC-HOME)의 전체의 Cronbach α는 .73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 α는 .61~.76로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출된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χ2은 42.36 이고 χ2/df은 3.03이였다. 그리고 GFI가 .988, TLI가 .848, CFI가 .899, RMSEA가 .044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3) 유아의 책 읽기 시간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아동패널(2011)에서 평일 일과활동 중 책읽기 활동 여부와 시간을 산출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평일 책 읽기 시간은 주양육자의 응답에 근거하며 ‘분’으로 응답하였다.

(4)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한국아동패널에서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이 개발한 표준화된 도구인 REVT(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를 사용하여 하여 얻은 결과를 사용하였다. REVT는 만 2세 6개월에서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며 각각 18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첫째,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로 χ^2, GFI(Goodness of Fit Index)와 RMSEA(Root-Mean-Se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산출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 CFI(Comparasive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산출하였다. 이들 적합도 지수 중 χ^2은 p값이 .05이면 양호하다고 보나 표본의 크기와 모델의 복잡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량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GFI, CFI, TL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간주하며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좋으며 .08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1이하면 보통인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2).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범위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점수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모의 우울(2010)	11.87	4.37	6-29
모의 우울(2011)	11.81	4.53	6-30
가정환경자극 합	28.68	2.49	16-32
학습적 자극	7.27	1.19	1-8
물리적 환경	5.72	.76	0-6
수용성	2.88	.48	0-3
언어적 자극	3.91	.41	0-4
반응성	6.56	.97	1-7
도서보유량	1.98	.16	0-2
문해적 자극	.37	.68	0-2
책 읽기 시간(분)	32.82	19.18	5-200
표현어휘력	30.68	13.35	0-95
수용어휘력	34.72	15.97	0-69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의 우울점수의 평균은 3차년도(2010년)에 11.84, 4차년도(2011년)에 11.81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자극의 평균은 28.68(SD=2.49)이며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해진 책 읽기 시간의 평균 32.82분(SD=19.18)이었다. 유아의 표현어휘력의 평균점수는 30.92(SD=13.35), 수용어휘력의 평균점수는 34.72(SD=15.97)로 수용어휘력의 점수가 표현어휘력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유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및 경로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모형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아동패널 3차년도(2010년)와 4차년도(2011년)의 어머니 우울, 가정의 언어자극, 유아의 책 읽기 시간,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 대한 상관계수 행렬은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모 우울(2010)	1											
2. 모 우울(2011)	.50***	1										
가정환경자극												
3. 학습적 자극	-.05	-.08**	1									
4. 물리적 환경	-.01	-.03	.19***	1								
5. 수용성	.05	.02	.05	.05	1							
6. 언어적 자극	-.01	.00	.25***	.09**	.13***	1						
7. 반응성	-.00	-.04	.19***	.09**	.19***	.25***	1					
8. 도서보유량	-.02	-.04	.03	.11***	-.00	.07*	.05	1				
9. 문해적 자극	-.04	-.05	.15***	.08*	.06	.08*	.12***	.02	1			
10. 책읽기 시간	-.05	-.04	.16**	.10**	.03	.07*	.07*	-.01	.14***	1		
어휘력												
11. 표현어휘력	.02	.01	.09**	.10**	.04	.06*	.04	.02	.01	.16***	1	
12. 수용어휘력	-.00	.03	-.02	.05	.07*	.01	.04	.01	-.03	.09**	.45***	1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 1]과 [그림 2]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표현어휘력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χ^2/df	*GFI*	*TLI*	*CFI*	*RMSEA*
가설모형	79.317	42	1.888	.986	.925	.943	.029

<표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현어휘력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은 79.317이고 χ^2/df은 1.888였다. 그리고 GFI, TLI, CFI 값이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또한 .029로 양호한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표 6〉 수용어휘력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χ^2/df	*GFI*	*TLI*	*CFI*	*RMSEA*
가설모형	91.319	42	2.174	.984	.899	.923	.034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용어휘력의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은 91.319이고 χ^2/df은 2.174였다. 그리고 GFI, TLI, CFI 값이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또한 .034으로 양호한 적합도 수치를 보였다.

3) 경로분석

(1) 표현어휘력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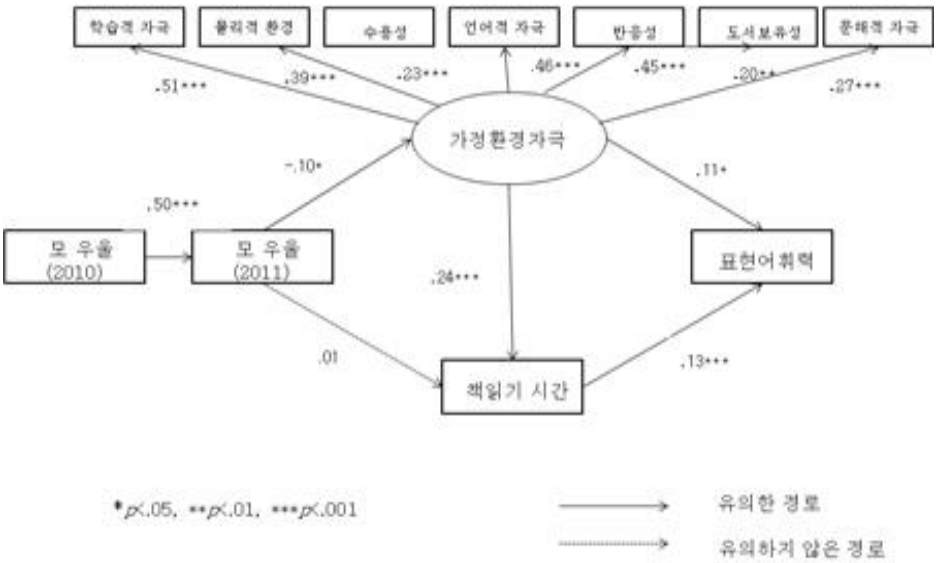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표준화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현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첫째,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읽기시간은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2011)은 유아의 책읽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읽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환경자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만 3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7〉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β	B	SE	$C.R.$	p
가정환경자극	→	표현어휘력	.11	2.48	.99	2.49	.01
책읽기시간	→	표현어휘력	.13	.09	.02	4.05	***
모 우울(2011)	→	책읽기시간	-.01	-.05	.13	-.41	.68
가정환경자극	→	책읽기시간	.24	7.63	1.51	5.06	***
모우울(2011)	→	가정환경자극	-.09	-.01	.01	-2.11	.04
모우울(2010)	→	모우울(2011)	.50	.52	.03	18.58	***

*** $p < .001$.



〔그림 3〕 표현어휘력에 대한 측정경로모형

[그림 1]에 제시되었던 이론적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1이 받아 들여졌다. 둘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

(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책 읽기 시간은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셋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책 읽기 시간은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우울은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이라는 2개의 연속적인 매개변인을 통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3이 받아 들여졌다.

(2) 수용어휘력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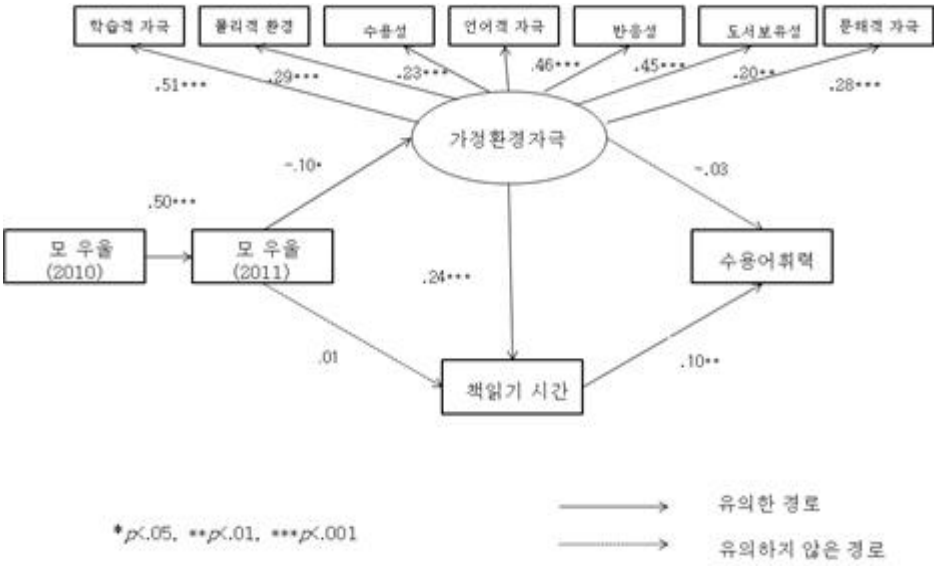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표준화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으며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9>과 같다.

〈표 9〉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β*	*B*	*SE*	*C.R.*	*p*
가정환경자극	→	수용어휘력	-.03	-.73	1.18	-.61	.539
책읽기시간	→	수용어휘력	.10	.08	.03	3.02	.003
모우울(2011)	→	책읽기시간	-.01	-.05	.13	-.39	.699
가정환경자극	→	책읽기시간	.24	7.65	1.52	5.05	***
모우울(2011)	→	가정환경자극	-.09	-.01	.01	-2.17	.033
모우울(2010)	→	모우울(2011)	.50	.52	.03	18.58	***

*** $p < .001$.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첫째,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유아의 책읽기시간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2011)은 유아의 책읽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읽기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어머니의 우울(2011)은 가정환경자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유아가 만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만 3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2)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림 4〕 수용어휘력에 대한 측정경로모형 경로

[그림 2]에 제시되었던 이론적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분석결과, 첫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을 매개로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둘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책 읽기 시간은 어머니의 우울(2011)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가설 5는 기각되었다. 셋째,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미쳤고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쳤으며 책 읽기 시간은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머니의 우울(2011)은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이라는 2개의 연속적인 매개변인을 통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6은 받아들여졌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유아의 어휘력을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현어휘는 의미와 관련된 음운을 재생해야 하기 때문에 산출에 어려움이 따르고 반면에 수용어휘는 소리를 인식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연상하게 되므로(Huttenlocher, 1974)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영아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어휘보다 이해하고 있는 수용어휘가 더 많은데(김명순, 성지현, 2002; 장유경, 2004), 2세경에는 표현어휘와 수용어휘의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수용어휘의 수가 많다(Owens, 2005). 본 연구에서도 수용어휘력 점수가 표현어휘력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면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 대한 이론적 모형에서는 어머니의 우울(2011)이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분석결과, 가정환경자극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산후 우울이 유아가 4세 때의 가정환경자극을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힌 Sharp 외(1995)의 연구에 의해 지지된다. 그렇지만 우울한 어머니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에게 책을 자주 읽어 주지 않고 책읽기 시간이 더 짧았다는 Bigatti, Cronan과 Anaya(2001)의 연구결과와는 상치되는 면을 보인다.

가정환경자극은 이론적 모형에서 예측한 것처럼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수용어휘력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가정환경자극이 3세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Roberts, Jurgens와 Burchinal(2005)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렇지만 가정환경자극의 하위 요인들이 3세 유아의 언어능력을 포함된 인지발달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Bradley(1993)와 Jackson 외(2000)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은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모두에 영향

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유아의 책읽기가 유아의 그림어휘력(수용어휘)과 유의한 상관이 있고(신혜영, 김명순, 2008), 영향을 미치며(이태경, 2012) 부모와의 책읽기가 유아의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발달을 증진시킨다는 Lonigan과 Whitehurst(1998)의 연구결과에 의해 뒷받침 된다. 유아의 책읽기시간이 어휘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책읽기 동안 성인이 책만 읽어주기보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질문을 유도하는 등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Valdez-Menchaca & Whitehurst, 1992).

둘째,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표현어휘력에서는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는 있으나 수용어휘력에서는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의 매개효과는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우울(2010)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의 우울(2011)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의 우울이 가정환경자극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환경자극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은 그 다음해에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우울이 심할수록 가정환경자극이 빈약하고 가정환경자극이 풍부할수록 유아의 표현어휘력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유아의 표현어휘력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줄여 가정환경자극을 풍부하게 하며 유아의 책읽기 시간을 늘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가정환경 자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가 있다.

둘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대한 책 읽기 시간의 매개효과가 없다.

셋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가정환경 자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유아의 표현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표현어휘력에 대해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은 매개효과가 있다.

넷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가정환경 자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써 가정환경자극의 매개효과가 없다.

다섯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대한 책 읽기 시간의 매개효과가 없다.

여섯째, 유아가 2세였을 때의 어머니 우울은 유아가 3세가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고 이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가정환경 자극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정환경자극은 유아의 책 읽기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유아의 수용어휘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수용어휘력에 대해 가정환경자극과 유아의 책 읽기 시간은 매개효과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우울증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까지 전국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보호자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자가 어머니인 경우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어머니의 우울증을 조기에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아가 2세 때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은 유아가 3세가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Bakermans-Kranenburg 외(2003)는 81개의 부모의 민감성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중재 프로그램이 초기에 진행될수록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감을 조기에 선별하여 가능한 중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감은 유아의 어휘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환경 자극이나 어머니의 양육행동,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중재변인에 대해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Lovejoy 외(2000)도 어머니의 우울증이 부모양육의 어려움과 연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부모양육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또 다른 변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가 이용하기 쉽고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우울감이 높은 어머니는 패배주의적 성향과 자기 혐오가 많고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인해 중재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요구가 필요한데 가정방문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적절한 것으로 제안될 수 있다(Gelfand, Teti, Seiner & Jameson, 1996)

넷째, 어머니의 우울감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중재요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 중 하나는 어머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될 수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천희영과 옥경희(2011)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 관련체계 변인 별 산후 우울의 변화도에서 어머니의 특성 26%, 영아 특성 2%, 가구 및 가족 내외 특성 0.1%가 설명변량으로 나타나 어머니 특성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의 긍정적인 효과가 양육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컸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증 예방이나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것 외에 어머니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중재요인은 우울하지 않은 배우자나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가 된다. 이들을 지원하고 우울한 어머니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우울하지 않은 배우자나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가 있는 경우 어머니의 높은 우울감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연적인 완충역할을 하며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우울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Field, 1998).

참 고 문 헌

고문숙·권도하·권민균·김수향·임영심·정정희(2011). 영유아를 위한 언어지도. 서울: 양서원.

국민건강보험공단(2013.9.5.). 건강검진실시안내. http://sis.nhis.or.kr/ site/ sis/ ggoa011m01/ 에서 2013년 9월 5일 인출.

김명순·김의향·이유진(2007). 영아의 차례 맡기와 어휘습득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7**(3), 301-314.

김명순·성지현(2002). 1세 영아의 언어와 놀이의 관계. **아동학회지, 23**(5), 19-34.

김수진·김수영(2009). 가정환경변인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5), 87-102.

김영태·홍경훈·김경희·장혜성·이주연(2009). 수용·표현어휘력 검사(REVT) 검사지침서.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신혜영·김명순(2008). 저소득 가정 부모의 문해 발달 태도 및 가정 문해 활동과 유아의 어휘력, 인쇄물 개념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9**(4), 199-212.

우종필(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장유경(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18개월~36개월.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4), 91-105.

이경숙(2012). 산후우울 어머니의 영유아 자녀 양육기능.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8-158.

이은해·이정림·김명순·전혜정(2010). 저소득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과 학업수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 **아동학회지, 31**(1), 65-82.

이태경(2012). 가정의 다문화배경 및 소득수준, 가정문해환경, 부모-자녀관계가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천희영·옥경희(2011). 한국 영아어머니의 산후우울 변화와 양육 관련 체계변인 간의 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53-167.

황현이(2005). 가정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언어능력 및 가정문해환경.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disorders* (4th ed., text rev.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akermans-Kranenburg, M. J., Van Ijzendoorn, M. H., & Juffer, F. (2003).

Less is more: Meta-analyses of sensitivity and attachment interventions in early childhood. *Psychological Bulletin, 129*(2), 195-215.

Beardslee, W. R., Versage,E. M., & Gladstone, T. R. (1998). Children of affectively ill par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1134-1141.

Bigatti, S. M., Cronan, T. A., & Anaya, A. (2001).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the efficacy of a literacy intervention program.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2*(2), 147-162.

Blewitt, P., Rump, K. M., Shealy, S. E., & Cook, S. A. (2009). Shared book reading: When and how questions affect young children's wor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2), 294-304.

Bradley, R. H. (1993). Children's home environments, health, behavior, and intervention efforts: A review using the HOME Inventory as a marker measure. *Genetic, Social, &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9*(4), 437-490.

Bradley, R., Corwyn, R., Burchinal, M.,McAdoo, H., & Garcia Coll, C. (2001). The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Part II. Relations with behavioral development through age thirteen. *Child Development, 72*(6), 1868-1886.

Brennan, P. A., Hammen, C., Andersen, M. J., Bor, W., Najman, J. M., & Williams, G. M. (2000). Chronity, severity and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relationship with child outcomes at age 5. *Developmental Psychology, 36*, 759-766.

Burgess, S. R. (1997). The role of shared reading in the development of phonological awareness: A longitudinal study of middle to upper class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91-199.

Bus. A. G., & van IJzendoorn, M. H. (1988). Mother-child interaction, attachment, and emergent literacy: A cross-sec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9*, 1262-1272.

Bus, A. G., van IJzendoorn, M. H., Pellegrini, A. D. (1995). Joint book reading makes for success in learning to read: A meta-analysi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literacy.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5*(1), 1-21.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askas at Little Rock.

Campebell, S. B., Cohn, J. F., & Meyers, T. (1995). Depression in first time mothers: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depression chronic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1*, 349-357.

Cicchetti, D., Rogosch, F. A., & Toth, S. L. (2000). The efficacy of toddler-parent psychotherapy for fostering cognitive development in offspring of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135-148.

Cummings, E. M., Keller, P. S., & Davies, P. T. (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on sympton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479-489.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An inte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08*, 50-76.

Field, T. (1995). Infants of depressed mothers.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8*, 1-13.

Field, T. (1998). Maternal depression effects on infants and early interventions. *Preventive Medicine, 27*(2), 200-203.

Gelfand, D. M., Teti, D. M., Seiner, S. A., & Jameson, P. B. (1996). Helping mothers fight depression: Evaluation of a home-based intervention program for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4), 406-422.

Grace, S. L., Evindar, A., & Stewart, D. E. (2003). The effect of postpartum depression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nd behavior: a review and critical analysis of the literature.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6*, 263-274.

Hay, D. F., Pawlby, s., Sharp, D., Asten, P., Mills, A., & Kumar, R. (2001). Intellectual problems shown by 11-year-old children whose mothers had postal depress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2*, 871-889.

Huttenlocher, J. (1974). The origins of language comprehension. In R. Solso (Ed.), *Theories in cognitive psychology*. New York: Erlbaum.

Jackson, A, P, Brooks-Gunn, J,, Huang, C-C, & Glassman, M, (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Karrass, J., & Braungart-Rieker, J. M. (2005). Effects of shared parent-infant book reading on early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133-148.

Kessler, R. C., McGonagle, K. A., Nelason, C. B., Hughes, M., Swartz, M., & Blazer, D. G. (1994). Sex and depression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II: Cohort effec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30*, 15-26.

Landry, S. H., Smith, K. E., Swank, P. R., Assel, M. A., & Vellet, S. (2001). Does early responsive parenting have a special importance for children's development or is consistency across early childhood necessary?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87-403.

Leventhal, T., Martin, A., & Brooks-Gunn, J. (2004). The EC-HOME across five national data sets in the 3rd to 5th year of life. *Parenting, 4*(2-3), 161-188.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 (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5), 561-592.

Morrow, L. M. (2012). **영유아 문해 발달과 교육**. 권민균(역).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2년 원저 발간)

Murray, L., Hipwell, A., Hooper, R., Stein, A., & Cooper, P. (1996). The cognitive development of 5-year-old children of postnatally depressed mothers. *Journal of Child Psychiatry and Psychiatry, 40*, 1269-1271.

Owens, R. E. (2005). **언어발달**(6th ed.). 이승복, 이희란(공역). 서울:시그마프레스.

Paulson, J. F., Dauber, S. E., & Leiferman, J. A. (2006). Individual and combined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on on parenting behavior. *Pediatrics, 118*, 659-668.

Paulson, J. F., Keefe, H. A., & Leiferman, J. A. (2009). Early parental depression and child language development.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0*(3). 254-262.

Purcell-Gates, V. (1996). Stories, coupons, and the TV guide: Relationships between home literacy experience and emergent literacy knowledg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1*(4), 406-428.

Reissland, N., Shephere, J., & Herrera, E. (2003). The pitch of maternal voice: A comparison of mothers suffering from depressed mood and non-depressed mothers reading books to their infa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4*, 255-261.

Righetti-Veltema, M., Bousquet, A., & Manzano, J. (2003). Impact of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on mother and her 18-month-old infant.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2*, 75-83.

Roberts, J., Jurgens, J., Burchinal, M. (2005). The role of home literacy practices in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emergent literacy skill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345-359.

Scarborough, H. S., & Dobrich, W. (1994). On the efficacy of reading to preschoolers. *Developmental Review, 14*, 245-302.

Sénéchal, M., & Cornell, E. H. (1993).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shared reading experiences. *Reading Research Quarterly,* 360-374.

Sénéchal, M., LeFevre, J., Hudson, E., & Lawson, E. P. (1996). Knowledge of storybooks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vocabula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8*(3), 520-536.

Sénéchal, M., LeFevre, J., Thomas, E. M., & Daley, K. (1998). Differential

effects of home literacy experiences on the development of oral and written language. *Reading Research Quarterly, 33*(1), 96-116.

Sharp, D., Hay, D., Pawlby, S., Schmucker, G. Allen, H., &Kumar, R. (1995). The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on boys' intellectu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315-1336.

Sohr-Preston, S. L., & Scaramella, L. (2006). Implications of timing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for early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1), 65-83.

Tamis-LeMonda, C. S., Uzgiris, I. C., & Bornstein, M. H. (2002). Play in parent-child interactions.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Mahwah, NJ: Erlbaum.

Tingley, E. C. (1994). Symbolic play in the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and mothers with a history of affective illness: A longitudinal study. In A. Slade & D. P. Wolf (Eds.), *Children at play: Clinical and developmental approaches to meaning and representation* (pp. 286-3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Valdez-Menchaca, M. C., & Whitehurst, G. J. (1992).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A systematic extension to Mexican day care.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106-1114.

Lonigan, C. J., & Whitehurst, G. J. (1998). Relative efficacy of parent and teacher involvement in a shared-reading intervention for preschool children from low-income background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2), 263-290.

Zajicek-Farber, M. L. (2010). Th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postnatal depression on emergent language of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9*, 257-269.

Associ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he Mediating Role of Peer Interactions

유아의 기질과 언어발달과의 관계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이일랑[1] · 김근규[2] · 나종민[3]

이 연구의 목적은 놀이를 통한 유아의 또래 간 상호작용이 유아 개개인의 기질과 언어발달의 상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평균 연령 3세 유아 1,582명과 각 유아의 어머니가 참여하였으며 이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또래 간 상호작용의 매개모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언어 발달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기질 중 사회성이 또래 간 상호작용 중 상호작용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또래 간 놀이 상호작용 중 상호작용이 유아의 언어 발달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기질과 언어 발달의 상관관계에 있어 또래 상호작용의 매개 작용을 하였다.

Ⅰ. Introduction

Peer interaction is one of essential skill in terms of social emotional aspect in modern society. As more parents of young children entered the workforce,

1) University of Florida (irtomato@gmail.com)
2) Delaware State University (clintkim@gmail.com)
3) 국민대학교 (rems2002@gmail.com)

greater numbers of young children enroll in early childhood and child care settings. This social phenomenon increases children experience social interaction with peers at a younger age and for longer periods of time (Kemple, 2004). The early years of education comprise a peak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ocial-emotional competences and early social-emotional competence acquisition is one of important function to support school readiness (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Fantuzzo & McWayne, 2002; Mashburn & Pianta, 2006). Specifically, peer relationships are important component to support social-emotional competence. Many studies asserted and emphasized importance of effective relationships with peers during the early years as contributing children's long-term development (Hartup, 1996; Parker & Asher, 1987). Additionally, the position statement by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Early Children (NAEYC) has been strongly supported significance of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eers in terms of Developmental Appropriate Practices (DAP) to promotes young children's optimal learning and development (Copple & Bredekamp, 2009).

Such young children's degree of peer relationships associated with other developmental variables, temperament is also one of important element to predict children's development. Temperament refers to individual distinctions of emotions and behaviors in constitutionally and biological and inheritable based, which regarded as individuals' innate part of personality (Buss & Plomin, 1984; Kagan, 2005). Var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infant and young children's temperament since it appears early in development (Emde et al., 1992; Rothbart, 1989; Rowe & Plomin, 1977).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own temperament and their developmental domains such as cognitive,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Matheny, 1989).

The previous research literature focused on relationship between peer interactions and other variables such as school readiness, academic achievement,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Denham, 2006; Hanushek, Kain, Markman, & Rivkin, 2003; Zimmerman, 2003). However, little studie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hips. Furthermore, previous literature focused on each association between peer interaction and other variables or temperament and other variables. Thus,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relationships among young children' s degree of peer interaction,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1. Peer Interaction in Early Childhood

Various developmental theorist have been focused on importance of children's peer play and they have identified children's peer play as a primary context socialization experiences for acquiring important social competencies during the early childhood years (Erikson, 1968; Piaget, 1962; Vygotsky, 1976). Through interaction with peers during play, children are able to move toward from egocentrism to realities and these repeated interactions such as prosaical behavior and aggressive encounters impact children's overall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Hartup, 1983; Hartup & Moore, 1991; Ladd, Price, & Hart, 1990). In addition, relationship with peers in early childhood are not only associated with positive learning behaviors such as peer acceptance, competence motivation, attention, and persistence but also negative peer relationships could impact to young children's negative learning behaviors. For example, negative peer relationships in early childhood have been associated with lower peer acceptance and a host of problematic classroom behaviors, such as hyperactivity and inattention (Coolahan et al., 2000;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 Parker & Asher, 1987). Since peer interaction in play is an important dimension to develop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s, this study employed children's peer interaction as one of significant variable to examine mediating effect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2. Children's Tempera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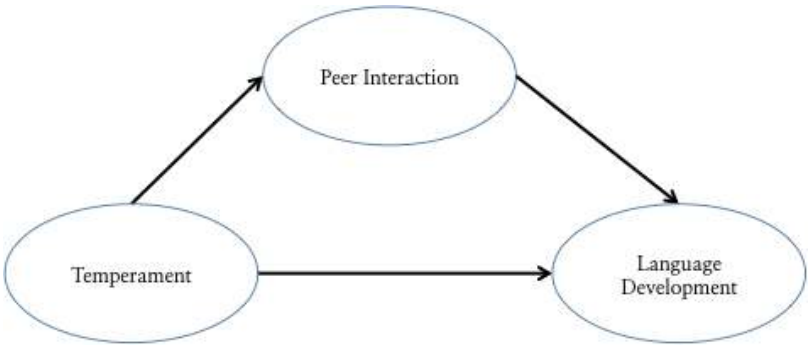
Temperament considered to be individual's constitutional part of personality rather than character, which considered to be environmental and social based (Buss & Plomin, 1984; Rothbart & Bates. 1998). Over the several decades, various researchers studied to define and classify temperament. Buss and Plomin (1984) believe that tempera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domains: emotionality, sociability, and activity level. Then, they developed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EAS) based on their theory, which basis of Diamond's (1957) work. The current study used EAS to measure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s researchers agreed to importance of infant and young children's temperament, numerous studies focused on temperament in early year and many works have been at the behavioral level such as children's emotional, attentional, and motor activity as well as cognitive and academic outcomes. Coplan, Barber, and Lagacé-Séguin's study (1999) regarding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cademic outcomes revealed that young children's temperament contributed to explain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Dixon and Shore (1997)'s infant study also revealed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language skills that indicated infants' temperament may contribute to linguistic style.

In addition, the temperament study have focused not only on positive outcomes but also negative outcomes. For example, the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cognitive develop revealed negative sociability predicted future cognitive outcomes. Specifically, the study indicated psychosocial risk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persistence and preschooler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risk and infant anger proneness (Lemelin, Tarabulsy, & Provost, 2006). The current study employed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s key variable that associated with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3. Proposed Model

Four hypotheses were tested. First (H1), it was hypothesized that children's temperament would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anguage development. Second (H2), it was hypothesized that children's temperament would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egree of peer interaction. Third (H3), it was hypothesized that children's degree of peer interaction would b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anguage development. Finally (H4), it was hypothesized that children's peer interaction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he model to be tested is illustrated as follows:



〔Figure 1〕 Proposed model

Ⅱ. Method

1. Participants

Demographic information collected included information regarding the participant's age, gender, marital status, living arrangements, educational level. All statistical procedures were denoted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used in each analysis and all the data analyses were based on two-tailed tests.

Of the 1,752 participants, the sample consisted of 1,582 participants after deleting missing values. The average age of mother was 33.76 years (standard deviation: SD = 3.67). In addition, the average age of child was 38.26 months (SD = 1.47). Regarding childrens ' gender, 799 (50.5%) were boys, whereas 783 (49.5%) were girls.

2. Instrument

1) Child Temperament

To measure children's temperament, 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 (EAS; Buss & Plomin, 1984) was used, which was completed by mother of each child participant. The EAS contains 20 items with four dimensions: Emotionality (e.g., gets upset easily), Activity (e.g., very energetic), and Sociability (i.e., likes to be with people). This is done utilizing a 5-point Likert type scale ranging from 1 (strongly disagree) and 5 (strongly agree). Children who have high score on 'activity' tend to like move and very active and high score on 'sociability' tend to like company and less shy. However, children who have high score on 'emotionality' tend to show negative emotionality. The Cronbach's α for the 3 sub-domains indicated a moderate reliability of .67 (emotionality), .71 (activity), and .62 (sociability) (Russell et al, 2003).

2) Language Development

The Korean vocabulary on the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Hong, Kim, Jang, Lee, 2009) was used to measure children's language ability. The REVT is pictorial test that comprised in two parts of test: REVT-Receptive (REVT-R) and REVT-Expressive (REVT-E). Each dimension contains 185 items (total 370 items) and the test was provided by

administrators. The Cronbach's α for the 2 sub-domains indicated a high reliability of .88 (REVT-R) and .94 (REVT-E) and test-retest reliability indicated a high correlation of .82 (REVT-R) and .86 (REVT-E) (Kim et al., 2009).

3) Peer Interaction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Fantuzzo et al., 1998) was employed to measure the children's peer interaction, which was completed by both mother and teacher of each participant. This measurement utilized a 4-point Likert scale (i.e., 1=never, 2=rarely, 3=often, and 4=always) for the mother rating scale and 4-point Likert scale (i.e., 1=never, 2=rarely, 3=sometimes, 4=often, and 5=always) for the teacher rating scale. The PIPPS contains 32 items total, which consists of three underlying dimensions of children's play with peers: interaction (e.g., helps other children, comfors others who ae hurt or sad), disruption (e.g., verbally assaults others, cries, whines, and shows temper), and disconnection (e.g., seems unhappy, confused in play). The Cronbach's α coefficients for the current dataset indicated a moderate reliability of .76 (disruption), .75 (disconnection), and .79 (play interaction), which is lower than original study: .92 (disruption), .91 (disconnection), and .89 (play interaction) (Fantuzzon et al., 1998).

3. Data Analysis

In answering the research questions, path analysis was utilized to examine possible relationships between the research variables.

The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directional effects and relationships linking observed to latent variables and latent variables with one another. The path analysis permitted researchers to tes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 system of variables, which in turn made it possible to develop a model explaining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within a system of

variables (MacCallum, 1995). All analyses of data were performed using the Mplus (Muthén and Muthén, 1998-2001) program.

Ⅲ.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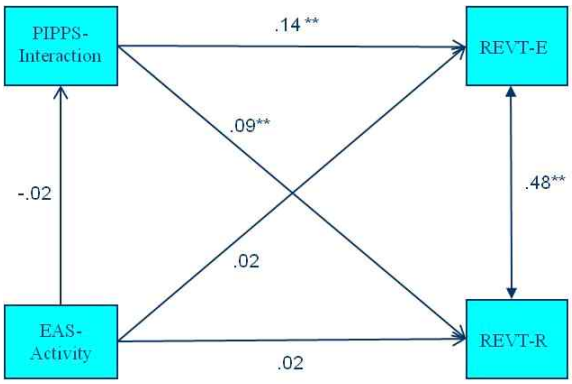
Prior to performing the path analysis which assumes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6 variables were examined. As shown in <Table 1>, the kurtosis and skewness indices indicated a good approximation to normality.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kertosis
REVT				
Expressive	30.28	13.41	.15	-.51
Receptive	33.63	15.73	.59	.32
EAS				
Activity	13.54	1.87	-.10	.93
Sociability	31.76	2.57	.21	.23
Emotionality	16.19	2.03	.20	.03
PIPPS				
Disconnection	15.55	3.54	.06	.40
Interaction	30.38	4.23	-.19	.62
Disruption	27.87	5.01	-.14	.30

Note. 1) REVT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2)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3) PIPPS =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On the basis of the litera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ariables, the theoretical model was suggested ([Figure 2]). The three theoretical models were performed with Mplus program (Muthén and Muthén, 1998-2001).



** $p < .01$.

〔Figure 2〕 The First Theoretical Model among REVT-E, REVT-R, EAS-Activity, and PIPPS-Inte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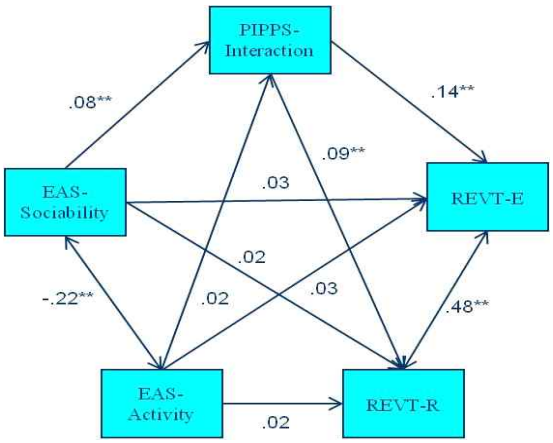
All paths indicated a low magnitude of relationships for both REVT-E and REVT-R. However, <Table 2> showed the all paths were significant at $p < .01$ level except relationship between EAS-Activity and REVT-E, and EAS-Activity and REVT-R. <Table 2> shoed that PIPPS-Interaction had more strong effect on REVT-E than REVT-R.

〈Table 2〉 Path Coefficient and Correlation values among REVT-E, REVT-R, EAS-Activity, and PIPPS-Interaction

		r	standard error	*p*
Coefficient				
EAS-Activity	REVT-E	.02	.17	.06
PIPPS-Interaction		.14**	.07	.00
EAS-Activity	REVT-R	.02	.21	.06
PIPPS-Interaction		.09**	.09	.00
EAS-Activity	PIPPS-Interaction	-.02	.05	.06
Correlation				
REVT-E	REVT-R	.48**	5.87	.00

Note. 1) REVT-E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expressive test
2) REVT-R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receptive test
3)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4) PIPPS =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 < .05$, ** $p < .01$.



** $p < .01$.

〔Figure 3〕 Theoretical Model among REVT-E, REVT-R, EAS-Activity, EAS-Sociability, and PIPPS-Interaction

The second suggested model was shown in [Figure 3]. The second suggested models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n PIPPS-Interaction on REVT-E and REVT-R. As shown in <Table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IPPS-Interaction and REVT-E and between PIPPS-Interaction and REVT-R. Interesting findings was that EAS-sociability statistically and positively affected PIPPS-Interaction.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between EAS-activity and PIPPS-interaction. Another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both EAS-sociability and EAS-activity did not affect REVT-E and REVT-R, respectively.

〈Table 3〉 Path Coefficient and Correlation values among REVT-E, REVT-R, EAS-Activity, EAS-Sociability, and PIPPS-Interaction

		r	standard error	*p*
Coefficient				
EAS-Activity		.03	.18	.08
EAS-Sociability	REVT-E	.03	.13	.12
PIPPS-Interaction		.14**	.07	.00

		r	standard error	*p*
EAS-Activity	REVT-R	.02	.21	.07
EAS-Sociability		-.02	.15	.11
PIPPS-Interaction		.09**	.09	.00
EAS-Activity	PIPPS-Interaction	-.04	.05	.06
EAS-Sociability		.08**	.04	.00
Correlation				
REVT-E	REVT-R	.48**	5.87	.00
EAS-Activity	EAS-Sociability	-.22**	.12	.00

Note. 1) REVT-E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expressive test
2) REVT-R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receptive test
3)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4) PIPPS =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 < .01$.

Once identifying the path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specify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PIPPS-interaction' on REVT-E and REVT-R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IPPS-inter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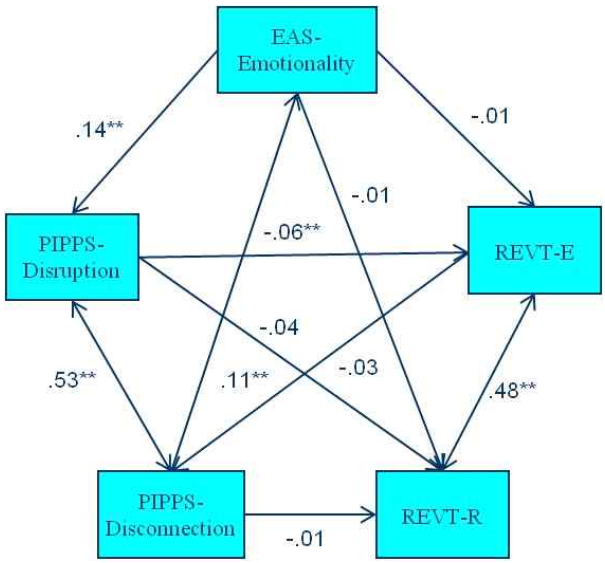
〈Table 4〉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Effects of PIPPS-Interaction on REVT-E and REVT-R.

	Estimate	standard error	Est./S.E	*p*
EAS-sociability				
REVT-E				
Direct effect	.02	.20	.82	.35
Indirect effect	.01	.00	2.01	.00**
REVT-R				
Direct effect	.02	.02	1.40	.19
Indirect effect	.01	.16	2.71	.00**
EAS-Activity				
REVT-E				
Direct effect	.03	.13	1.19	.18
Indirect effect	.01	.02	2.98	.00**
REVT-R				
Direct effect	.02	.15	.96	.25
Indirect effect	.01	.02	2.59	.00**

Note. 1) REVT-E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expressive test
2) REVT-R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receptive test
3)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4) PIPPS =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 < .01$.

<Table 4> show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rect relationship between EAS-sociability and REVT-E and between EAS-sociability and REVT-R. However, the results from the study indicat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between EAS-sociability and REVT-E and between EAS-sociability and REVT-R via PIPPS-Interaction. Furthermore, EAS-activity had the same patterns as EAS-sociability. These results implied that it was reasonable to include PIPPS-Interaction so as to explain relationship how EAS-sociability and EAS-activity affected both REVT-E and REVT-R.

The last suggested model was shown in [Figure 4]. This model was suggested to investigated how EAS-Emotionality affected PIPPS-Disruption and PIPPS-Disconnection and if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REVT-E and REVT-R.



** $p < .01$.

[Figure 4] Theoretical Model among REVT-E, REVT-R, EAS-Emotionality, PIPPS-Disconnection, and PIPPS-Disruption

As shown in <Table 5>,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IPPS-Disruption and EAS-Emotionality and between PIPPS-Disconnection and EAS-Emotionality.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EAS-Emotionality positively affected PIPPS-Disruption while there wa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AS-Emotionality and PIPPS-Disconnection. In addition, PIPPS-Disruption and PIPPS-Disconnection affected REVT-E, in which relationship between REVT-E and both PIPPS-Disruption and PIPPS-Disconne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both PIPPS-Disruption and PIPPOS-Disconnection did not statistically affect REVT-R.

〈Table 5〉 Path Coefficient and Correlation values among REVT-E, REVT-R, EAS-Emotionality, PIPPS-Disconnection, and PIPPS-Disruption

		r	standard error	$p(>\|Z\|)$
Coefficient				
EAS-Emotionality		-.01	.08	.06
PIPPS-Disconnection	REVT-E	-.03	.11	.21
PIPPS-Disruption		-.06**	.08	.00
EAS-Emotionality		-.01	.19	.22
PIPPS-Disconnection	REVT-R	-.01	.13	.23
PIPPS-Disruption		-.04	.09	.25
EAS-Emotionality	PIPPS-Disconnection	.14**	.04	.00
EAS-Emotionality	PIPPS-Disruption	.11**	.06	.00
Correlation				
REVT-E	REVT-R	.48**	5.87	.00
PIPPS-Disconnection	PIPPS-Disruption	.53**	3.24	.00

Note. 1) REVT-E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expressive test
2) REVT-R =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for receptive test
3) EAS =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4) PIPPS =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 $p < .01$.

Ⅳ. Discussion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ere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2)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interact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and finally (4) the role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as mediating variable between their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none of children's temperament dimensions are (i.e., activity, sociability, and emotionality)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language development. This result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Coplan et al, 1999; Dixon & Shore, 1997) that revealed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It could be explained by differences of measurement and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The second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sociability temperament positively significant with children's peer interaction during play. This results consist with previous literatures regar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 social temperament dimension and prosocial skills/social competences (Gunnar, Tout, Haan, Pierce & Stanbuty, 1997). The third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peer interaction during play positively predict their language development. This result consistent with other studies regardi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eer interaction and language development (Fantuzzo & McWayne, 2002; Mashburn & Pianta, 2006). Finally,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revealed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 between their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own tempera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is positively influenced by degree of children's peer interactions. The result of peer mediation effect of peer interaction could be significantly impact o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rough encouraging young children's engagement in peer interaction, they may be scaffolded to more fully recognize and appreciate the benefit of relationship with peers. Futhermore, such appreciation may bolster their valuing of overall development.

References

Buss, A.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adale, NJ: Erlbaum.

Copple, C., & Bredekamp, S. (Eds.). (2009). *Developmentally appropriate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3rd ed.).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and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Coplan, R. J., Barber, A. M., & Lagacé-Séguin, D. G. (1999). The role of child temperament as a predictor of early literacy and numeracy skills in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4*(4), 537-553.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and Development, 17*(1), 57-89.

Dixon Jr, W. E., & Shore, C. (1997). Temperamental predictors of linguistic style during multiword acquisi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0*(1), 99-103.

Emde, R. N., Plomin, R., Robinson, J., Corley, R., DeFries, J., Fulker, D. W. . . Zahn-Waxler, C. (1992). Temperament, emotion, and cognition at fourteen months: The MacArthur Longitudinal Twin Study. *Child Development, 63*(6), 1437-1455.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411-431.

Fantuzzo, J., & McWayne, C.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play interactions in the family context and dimensions of school readiness for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4*(1), 79-87.

Gunnar, M. R., Tout, K., de Haan, M., Pierce, S., & Stanbuty, K. (1997).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and adrenocortical activity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biology, 31*(1), 65-85.

Hanushek, E. A., Kain, J. F., Markman, J. M., & Rivkin, S. G. (2003). Does peer ability affect student achievement?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18*(5),527-544.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M. Hea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pp. 103-106). New York: Wiley.

Hartup, W. W. (1996).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 Development, 67*(1), 1-13.

Hartup, W. W., & Moore, S. G. (1991).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1-7.

Kagan, J. (2005). Temperament. In R. E. Tremblay, R. G. Barr, & R. D. Peters (Eds.), *Encyclopedia on Early child development* (pp.1-4). Montreal, Quebec: Centre of excellence for early child development. Retrieved August 05, 2013, from http://www.child-encyclopedia.com/documents/ KaganANGxp.pdf

Kemple, K. M. (2004). *Let's be friends: Peer competence and social inclusion in early childhood programs.* Teachers College Press: New York, NY.

Kim, Y. T., Hong, K. H., Kim, K. H., Ch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in Korean]. Seoul, South Korea: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Ladd, G. W., Price, J. M., & Hart, C. H. (1990). Preschoolers' behavioral

orientations and patterns of peer contact: Predictive of peer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90-11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melin, J.-P., Tarabulsy, G. M., & Provost, M. (2006). Predicting preschool cognitive development from infant tempera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psychosocial risk. *Merrill-Palmer Quarterly, 52*(4), 779-804.

MacCallum, R. D. (1995). Model specification: Procedures, strategies, and related issu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 (pp. 16-2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Mashburn, A. J., & Pianta, R. C. (2006).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readin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151-176.

Matheny, A. P., Jr. (1989). Temperament and cognition: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mental test scores.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263-282). NewYork: Wiley.

Muthén, L. K., & Muthén, B. O. (1998-2001). *Mplus User's Guide*.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Piaget, J. (1962). *Play, dreams, and imitation in childhood*. New York: Norton.

R Development Core Team (2012). R: *A language and environment for statistical computing*.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 Vienna, Austria. ISBN 3-900051-07-0, URR http://www.R-projecct.org.

Rothbart, M. K. (1989). Temperament in childhood: A framework. In G. A. Kohnstamm, J. E. Bates, & M. 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pp. 59-73). United Kingdom: John Wiley and Sons.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W. S. E. Damon and N. V. E.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9-73). New York: Wiley.

Rowe, D. C., & Plomin, R. (1977). Temperament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2), 150-156.

Russell, A., Hart, C. Robinson, C. & Olson, S. (2003). Children's sociable and aggressive behaviour with peers: A comparison of the US and Australia, and contribution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1), 74-86.

Vygotsky, L. S. (1976). Play and its role o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ner, A. Jolly, & K. Sylva (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pp. 537-554). New York: Basic Books.

Zimmerman, D. J. (2003). Peer effects in academic outcomes: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1), 9-23.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Session 1 ◈

제 3 주제

발달의 종단적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사회: 양옥승 (덕성여대 교수)

1.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발달과정 탐색연구**
   이귀옥 (숭의여자대학교 조교수)
   이미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2.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in South Korea**
   김현식 (경희대학교 조교수)
   김두환 (덕성여자대학교 조교수)

3.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오승아 (경동대학교 조교수)
   유준호 (을지대학교 조교수)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의 발달과정 탐색연구

Exploration of Infants' s Basic Daily Life Habits Including Sleeping, Eating and Bowel/Cleaning

이귀옥[1] · 이미리[2]

This study investigated developmental changes of basic daily life habits including sleeping habits, eating habits, and bowel/cleaning habits from 6 months to 38 months of age. The subjects were 2078 infants(1059 boys and 1019 girls) who participated i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rom the first to the fourth waves for 4 years. We found that the participants' sleeping habits were stable in 6 months of age and became unstable in 14 months of age. The infants recovered the former stable habits in 26 months of age. Again, their sleeping habits became unstable in 38 months of age. The infants' eating and bowel/cleaning habits were regular in 6 months of age, however, those habits became irregular or adult dependable in 14 months of age. The infants' eating and bowel/cleaning habits became regular and independent in 26 months of age. These states continued to the 38 months of age. The findings were discussed from the developmental perspectives.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으로는 조기교육이나 과잉보호를 들 수 있다. 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인지적 발달을 중요시하나 도덕이나 인성 교육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변형선, 김송이, 2011). 예를 들면 아동들이 공공장소에서의 에

1) 숭의여자대학교(gracegirl@sewc.ac.kr)
2) 한국체육대학교(meeryl@knsu.ac.kr)

티켓을 지키지 못하거나 부모에게 버릇없게 행동하거나,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변형선, 김송이, 2011). 인격형성의 바탕이 되는 요소로 기본생활습관의 형성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은 단순히 일상적 행동을 넘어선 개념으로 보았으며 이는 후에 성격형성이나 가치관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신인숙, 유연옥, 2003, 재인용). 인간은 기본생활정신과 기본습관들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을 주도하며, 인격 형성을 이룰 수 있으며(이숙희, 강병재, 2002; 이원영, 방인옥, 박찬옥, 1992), 나아가 행동 및 사고방식과 정서 반응에도 영향을 준다(곽미라, 2004).

기본생활습관이란 유아가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위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생활교육은 어린이들이 웃어른께 공손하게 인사하고 말하며, 밥을 흘리지 않게 먹는 등 겉으로 들어나는 행동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생활에 기본이 되는 행동을 스스로 할 수 하는 힘을 기르는 것으로 그에 따른 태도와 정신이 발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기본생활교육은 전통적인 형태로 내려온 사회적인 규범이나 원리를 따르며 나아가 다양한 삶의 양식에 적응하여 살 수 있는 인간으로 자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원영 외, 1992). 다시 말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고 그 사회 속에서 성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에 적응하는 습관들을 배우고 길러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기본생활습관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 기본생활습관은 유아가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요구되는 식사, 수면, 의복 등과 관련된 행위의 습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기본생활습관은 절제, 질서, 예절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습관을 포함한다(김주영, 문혁준, 2006). 이 두 가지 의미 중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넓은 의미의 기본생활습관인 절제, 질서, 예절, 청결, 절약을 위주로 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룬다(강승희, 오명녀, 2008; 김주영, 문혁준, 2006; 신인숙, 유연옥, 2003; 엄세진, 2003). 그러나 좁은 의미의 기본생활습관인 영아기 식사, 수면, 의복 등과 관련된 행위가 형성되어야 넓은 의미의 개념도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도 '0-2세 표준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영역 중 '건강한 생활'의 하위 범주에서 '몸을 깨끗이 하기', '즐겁게 먹기', '알맞게 잠자기와 휴식하기', '즐거운 생활하기', '규칙적인

배설습관 갖기’ 를 다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또한 ‘3~5세 누리과정’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하위 범주를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기’, ‘바른 식생활하기’, ‘건강한 일상생활하기’와 ‘질병예방하기’로 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2013). 국가수준의 보육과 교육에서도 기본생활습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좁은 의미에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기본생활습관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어려서 형성된 기본생활습관은 성인이 되면서 쉽게 고쳐지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 형성된 습관이 평생 남은 생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숙희, 강병재, 2002). 따라서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가 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적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기본생활 습관이 누적되고 영속된다고 볼 수 있다(이원영 외, 1992). 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기초적인 작업이 많이 되어야 하며, 적절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초기의 경험이 누적되어서 후에 영향을 주는 점을 미루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바른 기본생활습관을 습득한다면 후에도 계속 연계된다(엄세진, 정옥분, 2006; 황인옥, 2003). 특히 영아기는 사회를 배우는 가장 첫 시기인 만큼 바른 습관이 들어야만 성인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들에서는 초기 유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신인숙, 유연옥, 2003).

그러나 영아기부터 유아기에 걸쳐 형성되는 기본생활습관을 다루어 온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습관교육의 체계성과 각 습관 형성에 필요한 구체적 시기와 습관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이은진, 2008). 최근 연구 대부분은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김선희(2002)는 몬테소리 방법을 통해서, 김신자(2003)는 소집단 역할놀이를 통해서, 신인숙, 유연옥(2003)은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현경진(2002)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기본생활습관지도를 다각적인 교육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을 뿐 각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다루지는 않았다. 또 다른 분야는 기본생활 습관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나 가정 및 부모의 생각과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해영, 2001; 김주영, 문혁준, 2006, 김재은, 1994; 변형선, 김송이, 2011), 기본생활습관과 유아의 발달 수준을 살펴본 연구(박옥희, 2000; 이숙희, 강병재, 2002)가

대부분이다. 그 이외에도 기본생활습관이 경제개념과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며(곽미라, 2004), 유치원 적응과 놀이에 영향을 주며(정주선, 조은정, 2012), 기본생활 습관 중 수면이 학습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연구(Buckhalt, El-Sheikh, Keller and Kelly, 2009)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기본생활습과 관련된 평가척도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곽노의, 최민수, 김규수, 김경철, 유구종, 1997; 김명순, 변혜원, 김길숙, 2011; 이은화, 김희진, 이승연, 1996).

이러한 기본생활습관 관련 선행연구들 대부분은 기본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지와 기본생활습관이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기본생활습관을 측정하는 도구는 무엇인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작 영아기에 어떠한 기본생활습관이 언제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한 현상학적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별로 형성해야하는 연령이 다르다고 제언한 연구들은 있었지만(김해영, 2001; 변형선, 김송이, 2011; 송세정, 1999) 그 시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별 영유아기에 기본생활습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가 언제인지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기 4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 생후 4년간 발달과정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수면습관은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가?

2. 영유아기 4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 생후 4년간 발달과정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식습관은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가?

3. 영유아기 4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 생후 4년간 발달과정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배변/씻기 습관은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의 성별 평균 연령을 연차별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08년부터 11년까지 분석대상 성별과 평균연령

구분	남N(%)	여N(%)	합계	월령평균M(SD)
2008년	1059(51.0)	1019(49.0)	2078(100)	5.58(1.20)
2009년	962(50.5)	942(49.5)	1904(100)	14.07(1.08)
2010년	917(50.9)	885(49.1)	1802(100)	25.75(1.37)
2011년	903(51.5)	851(48.5)	1754(100)	38.27(1.47)

2. 측정도구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이며, Developmental Profiles : Daily Routines(Allen & Martoz, 2003, 신나리, 안재진, 이정림, 송신영, 김영원, 2008, 재인용)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1) 수면습관

수면습관은 2008년도 5문항, 2009년도 3문항, 2010년도 4문항, 2011년도 5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치는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 ‘항상 그렇다’이다.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밤 중에 깨지 않고 계속 잠을 자기 시작한다”, “손가락을 빨려고 한다”, “아기가 잠들기 전에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다”

2) 식습관

식습관은 2008년도 5문항, 2009년도 3문항, 2010년도 4문항, 2011년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8년도에는 연령이 어려 수유습관으로 측정되었고, 2009~2011년도는 식습관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부터 5: ‘항상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컵을 잘 사용한다”, “가끔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혼자 음식을 먹는다”, “혼자서 먹는 식사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어른이나 손 윗 형제자매의 식사예절을 모방하면서 배운다”.

3) 배변/씻기 습관

배변/씻기 습관은 2008년도에 3문항, 2009년도에 4문항, 2010년도에 5문항, 2011년도에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008~2010년도까지는 배변/씻기 습관만 포함되지만, 2011년도에는 옷 입기 습관도 포함되었다. 문항은 5점 척도로 1: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부터 5: '항상 그렇다'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남이 씻겨주는 것을 싫어하고 혼자 씻으려 한다", "보통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고 입힐 때 잘 따른다", "낮에는 대 소변을 조절을 할 수 있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연구문제 3개 모두 영유아기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측정 년도 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repeated measurement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측정 년도 별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기본생활습관별 기술적 결과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간 종단적으로 측정된 연구대상 영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기술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측정년도 대신에 측정년도의 평균 월령을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2008년도의 연구대상 평균월령은 6개월, 2009년은 14개월, 2010년은 26개월, 2011년은 38개월이다.

<표 2>와 같이 수면습관에서 남아는 6개월에 3.88, 14개월에 2.77, 26개월에 3.67, 38개월에 3.18로 수면습관이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3.97, 14개월에 2.73, 26개월에 3.68, 38개월에 3.17로 나타났다. 식습관에서 남아는 6개월에 3.77, 14개

월에 2.92, 26개월에 3.38, 38개월에 3.57로 14개월에서만 점수가 떨어지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3.74, 14개월에 2.95, 26개월에 3.39, 38개월에 3.59로 나타났다. 마지막 배변/씻기 습관에서 남아는 6개월에 3.95, 14개월에 2.77, 26개월에 3.30, 38개월에 3.61로 나타났다. 이는 식습관과 비슷한 분포로 14개월에서만 점수가 떨어지고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여아에게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3.96, 14개월에 2.72, 26개월에 3.28, 38개월에 3.61로 나타났다. 측정된 변인들 중 남아와 여아 모두 14개월에서 다른 평균 개월 수에 비해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점수가 많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08년부터 11년까지 기본생활습관별 기술적 결과

평균 월령	남			여			전체		
	수면 M(Sd)	식습관 M(Sd)	배변 씻기 M(Sd)	수면 M(Sd)	식습관 M(Sd)	배변 씻기 M(Sd)	수면 M(Sd)	식습관 M(Sd)	배변 씻기 M(Sd)
6개월	3.88 (0.54)	3.77 (0.59)	3.95 (0.66)	3.97 (0.57)	3.74 (0.58)	3.96 (0.68)	3.93 (0.56)	3.76 (0.60)	3.96 (0.68)
14개월	2.77 (0.74)	2.92 (0.46)	2.77 (0.74)	2.73 (0.73)	2.95 (0.43)	2.72 (0.72)	2.74 (0.73)	2.95 (0.44)	2.76 (0.73)
26개월	3.67 (0.50)	3.38 (0.50)	3.30 (0.55)	3.68 (0.49)	3.39 (0.51)	3.28 (0.57)	3.68 (0.50)	3.39 (0.50)	3.28 (0.56)
38개월	3.18 (0.37)	3.57 (0.40)	3.61 (0.52)	3.17 (0.39)	3.59 (0.40)	3.61 (0.53)	3.17 (0.38)	3.58 (0.40)	3.60 (0.52)

2. 영유아기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에 따른 측정 년도 별 차이

영유아 평균 6개월부터 38개월까지의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Mauchly의 W나 엡실런 값이 1에 가까우면 구형성가정을 만족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온 Mauchly의 W의 값은 수면습관은 .79, 식습관은 .92, 배변/씻기 습관은 .93이기 때문에 모두 1에 가까운 값을 가져 구형성가정을 모두 만족하여 일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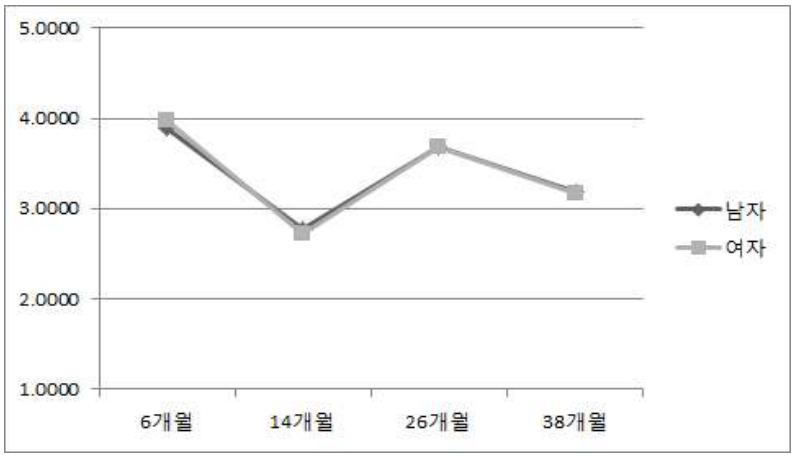
구분	요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면 습관	연령	1211.27	3	403.76	1298.03***
	연령*성별	3.24	3	1.08	3.48*
	오차	1364.73	4380	.312	
식습관	연령	520.27	3	173.44	743.71***
	연령*성별	0.39	3	0.13	0.56
	오차	1005.06	4311	0.23	
배변/씻기 습관	연령	1136.23	3	378.74	969.86***
	연령*성별	0.78	3	0.26	0.57
	오차	1399.90	4353	0.39	

* $p < .05$, *** $p < .001$.

<표 2>와 같이 영유아의 평균 6개월부터 38개월까지에 대한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 결과 먼저, 수면습관에서의 *F*값은 1295.14($p < .001$.)로 유의하였으며, 년도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의 *F*값은 3.48($p < .05$)로 유의하였다. 즉 수면습관은 평균 개월 수가 높아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남녀의 수면습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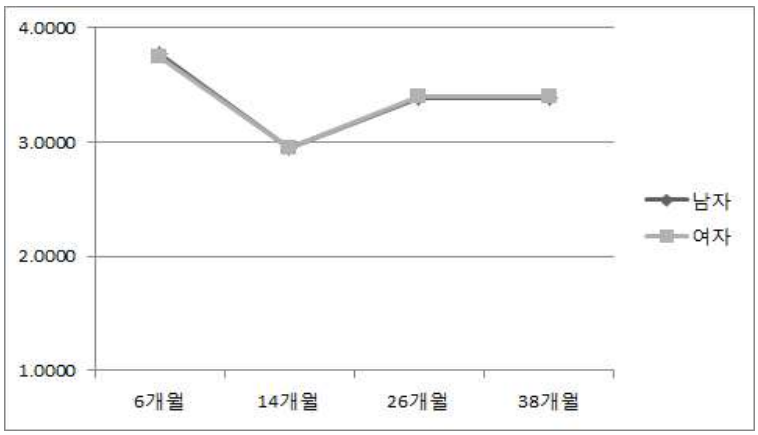
평균 개월 수별 식습관의 차이에 대한 *F*값은 743.87($p < .001$.)로 유의하였으며, 배변/씻기 습관에서의 *F*값은 969.86($p < .001$.)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기본생활습관은 평균 개월 수별 차이에 따라 식습관과 배변/씻기 습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덧붙여 식습관과 배변/씻기 습관에서의 남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8개월의 생활습관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각 연령별 평균을 비교하는 대비검정(Contrast)결과 수면습관의 경우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6개월과 38개월, *F*=1852.09, 14개월과 38개월, *F*=379.03, 26개월과 38개월, *F*=984.89). 식습관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6개월과 38개월, *F*=91.54, 14개월과 38개월, *F*=1659.78, 26개월과 38개월, *F*=131.22). 끝으로 배변/씻기 습관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6개월과 38개월, *F*=238.88, 14개월과 38개월, *F*=1299.72, 26개월과 38개월, *F*=257.60). [그림 1]에서 [그림 3]까지 각 습관별로 연령에 따른 변화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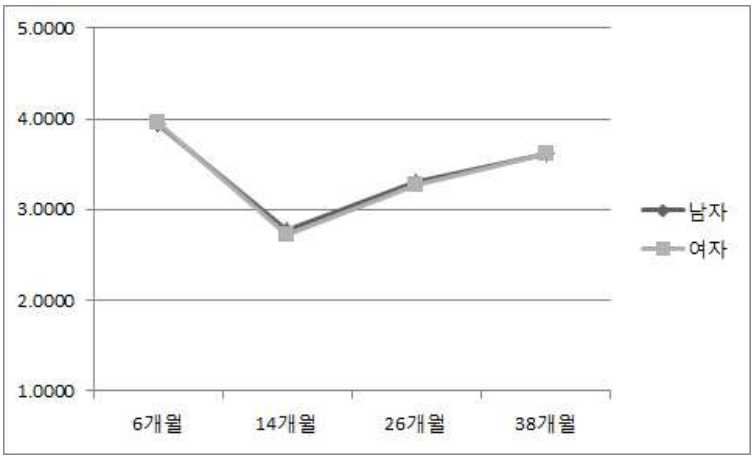
〔그림 1〕 평균 연령별 수면습관의 변화

[그림 1]에 의하면 수면습관은 6개월보다 14개월의 평균이 낮았으며, 다시 26개월에는 다소 높아졌지만 38개월에서는 다시 낮아졌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평균 연령별 식습관의 변화

[그림 2]에 의하면 식습관은 6개월보다 14개월의 평균이 낮았으며, 26개월에 높아졌고, 다시 38개월에도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그림 3] 평균 연령별 배변/씻기 습관의 변화

[그림 3]에 의하면 배변/씻기 습관은 6개월보다 14개월의 평균이 낮았으며, 다시 26개월에 높아졌고, 38개월에도 약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들의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의 발달과정이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런 과정에서 각 습관별로 중요한 특징이 되는 시기와 남녀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아동패널 데이터에서 수집한 자료 중 수면습관, 식습관, 배변/씻기 습관에 대한 자료를 남녀별로 반복측정 분석을 실시하여 정리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결론은 6개월에는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요구가 낮기 때문에 점수가 전체적으로 높았지만, 14개월부터 사실상의 기본생활습관 들이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지는 것 같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체로 14개월을 전후해서 기본습관들이기를 시작하고, 이 시기 영유아 혼자 독립적으로 기본생활습관을 들이기에는 어려운 시기로 부모에게 어느 정도 의존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26개월이 되어 기본생활습관들이기에 1년 넘게 반복되는

훈련으로 기본생활습관이 익숙해지며, 38개월이 되면 익숙함을 넘어 숙련되어 점수가 높아지는 것 같다. 그 중 수면습관은 38개월에는 다시 낮아졌는데 이는 꿈을 통해 잠에서 깨는 시간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면이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순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는 6개월, 14개월, 26개월, 38개월로 월령이 증가할 때마다 수면습관의 평균점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연령별로 다르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해영, 2001). 또한 부모가 기본생활을 형성해야하는 연령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변형선, 김송이, 2001; 송세정, 1999). 수면습관의 평균점수 분포는 6개월에서 14개월에는 낮아지고, 14개월부터 26개월에는 다시 높아지고, 24개월에서 38개월에는 다시 낮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수면습관이 6개월에는 거의 4점대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내용으로는 '수유 후 금방 잠을 자거나, 밤중에 깨지 않거나, 하루 14~16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손가락을 빨려고 하거나, 잠들기 전 혼자 옹알이 하거나, 손장난 놀이를 한다' 이다. 14개월에는 2점대로 점수가 떨어지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면습관의 점수는 낮아졌다. 특히 14개월 시기의 문항은 6개월 시기의 수면습관 문항과 다르게 '보통 8~9시경에 잠들어 10~12시간 정도 잔다. 잠들기 전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과나 습관이 있다. 잠자기 전 찾는 인형이나 이불, 책이 있다' 와 같은 문항으로 잠들기 전 습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6개월에서는 다시 점수가 높아졌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밤에 9~12시간 정도 자며, 낮잠도 자고, 잠자리 들기 싫어할 때 타이르거나 잠가기전 좋아하는 것을 하면 자거나, 피곤한 날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다. 26개월에는 14개월보다 잠을 자기 전 하고자 하는 일들과 잠들기 전 시간이 더 걸림을 볼 수 있는데, 이는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이야기 하는 자율성이 생기는 시기로 자신이 해야 하는 것 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더 강한 시기로 볼 수 있다(Shaffer &Kipp, 2012). 따라서 14개월 때보다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 잠을 방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 38개월에서는 수면습관 점수가 다소 떨어졌는데, 이 시기의 내용은 '잠들기 전 토닥이는 것이 필요하거나 꿈 때문에 깨는 것이 생기고, 깨면 다시 잠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는 문

항으로 인해서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꿈을 꾸어서 깨는 일이 있고, 그로인해 다시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른 수면습관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주어서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면습관은 영아가 성장하면서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시기별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 6개월에는 규칙적인 잠자는 습관과 한 번 자면 장시간 잠을 자는 습관으로 인해 부모는 영아를 잠들기 전에 많은 활동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큰 역할을 요하지 않았다. 14개월에는 잠자는 시간이 이전 시기에 비해 줄어들었으며, 특별한 것들을 요구하는 습관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 26개월에서부터는 피곤하거나 잠들기 힘든 경우 영아는 책읽기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대화하기 등과 같은 부모들과 무언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해 잠을 청할 수 있으며, 이런 활동들이 충족되었을 때 수면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들에 잠 들기 전 얼마나 영유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같이 활동해 주는지에 따라 수면습관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38개월에는 토닥이거나 발달상 상상과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로 잠을 자면서고 깨어 있을 때 했던 상상이 계속 연결되는 시기로 볼 수 있으며(권민균, 문혁준, 권희경, 성미영, 신유림, 안선희, 안효진, 이경옥, 천희영, 한유미, 한유진, 황혜신, 2012), 이런 활동이 기억에 남아 꿈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패턴 중 수면시간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짧았다고 했던 박태섭, 이동전, 이준희, 이현균, 안나영(200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수면습관의 남녀 차이에서는 평균에서 차이가 있었고, 결과 중 2개 월령인 6개월과 26개월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수면습관이 높다고 나왔다. 이 결과는 엄세진(2007)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그 이외 14개월과 38개월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물론 통계적으로 이 내용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긴 했으나, 각 평균차이에서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엄세진(2007)의 연구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엄세진(2007)의 연구에서 살펴본 기본생활습관이 세부영역은 건강과 자율이었고 이 내용은 본 연구의 수면습관과는 다른 기본생활습관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둘째, 영유아는 6개월, 14개월, 26개월, 38개월로 월령이 증가할 때마다 식

습관의 평균점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연령별로 다르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해영, 2001). 또한 부모가 기본생활을 형성해야하는 연령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변형선, 김송이, 2001; 송세정, 1999). 식습관의 평균점수 분포는 6개월에서 14개월에는 낮아지고, 14개월부터 26개월에는 다시 높아져서 38개월까지 계속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식습관이 6개월에는 전체 년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내용으로는 '하루에 5~8회 먹고, 수유시간에 칭얼대고, 도움 없이 혼자 젖꼭지 물고, 젖꼭지를 힘차게 빨고, 배가 다 차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을 줄 때 기다리기 힘들어한다'는 내용이다. 14개월에는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하거나, 혼자 숟가락을 웬만큼 사용하거나, 컵을 사용하고, 가끔 혼자음식을 먹는다'의 내용이다. 이것을 통해 6개월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젖꼭지를 찾고 물고 빠는 정도였지만 14개월 정도에는 혼자 스스로 하려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점수대가 낮아졌다. 즉 이 개월 수에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 소근육 발달이나, 눈과 손의 협응을 통해 숟가락 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6개월이 되어서는 점수가 다시 높아졌는데, 그 내용으로는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이 분명하며, 늘 먹던 음식만 고집하고, 혼자 먹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어른이나 손 윗 형제자매의 식사예절 모방하고, 컵이나 유리잔에 물을 마실 수 있다'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이 시기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서 음식을 편식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또한 14개월 보다는 소근육 발달이나 눈과 손의 협응이 잘 나타나서 스스로 먹는 것이 좀 더 수월하며, 특히 윗사람에 대한 모방을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바르게 먹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26개월에 점수가 상향되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영아의 식사습관 중 특히 음식 선호를 위해서는 26개월 이전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이 시기에 생기는 음식에 대한 선호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 38개월에는 26개월 때의 점수보다 조금 더 향상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식욕은 좋고, 양을 적게 주는 것을 좋아하며, 숟가락, 포크 사용이 가능하고,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으로 장난치며, 음료를 따를 수 있고, 우유를 많이 마시는 편이다'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 계속해서 소 근육 발달과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여 도구 사용이나 따르고 마시는 행동이 점차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식의 양과 먹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음식을 장난하는 버릇이 생기는 시기로 보이는데,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간식 주는 시기와 때는 잘 선정하고 정규식사시간에 먹는 양에 지장 없게 간식과 식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수유와 식습관 모두 영아가 성장하면서 각 시기마다 필요한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인 부분이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6개월에는 수유가 주된 식생활이며, 수유에 활용되는 빨기는 반사작용으로 거의 갖고 태어난다(권민균 외, 2012). 즉 본능적으로 배고플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습관이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부모가 돌봄으로 인해 무난히 지나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4개월부터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스스로 손을 이용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하며, 이때 부모는 떠 먹여주면서 그 연습의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흘리고 못하더라도 기다려 주는 것이 26개월과 38개월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26개월 이후부터 음식에 대한 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8개월 때도 먹고 싶은 의지가 없으면 음식으로 장난하는 행동을 통해 부모와의 갈등이 시작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영유아가 골고루 먹지 않아 이것을 지도해야 하는 시기이며, 38개월 때는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히 이 시기에는 자율성과 고집이 생기는 시기여서 한 번 형성된 선호는 쉽게 변화하기 힘들고, 식사 시간에 장난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과 예절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이런 바른 식사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극히 드물고 먹고, 자고, 입히는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방식의 양육이 현대에 주를 이루다 보니 잘못된 것을 혼내거나, 바른 태도를 가르치려는 현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를 놓친다면 그 이후 시기부터는 주도성과 자기중심성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26개월 전에 음식의 다양함과 식사예절을 못 가르친다면 부모들은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일 경우 다른 습관형성 보다 특히 식습관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박태섭 외 (2009)의 연구에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통해 맞벌이 부부들이 어떤 시기에 식습관형성을 위해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안내를 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식습관의 남녀 차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은 식습관은 성차보다는

연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는 6개월, 14개월, 26개월, 38개월로 월령이 증가할 때마다 배변/씻기 습관의 평균점수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모가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연령별로 다르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김해영, 2001). 또한 부모가 기본생활을 형성해야하는 연령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한 연구의 결과도 지지한다(변형선, 김송이, 2001; 송세정, 1999). 배변/씻기 습관의 평균 분포는 식습관의 분포와 동일한 구조로 6개월에서 14개월에는 낮아지고, 14개월부터 26개월에는 다시 높아져 38개월까지 계속 높아지는 분포를 보였다. 배변/씻기 습관 6개월 때의 내용으로는 '하루에 1~2회 대변을 보고, 보는 시간이 일정하며, 목욕시간에 발차기, 웃기, 물장구치는 것을 한다' 이다. 즉 배변과 씻기를 규칙적으로 따르고 선호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개월의 내용으로는 '혼자 씻어보려고 하며, 옷을 입을 때 도움을 주고, 기저귀나 옷에 대소변을 보면 어른께 알리고,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나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 6개월 보다 14개월부터 스스로 해 보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나 아직 스스로 조절하려는 행위들이 잘 되지 않아 낮은 점수대를 받은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아직 스스로 씻거나, 괄약근 조절감이 생기기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볼 수 있다. 14개월 정도는 혼자 서서 걷는 정도의 신체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근육의 발달과 소근육 분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권민균, 2012). 26개월 내용으로는 ' 혼자 씻으려하고, 머리 감는 것을 싫어하며, 스스로 벗고 입힐 때 잘 따르며, 다른 사람들 화장실 사용법을 지켜보고, 스스로 대 소변을 참을 수 있고, 유아용 변기 사용을 시도하며, 젖은 상태의 불편함을 표현한다' 이다. 26개월은 좀 더 스스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전 시기보다 더 보이며,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여 전반적으로 14개월 보다 점수가 더 향상되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화장실 사용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화장실 사용에 관심을 갖고 결국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기저귀에서 벗어나 변기를 사용하는 시도를 통해 기저귀를 그만 사용하고, 대 소변을 조절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인다. 이는 14개월부터 26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로는 이 시기 배변훈련이 마무리 되어야 함을 시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6개월의 내용으로는 '혼자서 잘 씻고 목욕탕에서 나오기 싫어하며, 낮에

는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있고, 밤에는 소변 조절이 일정하지 않고, 옷을 입는 것 보다 벗는 것을 더 잘하며, 지퍼나 단추와 똑딱이를 잘 다룬다' 이다. 26개월보다 좀 더 높아진 점수대로 스스로 목욕을 하고 대소변 가리는 것이 가능한 시기이다. 특히 38개월에는 배변과 씻기 습관 이외에 옷 입기 습관도 추가되었는데, 옷 입기에 필요한 소근육들이 이전 시기 보다 더 발달하여 옷 벗기와 옷에 부착된 지퍼, 단추, 똑딱이 조절이 가능한 시기라고 보여 진다. 옷 입고 벗기에서는 입는 것이 어려워 입기 보다는 벗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배변/씻기 습관에서 영아가 성장하면서 각 시기마다 필요한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부분이 다르다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6개월에는 규칙적인 배변과 씻기가 주를 이루었고, 14개월에는 스스로 해 보려는 시도가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 신체적, 인지적 발달이 미흡하여 스스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며, 26개월에서부터 배변훈련이 마무리되는 시기이며, 38개월에는 기본생활습관 중 수면, 식습관, 배변, 씻기 습관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 이를 넘어서 옷 입고 벗기라는 또 다른 기본생활습관을 숙지하여 익숙해져야하는 시기로 보인다. 즉 계속해서 기본생활습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연령이 발달하면서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배변/씻기 습관의 남녀에 차이가 없다는 점은 배변/씻기 습관은 성차보다는 연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국가로 인해 부모들의 아동양육의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단순하게 무상보육으로 모든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보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실제 부모들이 아동을 양육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 가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기본생활습관형성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기본생활습관은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좋은 기본생활습관이 학습과 놀이와 사회성과 등에 영향을 주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성을 강조함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부모는 언제, 어떤 교육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아동에게 훈육과 교육을 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것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즉 기본생활습관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생활습관의 중

요성을 강조하고 적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기본생활습관을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과 안내서 및 아동발달과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연결하는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 또한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의 연구를 적극 권장하고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년도 별 기본생활습관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방법으로는 반복측정 결과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그래프이 모양이 선형적인 모양이 아닌 특정 시기에 점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를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에서 이차함수 모형이나 분할함수 모형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기본생활습관을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 자료인 'Developmental Profiles : Daily Routine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분적으로 한 문항에 여러 의미가 섞여 있어서 검사자로 하여금 문항에 혼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잠잘 준비를 하지만, 여전히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 주거나 노래를 불러 주거나 토닥여 주는 것 등이 필요하다'는 혼자서 준비를 잘 한다고 보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아야 하는지 2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을 개발할 때는 이런 문항을 피해서 제작해야 하며, 이런 문항으로 인해 전체적인 신뢰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매년 기본생활습관과 관련된 질문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으로 영유아의 기본생활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다음 아동패널 데이터 조사를 실시할 때 기본생활습관을 같은 질문으로 실시한다면 문항과 측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승희·오명녀(2008). 가정과 연계한 몬테소리 일상생활프로그램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자기주도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7**(4), 35-48.

곽노의·최민수·김규수·김경철·유구종(1997). 유아 기본생활습관 평가도구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39-166.

곽미라(2004).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경제 개념과의 관계. 석사학위구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2013).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사용 지침서**.

권민균·문혁준·권희경·성미영·신유림·안선희·안효진·이경옥·천희영·한유미·한유진·황혜신(2012). **아동발달**. 서울: 창지사.

김명순·변혜원·김길숙(2011).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부모 평정척도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32**(2), 87-104.

김선희(2002).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위한 몬테소리 일상생활 활동 프로그램 활용. **대구교육, 35**, 62-69.

김신자(2003). 소집단 역할놀이 활동을 통한 기본생활습관 신장. **서울교육, 45**(3), 75-81.

김재은(1994). 한국가족의 문제, **가정의학회지, 15**(1), 705-713.

김주영·문혁준(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이 유아의 사회적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1), 13-22.

김해영(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의 관계. **아동연구, 15**(1), 22-48.

박옥희(2000). 유아의 발달수준과 기본생활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태섭·이동준·이준희·이현균·안나영(2009). 유아의 일상생활패턴 및 기본생활습관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포스터 발표, 341-342.

변형선·김송이(2011). 기본생활습관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1), 133-141.

보건복지부(2012). **제 2차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 및 교사지침**.

송세정(1999).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 석사학위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나리·안재진·이정림·송신영·김영원(2008). **한국아동패널 2008**.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서 2008-08.

신인숙·유연옥(2003). 철학적 탐구 공동체 활동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1), 269-296.

엄세진(2007). 아동의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회지. 28**(6), 103-118.

엄세진·정옥분(2006). 초등학생의 기본생활 습관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2), 55-76.

이숙희·강병재(2002). 유아의 기본생활습관과 유아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43-258.

이원영·방인옥·박찬옥(1992). 유치원의 기본생활 교육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2**, 71-89.

이은진(2008). 유·아동 생활습관 연구 동향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유아연구, 21**(1), 113-133.

이은화·김희진·이승연(1996), 기본생활습관 평가척도의 개발을 위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2), 161-177.

정주선·조은정(2012). 유아의 유치원 적응력과 기본생활습관 및 놀이특성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 발표 논문집**. 2012권, 379-379.

현경진(2002). 역할극 놀이를 통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교육제주, 116**, 122-125.

황인옥(2003). 유치원 교육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Buckhalt, J. A. El-Sheikh, M., Keller, P. S., & Kelly, R. (200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children's sleep and cognitive functioning: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 education. *Child Development, 80*(3), 875-892.

Shaffer, D., & Kipp, K. (2012).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옮김. p61.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주).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in South Korea

엄마의 일이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식[1] · 김두환[2]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1-3차 자료를 분석하여 엄마의 노동시장참여가 자녀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사전후 연구설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세 차례의 조사를 (1-2차와 2-3차) 두 개의 연구기간으로 나누었다. 통계학적 방법으로는 반사실적 분석기법의 하나인 매칭기법과 이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최소자승법을 활용하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다. 보다 다양한 논의를 위해, 각 연구시기의 평균효과에 더해 이전 시기의 노동시장참여에 따른 이질적 효과 또한 추정하였다. 모형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기에서는 일하는 엄마의 자녀들이 주부인 엄마의 자녀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성장에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번째 시기에서는 일하는 엄마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성장결과를 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질적 효과에 관한 추정결과는 노동시장참여가 어떤 특정한 효과를 준다기보다는 엄마의 노동시장참여가, 자녀의 성장을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

Ⅰ. Introduction

Associations between mother’s work in the labor force and children’s outcomes have attracted great amount of scholarly interest (Bianchi 2000; Chase-Lansdale et al. 2003). Especially recent debates on effects of maternal

1) 경희대학교(sochyunsik@khu.ac.kr).
2) 덕성여자대학교

care and employment in infancy on cognitive outcomes at age 3 have sparked new surge of interest and involvement from various research disciplines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ECCRN) 2000; Brooks-Gunn et al. 2002; Hill et al. 2005; Berchinal & Clarke-Stewart 2007). Even though ECCRN and Brooks-Gunn et al. utilized the same data set known as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Study of Early Child Care (SECC), the former authors reached no negative impacts of non-maternal cares whereas the latter authors repo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s.

There is also mixed, if not conflicting,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negative impacts of mother's work in the labor force on child development in South Korea. For instance, Yoon (2010) reported adverse effects of mother's work that was measured by number of working years during first five years of childhood on children's years of completed education but she failed to find negative influence using sibling fixed effects model. By examining the first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at was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on child development for more than the coming 10 years, Lee and Lee (2010) observed that mother's work carved no difference in Korean-Age and Stage Questionnaire that is a mother-reported child development instrument. However, the authors found somewhat surprisingly that mother's work enhanced scores on personal-social domain, physical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to the positive direction if scores were measured by Denver II modified for Korean children.

Building on this strong body of literature, we will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among children in South Korea. Our research will sharply depart from the previous research endeavors in the following respects. We will employ two statistical techniques to draw robust causal inferences. First, we divide first three waves of PSKC into two parts: one for the first two waves and the other for the second

and third waves. For each period, we will apply a pre- and post-test design in which we compare outcome variables measured in the post-test wave after control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collected in the pre-test wave. For instance, we will use the first two waves to understand whether mother's employment status in wave 2 would affect child development after controling for a wide array of confounding variables measured in wave 1.

To draw robust statistical inferences, further, we will employ not only ordinary least squares but also a matching estimator (psmatch2" in Stata; Leuven & Sianesi 2006) to uncover counterfactual estimates which are often called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ATT) (Morgan & Harding 2006; Rosenbaum & Rubin 1983). To facilitate comparison between two statistical methods, we will use a linear probability model in which the dichotomous outcome variable, Denver II modified for Korean children, is fitted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We are interested not only in average effect or ATT but also in heterogeneous effects by changing status of mother's work. More specifically, children might respond differently when mother entered the labor force compared with when mother exited the labor force. In this line of reasoning, we first compare children whose mothers were at home in wave 1 but entered labor force in wave 2 with children whose mothers continued to stay at home throughout two waves. Then, we proceed to contrast children whose mothers worked in wave 1 but stopped working in wave 2 with children whose mothers remained in labor force between two waves. The same logics will be applied to data of the second and third wave.

II. Research Methods

1. Data

In this paper, we analyze first three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at have been collected and maintain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PSKC is an ongoing longitudinal study representing children who were born in 2008. KICCE drew 2,150 samples from 2,078 mothers that gave birth to children in medical facilities in 2008 (KICCE 2008). Because nearly all children are born in medical facilities in Korea, there would be negligible, if any, bias due to the sampling method. As the name suggests, PSKC has measured a wide array of background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child development as well as several growth variables that assessed and monitored child development. We decide to examine first three waves of PSKC mainly because our outcome variable, Denver II modified for Korean children, has been assessed in those surveys.

To make the analytical dataset, we apply the listwise deletion method which drops every observations that have at least one missing value in variables used. We select children who have valid values in all variables that will be discussed shortly and obtain 1,219 children from the original 2,150 children. So, attrition due to loss-to-following and survey or item non-response is approximately 43.3%. For the current draft, we do not go further beyond just analyzing the 1,219 children so that readers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that our results may be likely to be biased due to our sample selection method.

2. Measurement

1) Treatment Variable

Our treatment variable is mother's work status in wave 2 and 3. Across three waves, PSKC consistently threw to mothers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worked for income. The choice set consisted of five alternatives: 1) work, 2) attending school, 3) homemake, 4) no job, 5) other. We assign the value zero if mothers chose 3) homemake and the value one if mothers answered 1) work or 4) no job. We treated those mothers who selected the

other categories were as missing such that those respondents were dropped from our analytical dataset. This way, our work variable stand for labor force participation but there were less than 10 mothers who elected 4) no job such that there would no significant bias if we label the recode variable mother's work variable. We also measure the same variable in the first wave and use it as a confounding variable.

2) Outcome Variable

Our outcome variable is Denver II modified for Korean children (Denver II - K) that also were assessed across three waves. Originally, the Denver Scale was developed by Frankenberg (1967) under the name of the Denver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to evaluate child development along the age line and evolved to Denver II. Korean researchers adapted the original 125 items encompassing four developmental domains of personal social, fine motor adaptive, language, and gross motor to be more appropriate in Korean contexts such that Denver II - K retained 110 items. We use and recode the overall evaluation in the manner that the variable has the value zero for children who were diagnosed abnormal and the value one for children who traced along the normal line. We include Denver II - K measured in the previous wave in the confounding variable set when we estimate statistical models.

3) Confounding Variables

A comprehensive set of confounding variables is controlled for to minimize the omitted variable bias. We already noted that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Denver II - K that were collected in a previous year are listed in the set. Two child characteristics are considered: sex and birth order. For the sex variable, male acts as a reference category. Birth order is assumed a continuous variable and high values means high orders. It should be noted that data collectors censored higher orders than fifth order into fifth. Given that birth orders were usually less than fifth, this operationalization would

not pose a significant threat to statistical inferences.

We account for mother's age and its squares to reflect nonlinear relations between child development and mother's age. Mother's and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is also considered. We treat them as categorical variables with the values of "up to high school (reference)", "2-year college", and "4-year college or more". Marit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father has repeatedly been demonstrated to be an important factor for child development. We sum four item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eight items on marital conflict to have two marital relationship. Each item has the five scales from strongly disagree to strongly agree so that high values in marital satisfaction mean high satisfaction while high values in marital conflict connote enhanced conflict.

Co-residence with grandparents would allow mothers to opt to work because grandparents might take care of young children. So, we include a variable on co-residence with grandparents that has the value zero for no co-residence with grand parents and the value one for co-residence. Logged household income as well as home ownership are controlled for to adjust for socioeconomic status. Logged household income is considered a continuous variable and home ownership a categorical variable with four values. The reference category for home ownership is home owner and the other categories include down payment, monthly rent, and other type. Down payment is a unique rent type in Korea in which renters deposit somewhat large amount of money, say, 70-80% of home price, when they rent a space but claim it when they vacate. Lastly, we take into consideration urbanicity of residence that has three categories: metropolitan areas (reference), urban areas, and rural areas.

3. Statistical Methods

As we previously noted, we divide three waves into two study periods: Age 1 model in which confounding variables are measured in wave 1 but

mother's employment and outcome variable are evaluated in wave 2 and Age 2 model in which confounding variables are collected in wave 2 but mother's employment and outcome variable are assessed in wave 3. In this pre- and post-test design, we are interested in figuring out whether changes in mothers' employment status between two waves would carve out a distinct mark on child development.

To draw a robust statistical inference, we apply ordinary least squares as well as a matching estimator to each study period (Leuven & Sianesi 2003). Even though the outcome variable is dichotomous, these methods will facilitate our interpretation on results because coefficients denote changes in probability of tracking down a normal development as opposed to an abnormal development. Widely known as a linear probability model, these methods are not unusual in child development literature.

Ⅲ.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Table 1> and <Table 2> in the following pages present descriptive statistics for Age 1 and Age 2 model respectively. There, we display statistics by working status of mothers in addition to total children in order to deliver concrete sense of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Our analytical dataset contains 1,219 children. 29.8%, 31.3%, and 33.1% of their mothers were in labor market in wave 1, 2, and 3 respectively demonstrating increasing tendency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along the child's age line presumably because need for intensive child cares diminished progressively as children aged.

In addition,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that mother's work status did not change frequently since only 9.1% (=78/856*100) among mothers who were homemakers in wave 1 entered the labor force in wave 2 and 16.3%

(59/363*100) among mothers who were workers in wave 1 decided to leave the labor force. These estimates are quite similar with work status changes between wave 2 and 3. These observations illustrate that mothers who remained at home tended to remain at home while working mothers were likely to work in the labor force, raising possibility of selection bias when we estimate effects of mother's working status on child development using a cross-sectional dataset.

Percent of abnormal children shows a bit awkward pattern across waves. Only 8.7% was diagnosed abnormal in wave 1 but the figure rose steeply to 25.2% in wave 2 but it dropped to 10.2 in wave 3. We also notice that children whose mothers were homemakers were more likely to be diagnosed abnormal. In wave 2, for instance, 27.0% of children were abnormal for children whose mother were homemakers while 21.2% were for children whose mother worked.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showing the positive effect of mother's work in labor force.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Age 1 Model

Variable[1]	Value	Total(N=1219)		Homemake2(N=837)		Work2(N=382)	
		M/F[2]	V/P[3]	M/F[2]	V/P[3]	M/F[2]	V/P[3]
Mom Work 1	HM	856	70.2	778	93.0	78	20.4
	Work	363	29.8	59	7.0	304	79.6
Mom Work 2	HM	837	68.7	837	100.0	0	0.0
	Work	382	31.3	0	0.0	382	100.0
Denver Ⅱ 1	Abnor.	106	8.7	69	8.2	37	9.7
	Normal	1113	91.3	768	91.8	345	90.3
Denver Ⅱ 2	Abnor.	307	25.2	226	27.0	81	21.2
	Normal	912	74.8	611	73.0	301	78.8
Child Sex	Male	625	51.3	435	52.0	190	49.7
	Female	594	48.7	402	48.0	192	50.3
Birth Order		1.7	0.5	1.7	0.5	1.6	0.4
Mom Age 1		31.3	13.6	31.1	14.4	31.6	11.8
Mom Age Sq. 1		990.3	54955.6	982.5	57438.0	1007.4	49225.8
Mom Edu. 1	High	366	30.0	291	34.8	75	19.6
	2-Y Col	370	30.4	274	32.7	96	25.1
	4-Y Col	483	39.6	272	32.5	211	55.2
Dad Edu. 1	High	347	28.5	266	31.8	81	21.2

Variable[1]	Value	Total(N=1219)		Homemake2(N=837)		Work2(N=382)	
		M/F[2]	V/P[3]	M/F[2]	V/P[3]	M/F[2]	V/P[3]
	2-Y Col	269	22.1	188	22.5	81	21.2
	4-Y Col	603	49.5	383	45.8	220	57.6
Marital Satis. 1		15.3	8.8	15.3	9.0	15.5	8.3
Marital Confl. 1		15.9	37.4	16.0	37.6	15.6	36.9
Grand Parent 1	No	1089	89.3	775	92.6	314	82.2
	Yes	130	10.7	62	7.4	68	17.8
Log HH Inc. 1		5.7	0.2	5.5	0.2	5.9	0.2
Home Own. 1	Own	524	43.0	363	43.4	161	42.1
	Down.	526	43.2	349	41.7	177	46.3
	Rent	100	8.2	73	8.7	27	7.1
	Other	69	5.7	52	6.2	17	4.5
Urbanicity 1	Metro.	465	38.1	303	36.2	162	42.4
	Urban	251	20.6	188	22.5	63	16.5
	Rural	503	41.3	346	41.3	157	41.1

Notes. 1) Number at the end of the variable name denotes survey waves with 1 being the first wave.
2) M/F represents mea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requency for categorical variables.
3) V/P stands for variance and percentage for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Age 2 Model

Variable[1]	Value	Total(N=1219)		Homemake3(N=815)		Work3(N=404)	
		M/F[2]	V/P[3]	M/F[2]	V/P[3]	M/F[2]	V/P[3]
Mom Work 2	HM	837	68.7	745	91.4	92	22.8
	Work	382	31.3	70	8.6	312	77.2
Mom Work 3	HM	815	66.9	815	100.0	0	0.0
	Work	404	33.1	0	0.0	404	100.0
Denver Ⅱ 2	Abnor.	307	25.2	209	25.6	98	24.3
	Normal	912	74.8	606	74.4	306	75.7
Denver Ⅱ 3	Abnor.	124	10.2	92	11.3	32	7.9
	Normal	1095	89.8	723	88.7	372	92.1
Child Sex	Male	625	51.3	427	52.4	198	49.0
	Female	594	48.7	388	47.6	206	51.0
Birth Order		1.7	0.5	1.7	0.5	1.6	0.4
Mom Age 2		32.2	13.5	32.2	13.6	32.1	13.2
Mom Age Sq. 2		1048.8	57438.1	1050.5	58426.2	1045.2	55565.9
Mom Edu. 2	High	362	29.7	276	33.9	86	21.3
	2-Y Col	315	25.8	210	25.8	105	26.0
	4-Y Col	542	44.5	329	40.4	213	52.7
Dad Edu. 2	High	316	25.9	229	28.1	87	21.5

Variable[1]	Value	Total(N=1219)		Homemake3(N=815)		Work3(N=404)	
		M/F[2]	V/P[3]	M/F[2]	V/P[3]	M/F[2]	V/P[3]
	2-Y Col	243	19.9	164	20.1	79	19.6
	4-Y Col	660	54.1	422	51.8	238	58.9
Marital Satis. 2		15.6	9.3	15.6	9.7	15.7	8.5
Marital Confl. 2		16.2	36.0	15.9	36.0	16.6	35.7
Grand Parent 2	No	1108	90.9	757	92.9	351	86.9
	Yes	111	9.1	58	7.1	53	13.1
Log HH Inc. 2		5.7	0.2	5.6	0.2	5.9	0.2
Home Own. 1	Own	528	43.3	347	42.6	181	44.8
	Down.	502	41.2	332	40.7	170	42.1
	Rent	93	7.6	73	9.0	20	5.0
	Other	96	7.9	63	7.7	33	8.2
Urbanicity 2	Metro.	512	42.0	341	41.8	171	42.3
	Urban	503	41.3	328	40.2	175	43.3
	Rural	204	16.7	146	17.9	58	14.4

Notes. 1) Number at the end of the variable name denotes survey waves with 1 being the first wave.
2) M/F represents mean for continuous variables and frequency for categorical variables.
3) V/P stands for variance and percentage for continuous and categorical variables respectively.

2. Statistical Results

Previous findings are limited in that the estimates do not take into account confounding effects of third variables on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Table 3> below shows statistical results when we estimate a linear probability model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Even though our interest lies in the coefficient on mother's work status in wave 2, namely the coefficient on "Work 2", we present all coefficients of variables included in the model.

〈Table 3〉 OLS Estimates for Age 1 Model

Variables		Estimate	S.E.	*P*-Val
Denver II 1	Normal	0.033	0.044	0.452
Mom Work 1	Work	0.009	0.042	0.832
Mom Work 2	Work	0.041	0.040	0.310
Child Sex	Female	0.123	0.025	0.000
Birth Order		0.018	0.019	0.342
Mom Age 1		0.037	0.038	0.335
Mom Age Sq. 1		-0.001	0.001	0.314

Variables		Estimate	S.E.	*P*-Val
Mom Edu. 1	2-Y Col	0.009	0.035	0.795
	4-Y Col	0.017	0.036	0.646
Dad Edu. 1	2-Y Col	-0.071	0.037	0.058
	4-Y Col	-0.033	0.035	0.340
Marital Satis. 1		0.001	0.006	0.856
Marital Confl. 1		-0.001	0.003	0.779
Grand Parent 1	Yes	0.025	0.041	0.546
Log HH Inc. 1		0.023	0.032	0.469
Home Own. 1	Down.	0.001	0.027	0.966
	Rent	-0.020	0.049	0.679
	Other	0.065	0.056	0.250
Urbanicity 1	Urban	0.033	0.035	0.345
	Rural	0.018	0.028	0.523
Intercept		-0.072	0.635	0.910

We find that the coefficient on mother's work status is 0.041 meaning that children whose mothers worked were 4.1% more likely to get diagnosed normal than children whose mothers were homemakers. Even though this estimate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e are surprised to find that the effect estimate is positive because a dominant portion of research in western societies reported, if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estimates. Nevertheless, this positive estimate is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research analyzing PSKC. We are also surprised with the finding that the effect are more than twice than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contrasting 4-year college or more with up to high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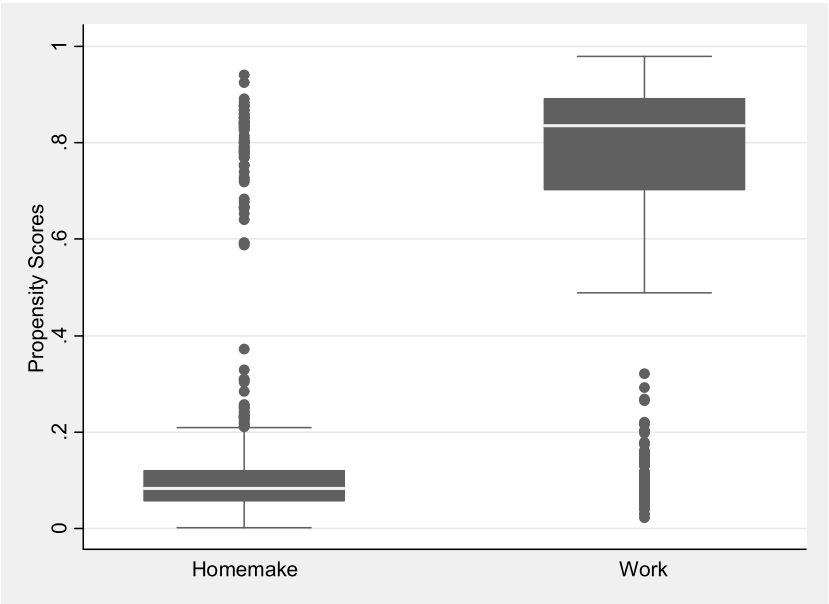
〈Table 4〉 Matching Estimates for Age 1 Model

No. of Matches	Estimate	S.E.	*Z*-value	*P*-Value
1	-0.081	0.077	-1.053	0.293
2	-0.062	0.078	-0.786	0.432
3	-0.052	0.074	-0.703	0.482
4	-0.052	0.073	-0.719	0.472
5	-0.057	0.071	-0.794	0.427

<Table 4> below reports estimates on average effect on the treated when

we fit our analytical dataset to a matching estimator. To obtain estimates in <Table 4>, we use n nearest neighborhood method in which n nearest children whose mothers were homemakers in terms of propensity scores were matched to each child whose mother worked. We experiment one through five matches as a way of sensitivity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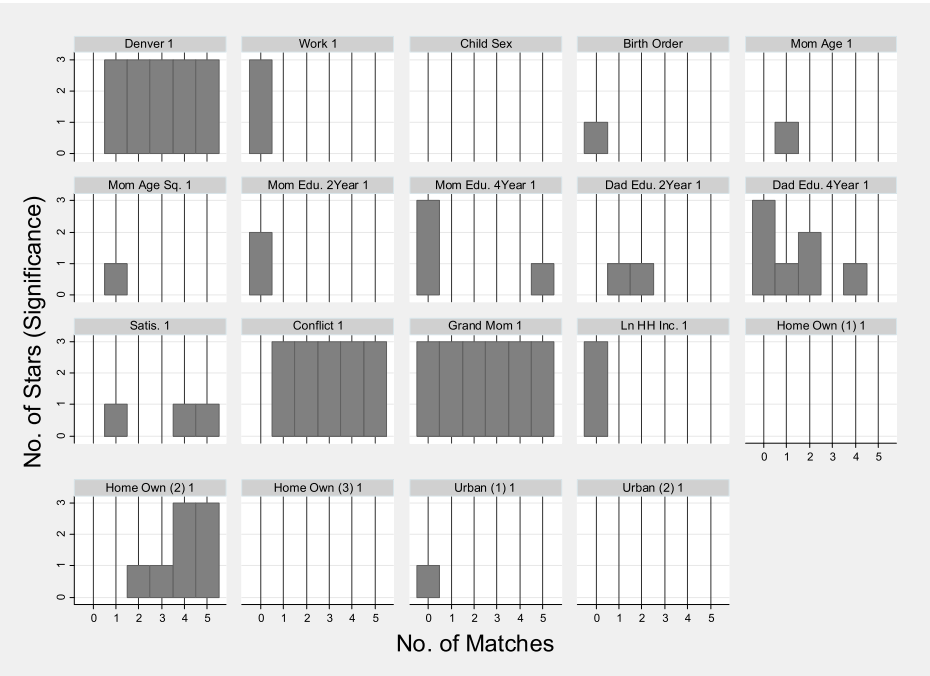
From <Table 4>, we find the effect of mother's work was negative al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izes, namely absolute values of coefficients do not widely vary across the number of matches seems greater than the absolute value we got from <Table 3>. This directly opposite result between ordinary least squares and a matching estimator appears to arise due to differences in support, in other words, differences in values of confounding variables. To get some sense on this, we plot distributions of propensity scores by mother's work status in [Figure 1] below.



〔Figure 1〕 Propensity Scores to Work by Mother's Work Status in Wave 2

[Figure 1]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propensity scores by mother's work status, suggesting plausible bias in ordinary least squares. We also present diagnostic graphs in [Figure 2]. Those graphs in [Figure 2] show how significant differences there would be if we matched each children whose mother worked to n children whose mothers were homemakers. For instance, the graph in the first row and first column shows that we got no star meaning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f we did not match and three star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0.001 level) in statistical significant test between two types of mothers if we matched 1 through 5 children. Careful reading in graphs in [Figure 2] suggest that matching three children would minimize differences in support because it begets the smallest numbers of confounding variables tha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types of mothers.



〔Figure 2〕 Differences in Support by Number of Matches

Therefore, our results up to now seem to support the conclusion that

mother's work affected child development in a negative direction although the effect appeare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Table 5>, we present results from statistical models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variables. The estimates agree with the tentative conclusion that mother's work in wave 3 seems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 development although coefficient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5〉 Estimates for Age 2 Model

No. of Matches	Estimate	S.E.	Z or t-value	P-Value
OLS	0.019	0.026	0.744	0.457
1	0.052	0.040	1.314	0.189
2	0.030	0.039	0.759	0.448
3	0.028	0.039	0.722	0.470
4	0.018	0.038	0.473	0.636
5	0.015	0.038	0.407	0.684

Finally, we would like to assess whether there were heterogeneous effects by entering or exiting the labor force. The first column block in <Table 6> delivers estimates when we select children whose mothers were at home in wave 1 and compare children whose mothers entered the labor force by wave 2 with children whose mothers remained at home. All coefficients are positive meaning that children whose mothers entered the labor force benefited from their mothers' decision. However, all estimate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venting us from drawing a firm conclusion.

By contrast, the second column block exhibits estimates when we choose children whose mothers worked in wave 1 and compare children whose mothers exited the labor force by wave 2 with children whose mothers remained in the labor force. Coefficients are positive suggesting that children would benefit when their mothers decided to exit the labor force as opposed to children whose mothers remained in the labor force.

We also apply the same analytical methods to Age 2 model and display results in <Table 7>. We end up with similar results in <Table 7> as in

<Table 6>. More specifically, children seems to benefit when their mothers decided to enter the labor force if their mothers were homemakers in the previous wave while children also appear to benefit when their mothers decided to exit the labor force if their mothers worked in the previous wave.

〈Table 6〉 Heterogeneous Effect for Age 1 Model

	Work Effect				Homemake Effect			
No. of Matches	Est.	S.E.	*Z*-val.	*P*-val	Est.	S.E.	*Z*-val.	*P*-val
1	0.000	0.064	0.000	1.000	0.068	0.091	0.744	0.457
2	0.019	0.057	0.337	0.736	0.059	0.081	0.731	0.465
3	0.064	0.055	1.159	0.246	0.028	0.073	0.386	0.700
4	0.071	0.054	1.316	0.188	0.017	0.070	0.243	0.808
5	0.077	0.053	1.465	0.143	0.010	0.067	0.152	0.879

〈Table 7〉 Heterogeneous Effect for Age 2 Model

	Work Effect				Homemake Effect			
No. of Matches	Est.	S.E.	*Z*-val.	*P*-val	Est.	S.E.	*Z*-val.	*P*-val
1	0.065	0.049	1.339	0.181	0.014	0.051	0.280	0.779
2	0.087	0.040	2.151	0.031	0.007	0.044	0.163	0.871
3	0.054	0.037	1.479	0.139	-0.005	0.039	-0.123	0.902
4	0.049	0.035	1.388	0.165	0.018	0.040	0.446	0.655
5	0.059	0.034	1.735	0.083	0.029	0.039	0.728	0.467

These results seem very confusing because estimates on heterogenous effects directly opposed depending on where mothers was in the previous wave. Namely, work effect was positive when mothers were homemakers but it was negative when mothers worked in the previous wave. However, we speculate that these results strongly support mothers' rational choice. Namely, mothers' decision on whether to enter or exit the labor force would depend on children's developmental status such that if their children suffered, their mothers would adjust their work status to care for their children.

Ⅳ. Conclusions and Discussion

So far,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 between mother's work and child development through analyzing first three waves of PSKC. We summarize our findings as follows. On average, mother's work in the labor force seems to have been negative for child development for the first year after a child was born. However, mother's work appear to have turned positive in the second year of children's life. Nevertheless investigations on heterogenous effects reveal that mother's decision on whether to enter or exit labor force seems to have been based on children's prospective development to the extent that work or not per se did not impart significant impacts on child development. These conclusions should be very carefully interpreted because all estimates turn out statistically insignificant.

Not surprisingly, our current study is limited in numerous ways. We did not take into account longitudinal attrition and survey non-response. For instance, if children who were in the abnormal track of development and whose mothers worked were more likely get out of samples than children who were in the abnormal status but whose mothers were homemakers, then our estimates on mother's work effect would be positively biased. Even though we controlled for a wide array of confounding variables, in addition, there would be a hidden confounding variable such as children's latent cognitive skills. In future study, we should try to use longitudinal weights and actively search for proxy variables for cognitive skills to ameliorate hidden biases in our current study.

Notwithstanding these limitations, we are quite sure that our current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in various ways. To just name a few, we find a negative effect of mother's work in the first year of life,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study. This inconsistency with the previous result demonstrates that we should be cautious when we analyze data and we can benefit from using several different statistical techniques. Our results

also unwittingly show that mothers tend to base their decision in the context of their children's development. If their children suffered from their current behaviors, mothers seem to have readjusted them for children's well-being. This rational calculation of mothers' behaviors with respect to children's well-being seems to be a strong buttress for favorable child development than any other social structures or economic circumstances.

References

윤자영(2010). 모의 취업이 자녀의 교육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1회 고령화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2010). 한국아동패널 2008: 데이터 사용 지침서. 육아정책연구소.

이경희·이영(2010). 어머니의 취업이 영아와 가족복지에 끼치는 영향 및 관련변인들의 중재효과: 대리양육, 소득수준, 직장육아정책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이상록(2009). 모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6**, 133-161.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J. (2002).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The NICHD Study of ear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3*, 1052-1072.

Burchinal, M. R., & Clarke-Stewart, K. A.. (2007).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cognitive outcomes: The importance of analytical approach.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40-1155.

Hill, J., Waldfogel, J., Brooks-Gunn, J., & Han, W. (2005).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A fresh look using newer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41*, 833-850.

Leuven, E., & Sianesi, B. (2003). PSMATCH2: Stata module to perform full Mahalanob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common support

graphing, and covariate imbalance testing. http://ideas.repec.org/ c/ boc/ bocode/ s432001.html.

Morgan, S. L., & Harding, D. J. (2006). Matching estimators of causal effects: Prospects and pitfalls in theory and practice.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35*, 3-60.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The relation of child care to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1*, 960-980.

Rosenbaum, P. R., & Rubin, D. B. (1983). The central role of the propensity score in observational studies for causal effects. *Biometrika, 70*(1), 41-55.

Ruhm, C. J. (2008).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development. *Labour Economics, 15*, 958-983.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cs, Psychological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of Parents on Child Birth Planning of Parents With Children

오승아[1] · 유준호[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ener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factors, sociocultural factors of parents on child birth planning of parents with children. The 1,904 subjects and 1,802 subjects were parents of 2nd and 3rd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conducted in 2009 and 2010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ild birth planning was affected by age of mother and father, employment of mother, average monthly wage. Second, child birth planning was not affected by self-efficacy, selfesteem, post-natal depression of mother. Third, child birth planning was affected by value on children of parents and maternal expectation of their own children. Fourth, the most important factors affecting additional childbirths is the mother's value of child, the age of father, employment of mother, marital satisfaction of father.

1) 경동대학교(sandmann87@naver.com)
2) 을지대학교(coffeeklatch@hanmail.net)

Ⅰ. 서 론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로 인구학적 천이 측면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Reher,2004; 정성호, 2009). 1990년대 초반부터 유럽과 동아시아의 총출생률이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Goldstein, Sobokta, & Jasilioniene, 2009). 많은 나라에서 이상적인 가족수가 감소있으며 많은 부부들은 자녀 없이 지내거나 더 적은 수의 아이를 갖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다(Billari, Liefbroer & Philipov,2006; Coleman, 2007; Lutz, 2007; McDonald, 2002).

한국의 여성합계 출산율은 2011년 현재 1.24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12).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18년부터는 총인구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남정은, 정정희, 2012).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그로인한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인구학적 특성상 상당기간 동안 사회,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급속한 출산율 저하는 한국의 고령화와 노동인구가능 인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아동인구 1명당 65세 이상 인구 3명을 갖게 될 것이며, 노동 가능 인구의 1/3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Howe, Jackson, & Nakashima, 2007).

이에 최근 많은 학자들이 우리사회 저출산의 근본원인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이삼식, 2010).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

저출산이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저출산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인구학적 맥락에서 혼인 지연이나 독신 가구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거나(최경수, 2004),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의 어려움(최숙희, 김정우, 2005),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가치관 변화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주원인으로 제시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윤옥화, 2004; 이성림, 2010; 정상훈, 2007; 조아라, 2005). 이처럼 우리나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없는 경직된 사회적 환경과 높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등 사회, 경제적 문제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만 접근하기 보다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사회문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김미정, 정계숙, 박희경, 2011). 부모의 심리적 특성(이정원, 2009)과 사회문화적 특성은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이형민, 2012; 정혜은, 진미정, 2008)이 있으나 이러한 접근의 연구는 아직 매우 제한적이므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에 따른 출산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가족의 변화 상황에서 새로운 부모역할에 적응해야 하므로 부모 됨에 대한 적지 않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갖게 되며(권미경, 2011) 이러한 부담감은 후속 출산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출산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요인은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는 산후 우울이 있다. 어머니의 산후우울은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자녀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머니의 후속출산 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출산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기 효능감은 어머니에게 자신감과 긍정적 정서를 가지게 함으로써 후속출산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요인도 후속출산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자녀가치(부모 됨의 태도), 자녀미래기대, 부부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도구적, 정서적, 사교적, 정보적 지원) 등이 있다.

‘자녀에 대한 가치’와 ‘자녀기대’ 등은 양육특성이 반영된 요인으로서 부모역할과 관련되므로 유자녀 부모가 양육자로서 부모역할의 경험을 확장할지 말지를 의사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Forster, 2000).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박주현, 2012). 자녀가치관은 자녀가 부모를 만족하게 해주는 요구이며(Kwon & Kim, 2004) 결혼에 대한 규범과 더불어 출산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권태환, 김두섭, 1990; 박찬화,

2012) 알려져 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서미정, 2011).

부부의 결혼만족도도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유진, 2007; 정미라, 박수경, 홍소영, 2013). 결혼 만족도가 높고 부부갈등이 낮으며 부부가 자녀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을 때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남희, 2011;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1).

사회적 지원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이재림, 옥선화, 2001) 출산계획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정희, 장영애,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모의 일반적 특성과 심리적, 사회문화적 변인들이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기대자녀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년)조사에 참여한 11-18개월 아동과 그 가족 총 1904명이며, 3차년도(2010년) 조사에 참여한 23-31개월 아동과 그 가족이며 총 1802명이

최종 데이터로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2009년 2차 패널집단 인구통계학적 정보(*N*=1904)

변인	집단	빈도(%)	평균(*SD*)
아동 월령	11개월	3(0.16)	14.07(1.08)
	12개월	121(6.35)	
	13개월	447(23.48)	
	14개월	701(36.82)	
	15개월	471(24.73)	
	16개월	133(6.99)	
	17개월	24(1.26)	
	18개월	4(0.21)	
	전체	1904	
모연령 범주	20-29세	434(22.79)	32.15(3.69)
	30-39세	1420(74.58)	
	40-49세	50(2.63)	
	전체	1904	
	시스템 결측값	0	
모취업학업상태	취업중	593(31.43)	
	학업중	7(0.37)	
	미취업/미취학	1287(68.2)	
	전체	1887	
	시스템결측값	17	
모기대자녀수	1명	345(18.12	
	2명	1166(61.24)	
	3명	349(18.33)	
	4명	37(1.94)	
	5명	6(0.32)	
	6명	1(0.05)	
	전체	1904(100)	
	시스템결측값	0	
부연령 범주	20-29세	170(9.19)	34.68(3.99)
	30-39세	1485(80.32)	
	40-49세	192(10.58)	
	50세 이상	2(0.11)	
	전체	1849	
	시스템 결측값	55	
월평균 소득 범주	200만원이하	503(26.57)	337.26(267.25)
	400만원이하	997(52.67)	
	600만원이하	300(15.85)	
	600만원초과	93(4.91)	
	전체	1893	
	시스템 결측값	11	

<표 2> 2010년 3차 패널집단 인구통계학적 정보(*N*=1802)

변인	집단	빈도(%)	평균(*SD*)
아동 월령	23개월	67(3.72)	25.75(1.37)
	24개월	248(13.76)	
	25개월	469(26.03)	
	26개월	547(30.36)	
	27개월	301(16.7)	
	28개월	110(6.1)	
	29개월	44(2.44)	
	30개월	14(0.78)	
	31개월	2(0.11)	
	전체	1802	
모연령 범주	21-29세	300(16.78)	32.78(3.67)
	30-39세	1419(79.36)	
	40-48세	69(3.86)	
	전체	1788	
	시스템 결측값	14	
모취업학업상태	취업중	600(33.31)	
	학업중	5(0.28)	
	미취업/미취학	1196(66.41)	
	전체	1801	
	시스템결측값	1	
모기대자녀수	1명	232(12.87)	
	2명	1150(63.82)	
	3명	365(20.26)	
	4명	46(2.55)	
	5명	6(0.33)	
	6명	1(0.06)	
	7명	2(0.11)	
	전체	1802(100)	
	시스템결측값	0	
부연령 범주	21-29세	127(7.12)	35.26(3.99)
	30-39세	1424(79.82)	
	40-49세	229(12.84)	
	50세 이상	4(0.22)	
	전체	1784	
	시스템 결측값	18	
월평균 소득 범주	200만원이하	359(20.62)	381.30(384.64)
	400만원이하	961(55.20)	
	600만원이하	305(17.52)	
	600만원초과	116(6.66)	
	전체	1741	
	시스템 결측값	61	

2) 분석대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연구대상은 2차년도 아동 1904명이었다. 아동 월령 평균은 15.07개월이었고, 2차년도에서는 14개월이 가장 많았다. 모는 2차년도 조사에서는 평균연령이 32.15세였고 30-39세까지인 30대가 1420명(74.58%)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이나 미취학상태가 1287명(68.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기대자녀수는 1명부터 6명까지로 가장 많은 부분은 2명(61.24%)로 나타났다. 부의 평균 연령은 34.68세로 30-39세인 30대가 1485명(80.3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월평균 소득은 50만원부터 7000만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337.26만원이었다. 200만원초과 400만원 이하인 가구가 997가구(52.67%)으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93가구(4.9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대상은 3차년도 아동 1802명이었다. 아동 월령 평균은 25.75개월이었고, 26개월이 547명(30.36%)으로 가장 많았다. 3차년도 조사에서 모는 평균연령이 32.78세였고 30-39세까지인 30대가 1419명(79.36%)으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이나 미취학상태가 1196명(66.4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기대자녀수는 1명부터 7명까지로 역시 2차년도 조사처럼 가장 많은 경우는 2명(63.82%)으로 나타났다. 부의 평균 연령은 35.26세로 30-39세인 30대가 1424명(79.82%)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대변하는 월평균 소득은 0만원부터 6000만원사이에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381.30만원으로 2차녀도 조사 때보다 44만원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초과 400만원이하인 가구가 961가구(55.20%)으로 가장 많았고,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16가구(6.66)%)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1) 사용 변인

(1)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부와 모의 연령, 월평균 소득, 모의 취업, 학업상태를 사용하였다.

(2)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모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 우울증에 대한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3)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 됨의 태도, 자녀의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에 대한 문항들의 합산 점수를 사용하였다.

(4) 기대자녀수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모의 기대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5) 아동연령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동월령을 채택하여 월령에 따른 각 독립변인들과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기대자녀수를 통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2) 사용 도구

(1)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

2009년 2차과 2010년 3차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부와 모의 연령, 월평균 소득, 모의 취업학업상태를 사용하였다.

(2)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

2009년과 2010년에 사용된 도구는 동일하며, 그 중에서 모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Pearlin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척도이다.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부터 20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 모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으로 평정하는 4점 Likert척도이다. 총 10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부터 40점까지이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을 역으로 채점한 후 단순 합계를 할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의미한다. 산후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Kessler 우울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안 느낌(1점)부터 항상 느낌(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척도이다. 총 6개문항으로 이루어 졌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6점부터 3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6점-13점은 정상수준, 14점에서 18점은 경도 혹은 중등도 우울, 19-30점은 중도(severe)우울로 분류된다.

(3)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부모 됨의 태도는 자녀 가치라는 도구로 측정한다. 부와 모 각각 실시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Likert척도이다. 정서적 가치 3문항, 도구적 가치 4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각각 3점-15점, 4점에서 20점이다. 자녀의 미래기대는 자녀의 미래기대라는 도구로 측정하며, 역시 부와 모 모두에게 실시한다. 문항은 매우 원한다(1점)부터 전혀 개의치 않는다(4점)으로 평정하는 4점Likert척도이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결혼만족도(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EMSS)도구로 측정하며,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함(5점)으로 평정하는 5점Likert 척도이다. 총 4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원 변인은 사회적 지원 도구로 측정하며, 모에게만 실시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평정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총 12개 문항으로 가능한 점수 범위는 12점-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기대자녀수와 아동월령

2009년과 2010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모의 기대자녀수를 조사하였고 참여 아동의 월령을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SAS 6.12버전을 사용하여 부모의 일반적인 특성과 아동연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백분위점수와 백분율점수도 구하였다. 아동 연령별로 기대자녀수에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든 월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아동연령을 월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보다는 2차 패널집단과 3차 패널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

었다.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점수가 높을수록 그 의미를 가지므로 합산점수를 사용하여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모의 연령은 20, 30, 40대 세 집단으로, 부의 연령은 20, 30, 40, 50대 네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월 평균소득은 200이하, 400이하, 600이하, 600초과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부모 특성변인과 아동의 연령과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을 실시하고 아동연령에 따른 독립변인들의 기대자녀수 차이는 two-way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기대 자녀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multiple-ANOVA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일반적 특성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은 2차 패널 조사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과 3차 패널 조사 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부모변인 즉 연령, 모의 취업, 학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집단을 세분화하고 기대 자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과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2차 패널조사집단보다는 3차 패널조사집단의 평균값에 상승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 변인에서 2차 패널조사와 3차 패널조사결과가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차 패널조사집단과 3차 패널 조사집단간에 부모변인들에 따라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일반적 특성

		기대자녀수		
패널	모연령	평균	표준편차	*N*
2차	20대	2.00	0.65	382
	30대	2.07	0.69	1282
	40대	2.26	1.01	47
3차	20대	2.10	0.65	273
	30대	2.15	0.69	1262
	40대	2.3	0.88	63
패널	부연령	평균	표준편차	*N*
2차	20대	1.93	0.60	155
	30대	2.04	0.66	1372
	40대	2.3	0.9	182
	50대	2	1.41	2
3차	20대	2.03	0.57	116
	30대	2.14	0.68	1271
	40대	2.31	0.82	208
	50대	1.33	0.58	3
패널	월평균소득	평균	표준편차	*N*
2차	200만원이하	2.09	0.73	445
	400만원이하	2.06	0.67	921
	600만원이하	2.02	0.71	262
	600만원초과	2.05	0.60	83
3차	200만원이하	2.14	0.72	326
	400만원이하	2.18	0.69	888
	600만원이하	2.09	0.71	276
	600만원초과	2.04	0.59	108
패널	모취업상태	평균	표준편차	*N*
2차	전업	2.09	0.7	1173
	취업	1.99	0.66	538
3차	전업	2.19	0.72	1071
	취업	2.06	0.63	527

〈표 4〉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일반적 특성별 기대자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변인	*SS*	*df*	*MS*	*F*	*p*
패널	7.77	1	7.77	16.31	0.00*
모연령	5.78	2	2.89	6.07	0.00*
패널*모연령	0.13	2	0.06	0.13	0.88
오차	1755.61	3686	0.48		
합계	1769.29	3691			
패널	7.72	1	7.72	16.32	0.00*
부연령	22.83	3	7.61	16.09	0.00*
패널*부연령	1.01	3	0.34	0.71	0.55
오차	1713.97	3625	0.47		
합계	1745.53	3632			
패널	7.07	1	7.07	14.88	0.00*
모취업상태	11.94	1	11.94	25.13	0.00*
패널*모취업상태	0.01	1	0.01	0.03	0.87
오차	1750.64	3684	0.48		
합계	1769.67	3687			
패널	7.87	1	7.87	16.61	0.00*
월평균가구소득	5.54	3	1.85	3.9	0.01*
패널*월평균가구소득	0.77	3	0.26	0.54	0.66
오차	1718.56	3626	0.47		
합계	1732.73	3633			

* $p < .05$.

패널과 모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p=.88>.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인별로 주효과를 검정하면 된다. 주효과를 보면, 패널은 p=.00<.05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매우 유효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연령의 경우에도 p=.00<.05 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대자녀수는 패널 즉 아동연령에 따른 모연령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변인들 부연령과 모의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도 유의수준 .05 보다 작게 나타나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은 2차 패널 조사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과 3차 패널 조사 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심리학적 변인 중 특히 모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 우울증을 채택하고 합산 점수의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별 기대자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변인	*SS*	*df*	*MS*	*F*	*p*
패널	7.90	1	7.90	16.54	0.00*
자기효능감	0.05	1	0.05	0.1	0.75
패널*자기효능감	0.17	1	0.17	0.36	0.55
오차	1748.14	3662	0.48		
합계	1756.25	3665			
패널	7.99	1	7.99	16.77	0.00*
자아존중감	0.01	1	0.01	0.02	0.88
패널*자아존중감	1.50	1	1.50	3.14	0.08
오차	1745.98	3665	0.48		
합계	1755.48	3668			
패널	7.72	1	7.72	16.21	0.00*
산후 우울증	1.51	1	1.51	3.18	0.07
패널*산후 우울증	0.58	1	0.58	1.22	0.27
오차	1742.42	3660	0.48		
합계	1752.23	3663			

* $p < .05$.

패널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 우울증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 각각 p=.55>.05, p=.08>.05, p=.27>.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요인별로 주효과를 검정하면 된다. 주효과를 보면, 패널은 p=.00<.05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매우 유효한 효과

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경우에는 p=.75>.05 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p=.89>.05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산후 우울증의 경우에도 p=.07>.05으로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대자녀수는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 우울증 변인 모두 유의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기대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의 연령은 2차 패널 조사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과 3차 패널 조사 대상인 아동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 부모의 사회문화적 변인 즉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자녀 가치, 부모의 자녀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의 합산 점수를 상, 하 집단으로 나누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의 결과에 의하면, 패널과 부모의 자녀가치, 부모의 자녀 미래기대, 부모의 결혼만족도, 사회적 지원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각각 p=.83>.05, p=.72>.05, p=.36>.05, p=.62>.05, p=.55>.05, p=.08>.05, p=.30>.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별로 주효과를 검정하면 된다. 주효과를 보면, 패널은 p=.00<.05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매우 유효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자녀가치의 경우에는 각각 p=.00<.05 이므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미래기대에 대해서는 모의 경우에만 p=.03<.05으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 각각 p=.05=.05, p=.80>.05 으로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원의 경우에도 p=.59>.05으로 기대 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대자녀수는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 중 부모 모두 자녀 가치의 경우에만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

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미래기대는 모의 경우에만 유의수준 .05보다 작게 나타나나 기대 자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별 기대자녀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변인	*SS*	*df*	*MS*	*F*	*p*
패널	7.73	1	7.73	16.48	0.00*
모-자녀가치	27.12	1	27.12	57.8	0.00*
패널*자녀가치	0.02	1	0.02	0.05	0.83
오차	1719.01	3664	0.47		
합계	1753.88	3667			
패널	7.30	1	7.30	15.26	0.00*
부-자녀가치	10.28	1	10.28	21.47	0.00*
패널*부-자녀가치	0.06	1	0.06	0.13	0.72
오차	1674.89	3499			
합계	1692.53	3502			
패널	7.72	1	7.72	16.21	0.00*
모-자녀미래기대	2.39	1	2.39	5.02	0.03*
패널*모-자녀미래기대	0.40	1	0.40	0.83	0.36
오차	1743.36	3662	0.48		
합계	1753.86	3665			
패널	7.20	1	7.20	14.96	0.00*
부-자녀미래기대	0.06	1	0.06	0.13	0.72
패널*부-자녀미래기대	0.12	1	0.12	0.24	0.62
오차	1681.56	3495	0.48		
합계	1688.93	3498			
패널	8.10	1	8.10	17.01	0.00*
모-결혼만족도	0.22	1	0.22	0.45	0.50
패널*모-자녀미래기대	0.17	1	0.17	0.36	0.55
오차	1739.30	3655	0.48		
합계	1747.79	3658			
패널	7.22	1	7.22	15.01	0.00*
부-결혼만족도	0.03	1	0.03	0.06	0.80
패널*모-자녀미래기대	1.49	1	1.49	3.11	0.08
오차	1678.51	3489	0.48		
합계	1687.25	3492			
패널	7.72	1	7.72	16.48	0.00*
모-사회적지원	0.14	1	0.14	0.33	0.57
패널*모-사회적지원	0.52	1	0.52	1.09	0.30
오차	1747.89	3663	0.48		
합계	1756.26	3666			

* $p < .05$.

4. 기대 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ultiple-ANOVA를 실시하였다. 변인들을 하나씩 첨가하면서 F값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7〉 기대자녀수에 대한 영향 요인

step	변인	*SS*	*df*	*F*	*p*
	모-자녀가치	87.91	1	48.73	0.00*
1	오차	792.44	1709		
	합계	815.04	1710		
	부연령	11.81	2	25.84	0.00*
2	오차	780.63	1708		
	합계	815.04	1710		
	모취업상태	3.96	3	8.71	0.00*
3	오차	776.67	1707		
	합계	815.04	1710		
	부-결혼만족도	3.11	4	6.85	0.01*
4	오차	773.56	1706		
	합계	815.04	1710		
	부-자녀가치	1.79	5	3.95	0.05
5	오차	771.77	1705		
	합계	815.04	1710		
	아동연령	1.07	6	2.36	0.13
6	오차	770.71	1704		
	합계	815.04	1710		
	모-사회적지원	2.12	7	2.12	0.15
7		769.75	1703		
		815.04	1710		

* $p < .05$.

기대 자녀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모의 자녀가치로 *F*값이 48.73 으로 가장 크며 p=.00<.05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연령, 모의 취업상태, 부의 결혼만족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F*값이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부-자녀 가치, 아동연령, 모의 사회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유자녀 부모의 특성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대자녀수는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일반적 특성(모연령, 부연령, 모취업상태, 월평균가구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연령, 부연령, 모취업상태, 월평균가구소득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속출산 유무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 소득, 모연령, 부연령, 모의 취업여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어머니의 연령은 기대자녀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후속출산 계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정원, 2009; 이형민, 2012) 실제로 출산율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상미, 2007; 윤소영, 2005; 이인숙, 2005; 천혜정, 2005). 한편, 둘째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첫째자녀 출산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도 있다(정은희, 최유석, 2013). 이는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 출산을 앞당길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첫째자녀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천혜정(2005)의 연구에서는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아내의 연령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남편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출산희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연령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남성들의 조기퇴직문화가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퇴직 연령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하며,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도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중기업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중 55세 이상인 사람은 3.7%에 불과하다(Howe, Jackson, & Nakashima, 2007). 그러다 보니 출산계획시 어머니의 연령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연령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제활동기간을 늘이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봐

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도 자녀기대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는 비취업모의 경우 기대자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기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취업모가 더 높은 수준의 양육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박삼수, 2004; 허은경,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월평균 소득이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소득불안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 등의 경제적 요인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공선희, 손승영, 안승덕(2008)의 연구와 한은주, 박정윤(2006)와 같은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대자녀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령대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집단을 분리하여 각각의 요구에 맞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거시적으로는 근로자의 경제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등고용안정 정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기대자녀수는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심리학적 요인(모의 자기효능감, 모의 자아존중감, 모의 산후우울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심리학적 요인(모의 자기효능감, 모의 자아존중감, 모의 산후 우울증)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2011)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한국의 경쟁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에 대한 전반적 역할이 과중하여 여성의 심리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손승영, 2005). 서소정(2005)의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가정의 어머니들은 낮은 양육효능감과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었으며(서소정, 2005),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2011)의 연구에 의하면 후속출산계획이 있는 어머니는 개인적으로도 자기효능감이 더 높고 우울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모는 우울감에 따라 후속 출산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모들은 부부관계에 따라 후속출산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주변의 자원을 적절히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부정적 부부관계를 갖게 되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서주연, 김진경, 2012), 어머니의 산후우울도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이로 인해 후속출산계획을 감소시킨다(임현주, 이대균, 2013;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a)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구들과도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심리학적 요인 자체가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연령, 취업유무, 월평균 소득 등의 현실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환경적 요인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과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대자녀수는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의 사회문화적 요인(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자녀 가치, 부모의 자녀 미래기대, 사회적 지원)중 부모의 자녀가치, 모의 자녀미래기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가치, 모의 자녀미래기대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만족도는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는 결혼만족도가 기대자녀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강수라, 정미라(2013), 최은영(2011)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기대자녀수가 증가(강유진, 2007; 도남희, 2011; 이경숙 외,200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후속 출산 유무가정을 비교해 본 결과 결혼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3).

부모의 자녀가치가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자녀가치는 자녀출산계획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강수경, 정미라,2013; 강유진, 2007; 권용은, 김의철, 2004; 김나영, 2011; 김미정, 정계숙, 박희경, 201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들 수 있으며(권용은, 김의철, 2004), 자녀가치관은 후속출산의도에 가장 강력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이정원, 2009)라고 하였다. 강수경, 정미라(2013)의 연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에 있어 도구적인 가치보다는 정서적인 가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추후 기대자녀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박수빈, 김희화(2012)과 정혜은, 진미정(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을수록 이상적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미혼남녀의 경우도 자녀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이상적인 자녀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영, 2011).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2013)의 연구에서는 부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와 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높은 집단에서 후속출산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모의 자녀가치관 변인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박찬화, 2012).

모의 자녀미래기대가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자녀에 대한 성취기대 등이 향후 출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승권, 최병호, 2002; 이병렬, 2003; 이삼식, 조남훈, 2000).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가 있으며(이인숙, 2005)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에 대한 계획집단에 속한 가능성이 높다(서미정, 2011).

한편, 자녀에 대한 미래기대는 어머니의 후속출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는 연구도 있는데 자녀미래 기대를 사회적 성취에 목표를 두면 양육에 대한 부담을 커져 후속출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김종백, 유은영, 2010).

사회적 지원이 기대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이 높을수록 후속자녀 출산계획이 있다는 이형민(2012), Olah(2003)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심리상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이재림, 옥선화, 2001), 출산계획을 높일 수 있다(박정희, 장영애, 2003)는 연구도 있다.

한편, 사회적 지원이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양육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인하여 후속출산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연구도 있다(임현주, 이대균, 최항준, 2011b). 사회적 지원의 경우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전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도 있는데(박찬화, 2012). 이는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더 적극적으로 친족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받으나 전업모는 제공받는 사회적 지원의 형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녀가치관이나 자녀미래기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자녀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결과 모의 자녀가치, 부연령, 모의 취업상태, 부의 결혼 만족도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속출산을 가장 많이 예측하는 변수는 모의 취업여부이고, 다음으로 부의 결혼만족도라고 한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2013)의 연구과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들의 기대자녀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산후우울증과 같은 심리학적 요인이기 보다는 연령, 취업상태, 월평균 가구소득과 같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과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미래기대와 같은 자녀가치관임을 알 수 있었다. 기대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부모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자녀의 양육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자녀가치관 형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치관은 그 형성이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자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대를 위해서는 유소년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치관에 대한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자녀가치관과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이정원, 2009) 집단주의적 자녀가치관은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가치관이며 출산장려와 관련된 공적 지원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에게 출산 후 양육지원 등의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킴으로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수경·정미라(2013). 임신기 부모의 생활만족도와 자녀가치가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치의 매개적 역할. **한국영유아보육학, 80**, 85-107.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공선희·손승영·안승덕(2008). 저출산 관련요인 및 정책수요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저출산정책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권용은·김의철(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211-226

권태환, 김두섭(1990).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영향 요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김나영(2011). 미혼남녀의 출산관련 가치관과 이상적인 자녀수의 인과관계. **사회과학연구논총, 26**, 5-23.

김미정·정계숙·박희경(2011). 20-30대 유자녀 모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기대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0**(4), 1-18.

김승권·최병호(2002).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종백·유은영(2010). 기혼여성의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381-394.

남정은·정정희(2012). 저출산 시대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녀 양육관에 대한 내용분석-2000년~2010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아동교육, 21**(1), 109-124.

도남희(2011). 만1세 영아가구의 후속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5차 육아지원정책 포럼**, 15-29.

박삼수(2004).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미(2007). 사회환경과 출산 의향: 대도시 기혼부인의 추가자녀 출산선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수빈·김희화(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과 자녀가치관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50**(5), 79-89.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박주현(201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가치 및 양육행동과 영아발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찬화(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서미정(2011). 부모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후속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5**(1), 127-148.

서소정(2005). 저출산 가정의 자녀 양육실태 및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 내 비교분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27-136.

서주연·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무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손승영(2005). 저출산 · 고령화 사회와 가족관계의 변화. **동덕 여성연구, 10**, 5-25.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윤소영(2005). 저출산 가정의 출산율과 여성취업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56-166.

윤옥화(2004).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남대학교 대학원.

이경숙·정석진·박진아·신의진(2009).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4**(1), 93-108.

이병렬(2003).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국회도서관보, 12**, , 63-79.

이삼식(2010). 2010년도 저출산 대응정책의 과제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66-73.

이삼식·조남훈(2000). 인구개발에 관한 UN 행동강령의 추진실태와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성림(2010). 자녀 양육비와 둘째 자녀 출산 의도. **대한가정학회지, 48**(10), 105-119.

이인숙(2005). 저출산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7**(4), 67-90.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이정원(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 의도 결정 경로 분석. **사회복지연구, 40**(1), 323-351.

이형민(2012). 후속출산계획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의 영아기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70**, 1-31.

임현주·이대균(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2011a). 부부특성, 출산관련 정서, 어머니의 정서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구조방정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1**(5), 183-202.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2011b).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183-202.

정미라·홍소영·박수경(2013). 첫 자녀를 둔 가구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탐색. **유아교육연구, 33**(1), 250-277.

정상훈(2007). 저출산에 따른 아내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정성호(2009). 저출산에 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47-164.

조아라(2005). 저출산 대책 마련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천혜정(2005). 둘째 자녀 출산 희망에 대한 배우자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5-33.

최경수(2004).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회 전기학술대회 자료집.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서울: 삼성경제연구

소.

최은영(2011). 후속출산의도 관련 변인 판별분석. **제5차 육아지원정책포럼,** 1-12.

통계청(2012). 2011 출생잠정통계. www.kostat.go.kr

한은주, 박정윤(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허은경(2004).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일상생활 스트레스, 배우자 및 사회적 지지가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Kwon, Y. E., & Kim, E. C. (2004). Value of children and fertilit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13*(1), 211-226.

Reher, D. S. (2004). The demographic transition revisited as a global process. *Population, Space and Place, 10*, 19-41.

Billari, F.C., Liefbroer A.C., & Philipov D. (2006). The postponement of childbearing in Europe: driving forces and implication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ienna: 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Coleman, D. (2007). The road to low fertility. *Ageing Horizons, 7*, 7-15.

Foster, C. (2000). The limits to low fertility: a biosocial approa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2), 209-234.

Goldstein, J., Sobotka, T., & Jasilioniene, A.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 Dev Rev, 35*, 663-699.

Howe, N., Jackson, R., & Nakashima, K. (2007). *Aging society in Korea*. Seoul: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Lutz, W. (2007). The future of human reproduction: will birth rates recover or continue to fall?. *Ageing Horizons, 7*, 15-21.

McDonald, P. (2002), Low fertility and policy. *Ageing Horizen, 7*, 22-27.

Olah, L. S. (2003). Gendering fertility: second birht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2), 171-200.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 Session 2 ◈

제 4 주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관련 요인들

사회: 정계숙 (부산대 교수)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이희정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조교수)

2.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김정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김옥주 (춘해보건대학교 조교수)

3.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김혜금 (동남보건대학교 교수)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A Longitidinal Study on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The Use of a Latent Growth Model

이희정[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longitudinal changes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predictive effect of the variables. Mothers who had been the participants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from first to fourth time point Survey sponsor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ere asked to complet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nd this study used the scales of maternal prenatal depression,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 and fourth time maternal parenting stresses. The SPSS 15.0 and the AMOS 4.0 were us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ummary of the results was as follows: First, maternal parenting stress was increased from first panel years to forth panel years. Second,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maternal prenatal depression and marital conflict at the point of first year were related to the intercept of the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infants' negative emotionality and marital conflict at the point of first year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lop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predicting variables to intervene and prevent maternal parenting stress.

1)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lkj-222@hanmail.net)

Ⅰ. 서 론

생후 약 3년간의 한국의 어머니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는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며, 이 같은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성격이 유순하고 활발한 어머니는 양육 스트레스를 비교적 덜 느끼는가?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더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가? 배우자의 지원이 많은 경우,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줄어드는가? 위와 같이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존재할 것이다. 실제로 산전 및 산후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은 자녀의 생후 3년 뿐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Misri, Oberlander, & Fairbrother, 2004; Kahng, Oyserman, Bybee, & Mowbray, 200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란, 가족생활 중 부모역할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가족체계가 직면하는 발달과정 속에서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Mulsow, Caldera, Pursley, & Reifman, 2002).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맥락적 환경 변인, 부부갈등, 어머니의 우울과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변인(Brody, Chen, Kogan, Murry, Logan, & Luo, 2008; Buehler, & Gerard, 2002; Errazuriz Arellano, Harvey,& Thakar, 2012; Forgaya, Ottaway, Guarino, & D'Alession, 2001; Lipscomb, Leve, Harold, Neiderhiser, Shaw, Ge, & Reiss, 2011;Rebecca, Fabrizio, Daniel, Fiona,& Amanda, 2012; White, Roosa, Weaver, Nair, & Murry, 2009)과 같은 다양한 변인에 관한 종단적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 외국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면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아동패널연구를 제외하면 신생아 시기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종단적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흔하지 않았다.

양육 스트레스란, 원래 부모역할에서 느끼는 특정한 스트레스의 유형을 뜻하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부모가 인지하는 곤란한 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Coplan, Bowker, & Cooper, 2003). 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관심을 약화시켜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하기도 한다(Abidin, 1995). Mulsow, Caldera, Pursley와 Reifman(2002)는 가족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1개월, 6개월, 15개월, 24개월과 36개월 된 자녀를 가진 13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아동변인, 부모변인과 가족변

인으로 구분하여 종단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가 신경증적이지 않고, 외향적이며, 호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덜 나타내고,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친밀감을 많이 느끼면서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을 경우 양육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년 이내 시기의 양육 스트레스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몇몇 연구들에서 보고되는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추이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Crnic & Booth, 1991; Mulsow, et. al., 2002). 예컨대, Crnic과 Booth(1991)는 자녀의 연령이 6개월 시기보다 자녀의 연령이 생후 1개월 시기에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고,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녀양육을 하는 어머니들이 자녀 출생과 동시에, 우유를 먹이거나, 기저귀를 가는 등의 자녀양육과 관련되는 고되면서 반복되는 일상적 육아와 관련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Crnic과 Booth(1991)는 이 같은 양육 스트레스는 9개월 시기부터 36개월 경까지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 출생 후부터 15개월 경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그 이후 시기부터 36개월까지는 어느 정도 어머니도 양육과 관련된 일들에 익숙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Mulsow 외(2002)의 연구에서는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대하여 자녀의 월령이 생후 1, 6, 15, 24, 36개월이 됨에 따라 낮아지는데, 특히 생후 1개월 시기가 생후 6개월 시기보다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 어머니 자신의 성격과 배우자의 친밀한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자녀의 연령이 3세가 될 때까지 만성적으로 양육 스트레스를 높게 보고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기질적으로 까다로울 경우, 외부적 영역에서의 만족감과 상관없이 양육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Belsky(1984)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자녀의 기질이 까다로울 경우, 자기(self)의 발달이 싹트면서 자기주장이 늘거나 고집을 더 심하게 부릴 수 있는 연령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기에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통제와 훈육이 감당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양육 스트레스를 더 높게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자녀 연령이 어린 생후 첫 몇 년간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들은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출생 전 환경과 출생 후 및 영아시기 부모의 정신건강은 어머니의 양

육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Crnic과 Accevedo(1995)는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자신의 변인으로 어머니의 성격, 기분(mood)과 신념을 들고 있으며, Pesonen, Räikkönen, Straindberg와 Järvenpää(2005)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이나 스트레스는 영아기 자녀의 반응성과 같은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Rice, Harold, Boivin, van den Bree, Hay와 Thapar(2010)의 연구에서는 산전 우울감과 영아의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중요 변인으로 어머니의 정서 상태, 즉 양육 스트레스나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중시하고 있다. 아버지의 우울증 역시 0-5세 시기의 양육 스트레스와 종단적으로 관련되는데, Rebecca 외(2012)는 호주의 3471명의 아버지들에 대하여 0-12개월 시기, 2-3세 와 4-5세 시기에 우울증과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관계를 추적한 결과, 약 9% 아버지들은 첫 번째 시기에 임상적 수준의 우울증상을 나타냈고, 첫 번째 시기에 우울감을 보고한 30%의 아버지들은 2번째 시기와 3번째 시기에도 유사한 수준의 우울감을 보고하거나, 더 악화되었고,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도 현저히 낮아짐을 발견하였다. Errazuriz Arellano 외(2012)는 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를 3년간 종단적 추적하였는데, 어머니가 우울해질수록 양육 행동은 과격해지거나, 무관심해졌음을 발견하였다.

자녀의 까다로운 기질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Lipscomb 외(2011)는 입양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모의 과도한 반응성과 어머니의 양육 효율성의 감소와 관련된다고 보고하였으며, Williford, Calkins와 Keane(2007)도 기질이 까다롭고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낼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심하다고 하였다. Rende와 Plomin(1992)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 경우, 자녀의 기질이 유순해진다고 하였고, EAS 기질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자녀는 낙천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양육 스트레스가 높으면 양육행동이 비일관적이거나 민감하게 자극을 주지 못하여 상호주관성의 측면에서 유능하지 못하게 되며(Trevarthen, 2005), 이는 기질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쌍방향적 교류를 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Lee, Zhou, Eisenberg, & Wang,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정서적 무능력으로 인하여 자녀의 정서적 행동과 반응성은 변화무쌍해 지거나(Friedman, 2010), 장기적으로 볼 때 유아기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Field, 2005; Williford, et. al., 2007).

스트레스 대처에 관한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rock & Lawrence, 2008; Kahng, Oyserman, Bybee & Mowbray, 2008; Krishnakumar & Buehler, 2000). Brock과 Lawrence(2008)는 18세부터 55세 사이의 부부 101쌍에 대한 역할 긴장과 결혼 만족도의 시간에 따른 종단적 변화를 연구한 결과, 배우자의 사회적 지원은 결혼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완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Kahng 외(2008) 역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에 있어서 사회적 지원과 같은 맥락적 요인은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Krishnakumar와 Buehler(2000)는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39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의 효과크기를 비교하면서, 부부갈등은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중요 변인이며, 이 같은 부부갈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Buehler와 Gerard(2002)도 자녀의 연령이 2세 시기부터 11세가 될 때까지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종단적으로 추적한 결과, 부부갈등은 비효율적 양육 행동을 일으키면서 자녀의 적응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hite 외(2009)는 멕시코 계통의 미국 아버지들의 경우, 이웃으로부터의 스트레스가 양육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였고, Brody 외(2008)는 아프리카계 미국 어머니들은 인종차별이 존재할 경우 우울해지고,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문화권마다 상이한 맥락적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같은 변인 역시 양육 스트레스 연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는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무엇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주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횡단적 접근방식이 이루어져 왔고, 변화의 양상이나 영향요인에 초점을 맞춘 종단적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고, 그러한 변화를 예측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종단적 접근방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의 양육 스트레스 변인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1차년도 기준)

변인	항목	빈도(%)	변인	항목	빈도(%)
연령	4-5개월	1404(67.6)	어머니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43(30.9)
	6-7개월	442(21.3)		전문대 졸업	590(28.4)
	8-9개월	226(10.9)		대학교 졸업	714(34.4)
	10개월	6(0.3)		대학원 졸업 이상	115(5.5)
				무응답	16(0.8)
성별	남아	1057(50.9)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10(0.5)
	여아	1021(49.1)		100-200만원 미만	255(12.3)
				200-300만원 미만	606(29.2)
				300-400만원 미만	487(23.4)
몸무게	2.5kg 미만	77(3.7)		400-500만원 미만	240(11.5)
	2.5kg 이상	1966(96.1)		500-600만원 미만	189(9.1)
	무응답	5(0.2)		600만원 이상	121(5.8)
				무응답	170(8.2)

2. 연구도구

1) 사용 변인

(1)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Abidin, 1990)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를 수정 보완한 문항 10개를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

차년도부터 4차년도 자료에서 활용하였다(김은설, 도남희, 왕영희, 송요현, 이예진, 정영혜, 김영원, 2012, 재인용). 3차년도와 4차년도에만 포함된 문항이 있었으나,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4시점 간 비교를 위해서는 각 측정시기별 문항이 동일해야 하므로, 4차 시기 모두에 측정된 10개 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1차부터 4차까지 .86, .85, .84, .87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낳을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이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2)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자료의 Buss와 Plomin(1984)에 의해 제작된 EAS를 이용한 영아의 기질 척도에서 정서성에 해당하는 문항 중 4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우리 아이는 잘 운다',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의 5문항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성에 관한 문항은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73 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3)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r 외(2002)의 우울척도(K6)를 사용하였다. K6는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서,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Kessle 외(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우울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차년도 병원용 질문지에서 출산 직전 자주 느낀 스트레스를 측정한 문항 중 우울한 감정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즉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우울 1 변인)?',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출산 직전 한 달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우울 2 변인)?', '(출산 직전 한 달 동안)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우울 3 변인)', '(출산 직전 한 달 동안)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우울 4 변인)'의 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75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산전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부부 갈등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조사의 어머니 질문지에서 활용된 문항 8개를 사용하였다.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남편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편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의 8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91로 높게 나타났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적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1수준에서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수준에서는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설명한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를 추정하지 않은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변화의 개인차가 나타날 경우,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투입된 조건 모형(conditional model)으로 검증하게 된다(홍세희, 2008). 본 연구에서는 첫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을 살펴보기 위해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대한 함수를 추정하였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개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예측변인들을 조건모형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IBM-SPSS 20.0과 AMOS 18.0이 사용되었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특성

주요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을 살펴보면, 각 변인들이 왜도와 첨도에서 비교적 적정한 값을 나타내어 정규성가정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1차년도에서 4차년도로 진행함에 따라 평균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특성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평균	표준편차
부정적 정서성(n=2044)	5	25	.38	.29	13.57	3.06
산전 우울(n=2061)	6	27	.05	.63	11.37	3.92
부부갈등(n=1858)	8	40	.80	.06	15.92	6.15
양육 스트레스 1차(n=1849)	10	47	.13	.05	27.42	6.19
양육 스트레스 2차(n=1887)	10	50	.08	.07	27.31	6.37
양육 스트레스 3차(n=1764)	10	48	.06	.12	28.11	6.38
양육 스트레스 4차(n=1694)	10	50	.05	.07	28.17	6.48

잠재변수들의 하위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표 3>과 같이 상관계수의 값이 .80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의 상관관계는 .09에서 .64까지의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부부갈등, 1차시기부터 4차시기까지의 양육 스트레스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어머니가 산전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경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부부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부정적 정서성	산전우울	부부갈등	스트레스1	스트레스2	스트레스3
산전우울	.128***					
부부갈등	.159***	.262***				
스트레스1	.263***	.263***	.426***			
스트레스2	.127***	.282***	.341***	.635***		
스트레스3	.138***	.258***	.290***	.550***	.636***	
스트레스4	.092***	.319***	.330***	.278***	.332***	.373***

*** $p < .001$.

2.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 추정

1) 무조건 모형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선형모형에서는 동일한 간격의 시점 사이에서의 변화가 일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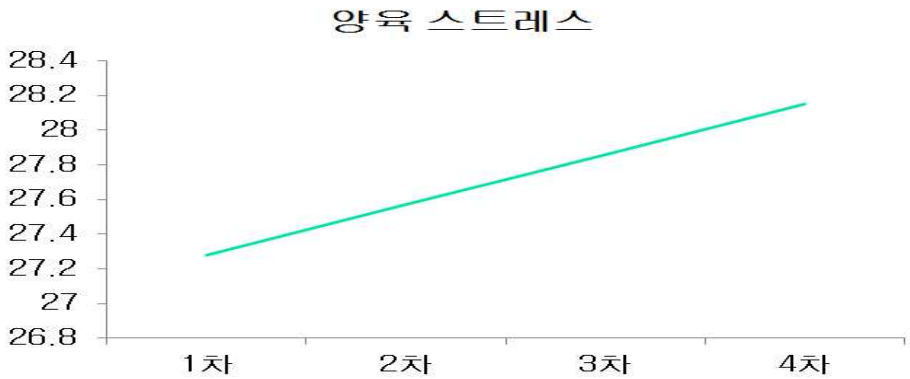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하였다. 무변화 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선형모형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율의 요인계수를 0,1,2,3으로 코딩하여

선형적인 변화를 가정한 모형이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양육 스트레스의 무변화모형과 선형 변화모형 적합도

모형	x^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49.2	8	.954	.953	.091
선형변화모형	28.8	5	.984	.992	.047

무변화 모형은 선형변화 모형들과 비교할 때 x2값이 매우 크고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형변화모형은 무변화 모형에 비해 적합도가 좋아지고 x^2값도 줄어들었다.



〔그림 1〕 양육 스트레스 변화의 평균 추이[2)]

최종 모형으로 선정된 선형변화 모형에 기초하여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 값 및 변화율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양육 스트레스는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이 모두 유의하였고,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 값이 개인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1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시기 동안에 양육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증가하며, 변화율이 개인마다 차이

2) 각 변수의 오차변량의 동질성을 가정할 때, 선형모형은 한 단위의 시간 변화는 결과 변수의 ß 단위의 변화와 관련된다. 선형 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y it = α i + ß i λ t + ε it . y it 는 사례의 t 시점에서의 측정값 y를, α i 는 사례 i 의 발달궤적 절편을, ß i 는 사례 i 의 선형 기울기를, 그리고 ε it는 i 사례의 t 시점에서의 잔차(residual)를 의미한다(Curran & Hussing, 2003).

가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즉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0.29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공변량이 -.150(p<.001)로 나타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시간에 따른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양육 스트레스가 높았던 어머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속도가 더디게 진행된 반면, 1차년도에 양육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았던 어머니들은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속도가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1차년도에 측정한 값이 높을수록 해마다 증가하는 폭이 더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양육 스트레스의 선형 변화 모형에 대한 결과

변인	평균		변량		공변량
	초기치	변화율	초기치	변화율	
양육 스트레스	27.28***	0.29***	26.03***	1.53***	-1.50***

*** $p < .001$.

2) 양육 스트레스 변화의 예측변인 탐색: 조건모형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관련 변인들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조건모형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적합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 변량을 60%의, 변화율의 변량을 12.8%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에는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산전 우울과 부부갈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 평균값은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 산전우울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5〉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x^2	df	TLI	CFI	RMSEA
다변량잠재성장모형	72.6	12	.963	.984	.048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부부갈등이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양육 스트레스 변화율의 평균이 음의 값을 나타냈으므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초기값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변화율을 예측하는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 계수
기질	.303(.039)***	.186	기질	-.061(.016)***	-.165
산전 우울	.264(.031)***	.208	산전 우울	.022(.013)	.076
부부갈등	.347(.020)***	.428	부부갈등	-.045(.008)***	-.247

*** $p < .001$.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아동 요인, 어머니 요인과 사회적 지원 변인의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변화 양상은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Crnic과 Booth(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생후 1개월 시기부터 36개월 시기를 비교해 보면, 생후 1개월 시기에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연령이 생후 6개월인 경우보다 더 높다가 15개월부터 36개월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Belsky(1984)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자에 대한 요구도가 달라지므로, 영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 스트레스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Mulsow 외(2002)는 자녀의

연령이 생후 1개월 시기에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는 최고이며, 이후 36개월까지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었다.

본 연구에서도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값이 1차년도에서 2차년도 사이에는 0.11점 감소한 반면, 2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는 0.8점 증가한 반면, 3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0.06점 증가한 것과 같이 양육 스트레스의 평균 변화 추이를 보면 Crnic과 Booth(1991)의 연구에서 출생 초기가 출생 후 보다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1차년도 시기가 자녀의 평균 월령이 약 5개월 시기이므로, Crnic과 Booth(1991)가 비교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가 생후 1개월과 6개월이므로, 이 같은 변화 추이는 Belsky(1984)가 설명하고 있듯이, 자녀의 발달연령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본 연구에서 2차년도에서 3차년도에서의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 평균이 높아졌는데, 3차년도 시기는 자녀의 평균 연령이 약 29개월 경이므로, 이 시기에는 자녀의 자기(self) 발달이 나타나면서, 고집이 세지고, 자율성을 형성하려고 부모와 투쟁하려는 시기이므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 스트레스의 증가 추세는 Mulsow 외(2002)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자녀의 연령이 생후 15개월부터 생후 36개월까지는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낮아졌다는 결과와는 상치되는 것이므로, 왜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양육 스트레스가 자녀의 연령이 증가되면서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는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 탐색과 관련 변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컨대, Williford 외(2007)는 430명의 임상적 도움이 필요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2세, 4세와 5세 시기에 관찰과 면접을 통하여 외현화 문제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2세부터 5세 시기에 양육 스트레스는 감소되지만, 자녀가 외현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첫 번째 조사 시점이 자녀가 평균 5개월 경인 신생아 시기부터 약 41개월까지의 시기였으며, 이 같은 자녀의 연령과 조사 방식이 어머니 자시의 자기 보고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우울한 어머니들의 경우는 자녀가 더욱 부정적이며,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으므로,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양상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어머니들 대상으로 한 Mulsow 외(2012)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만성적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 집단이 존재하였으며, 인종차별을 느끼는 경우 양육 스트레스가 높다는 Brody 외(2008)의 연구나 멕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White 외(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 문화권마다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맥락적 변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열이 심한 한국적 상황에서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한국 어머니의 부담감이 양육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증가양상을 나타내므로, 영국에서와 같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Glover & Sutto, 2012; Hutchings & Gardner, 2012).

2.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결과,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과 부부갈등의 정도와 관련이 있었고, 변화율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부부갈등의 정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는데, 이는 자녀의 기질와 양육 스트레스를 관련시킨 많은 연구들(Pesonen, et. al., 2005; Lee, et. al., 2012; Lipscomb, et. al., 2011; Williford, et. al., 2007)과 일치된다. 특히,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 스트레스가 초기치에서 정적 관련성을 갖는 점 뿐 아니라,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 증가가 느려지는 양상은 Lipscomb(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며,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생후 초기 시기에 많다는 Crnic과 Booth(1991) 결과를 감안해 보면,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을 나타낸다해도, 자녀의 월령이 높아지면서 어머니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현실적 적응력과 대처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oper, McLanagan, Meadows와 Brooks-Gunn(2009)이 포함시킨 것과 같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같은 변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기질연구는 관찰에 의한 측정과 어머니 보고에 의한 연구결과는 상치되는 부분도 있으므로(Carnicero, Perez-Lopez, Salinas, & Martinez-Fuentes, 2000), 추후 Friedman 외 (2010)의 연구와 같은 미시 분석적 관찰연구가 수행되어, 패널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지만,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변화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Misri 외(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그들은 산전 우울과 불안은 자녀 출생 후 3개월 시기와 6개월 시기의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설명하면서, 임신 시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증진은 자녀 출생 초기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0-4세 시기의 영유아의 정신적 안령을 위하여 어머니의 산전 정신건강의 위험요소를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Hutchings & Gardner, 2012; Sutton, et. al., 2012; Maxwell, wt. al., 2012).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산전 우울감이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모형 자체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 변량을 60% 설명하는 반면, 변화율의 변량은 12.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산전 우울감은 1차년도부터 4차년도 당시의 우울감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4번의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우울증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산전 우울은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기 때문에, 임신 시기부터 우울한 경향이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 집중적 지원을 통하여 이후 시기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재적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Errazuriz Arellano 외(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시기별로 각각 측정된 우울감과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차년도에 어머니가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는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주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지 어머니 개인의 정신건강 증진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중재가 중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 뿐만 아니라 Kouros, Merrilees와 Cummings(2008)는 부부갈등은

특히 부모가 우울할 경우, 자녀의 정서적 불안정에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볼 때 자녀의 내면화 증상을 높이게 하는 위험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에서 부부갈등의 감소와 같은 가족 중재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율의 관계, 즉 부부갈등이 1차년도에 높을수록 4차년도까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점은 배우자와의 관계와 주로 자녀와 관련되는 양육 스트레스에 대하여 어머니들이 인지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생겨남에 따라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추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우울과 부부갈등에 관한 다양한 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한국아동패널 20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최은영·도남희·송신영·왕영희·이예진(2011). 한국아동패널 2010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홍세희(2008).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연구방법론 워크샵 미간행 자료집. 서울: 연세대학교.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 Professional Manual,* 3r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Brock, & Lawrence, E. (200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tress spillover in marriage: Does spouse support adequacy buffer the effec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11-20.

Brody, G. H., Chen, Y., Kogan, S. M., Murry, V. M., Logan, P., & Luo, Z. (2008). Linking perceived discrimination to longitudinal changes in African American mothers'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2), 319-331.

Buehler, C., & Gerard, J. M. (2002). Marital conflict, ineff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and adolescnets'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1), 78-92.

Carnicero, Perez-Lopez, Salinas, & Martinez-Fuentes, (2000). A longitudinal study of temperament in infancy: Stability and convergence of measures.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21-37.

Cooper, C. E., McLanagan, S. S., Meadows, S. O., & Brooks-Gunn, J. (2009). Family structure transitions and maternal parenting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3), 558-573.

Coplan, R. J., Bowker, A., & Cooper, S. M. (2003). Parenting daily hassles, child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8*, 376-395.

Crnic, K., & Accevedo, M. (1995). Everyday stresses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pp. 277-297). Mahwah, NJ: Lawrence Erlbaum.

Crnic, K., & Booth, C. L. (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parenting across early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042-1050.

Curran, P. J., & Hussong, A. M. (2003). The use of latent trajectory models in psychopathology researc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526-544.

Errazuriz Arellano, P. A., Harvey, E.A., & Thakar, D.A. (201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parenting practices. *Family Relations, 61*(2), 271-282.

Field, T. (2005). Prenatal depression effects on the fetus and neonate. In J. Nadel, & M. Muir (Eds.), *Emotional development,* (pp. 317-33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orgaya, D. K., Ottaway, S. A., Guarino, A., & D'Alession, M. (2001). Parenting stress in employed and at-home mothers in Ital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27-351.

Friedman, D. D., Beebe, B., Jaffe, J., Ross, D., & Triggs, S. (2010). Microanalysis of 4-month infant vocal affect qualities and maternal postpartum depression. *Clinical Social Work, 38*, 8-16.

Glover, V., & Sutton, C. (2012). Support from the start: Effective programmes in pregnancy.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7*(1), 8-17.

Hutchings, J., & Gardner, F. (2012). Support from the start: Effective programmes for three to eight year-olds.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7*(1), 29-40.

Kahng, S. K., Oyserman, D., Bybee, D., & Mowbray, C. (2008). Mothers with serious mental illness: When symptoms decline does parenting improv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1), 162-166.

Krishnakumar, A., & Buehler, C.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Kouros, C. D., Merrilees, C. E., & Cummings, E. M. (2008).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emotional security in the context of parental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0*(3), 684-697.

Lee, E. H., Zhou, Q., Eisenberg, N., & Wang, Y. (2012).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1), 57-67.

Lipscomb, S. T., Leve, L. D., Harold, G. T., Neiderhiser, J. M., Shaw, D. S., Ge, X., & Reiss, D. (2011). Trajectories of parenting and child negative emotionality during infancy and toddlerhood: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82*(5), 1661-1675.

Maxwell, C., Aggleton, P., Warwick, I., Yankah, E., Hill, V., & Mehmedbegovic, D. (2008). Supporting children's emotion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in england: A review. *Health Education, 108*(4), 272-286.

Misri, S. M., Kendrick, K., Oberlander, T. F., Norris, S., Tomfohr, L., Zhang, H., & Grunau, R. E. (2010). Antenatal depression and anxiety affect postpartum parenting stress: A longitudinal, prospective stud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4), 222-228.

Mulsow, M., Caldera, Y. M., Pursley, M., & Reifman, A. (2002). Multilevel factors influencing maternal stress during the first three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44-956.

Pesonen, A., Räikkönen, K., Straindberg, T. E., & Järvenpää, A. (2005). Continuity of maternal stress from the pre-th the postnatal period: Associations with infant's positive, negative and overall temperamental reactivity.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8*, 36-47.

Rebecca, G., Fabrizio, D., Daniel, C., Fiona, M., & Amanda, C. (2012). Father mental health during the early parenting period: Results of an Australian population based longitudinal study. *Social Psychiatry & Psychiatric Epidemiology, 47*(12), 1907-1916.

Rende, R. D., & Plomin, R. (1992). Relations between first grade stress,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435-436.

Rice, F., Harold, G. T., Boivin, J., van den Bree, M., Hay, D. F., & Thapar, A. (2010). The links between prenatal stress and offspr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Disentangling environmental and inherited influences. *Psychological Medicine, 40*, 335-345.

Seimyr, L., Sjögren, B., Welles-Nyström, B., & Nissen, E. (2009). Antenatal maternal depressive mood and parental-fetal attachment at the end of pregnancy. *Archieves of Womens Mental Health, 12*, 269-279.

Sutton, C., Murray, L., & Glover, V. (2012). Support from the start: Effective programmes from birth to two years. *Journal of Children's Services, 7*(1), 18-28.

Trevarthen, C. (2005). Action and emotion in development of cultural intelligence: Why infants have feelings like ours. In J. Nadel, & M. Muir (Eds.), *Emotional Development.* (pp. 61-9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n, M. W., & Green, J. (2009). The impact of maternal psychopathology on child-mother attachment.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12*, 123-134.

Williford, A. P., Calkins, S. D., & Keane, S. P. (2007). Predicting changes in parenting stress across early childhood: Child and maternal facto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251-263.

White. R. M., Roosa, M. W., Weaver, S. R., Nair, R. L., & Murry, V. M. (2009). Cultur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arenting in Mex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1), 61-79.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Exploring Variables Related to Parenting Stress in Mother of 3-Years-Old Children

김정주[1] · 김옥주[2]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stress in mother of 3-year-old children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characteristics to analyze relevant variables influencing their parenting stress. The data of 1,683 mothers from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1) were analysed.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mother's age, marriage, children's gender, no subtle differences were found in each group that related to parenting stress in mother, but there were subtle stress differences related to academic ability. Second, mother of 3-year-old children of parenting stress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tyle, marital satisfaction, husband's cooperation, but posi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conflicts. Third, the parenting style, marital conflicts in the order were significant factors for the mother of 3-year-old children's parenting stress.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positive parenting style and harmony of husband and wife are important parents education practice supporting and social support the parenting stress in mother of 3-year-old children

1) 춘해보건대학교 (jj-child@ch.ac.kr)
2) 춘해보건대학교 (okkim0816@ch.ac.kr)

Ⅰ. 서 론

현대사회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지원체제가 무너졌다. 이러한 이유로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증가하였다(김옥주, 2012). 그러나 여전히 자녀양육에 대한 과업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어머니에게 편중되어 있어(안재진, 2011)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어머니들이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김영주, 송연숙, 2007: 서주현, 김진경, 2012).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데, 이러한 양육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됨으로써(김미숙, 문혁준, 2005; Abidin, 1990)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Han, 2008). 이러한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양육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양육스트레스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Abidin, 1990)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갖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임현주, 이대균, 2012). 실제로 어머니는 높은 양육스트레스에서 뿐만 아니라 아주 낮은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녀의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영주, 송연숙, 2007; Abidin, 1990). 이러한 관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개인적인 특성 요인, 부부관계나 지지망과 같은 환경적인 특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유발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서주현, 김진경, 2012; Abidin, 1990). 일반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개인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기초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먼저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자녀의 성별에 대한 연구들은 남아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본 연구들

(강희경, 조복희, 1999; 엄지원, 2011)이 있는 반면 여아의 어머니가 더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연구(편은숙, 2004)도 있다. 또한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양미선, 김양은, 2012; Larsen & Juhasz, 1986)도 보고된다.

또한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의 요인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과 스타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의 양육특성이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어머니와 자녀양육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김윤수, 2003). 현대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육정보 전달 체계는 다양해 졌으나, 자신에게 필요한 양육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커졌다(서진영, 2013; 이주연, 2009). 이러한 상황은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올바르고 효과적인 양육스타일 습득하지 못해 양육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영주, 송연숙, 2007).

또한 자녀양육 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어머니의 신념의 일부로 자녀에 대한 기대는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적 특성과 과정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박영애, 원효종, 2003). 부모가 부적절한 자녀발달기대를 갖는다면, 자녀발달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거나 혹은 자녀의 요구나 능력을 무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Cowen, 2001; Grusec & Goodnow, 1994). 이처럼 자녀에 대한 기대는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경애, 2012).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양육 현실과의 차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요인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가족특성으로 가족 내 지원, 특히 남편의 양육지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변인임을 강조하고 있다(김정, 이지현, 2005; 안재진, 2011; 이수미, 민하영, 2007). 즉,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아버지와 자녀와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며 어머니가 갖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양육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최승애, 2006). 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시켜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바탕으로 한다(정영진, 2009).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편의 양육지원과 함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을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머니는 배우자와의 결

혼생활에서 만족감이 높을수록(이정순, 2004), 반대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시 양육에 대한 어머니의 스트레스를 높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그러므로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 부부만족도, 부부갈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변임을 근거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으로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특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으로 가족특성 변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적인 관계에 대해서 탐색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예측하는 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불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지적인 단위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연관성을 전국적인 규모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만3세 어머니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양육특성 및 가족특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가족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가족특성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가족특성이 양육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가 2008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이 생산한 우리나라 영유아 2,000 가구 조사 자료 중 최종 공개용인 2011년 실시 4차년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조사에 포함된 총 패널 수는 만3세 아동이 있는 1,754가구이다. 이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어머니가 직접 설문조사를 작성한 1,706가구를 1차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이중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문을 응답한 당시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선정하여 최종 1,683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부모의 일반적 특성

(*N*=1,683)

구분		아버지	어머니
		N(%)	*N*(%)
연령	30세 미만	69(4.1)	178(10.6)
	30세 이상~35세 미만	484(28.8)	816(48.5)
	35세 이상~40세 미만	801(47.6)	562(33.4)
	40세 이상	324(19.5)	109(6.5)
학력	고졸이하	450(26.8)	510(30.2)
	전문대	339(20.1)	439(26.1)
	대학교 이상	894(53.1)	734(43.7)
아동성별	남 863(51.3)	결혼상태 초혼	1,672(99.3)
	여 820(48.7)	재혼	11(0.7)

<표 1>과 같이, 연구대상 가구의 아버지 연령은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47.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48.5%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각각 53.1%, 43.7%로 대학교 이상이 가장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모든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 사용된 연구도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특성

(양육스타일, 자녀미래기대) 및 부부특성(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 양육협조)에 해당하는 각 도구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등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한국아동패널에서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한 도구이다. 양육스트레스 도구의 문항 내용은 부모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과 부모가 인지하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총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2) 양육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양육특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양육스타일과 자녀미래기대이다.

먼저 양육스타일 척도는 Bomstein, Tamis-LeMonda, Pascual, Haynes, Painter & Pecheux(1996)의 양육스타일 척도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문항은 총 17개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의미한다.

자녀미래기대 척도는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가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 '행복한 가정을 갖는다.' 등의 6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매우 원한다.'는 1점으로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4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3) 부부특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부부특성을 구성하는 하위변인은 모의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및 남편 자녀양육협조이다.

먼저 결혼만족도 척도는 Schumm, Nicols, Schectman와 Grigsby(1983)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KMSS)를 Chung(2004)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RKMSS)를 사용하였다. 문항내용은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의 4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매우 불만족'은 1점으로 '매우 만족'은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 척도는 Markman, Stanley와 Blumberg(1994)의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문항의 내용은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묻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8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한 아동패널검사도구이다. 양육의 과정에서 남편이 얼마나 시간과 자원을 들여 양육에 참여하는지 알 수 있는 검사도구로 자세한 질문의 내용은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 한다.', '남편은 아이와 자주 놀아준다.' 등의 4개 문항이다. 이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변인별 문항 구성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변인별 문항 구성내용 및 신뢰도

구분	문항 구성내용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 인구학적 변인	• 연령, 학력, 아동성별, 결혼상태	4 (각1문항)	-
종속변인	• 양육스트레스	11	.87
양육특성	• 양육스타일	4	.84
	• 자녀미래기대	6	.71
부부특성	• 결혼만족도	4	.91
	• 부부갈등	8	.91
	• 남편 자녀양육참여	4	.81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1년 6월 13일에서 11월 19일까지 우편조사와 웹조사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원이 가구방문에 앞서 각 가구에 우편으로 어머니대상 질문지를 발송한 후 조사원이 가구 방문일에 수거하는 유치조사방식을 활용하여 수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 1의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 개인 및 부부특성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머니 개인 및 부부특성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의 독립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장관계수를 구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산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VIF값은 1.01~2.23 사이였다. 이상의 모든 자료처리는 PASW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연령, 결혼유형, 학력, 자녀성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결혼유무, 자녀성별에 따라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학력에 따라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5.22, p<.001). 어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이하와 대학교 이상의 학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이 대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어머니들보다 양육에 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 관계

구분		양육스트레스		
		M	*SD*	*F/t*
연령 (n=1,661)	30세 미만	2.78	.76	1.17
	35세 미만	2.81	.61	
	40세 미만	2.78	.63	
	40세 이상	2.70	.70	
결혼유형 (n=1,679)	초혼	2.79	.64	-.37
	재혼	2.86	.39	
학력 (n=1,678)	고졸이하a	2.87	.66	5.22**
	전문대	2.78	.63	
	대학교 이상b	2.74	.63	
자녀성별 (n=1,679)	남아	2.81	.64	1.39
	여아	2.77	.64	

ab :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차이가 있는 집단끼리는 다른 문자로 표시함.
** $p < .01$.

2. 어머니의 양육특성, 가족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특성, 가족특성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양육특성과 가족특성 및 양육스트레스의 관계

(*N*=1,683)

	양육 스트레스	양육특성		가족특성		
		양육 스타일	자녀 미래기대	결혼 만족도	부부 갈등	남편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1					
양육특성						
양육스타일	-.54***	1				
자녀미래기대	-.03	.09***	1			
가족특성						
결혼만족도	-.32***	.29***	.03	1		
부부갈등	.41***	-.30***	-.02	-.69***	1	
남편 양육협조	-.24***	.29***	.06**	.55***	-.43***	1

** $p < .01$, *** $p < .001$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스타일(r=-.54, p<.001), 결혼만족도(r=-.32, p<.001), 남편 양육협조(r=-.24, p<.001)와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r=.41, p<.001)과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자녀에 대한 양육참여가 많을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가족특성 및 양육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특성,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특성, 가족특성의 설명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가족특성과 양육특성의 영향력

(N=1,683)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R^2변화량	R^2	F
양육스트레스	(상수)		4.42				.36	473.26***
	양육특성	• 양육스타일	-.60	-.46	-22.03***	.29		
		• 자녀미래기대	.03	.02	1.12	.00		
	가족특성	• 결혼만족도	.00	.00	.02	.00		
		• 부부갈등	.24	.28	10.21***	.07		
		• 남편 양육협조	.01	.01	.54	.00		

*** p < .001.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양육특성(양육스타일, 자녀미래기대) 및 가족특성(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남편 양육협조)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해서 양육스타일(β=-.46, p<.001), 부부갈등(β=.28, p<.0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36%이다(F=478.26, p<.001). 즉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발달과 양육행동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양육특성 및 가족특성 변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 1,683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된 '한국아동패널'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차이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연령, 결혼유형, 자녀성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 따른 특성이 양육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이지원(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낀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양미선, 김양은, 2012; Larsen & Juhasz, 1986)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교육기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도 교사양성과정기간과 전문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임승렬, 이미화, 2007) 어머니의 학력이 높다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면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지식전달체계가 다양화되어 부모들이 TV나 인터넷, 책, 잡지 등과 같은 물적인 양육정보 전달 체계나 친인척, 이웃, 친구, 교사, 상담사, 의사, 아동발달 전문가 등의 인적인 양육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서진영, 2013). 그래서 과거보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취사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어려움이 야기되어 양육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 어렵다(이주연, 2010). 이러한 어려움은 어머니가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부정확한 양육지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수연, 2005). 따라서 엄청난 양의 양육정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발달과 연령에 적절한 양육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부모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온 · 오프라인의 지원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영유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양육지식과 관련된 온라인 콘텐츠가 개발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용이하게 해소할 수 있는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특성 및 가족특성과 양육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양육특성 중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미래기대는 양육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과 양육스트레스는 부적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백영숙, 2007; Luster & Okagaki, 1993)과는 일치한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 발달과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규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정정란(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정도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영향을 받으나 자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스타일을 점검할 수 있는 자기진단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의 양육스타일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어머니 교육 기회제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가족특성 중 결혼만족도와 아버지의 자녀양육협조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에서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고 남편의 양육협조가 높을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지며, 부부갈등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의 가사노동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류우영(1998)의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전영자, 1996; 이지현, 2011; 이수미, 민하영, 2007; 이진희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근간에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며 부부의 협조가 동일하게 필요하며 시사한다.

대부분의 영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어머니들을 기관에 초청하여 다양한 부모교육 강의를 받게 하고 활동을 체험하게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 없이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녀에 대한 양육의 문제보다 양육의 근간이 되는 부부간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부

모교육의 경우, 양육에만 초점을 둔 교육을 넘어 긍정적인 부부관계 설정 및 유지를 위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양육특성 및 가족특성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양육스트레스를 가장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양육특성 중 양육스타일로 나타났으며, 양육스타일이 긍정적일수록, 부부갈등이 적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양육스트레스 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미숙, 문혁준, 2005; 박응임, 1995; 백영숙, 2007; Huth-Bocks & Hughs, 2008)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즉,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스타일을 보일수록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가족특성에서 부부갈등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로서의 역할만족이 감소시켜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연구결과(안설하, 문혁준, 2012; Gottman & Krokoff, 1989, Baber, 1994)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자녀는 어머니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한다. 따라서 어머니가 부정적인 양육스타일을 지닐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욱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영향이 자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가족지원이나 효율적인 양육을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부갈등을 잘 해소하고 부부가 화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가 협력적인 가족지원 체제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개인특성 중 연령, 결혼유형, 자녀성별에 따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특성에서 양육스타일과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가족특성에서는 결혼만족도, 남편의 양육협조와 부적 상관이, 부부갈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양육특성에서 양육스타일이 가족특성에서 부부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긍정적인 양육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지원체제가 중요하며, 더불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부부갈등이 감소될 수 있는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등의 지원체제 조성이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자가 선정한 어머니의 개인특성, 양육특성, 가족특성 변인은 자료 분석 방법에 적합한 변인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모든 변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횡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향후 종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깊은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강희경·조복희(1999). 3세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아동학회지, 20**(2), 41-55.

김기현·강경희(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3), 141-150.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 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옥주(2012). 영아반 초임교사의 직무수행을 돕는 교사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박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대학원.

김윤수(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 수준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정·이지현(2005).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245-261.

류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변인의 인과 관계.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경애(2012).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자녀발달기대가 모-자간 상호작용에서의 어머니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수연(2005). 영아의 성 및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수행에 대한 귀인,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 및 양육지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영애·원효종(2003). 어머니의 사회관계망,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713-735.

박은희(2004). 어머니의 자녀기대감 척도의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응임(1995). 영아-어머니간의 애착유형과 그 관련변인.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서진영(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및 양육스타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안설하·문혁준(2012). 아버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양육참여도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89-103.

안재진(2011). 부의 양육참여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양미선·김양은(2012) 걸음마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 8**(3), 229-247.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엄지원(2011). 한국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예측 변인 : 사회인구학적 특

성, 영아 특성,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련 특성,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경선(201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타일 관련 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8**(3), 127-145.

이수미·민하영(2007). 유아의 기질 및 아버지 양육 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한국생활과학지, 16**(2), 219-225.

이정순(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부부관계, 부모성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97-106.

이주연(2009).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대한가정학회, 47**(5), 35-48.

이지원(2003). 영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7**(2), 207-216.

이지현(201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삼육대학교 대학원.

이진희(2011).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임승렬·이미화(2007).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수급 방향과 과제. 유아교육현장 · 학문 · 정책 간 협력: 그 의미와 실천, 2007년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 323-340. 10월 27일. 충주: 한국교육대학원 교원문화관 및 종합교육연수원.

임현주·이대균(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임현주·최항준·최선녀(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임신, 출산 정서와 부모됨의 태도, 양육스트레스가 양육방식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아교육연구, 32**(3), 225-244.

전영자(1996). 주부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아동 · **가족복지연구, 1**, 159-177.

정영진(2009).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정란(2006). 부모기대 관련변인과 유아발달과의 관계:P-P-C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최승애(2006).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 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 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Abidin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Barber, B. K. (1994).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scents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 964-974.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Cowen, P. S. (2001). Effectiveness of a Parent Education Intervention for At-Risk Families. *Journal of the Society of Pediatric Nurses, 6*(2), 73.

Gottman, J. M., & Krokoff, L. J. (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47-52.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The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the current point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 4-19.

Han, T. S. (2008).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motionality, marital conflicts and parenting-related variables on preschool attach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Huth-Bocks, A. C., & Hughes, H. M. (2008). Parenting stress, parenting behavior and children's adjustment in families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4), 243-251.

Larsen. J., & Juhasz, A.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 39-54.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 on parenting: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 (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 (pp. 101-120). Hillsdale: Lawrence Erlbaum.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 (1994). *Fighting for your marri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Suchman, W., Nicols, C., Schectman, K., & Grigsby,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 567-572.

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Sense of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to Parenting Stress of Mothers with 3-year Old Children

김혜금[1)]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marital conflict,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according to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nd whether there was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marital conflict,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stress. Using 4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of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754 mothers with 3-year-old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ethods of th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unemployed mothers' parenting stres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rking mothers. Second, parenting stress showed the positive correlation with marital conflict and mothers' employment status but parenting stress showe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upport. Third, mothers who were unemployed, who had high marital conflict and who had low social support had higher parenting stress.

1) 동남보건대학(khghoonba@hanmail.net)

Ⅰ. 서 론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접어드는 만 3세 시기는 제1반항기라고 불리우는 시기로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세어져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라고 지칭하는데, 양육 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Abidin, 1992).

누적적인 양육스트레스는 자연발생적 상황에서 육아행동과 부모-유아 양 방향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주어 사회정서 발달 외에 언어, 인지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Magill-Evans & Harrison, 2001).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연관되므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언제 어디서든 양육에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핵가족이 일반화되면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지원보다는 타인 혹은 시설애서의 양육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더 크게 요구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므로(Ostberg, 1998; Yeh, 2002), 어머니가 거의 전적으로 양육을 도맡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영아에서 유아로 전이되는 만 3세 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Saisto, Salmela-Aro, Nurmi, & Halmesmaki, 2008). 일반적으로 취업모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데서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김리진, 윤종희, 2000; Forgays, Ottaway, Guarino, & D'Alessio, 2001). 그런데 비취업모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고성혜, 1994; 전춘애, 박성연, 1996)도 제시되고 있으며 오히려 비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채선미, 강희선, 이한주, 신현숙, 1999)도 있다. 이들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

로 본 연구는 유아기로 전이되는 만3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부갈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된다(Hahn & DiPietro, 2001; Smith, Oliver, & Innocenti, 2001).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지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반면, 깊은 부부갈등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니게 하여(Yu, Pettit, Lansford, Dodge, & Bates, 2010)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배가시킨다. 즉 부부갈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 어머니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게 된다(민하영, 이영미, 2010).

그러나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어줄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타인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관계를 의미한다(Nielson, Carlson, & Lankau, 2001). 어머니가 가정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사회적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자녀에게 더 민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한다(Gage & Christensen, 1991; Respler-Herman, Mowder, Yasik, & Shamah, 2012; 문혁준, 2004).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은 양육행동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Ostberg & Hagekull, 2000). 즉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는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게 되어 사회적 지원을 느끼지 못하는 어머니들보다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자녀양육과 발달에 바람직한 어머니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만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만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은 양육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만3세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4차년도(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차년도(2011년) 데이터의 만3세아 자녀(M=38.0, SD=1.47)를 둔 어머니 1,75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

(*N*=1,754)

	변인	구분	*N*	%
유아 변인	성별	남아	903	51.5
		여아	851	48.5
	출생순위	첫째	812	46.3
		둘째	732	41.7
		셋째	178	10.1
		넷째	17	0.9
		다섯째	2	0.1
		무응답	13	0.9
어머니 변인	연령	25세이하	24	1.4
		26-30세이하	266	15.2
		31-35세이하	908	51.8
		36-40세이하	462	26.3
		41세이상	69	4.1
		무응답	25	1.4

변인	구분	N	%
학력	무학	1	0.1
	초등학교졸	1	0.1
	중학교졸	9	0.5
	고등학교졸	522	29.8
	전문대졸	455	25.9
	대졸	699	38.1
	대학원 석사 졸	82	4.7
	대학원 박사 졸	7	0.4
	무응답	8	0.5
가정의 월평균 수입	200만원미만	86	4.9
	200-300만원미만	312	17.8
	200-300만원미만	461	26.3
	200-300만원미만	287	16.4
	200-300만원미만	484	27.6
	1,000만원이상	122	7.0
	무응답	2	0.1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모든 연구도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 사용된 연구도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각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변인

(1) 부부갈등

부부갈등 도구는 Markman, Stanley 와 Blumberg(2001)의 부부갈등 척도를 수정한 아동패널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부부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묻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지금 결혼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등의 8개 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로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갈등의 Cronbach's α=.92이었다.

(2) 사회적 지원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과 옥선화(2001)의 도구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과 정현숙(1998)의 도구를 기초로 육아정책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족 외 모든 사람과 단체(예; 교회, 복지관) 등을 포괄하는, 즉 구성원의 유형이나 지지체계에 상관없이 한 가정이 외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다. 이 도구는 개념적으로는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다',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준다', '중요한 일(주택 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준다' 등과 같이 가족, 친구, 이웃 등 대인 관계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받는 도움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총 12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로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부갈등의 Cronbach's α=.93이었다.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갖는 심리적 부담감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Abidin(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linic,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d Scale(MGS)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한 한국아동패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내가 부모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등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로 높을수록 양육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스트레스의 Cronbach's α=.87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8.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각 변인의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및 양육스트레스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각 변인의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비취업모 집단(M=2.82, SD=.65)이 취업모 집단(M=2.74, SD=.6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40, p<.05). 즉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갈등이나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는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2〉 연구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t*-검증

변인	평균(표준편차)			*t*
	취업모(n=670)	비취업모(n=1,017)	전체(n=1,687)	
부부갈등	2.13(.77)	2.09(.75)	2.10(.76)	1.12
사회적 지원	3.82(.63)	3.78(.65)	3.79(.64)	1.06
양육스트레스	2.74(.63)	2.82(.65)	2.79(.64)	-2.40*

* $p < .05$.

2.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와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사회적 지원은 부부갈등과 부적 상관(r=-.29, p<.001)이 있었고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취

업(r=.06, p<.05)과 부부갈등(r=.42, p<.001)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 지원(r=-.30, p<.001)간 부적상관을 보였다.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취업모일수록,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그리고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

(N=1,687)

구분	1	2	3	4
1. 어머니 취업[2]	1			
2. 부부갈등	-.03	1		
3. 사회적 지원	-.03	-.29***	1	
4, 양육스트레스	.06*	.42***	-.30***	1

* p < .05, *** p < .001.

3.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N=1,687)

구분	양육스트레스	
	B	β
어머니 취업여부[3]	.08	.06**
부부갈등	.31	.36***
사회적 지원	-.19	-.19***
R^2	.21	
F	150.35***	

** p < .01, *** p < .001.

2) 어머니 취업 가변수(취업모=0, 비취업모=1)

3) 어머니 취업 가변수(취업모=0, 비취업모=1)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가변수화 해 투입하였고(취업모0, 비취업모1), 어머니 취업여부,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VIF 계수를 조사한 결과 VIF 지수는 1.01-1.10점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유무,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을 예측변인으로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 취업유무(β=.06, p<.001), 부부갈등(β=.36, p<.001), 사회적 지원(β=-.19, p<.001)이었고, 이들 변인들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량의 21%를 설명하였다(F=150.35, p<.001). 즉 어머니가 비취업모이고 부부갈등이 많으며 사회적 지원이 적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에서는 만3세아를 자녀로 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원은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양육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채선미 외(199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데 더 많이 관여하고, 이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취업모는 주변에 육아와 관련되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보다 풍부하고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육아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육아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 어머니만 취업모로 남아있기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취업 및 부부갈등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 지원 간 부적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은 부부갈등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즉 비취업모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부부갈등이 높은 경우일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고, 사회적 지원이 적을수록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지각하는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에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부부갈등이 더 적게 느낀다(Levy-Shiff, Dimitrovsky, Shulman, & Har-Even, 1998)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원이 미흡한 비취업모의 경우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스트레스가 더욱 크고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커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취업모를 위한 육아지원서비스가 미흡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하는 것으로 비취업모를 위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현행 취업모 중심의 육아지원 체계를 비취업모를 포함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서비스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다.

셋째, 어머니가 비취업모이고 부부갈등이 높고 사회적 지원이 적은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원이 많은 부모들은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며(Ostberg & Hagekull, 2000) 양육에 대한 정보와 지원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Upshur, 1991)는 것을 고려할 때 특히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유아기 자녀를 둔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도록 영유아플라자나 아이사랑카페 등의 공간을 더 많이 개설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나 휴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에게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어머니들에게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자녀양육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육아 자조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적 지원의 실제적인 이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각은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직업 스트레스를 줄이며 이직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Bedeian, Mossholder, & Touliatos, 1986), 취업모를 위한 사회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각각의 요구를 반영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취업모를 위하여 야간보육, 재택보육, 24시간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

고 부모의 근로유형의 다양화에 따라 오전반, 오후반, 주 2-3일 이용 등 보육서비스의 탄력성 증진 정책도 시도되고 있으며 비취업모를 위하여 광장사업, 지역육아지원센터아 같은 부모지원정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서문희, 2008). 프랑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보육이나 시간제 보육이 제도화되어 있는데, 가정 내 보육모의 임금은 시청에서 지급하며 시간제 보육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최대 1주일에 1회 이용가능하다(유해미, 2009). 한편으로는 취업모나 비취업모 모두 개인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시간제나 일일제 가정 내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지원해주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야간(18:00-24:00)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모와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겨야 하는 비취업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김현숙, 이수진, 2012). 이처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맞춤형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어머니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키게 되어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긍정적인 자녀 양육행동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충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즉 취업모 위주의 양육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비취업모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이 입안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책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임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했기에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지속되는지 알 수 없다. 추후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통해 자녀의 연령별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이 어머니의 취업유무, 부부갈등, 사회적 지원 외에 많을 수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변인을 포함하여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 35**(5), 141-150.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김현숙·이수진(2012). 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한국응용경제학회지, 14**(2), 5-30.

문혁준(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42**(11), 109-122.

민하영·이영미(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부부갈등, 자녀 양육 스트레스 및 애정-거부적 양육행동 간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6), 203-213.

서문희(2008).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국제사회보장동향,** 42-56.

유해미(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일본의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모바일 이용가능.

이재림·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사건,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11**, 115-129.

조병은·서동인·신화용·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채선미·강희선·이한주·신현숙(1999). 배우자 지지가 미취학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3**(2), 187-195.

Ab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Abidin, R. R. (1995).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Bedeian, A. G., Mossholder, K. W., & Touliatos, J. (1986). Individual propensities for emotional supportiveness within a dual career context: Work and non-work rea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7*, 7-12.

Cli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r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Forgays, D. K., Ottaway, S. A., Guarino, A., & D'Alessio, M. (2001). Parenting stress in employed and at-home mothers in Ital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2*(4), 327-351.

Gage, G. M., & Christensen, D. H. (1991). Parental role socialization and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Family Relations, 40*, 332-337.

Hahn, C. S., & DiPietro, J. A. (2001). In vitro fertilization and the family quality of parenting,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psychosocial 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7-48.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17-1427.

Magill-Evans, J., & Harrison, M. J.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parenting stress, and developmental outcomes at 4 years. *Children's Health Care, 30*(2), 135-150.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Markman, H. J., Stanley, S. M., & Blumberg, S. L. (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CA: Joseey-Bass.

Nielson, T. R., Carlson, D. S., & Lankau, M. J. (2001). The supportive mentor as a means of reducing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 364-381.

Ostberg, M. (1998). Parental stress, psychological problems and responsiveness in help-seeking parents with small (2-45months old) children. *Acta Paediatrics, 87*, 69-76.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615-625.

Respler-Herman, M., Mowder, B. A., Yasik, A. E., & Shamah, R. (2012). Parenting beliefs, parental stress, and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21*, 190-198.

Saisto, T., Salmela-Aro, K., Nurmi, Jari-Erik., & Halmesmaki, E. (2008). Longitudinal study on the predictors of parental stress in mothers and fathers of toddlers. *Journal of Pstchosomatic Obstetrics & Gynecology, 29*(3), 213-222.

Smith, T. B., Oliver, M. N., & Innocenti, M. S. (2001). Parenting stress in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 257-261.

Upshur, C. C. (1991). Mothers' and fathers' ratings of the benefits of early intervntion services.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15*, 345-357.

Yeh, C. H. (2002). Genser differences of parental distress in children with cance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38*, 598-606.

Yu, T., Pettit, G. S., Lansford, J. E., Dodge, K. A., & Bates, J. E. (2010). The interactive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divorce on parent-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2), 282-292.

◈ Session 2 ◈

제 5 주제

어머니의 취업과 행복한 육아

사회: 옥선화 (서울대 교수)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신나리 (충북대학교 교수)
   안재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금지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동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3. **Relations among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and Early Social Development in Korean Infants**
   박성옥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강사)
   James Hoo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Professor)
   신혜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at Buffalo 박사수료)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검증: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Stress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신나리[1] · 안재진[2]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tress and self-efficacy of Korean mothers with an infant using the second through fourth wave data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to test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two constructs. Results showed that both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elf-efficacy were consistent over tim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ross-lagged effect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on their self-efficacy, rather than vice versa. No differences between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were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nstructs.

Ⅰ. 서 론

일반적으로 자녀의 출산은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출산 후 가족 내 역동은 크게 변화하며, 출산에 수반되는 일상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에게

1) 충북대학교(binah2009@cbnu.ac.kr)
2) 숙명여자대학교(jjahn@sookmyung.ac.kr)

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안재진, 2011).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주된 책임을 어머니가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어머니 개인의 안녕(well-being)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Abidin(1990)은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생활사건 속에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양육스트레스로 정의하고, 양육행동과 관련되는 어머니의 인지적 특성들을 강조한 '스트레스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Abidin, 1992). 그의 이론 및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모의 높은 양육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 표출이나 무관심 등과 같이 부적절한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지고 있다(안지영, 2001; Crnic & Greenberg, 1990). 이 같은 양육스트레스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이나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생활사건과 결합하여 더욱 심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 특성을 순하거나 까다롭다고 지각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내·외적 요구가 이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 정의할 때(서주현, 김진경, 2012),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인지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Bandura(1997)에 의해 기대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자신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정의된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다(Cherniss, 199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그간 많은 연구자들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왔다(권미경, 2011; 김경숙, 김신, 이원기, 2012; 김혜라, 김진경, 2012; 서주현, 김진경, 2012; 조성희, 박소영, 2012; 한석우, 2011).

한편 자기효능감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양육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관되게 밝혀져 왔다.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녀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관계되었으며(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보다 민감하고 따뜻한 양육의 실제를 보였고(Teti & Gelfand, 1991), 반응적인 반면(Stifter & Bono 1998), 자기효능감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권위주의적이거나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 & Woolley, 2005).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이 양육의 실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는, 행동 수준에서 볼 때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동기 및 인지적 원천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수행을 잘 예언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문영경, 민현숙, 2012). 때문에 최근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의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가정하는 대신,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서소정, 2004;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Teti & Gelfand, 1991). 특히 문영경과 민현숙(2012)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예측 변인으로서 양육스트레스 이외에 사회적 지원, 영아 기질, 아동의 발달수준을 함께 투입한 최근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상대적인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밝혀진 점은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에 따라 자기효능감 또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일관되게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횡단연구의 특성상 동일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서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와 관련한 최근 연구는 두 변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보다는 두 변인이 양육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거나(김종한. 2012; 박희진, 문혁준, 2012), 빈곤 가정(Raikes & Thompson, 2005) 또는 조산아 가정(Woods, 2011)과 같이 양육스트레스 측면에서 취약한 가정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08년 출생한 집단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실시하여 4차년도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에 해당하는 조사 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이후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자기효능감이 이후의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봄으로써, 그간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쌍방(non-recursive)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가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으나(윤지원, 황라일, 조헌하, 2009; 이윤주, 진미정, 2013), 자기효능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Jackson, 2000),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따라서 이러한 두 변인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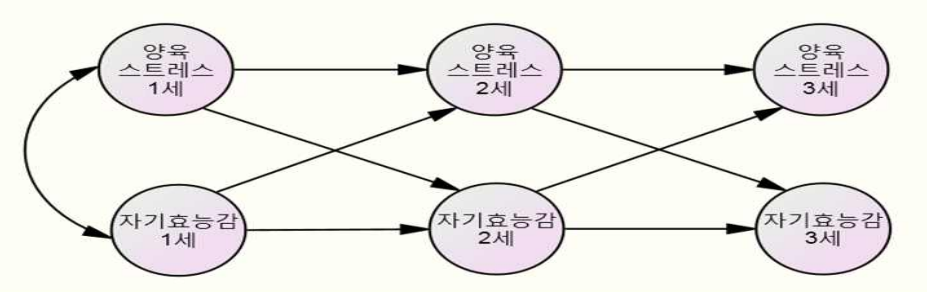
1.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의 변화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상기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가정하였다.



〔그림 1〕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수준의 자료로, 2008년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모집단으로 해당연도 4월부터 7월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가구 중 표집된 2,079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듬해인 2차년도에 추적된 가구는 총 1,904가구였으며, 3차년도와 4차년도는 각각 1,802가구와 1,754가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을 비교하려는 연구목적을 위해 2~4차년도에 모두 연구에 참여한 가구 중 어머니가 3년 내내 취업을 유지한 집단과 계속해서 미취업상태로 남아있는 가구를 각각 선택하였다. 어머니가 학업중인 경우는 그 수가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가 취업을 유지한 392가구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한 862가구를 합쳐 총 1,254가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특성의 기술통계치[1)]

특성	취업모		미취업모	
	N	% 또는 평균(*SD*)	*N*	% 또는 평균(*SD*)
연령	392	32.38(3.33)	862	32.05(3.66)
결혼상태				
(미혼)	1	.3	1	.1
(유배우-초혼)	388	99.0	853	99.0
(유배우-재혼)	2	.5	7	.8
(이혼)	1	.3	0	.0
(별거)	0	.0	1	.1
어머니 학력				
(중학교 이하)	1	.3	3	.4
(고등학교)	64	16.5	297	34.7
(전문대/기능대)	102	26.3	218	25.4
(대학교)	177	46.5	320	37.3
(대학원 이상)	44	11.3	19	2.2
자녀수				
(1명)	178	46.5	396	47.0

특성	취업모		미취업모	
	N	% 또는 평균(*SD*)	*N*	% 또는 평균(*SD*)
(2명)	168	43.9	350	41.5
(3명)	36	9.4	87	10.3
(4명)	1	.3	8	.9
(5명)	0	.0	2	.2
가구소득(월평균, 만원)	389	452.73(393.86)	856	298.49(232.40)

주: 1) 2차년도 기준의 기술통계치임.

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어머니 및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필식 설문조사, 그리고 아동 대상의 발달검사로 이루어져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대상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자료가 사용되었다.

1)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과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 (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다. 원 척도는 총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이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으며, 1차년도부터 2차년도까지는 영아기 주양육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2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총 10개 문항으로, 3차년도부터는 제외된 2개 문항 중 한 문항[3]을 다시 포함하여 11개 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된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뢰도는 2차년도가 .853, 3차년도가 .860, 4차년도가 .874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2~4차년도 자료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10문항을 분석하였다.

3) 해당 문항은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

2) 자기효능감

한국아동패널에서 사용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널연구인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중 Child Development Supplement(CDS)의 2차 조사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 (Hofferth, Davis-Kean, Davis, & Finkelstein, 1998)로서, 지필식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부터 "매우 그렇다(5점)" 로 평정하는 Likert 척도로 제작된 본 도구는 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20점이다. 단, 원 도구의 문항은 "내가 가진 문제들 중 몇몇 문제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다", "나는 삶의 문제들을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자주 느낀다" 와 같이 부정적인 진술로 진술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도록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2차년도가 .822, 3차년도가 .817, 4차년도가 .806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기술적인 통계치와 상관계수,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AMOS 19.0을 이용하여 어머니의 자기효능감 및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을 실시하였으며, 다집단 분석을 통해 두 변인 간의 쌍방 관계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시점별로 양육스트레스 척도와 자기효능감 척도 중 일부 문항의 결측치가 발생한 사례는 사례별로 응답된 척도 문항들의 평균을 삽입하였으며, 또한 구조방정식의 추정방법으로 완전정보최대우도법(FIML)을 적용하여 한 시점의 응답이 결측된 사례 또한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χ^2 통계량 이외에 여러 적합도 지수 중 TFI와 RMSEA를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로 산출, 검토하였다. 이는 표본크기에 매우 민감한 χ^2 통계량의 경우 본 연구와 같이 표본크기가 큰 경우 쉽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Kline, 2005),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도 모

형의 적합도와 복잡성을 함께 고려하는 TFI와 RMSEA가 유용하다는 홍세희, 박민선 및 김원정(2007)의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표 3〉 자기효능감 척도의 문항별 항목묶기

문항	내용	묶인 관측변인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item 1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item 1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item 1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item 2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item 2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item 3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item 2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item 3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item 1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item 2

한편,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효능감의 경우 개별문항을 잠재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문항 수가 다소 많은 점을 고려하여 3개 요인으로 항목묶기(item parceling)를 시행한 후 잠재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 요인으로 묶였으나, 문항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론적인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원 도구가 단일요인으로 제작된 도구인 만큼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묶이는 것이 확인되어, 일차적으로는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들인 1, 2, 3, 9번 문항과 4, 5, 7, 10번 문항, 6, 8번 문항으로 항목묶기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묶인 개별 문항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1, 2, 3, 9번 문항은 유능한 양육자로서의 지각과 자신감, 4, 5, 7, 10번 문항은 양육으로 인한 소진, 6과 8번 문항은 심리적 특성보다는 환경적 특성에 기인한 스트레스로 판단되었다(<표 3> 참조). 이에, 묶인 항목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묶은 항목들의 평균을 잠재변수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다음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세 시점 모두 3점미만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은 3점을 상회하여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보고되어 비교적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중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은 취업모와 미취업모간 유의미한 차이가 일관되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미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취업모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기효능감은 취업모 집단에서 미취업모에 비해 세 시점 모두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으며, 2차년도에는 한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p=.051), 그리고 4차년도에는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p=.048), 3차년도에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구분		1세		2세		3세	
		N	평균(*SD*)	*N*	평균(*SD*)	*N*	평균(*SD*)
양육 스트레스	취업모	391	2.64(.63)	384	2.71(.61)	384	2.75(.63)
	미취업모	861	2.78(.65)	852	2.89(.63)	844	2.86(.65)
	전체	1,252	2.74(.64)	1,236	2.82(.63)	1,228	2.83(.64)
	t	-3.48**		-4.03***		-2.66**	
자기 효능감	취업모	391	3.76(.68)	384	3.72(.67)	384	3.72(.66)
	미취업모	855	3.67(.72)	853	3.68(.71)	843	3.64(.72)
	전체	1,246	3.70(.70)	1,237	3.69(.70)	1,227	3.67(.70)
	t	-1.95		-.87		-1.98*	

* $p < .05$,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집단별 형태동일성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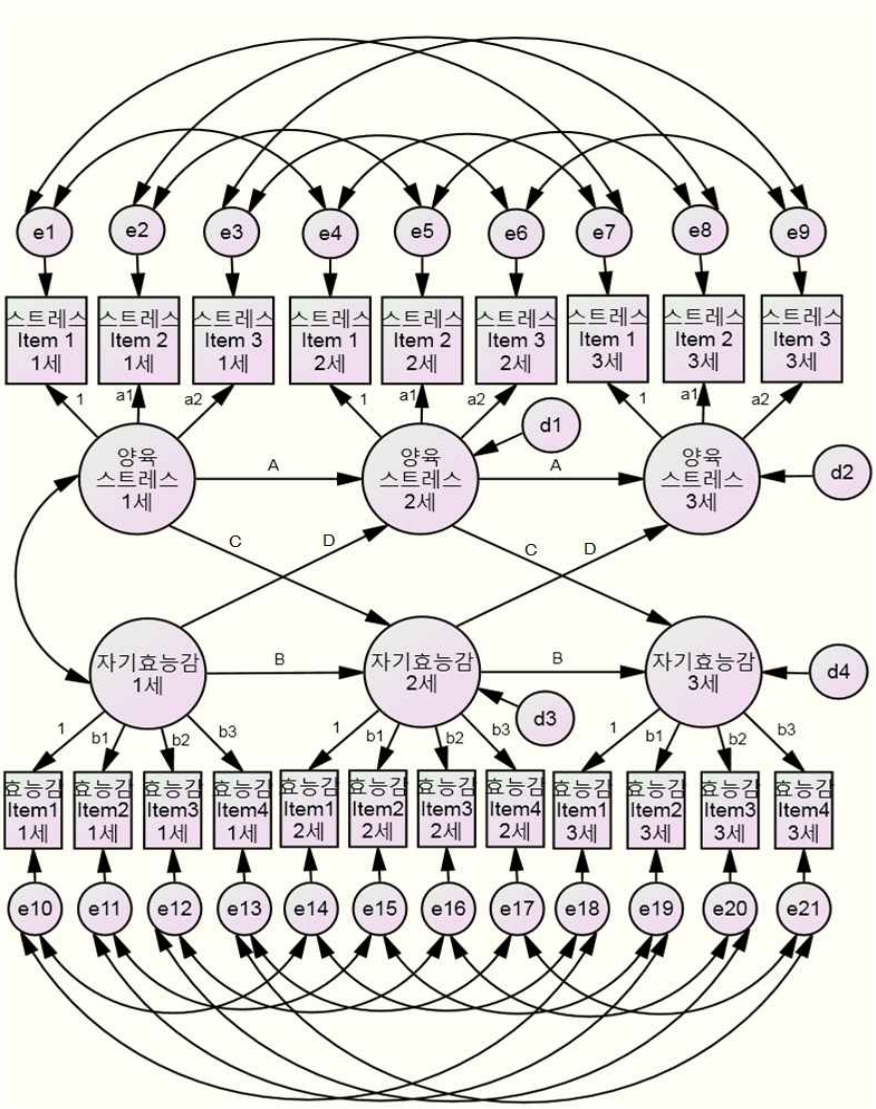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 비교를 위해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가정한 모형이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 적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된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이 만족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다.

〈표 4〉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

모형	특성
1	모형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본모형
2	양육스트레스 측정변수의 세 시점(t-1, t, t+1)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3	자기효능감 측정변수의 세 시점(t-1, t, t+1)의 요인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4	한 시점(t)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t+1)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5	한 시점(t)의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t+1)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회귀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6	한 시점(t)의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t+1)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7	한 시점(t)의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t+1)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지연계수를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먼저 모형1은 기저모형에 해당하는 비제약모형이며, 모형2와 모형3은 요인부하량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응답자들에 의해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검증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a1과 a2를, 자기효능감은 b1, b2, b3을 동일하게 제약하였다. 모형4와 모형5는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자기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그림 2]에 제시된 계수 A와 B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모형6과 모형7은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평가한 동일화 제약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C로,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D로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제약모형

이들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모형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재된(nested) 형태로 가정하여, 모형1부터 모형7을 순차적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

두 순차적으로 제약을 가한 추가 모형들이 이전 모형들에 비해 χ^2 차이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모형2와 모형3의 검증을 통해 시간의 따른 측정의 동일성이 성립되었으며, 모형4와 모형5의 검증을 통해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가 동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 모형6과 모형7 또한 모델적합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교차지연효과 또한 시간에 따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적합도 지수에 해당하는 TLI와 RMSEA의 경우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빠지지 않고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므로, 순차적으로 검증된 모형들의 동일성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χ^2 차이검증 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두 모형 중 자유도가 작은 모형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자유도가 큰 모형을 선택하므로(이은주, 2009), 결과적으로 모형7이 두 집단 모두에게서 최종모형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써 취업모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충족되었을 뿐 아니라 모두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상호적 인과관계의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별 적합도

집단	모형	χ^2	*df*	TLI	RMSEA	$\triangle\chi^2$	Sig
취업모 (*N*=392)	1	305.518	159	.944	.049		
	2	311.452	163	.945	.048	$\triangle\chi^2(4) = 5.934$	$p > .05$
	3	317.486	169	.947	.047	$\triangle\chi^2(6) = 6.034$	$p > .05$
	4	317.547	170	.947	.047	$\triangle\chi^2(1) = .061$	$p > .05$
	5	317.620	171	.948	.047	$\triangle\chi^2(1) = .073$	$p > .05$
	6	317.662	172	.949	.047	$\triangle\chi^2(1) = .042$	$p > .05$
	7	320.442	173	.949	.047	$\triangle\chi^2(1) = 2.780$	$p > .05$
미취업모 (*N*=862)	1	577.095	159	.934	.055		
	2	581.417	163	.935	.055	$\triangle\chi^2(4) = 4.322$	$p > .05$
	3	583.342	169	.938	.053	$\triangle\chi^2(6) = 1.925$	$p > .05$
	4	583.993	170	.938	.053	$\triangle\chi^2(1) = .651$	$p > .05$
	5	586.699	171	.939	.053	$\triangle\chi^2(1) = 2.706$	$p > .05$
	6	587.261	172	.939	.053	$\triangle\chi^2(1) = .562$	$p > .05$
	7	588.419	173	.939	.053	$\triangle\chi^2(1) = 1.158$	$p > .05$

2.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추정된 자기회귀계수 및 교차지연계수가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구조동일성(strutural invariance)에 대한 검증으로, 집단 간 측정동일성(metric invariance across groups)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측정동일성과 다집단 분석을 통한 구조동일성 검증을 형태동일성에서 선정된 최종모형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비제약모형을 기저모형으로 삼고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함으로써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저모형인 모형Ⅰ과 요인계수를 제약한 모형Ⅱ(양육스트레스의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 및 모형Ⅲ(자기효능감의 요인계수 동일화 제약 모형)의 χ^2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TFI와 RMSEA이 비교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업모와 미취업모 집단 간의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다(<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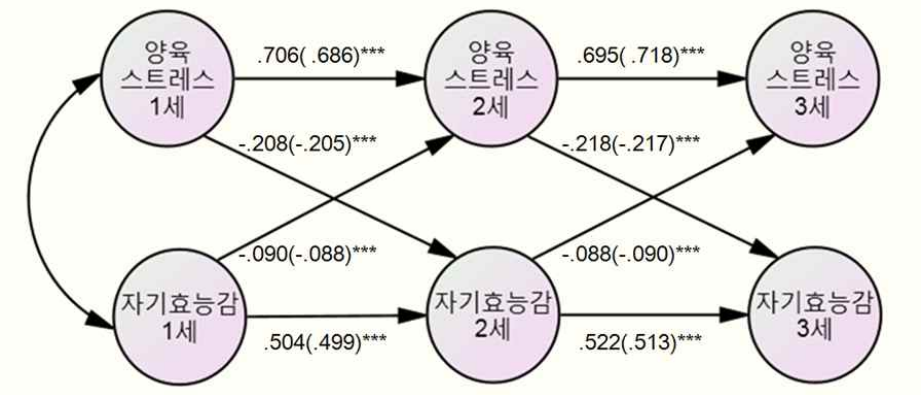
다음으로 구조동일성의 검증을 위해 두 변인의 자기회귀계수와 두 변인 간 교차지연계수를 순차적으로 동일화하여 4개의 모형을 추가로 검증하였다. 아래 <표 6>에서 제시된 모형 중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Ⅳ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추가한 모형Ⅴ 모두 이전 모형들과 비교 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모형Ⅴ의 경우 TFI와 RMSEA이 미미한 수준에서 떨어졌으나 비교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로써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 효과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양육스트레스가 다음 시점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Ⅵ)와 자기효능감이 다음 시점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교차지연 효과(모형Ⅶ)의 추가적인 동일화 제약을 가한 후에도 모형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두 변인의 교차지연 효과 또한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어머니 취업여부별 집단 간 동일성 검증을 위한 경쟁모형별 적합도

모형	χ^2	*df*	TLI	RMSEA	$\triangle\chi^2$	Sig
Ⅰ	908.913	346	.942	.036		
Ⅱ	915.583	348	.942	.036	$\triangle\chi^2(2)$ = 6.670	$p > .05$
Ⅲ	920.590	351	.942	.036	$\triangle\chi^2(3)$ = 5.007	$p > .05$
Ⅳ	920.629	352	.942	.036	$\triangle\chi^2(1)$ = .039	$p > .05$
Ⅴ	922.235	353	.942	.036	$\triangle\chi^2(1)$ = 1.606	$p > .05$
Ⅵ	922.331	354	.943	.036	$\triangle\chi^2(1)$ = .096	$p > .05$
Ⅶ	922.432	355	.943	.036	$\triangle\chi^2(1)$ = .101	$p > .05$

마지막으로 다음의 [그림 3]에는 최종모형에 해당하는 모형Ⅶ의 구조계수 추정치가 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자기회귀계수는 취업모 집단이 .706과 .695, 미취업모 집단이 .686과 .718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또한 취업모 집단은 .504와 .522, 미취업모 집단은 .499와 .51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밝혀져,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1) 표준화 추정치임.
2) 괄호 안의 수치는 미취업모 집단의 추정치임.
3) 시점별 측정오차 간의 경로는 생략되었음.
*** $p < .001$.

〔그림 3〕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다집단분석 최종모형의 추정 결과

교차지연효과 또한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모두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전에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이후의 자기효능감이 낮아졌으며, 마찬가지로 이전에 지각하는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따라 이후의 양육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취업모 집단과 미취업모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나,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서로에게 인과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과 그들이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 횡단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변인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엄격한 의미의 인과관계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년에 걸친 종단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시도하였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각각의 변인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영아가 성장해감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가 영아를 양육하는 과정의 어느 한 시점에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아를 양육하는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에 있어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또한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자기회귀계수는 양육스트레스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양육스트레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이 커가는 내내 지속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인데 비해, 자기효능감은 양육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므로 아동의 연령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이 시간에 경과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영향력이 어머니의 취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었다.

네 번째 연구문제인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스트레스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권미경, 2011; 김경숙, 김신, 이원기, 2012; 김혜라, 김진경, 2012; 문영경, 민현숙, 2012; 서주현, 김진경, 2012; 조성희, 박소영, 2012; 한석우, 2011)에서 관련성이 확인되었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주고 있으며, 특히 영아를 둔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경우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인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이것이 다시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악순환의 경로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양육스트레스는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실제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양육 실제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일관되게 밝혀져 왔으며(Stifter & Bono 1998; Sanders & Woolley, 2005; Tucker, Gross, Fogg, Delaney, & Lapporte. 1998), 양육스트레스 또한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서소정, 2004; 이인학, 박지은, 최성열, 2010; Teti & Gelfand, 199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를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양육지원 정책은 취업모의 대리양육을 도울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확충과 질제고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 중 2012년 전면 실시된 영아대상 무상보육으로 인해 2012년 현재 0세부터 2세까지의 연령별 어린이집 등록 영아 수는 각각 177,157명, 321,716명, 372,81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러한 현황을 연령별 인구수 대비로 살펴보면, 0세의 37.64%가, 1세 68.31%가, 그리고 2세의 경우는 무려 83.54%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동년도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49.7%에 불과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가정 내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취업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의 주된 이유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실태조사 결과 만1세와 만2세의 어머니 중 취업모보다는 미취업모의 비율이 높았으며, 0세의 경우만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가 47.1%, 미취업은 43.3%로 취업모의 비율이 미취업모의 비율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서문희 외, 2012). 즉, 경제활동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 동안 대리양육자가 요구되는 상황보다는 영아를 둔 미취업모 가정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문희 외(2012)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아의 경우 기관을 처음 이용하게 되는 이유로 부모가 돌보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5.6%인데 이어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보육서비스가 필히 요구되지 않는 가정에서 영아인 자녀 양육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이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자(서문희, 김혜진, 2012)는 생애 초기에 해당하는 영아기에 기관에서 불필요하게 장시간 대리양육이 이루어지는 현상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종일형 이외에 단축형 보육과정을 제안하는 등 이용시간 다변화 등을 통해 육아지원 요구에 따른 차별화된 어린이집 이용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재 어린이집 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취업모뿐만 아니라 미

취업모까지 대상으로 다변화하여 어머니 개개인이 처한 상황과 욕구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취업모를 위한 육아나눔터, 공동육아, 놀이집단(playgroup) 등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발굴, 확대함으로써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데 정책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의 생애 초기부터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잃지 않음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히 양육스트레스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출산 직전인 예비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낮은 양육스트레스에서 높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지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실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에 미치는 순환적 관계를 마찬가지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아동의 생애초기부터 부모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다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애초기부터 이루어지는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권미경(2011). 영아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김경숙·김신·이원기(2012).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 피로, 양육스트레스가 산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6**(2), 195-211.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종한(2012). 사회적 지원, 부부갈등, 자기효능감, 양육스트레스와 영아기 어

머니의 양육행동간 경로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3**(9), 3924-3933.

김혜라·김진경(2012).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서성 및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3), 53-67.

문영경·민현숙(2012). 영아의 기질, 발달수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영아 어머니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59-70.

박희진·문혁준(2012). 어머니의 양육죄책감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2), 121-137.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서울: 저자.

서문희·김혜진(2012).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양미선·김은설·최윤경·유해미·손창균·이혜민(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4), 11-27.

서주현·김진경(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영유아보육학, 73**, 101-121.

안재진(2011). 부의 양육태도가 출산 후 초기 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5**, 127-158.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주·진미정(2013). 영유아기 기혼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사회자본과 양육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51**(2), 229-239.

이인학·박지은·최성열(2010).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19**(4), 81-91.

이은주(2009). 청소년 비행과 비행친구의 인과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0**(1), 141-171.

조성희·박소영(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05-524.

홍세희·박민선·김원정(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사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1**(1). 129-143.

한석우(2011).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돌봄자기효능감과 어머니의 민감성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6**(2), 145-161.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The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Cherniss, C. (1993). Role of professional self-efficacy in the etiology and amelioration of burnout. In W. B. Schaufeli, C. Maslach, & T. Marek (Eds). *Professional burnout: Recent developments in theory and research* (pp. 135-149).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Crnic, K. A., & Greenberg, M. T. (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Hofferth, S. L., Davis-Kean, P., Davis. J., & Finkelstein, J. (1998). *Child development supplement to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1997: User guide.* Retrieved November 11, 2006, from http://www.isr.umich.ed/src/child-development/home.htm/

Jack, A. P. (2000). Maternal self-efficacy and children's influence on stress and parenting among single balck mothers in poverty. *Journal of Family Issues, 21*(3): 3-16.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ress.

Mann, M. B., & Thornberg, K. R. (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3), 451-464.

Raikes, H. A., & Thompson, R. A. (2005). Efficacy an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parenting stress among families in povert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3), 177-190.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doi: 10.1111/j.1365-2214.2005.00487.x

Stifter, C. A., & Bono, M. A. (1998). The effect of infant colic on maternal self-perceptions and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24*, 339-351.

Teti, D.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Tucker, S., Gross, D., Fogg, L., Delaney, K., & Lapporte, R. (1998). The long-term efficacy of a behavioral parent training intervention for families with 2-year-old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1*, 199-210.

Woods, K. (2011). *Examining the effect of medical risk, parental stress, and self-efficacy on parent behaviors and home environment of premature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취업모의 직업만족도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Variables Associated with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금지헌[1] · 김동심[2]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parenting stress, marti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 For this study uses 201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The participants were 431 working mothers.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s, technical statistics of the frequency, ratio, average,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eratosis via PASW 18.0, item-total correlation, the totality, and the reliability analysis. The structural analysis via AMOS 20.0 in the bootstrapping method was undertaken to perform the path analysis among the variables and to assess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A hypothetical model was proposed, which was composed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as exogenous variables, parenting stress, martial satisfaction and Job satisfaction as endogenous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parenting stress and martial satisfaction affect job satisfaction of working mothers. The most effect factors is martial satisfaction. Second, martial satisfaction has mediation effects between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 care, parenting stress and job satisfaction.

Ⅰ. 서 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생활수준 향상 및 가족유지비용 증가, 개인적 가치 우선 등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

1) 한국교육개발원 (keumjh99@kedi.re.kr)
2) 한국교육개발원 (schwimmer@kedi.re.kr)

한 사회적 비용 급증하고 있다(고선주, 2011; 정성호, 2012). 그리고 2012년 4분기 우리나라 509만 7천여 가구(43.5%)가 맞벌이하고 있으며, 15세~54세의 기혼여성 중 197만 8천여 명(20.3%)은 결혼(47.0%), 육아(28.7%), 임신·출산(20.0%) 자녀교육(4.3%)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3). 취업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장시간 근무를 지적하고 있는데(김승희, 김선미, 2013). 장시간 근무는 일가정양립 만족도를 낮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Valcour, 2007).

이러한 현상과 문제를 우려하여 정부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양육 지원과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이다. 기본계획에 이어 새 정부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방과 후 돌봄 강화 등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11; 여성가족부, 2013).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의 정책 초기 목표어의 혼재, 대상 선정 등의 우려가 등장하였지만(김은정, 2012, 2013),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며(이혜정, 유규창, 2011), 취업모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Bakker, Demerouti, & Dollard, 2008; Saltzstein, Ting, & Saltzstein, 2001). 또한 여성의 자기 계발에 대한 강한 욕구는 일과 가정이라는 두 개의 축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승희, 김선미, 2013). 즉 일가정양립 정책을 통해 취업모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갈등을 낮추며, 가정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더욱 원활해 질 수 있다.

증가하고 있는 취업모가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의 지원을 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가정양립 정책의 핵심인데, 이에 취업모를 대상으로 직장-가정 갈등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하는데(서요한, 이찬, 2009) 크게 개인의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Constance & Becker, 1973; McCormick & Tiffin, 1974; Smith, 1955)과 직무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입장(장태선, 공기열, 2007; Locke, 1969); Quinn & Magine, 1973으로 구분된다. 입장에 따라 측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 감정적 사실로 직접 만족하는 여부를 묻고,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김진모, 이택선, 2004).

직장-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 WFC)과 관련한 연구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양립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역할갈등을 주로 연구했는데, 특히 가정이 직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Ford, Heinen & Langkamer, 2007). 그러나 가정과 직장의 양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Gutek, Serle & Klepa, 1991; Kossek & Ozeki, 1998), 가정에서의 역할이 직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직장 갈등(family-work conflict; FWC)과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한광현, 2012; Byron, 2005; Carlson, Kacmar & Williams, 2000).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권순원, 이영지, 김봄이, 2013; 최수찬 외, 2006; Choi, 2009; Kossek & Ozek, 1998). 직장-가정갈등의 원인으로는 국가와 직장에서의 일가정양립에 대한 정책 지원, 가정 환경적인 요소로는 출산과 육아 문제, 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우울과 같은 심리적 요인, 그리고 결혼만족도 등이 연구되어 왔다.

취업모는 가정의 지원이 중요한데 가정 내에서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크다(권순원, 이영지, 김봄이, 2013; Yoon & Jyung, 2009). 부의 양육참여는 모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취업모의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권미경, 2011), 부의 양육참여(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는 취업모의 직장-가정 갈등을 감소시킨다(Thomas & Ganster, 1995). 또한 Byron(200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정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자주 경험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직장-가정 갈등을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희와 이은희(2000)의 연구는 맞벌이 가정의 남녀 모두 직장과 가정 갈등 영역 중 가사분담의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부인의 만족도가 결혼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며(유계숙, 2010), 맞벌이 가정의 가사분담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가사분담이 공평할수록 결혼갈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Stohs, 2000). 또한 Burley(1995)는 배우자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가사 일의 평등한 분배가 남녀 모두에서 직장-가정 갈등과 부부관계 만족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부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양육특성에도 영향을 미친

다(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고통,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불일치할 때 경험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자녀의 적응, 요구, 기분, 활동수준 등 행동특성 상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Abidin, 1992; 김기원 외, 2010). 양육문제는 기혼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더 높음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데(손수민, 2012),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박주령, 2012). 그리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손수민, 2012; 송영주 외, 2011).

앞서 취업모의 부의 양육참여(임현주·이대균, 2012)와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손수민, 2012; 송영주 외, 201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는 직무수행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심순아, 정옥분, 2004).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이다(이호신, 2000). 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부모/가족 관련 변인, 의사소통, 성, 직업 관련 변인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구체적인 변인으로 스트레스, 부부간 역할인지 및 평가, 자녀양육 등이 있다(김희진, 2004).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를 종합하면, 첫째, 부의 양육참여는 취업모의 직무만족도,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부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직장-가정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인과관계(Byron, 2005; Thomas & Ganster, 1995),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인과관계(권순원, 이영지, 김봄이, 2013; 최수찬 외, 2006; Choi, 2009; Kossek & Ozek, 1998),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한 양육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인과 관계(임현주, 최항준, 최선녀, 2012),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인과 관계(임현주, 이대균, 2012)가 있다. 둘째,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인과관계(손수민, 2012; 송영주 외, 2011),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인과관계(박주령, 2012)가 있다. 셋째,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기혼여성의 결혼만족과 직무수행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연구(심순아, 정옥분, 2004)와 직장-가정 갈등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에 따라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시작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전국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관련 변인들의 인과적 관계를 보고자 한다. 이는 일가정양립 정책의 초점이 되는 미취학 자녀를 둔 취업모의 직업생활과 가정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인과모형을 구안하고, 이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해 구안된 가설적 인과모형은 주어진 경험 자료와 일치하는가?

연구문제2.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간접적인 영향 관계는 어떠한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을 출생부터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 각 시기에 발생하는 아동의 성장, 발달특성, 양육실태와 요구, 육아지원기관의 기능과 효과 및 지역사회와 육아정책의 영향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차 자료는 2011년 조사된 자료로 이 연구에서는 취업모 43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도구

부의 양육참여에 대해 묻는 4문항(예: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

을 갖고 지도한다.)을 사용하였다. 패널의 도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도구를 수정한 것으로 취업모가 인지한 부의 양육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KMO값은 .77로 .5이상이여서 이 연구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605.42로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결과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의 양육참여는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에 과도한 비중이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묶음지표를 사용하였다. 동일한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우선적으로 묶은 후, 평균값을 사용한 묶음지표는 각 잠재변인을 측정해주는 측정변수 수를 줄일 수 있어 측정오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개별문항들을 사용할 때 보다 구조방정식의 기본가정인 다변량 정규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Sass & Smith,2006). 신뢰도 Cronbach's α는 .889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해 묻는 11문항(예: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을 사용하였다. 패널에서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90,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092.52(p=.00)로 나타났고, 또한 2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74였다.

결혼만족도에 대해 묻는 문항4문항(예: 나는 결혼생활에 만족한다.)을 사용하였다. 패널의 도구는 Chung(2004)이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수정한 RKMSS(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4,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393.17(p=.00)로 나타났다, 또한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묶음지표로 2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795였다.

직무만족도에 대해 묻는 9문항(예: 나는 내 일자리의 안정성에 만족한다.)을 사용하였다. 이는 미네소타대학교 직업심리연구소의 미네소타만족지수(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MSQ)와 Smith, Kendall과 Hulin(1969) 등이 개발한 직무기술지표(job description index; JDI) 등에 근거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목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축약형으로 작성한 것(남재량, 성재민, 이상호, 최효미, 신선옥, 2007)을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값은 .86,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1166.58(p=.00)로 나타났고,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 묶음지표 2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α는 .840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2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적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측정변수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를 이루지 않을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성의 가정을 충족시킬 수 없고 그 결과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어 정확한 통계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다변량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변수들의 평균은 최소 2.47에서 최고 3.79, 표준편차의 평균은 최소 .55에서 최고 .88이었으며, 왜도는 절댓값 최소 .09에서 최대 .70, 첨도는 절댓값 최소 .02에서 최고 1.1의 값을 보였다. 측정변수의 표준왜도가 2보다 작고 표준첨도가 7보다 작으면 구조방정식 모형 하에서의 정상분포 조건이 충족되므로(Kline, 2005), 이 연구에서의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에서 다변량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이 만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취업모의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측정변수의 상호상관행렬

(n=431)

	1	2	3	4	5	6	7
부의 양육참여 1	-						
부의 양육참여 2	.68*	-					
양육스트레스 1	-.19*	-.29*	-				
양육스트레스 2	-.11*	-.21*	.65*	-			
결혼만족도 1	.39*	.49*	-.36*	-.27*	-		
결혼만족도 2	.50*	.62*	-.38*	-.29*	.85*	-	
직무만족도 1	.15*	.26*	-.14*	-.10*	.28*	.28*	-
직무만족도 2	.22*	.25*	-.16*	-.15*	.29*	.31*	.72*

* $p < .05$.

〈표 2〉 측정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431)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최솟값	최댓값
부의 양육참여 1	3.64	.88	-.44	-.34	1.00	5.00
부의 양육참여 2	3.76	.84	-.46	.16	1.00	5.00
양육스트레스 1	2.47	.69	.43	.18	1.00	4.60
양육스트레스 2	2.96	.70	.09	-.17	1.00	5.00
결혼만족도 1	3.79	.75	-.70	1.10	1.00	5.00
결혼만족도 2	3.77	.75	-.63	.84	1.00	5.00
직무만족도 1	3.62	.55	-.40	.72	1.50	5.00
직무만족도 2	3.59	.55	-.10	.02	2.00	5.00

2. 측정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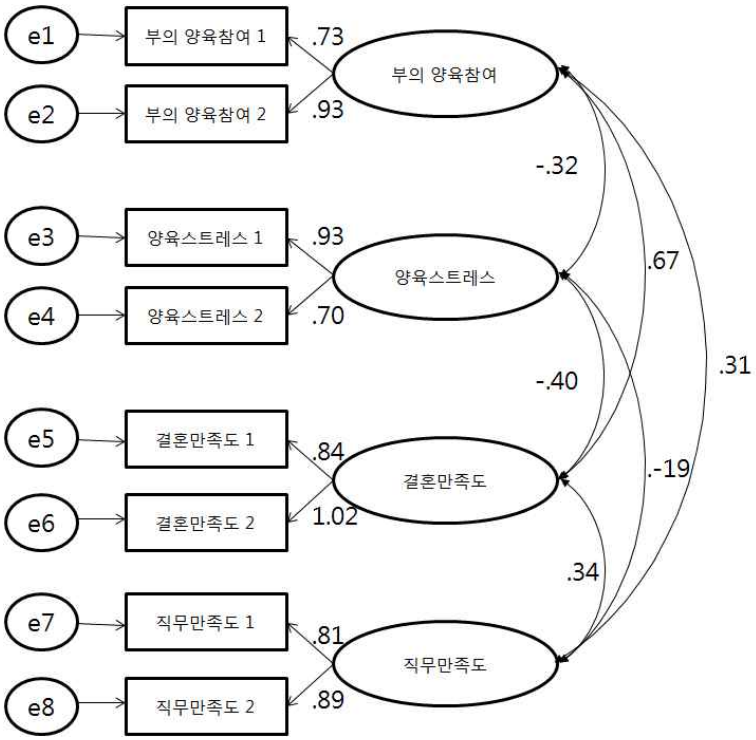
연구모형인 구조회귀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적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형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05)에 따라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측정모형 적합도 지수

(n=431)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26.53	.02	14	.99	.99	.05 (.02 ~ .07)
기준값				>.90	>.90	<.08

주) RMSEA가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sonable fit), <.10이면 나쁜 적합도 (Browne & Cudeck, 1993)



〔그림 171〕 측정모형의 모수치 추정결과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RMSEA(.02~.07)를 비롯하여 모두가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경로별 표준요인부하량은 .73~1.02에 걸쳐 있으며 유의수준 .05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이어야 함을 고려할 때(Hair, Anderson, Tathrn, & Black, 1995), 측정변수들은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측정변수들과의 상호상관정도를 검토한 결과 -.32 ~ .67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이런 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모형의 검증

통계적 모형을 구성하는 측정모형의 모든 적합도지수가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모형의 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하였다.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구체적 결과는 <표 3>과 같다.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TLI=.99, CFI=.99, RMSEA=.05(.02~.07)으로 나타남에 따라 양호한 모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지수

(n=431)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26.53	.02	14	.99	.99	.05 (.02 ~ .07)
기준값				>.90	>.90	<.08

이에 따라 취업모의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결혼만족도, 직무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 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β	S.E	t	p
부의 양육참여 → 양육스트레스	-.206	.042	-4.93	.00
부의 양육참여 → 결혼만족도	.589	.050	11.67	.00
부의 양육참여 → 직무만족도	.088	.044	2.00	.045
양육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312	.066	-4.75	.00
양육스트레스 → 직무만족도	-.051	.053	-.966	.334
결혼만족도 → 직무만족도	.124	.043	2.85	.00

초기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인 '양육스트레스 →직무만족도'를 삭제하여 간명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초기 구조모형과 수정된 간명모형이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이루고 있어 초기구조모형과 수정모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χ^2검증을 실시한 결과, CMIND = .92, p = .99 로서 적합도에 있어서 수정모형과 초기구조모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모델인 수정된 연구모형을 최종연구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6〉 수정모형 적합도 지수

(n=431)

	CMIN	p	df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26.53	.02	14	.99	.99	.05 (.02 ~ .07)
수정모형	27.45	.02	15	.99	.99	.04 (.02 ~ .07)
기준값				>.90	>.9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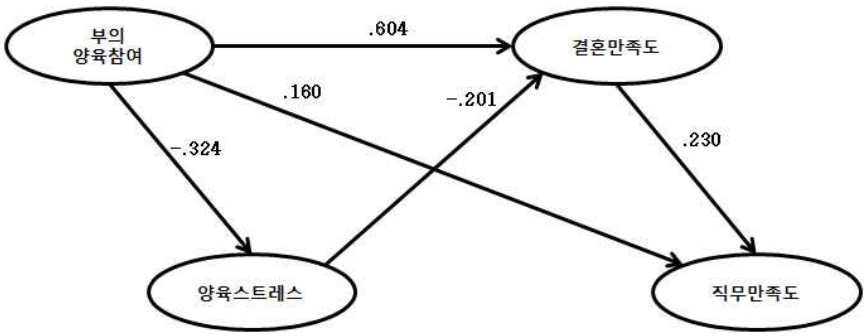
* p < .05.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수정모형에 대한 구조계수 추정치

경로	β	S.E	t	p
부의 양육참여 → 양육스트레스	-.324	.042	-4.91	.00
부의 양육참여 → 결혼만족도	.604	.050	11.67	.00
부의 양육참여 → 직무만족도	.160	.044	2.08	.037
양육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201	.066	-4.74	.00
결혼만족도 → 직무만족도	.230	.043	3.15	.00

수정모형의 구조계수 추정치를 표현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172〕 측정모형의 표준 모수치 추정결과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경로들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매개효과 검증

(n=431)

매개경로	a	Sa	b	Sb	c	Sc	Z
부의 양육참여 → 결혼만족도 → 직무만족도	.60	.05	.21	.04			4.54 (p < .05)
양육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 직무만족도	.15	.04	.21	.04			2.79 (p < .05)
부의 양육참여 → 양육스트레스 → 결혼만족도 → 직무만족도	-.32	.04	-.20	.06	.21	.04	0.02 (p > .05)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였다. 취업모의 결혼만족도가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심순아·정옥분, 2004)와 직장에서의 역할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과거의 연구들보다 직장-가정 갈등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권순원, 이영지, 김봄이, 2013; 최수찬 외, 2006; Choi, 2009; Kossek & Ozek, 1998)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취업모가 증가하고 일가정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직장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취업모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혼만족도 외에도 부의 양육참여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의 양육참여가 취업모의 직장-가정 갈등을 감소시킨다는 기존 연구(Byron, 2005; Thomas & Ganster, 1995)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결혼만족도에는 부의 양육참여와 양육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업모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남편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는 취업모는 가정의 지원이 중요하며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크다는 기존 연구(권순원, 이영지, 김봄이, 2013; Yoon & Jyung, 2009)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며,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부의 양육참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손수민, 2012)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취업모의 가정의 지원은 직무만족도와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남편의 역할이 중요함이 밝혀졌다.

둘째, 수정된 연구모형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박주령, 2012)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부의 양육참여는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그리고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 두 변인을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양육스트레스도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에서 결혼만족도만이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는데, 취업모의 직장생활은 결혼만족도가 큰 영향을 미치며,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의 양육참여 그리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

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미취업모보다 취업모의 경우 부의 양육참여가 높다는 조사(권미경, 2011)는 다행스러운 결과이며, 취업모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배 배우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 취업모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미 많은 취업모가 직장을 그만두었고, 경력단절 여성은 다시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여성의 맞벌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 계발을 위함인데(김승희, 김선미, 2013),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연구결과와 같이 직장생활에서 만족을 얻고 직장-가정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취업모가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지원과 배우자(남편)의 역할이 크다. 즉, 가정생활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서 장시간 근무를 줄이는 기업문화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육아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치 확대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간 인과관계의 수정모형은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실증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부의 양육참여, 결혼만족도의 영향, 그리고 직무만족도와 부의 양육참여의 관계에 있어 양육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는 매개효과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였고 부의 양육참여도 중함이 밝혀졌다. 증가하는 취업모의 일가정양립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취업모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우선적이며 배우자 지원의 중요함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셋째, 부의 양육참여와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는 결혼만족도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결혼만족도는 직무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이를 높이기 위해 부의 양육참여를 높이고,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및 배우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희경(1998). 3세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선주(2012). 저출산 대응: 가족내 자녀양육지원강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1), 53-77.

권미경(2011).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영향요인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19-41.

권순원·이영지·김봄이(2013). 기혼 여성의 직장-가정 갈등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 **경영교육연구, 28**(1), 299-329.

김기원·도현심·김상원·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성, 배우자의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연구, 31**(5), 101-113.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승희·김선미(2013). 맞벌이가족의 일-가정 양립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3), 355-370.

김은정(2012). 일가정양립지원 정책 목표와 대상 간 정합성 연구. **가족과 문화, 24**(3), 131-160.

김은정(2013).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긍정적 효과성과 부정적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2), 168-198.

김진모·이택선(2004). 농촌지도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조직환경 및 역할갈등의 관계.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6**(4), 73-88.

김희진(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3), 839-853.

남재량·성재민·이상호·최효미·신선옥(2007). 한국노동패널(KLI) 9차년도 설문지-개인공통(취업).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박주령(2012). 양육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K 공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찬화(2012). 10개월 이하 영아를 둔 취업모의 양육지원체계, 자녀가치관 및 심리적 안녕감이 둘째아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1), 95-111.

서요한·이찬(2009). 우수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인식한 경영자 리더십과 신뢰,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4), 173-198.

손수민(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 비교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31-357.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심순아·정옥분(2004). 중등기혼여교사의 결혼만족도와 직무수행과의 관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4), 141-156.

여성가족부(2013).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9**(1), 41-70.

이주희·이은희(2000). 맞벌이 부부의 직장, 가정의 역할갈등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287-303.

이혜정·유규창(2011). 일가정 양립제도와 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80**(1), 37-79.

이호신(2000). 결혼생활만족에 관련된 부부의 상호작용 요인들.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임현주·이대균(2012). 영아자녀를 둔 취업모와 전업모의 부부특성, 경제특성, 심리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2**(5), 451-470.

임현주·최항준·최선녀(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부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어머니 양육특성에 미치는 변인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2), 83-106.

장태선·공기열(2007). 호텔조직의 서비스지향성이 호텔종업원의 직무만족과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19**(2), 151-165.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최수찬·우종민·윤영미·김상아·박웅섭(2006). 남녀근로자의 직장-가정 간 갈등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족친화적 기업복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 **한국가족복지학, 17**, 143-171.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한광현(2012). 직무요구.자원과 일.가족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자기평가(CSE)의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5**(3), 1607-1630.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Bakker, A. B., Demerouti, E. & Dollard, M. F. (2008). How job demands affect partners' experience of exhaustion: Integrating work-family conflict and crossover theor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3*(4), 901-911.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54*, 136-136.

Burley, K. A. (1995). Family variables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family conflict and marital adjustment among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Psychology, 135*(2), 483-497.

Byron, K. (2005). A meta-analytic review of work-family conflict and its antece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7*, 169-198.

Carlson, D. S., Kacmar, K. M., & Williams, L. J. (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49-276.

Choi, H. J. (2009).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work-family conflict on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mong hotel frontline employees with testing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dministration, 18*(5), 203-219.

Chung, H. (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Constance, N. A., & Becker, M. K. (1973).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An empirical test of some theoretical proposi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9*(2), 267-279.

Ford, M. T., Heinen, B. A., & Langkamer, K. L. (2007). Work and family satisfaction and conflict: A meta-analysis of cross-domain rel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1), 57-80.

Gutek, B. A., Serle, S., & Klepa, L. (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560-568.

Hair, J. F., Anderson, R. E., Tathrn, R. L., & Black, W. C. (1995). *Multipartite data analysis*: New Jersy: Prentice Hall.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Kossek, E. E., & Ozeki, C. (1998), Work-family conflict, policies and the job-life satisfaction relationship; A review and direction for organizational behavior-human resources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83*, 139-149.

Locke, E. A. (1969). What i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4*, 309-336.

McCormick, E. J., & Tiffin, J. (1974). *Industrial psychology* (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Quinn, R. P., & Magine, T. W. (1973). Evaluation weighted model of measuring job satisfaction: A cinderella st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0*(1), 1-23.

Saltzstein, A. L., Ting, Y., & Saltzstein, G. H. (2001). Work-family balance and job satisfaction: The impact of family-friendly policies on attitudes of federal government employe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4), 452-467.

Sass, D. A., & Smith, P. L. (2006). The effects of parceling unidimensional scales on structural parameter estimat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3*(4), 566-586.

Smith, H. C. (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Smith, P. C., Kendall, L. M., & Hulin, C. L. (1969). *The measurement of satisfaction in work and retirement.* Chicago: Rand McNally.

Stohs, J. H. (2000). Multicultural women's experience of household labor, conflicts, and equity. *Sex Roles, 42*(5-6), 339-361.

Thomas, L. T., & Ganster, D. C. (1995). Impact of family-supportive work variables on work-family conflict and strain: A control perspectiv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6-15.

Valcour, M. (2007). Work-based resourc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hours and satisfaction with work-family bal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2*(6), 1512-1523.

Yoon, J. Y., & Jyung, C. Y. (2011). Work and family life balance of administrative professional mother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2*(3), 141-161.

An Analysis of Self-efficac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영유아 교사의 자기효능감 연구

박성옥[1] · James Hoot[2] · 신혜진[3]

대한민국 유아의 하루 일과를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 유아의 상당수는 평균 7시간 이상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의 가정 외의 보육 및 학습기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면시간을 제외한 하루 일과의 반 이상을 기관에서 생활한다는 의미이며, 단순히 많은 시간을 외부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주 보호자인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지표이기도 하다. 아동이 타인을 배려하거나 나와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성을 유아기 때부터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다양한 학습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실시되고 있는 누리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사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육과정 지침서에는 유아가 성별, 종교, 신체적 조건, 가족 및 민족 배경 등으로 인한 편견을 배제하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게끔 지도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중심으로, 아동의 다양한 학습 배경에 관하여 한국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최근경향을 탐구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육아정책연구소 산하의 국가수준 설문자료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학습 배경에 관한 유아발달 요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밝혔다. 나아가 교사의 경력, 교사와 학생의 유대관계, 교사와 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최근의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수준 등이 교사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높여주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한국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있어 진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교사들의 효능감에 대한 자기평가(self-assessment)라는 설문조사 방법론적 한계점을 지적한다.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개개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삶에 대한 교사의 지식 적용 부분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방법 등, 보다 세부적인 조사방안을 제안하며, 교사교육에서 아동의 다양한 학습 배경에 관한 민감도의 진전을 보여줄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지표를 요구한다.

1)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opark3@buffalo.edu)
2)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jhoot@buffalo.edu)
3)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hyeshin@buffalo.edu)

Ⅰ. Introduction

A recent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aptly pointed out that "South Korea, a country where until recently people were taught to take pride in their nation's 'ethnic homogeneity' … is struggling to embrace a new reality" (Choe, 2009). This new reality has emerged largely from a rapid increase in the numbers of foreign workers needed to fuel Korea's growing economy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foreign brides. In 2008, foreign residents in Korea made up about 2% of the total Korean population. One year later, the rate of foreign residents increased by more than 17% (Moon, 2010). Another indicator of this increase is that in 2008, 13,443 babies were born to inter-racial Korean couples. This number increased to 22,014 in 2011. This figure represents 4.7% of all births in Korea in 20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1). Korea's recent journey in diversity has even begun to alter its language. Widespread use of terms such as "Danil Minjok" to describe the former one race native Korean nation is becoming less used in daily conversations. Such descriptors are now being increasingly replaced by words such "Damunhwa" (multicultural) when referring to citizens of mixed race or families of inter-racial couples.

Rapidly increasing diversity in Korea presents many challenges for our highly industrialized nation. Perhaps one of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likely to affect our future economy, however, lies in the education sector. Specifically, we must learn how to better prepare teachers and children to celebrate the recent diversity in our nation. Since 2012, Korea has been applying a revised curriculum called the Nuri Curriculum to 5 years old children in Korean public childcare programs. The application of this standardized curriculum has more recently been extended to children ages 3 to 5. In this curriculum, cultural diversity is clearly emphasized. For example, the curriculum states children must "…learn to recognize and to embrace diverse socio-cultural differences…" It also indicates that teachers must

consider the educational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when preparing teaching-learning environments. In the social interaction section of the curriculum, it is emphasized that multicultural issues "take priority in creating anti-bias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learn about different countries, races, and cultures." It also emphasizes, "Children are to respect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oneself and others" and actively encourages children to "work toward living cooperatively with diverse cultures." Emerging curricula such as this is clearly in line with Korean goals of becoming a 21st century diverse nation. However, we know very little about how teachers in the schools are currently prepared to use such curricula to achieve national goals. Increasing numbers of leading scholars are expressing the critical nature of diversity education in early education. Keenhwe (2010), for example,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focus on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an early age to most effectively develop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and relate to others from diverse backgrounds. Likewise, the 100,000 plus members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NAEYC) in the United Stat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an anti-bias approach to early education in position papers and in its accreditation process (Derman-Sparks et al., 2010). Similarly, the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ACEI) addresses the importance of diversity preparation in global teacher education programs.

Teachers and parents play an important role influencing children's identity as well as developing an anti-bias perspective from very young ages. Very recent data collected by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2011(KICCE, 2012) suggests that Korean children spend more than 7 hours per day in preschools or kindergartens. Other than an average of 10 hours of sleep per day, this figure suggests that the majority of our children's time is spent in school. If Korea is to create future citizens who value diversity more than previous generations, the development of lasting dispositions to respect and value those who are different must begin in the earliest years. And, classroom teachers will play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such dispositions as Korea transitions toward becoming a truly multicultural society. Yet, research is just beginning to emerge to provide direction for qualities and experiences of teachers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more diversity-conscious teachers.

Ⅱ. Teacher impact on multicultural classrooms

Some teacher variables were investigated in the KICCE teacher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d carefully selected teacher variables based on recent study trend of teacher impact on diversity in classrooms. Very recent research provides a promising glimpse of teacher variables that are likely to result in more productive multicultural classrooms. Two promising variables include: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eacher-parent communication.

1. Teacher-child Relationships

Productive teacher-child relationships appear to be a critical factor i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In an experimental study (n = 120)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with kindergarten children Ahnert, Milatz, Kappler, Schneiderwind, & Fischer (2013), for example, found that children with a closer relationship with teachers showed higher cognitive processing. In their study, teacher-child relationships were measured first and, then, children participated in computerized tasks in a laboratory situation. In order to measure teacher-children relationships, the researchers visited children in kindergartens. They first asked their teachers to report on the quality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using 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Pianta, 2001), which measured closeness, dependency, and conflict. In addition, children and teachers were observed together. Later teachers were asked to provide evaluations of their teacher-child relationships from the children's

point of view. Children were then given laboratory tasks challenging their cognitive processes relating to basic knowledge and belief systems. Tasks included things like classifying items (i.e. using a computer mouse, click on the figure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rest), ordering (i.e. click on the patterns which should be replace the blank in a way to match the order rows), and composing & comparing (i.e. click on the figure which best fits in the big pattern). Before beginning the tasks, an image of a child's teacher was shown to the experimental group (n = 60) whereas children of the control group were shown a neutral image. Results suggested that cognitive processing was significantly (p < .05) impacted by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s.

In addition to cognitive benefits of positive teacher-child relationships, other studies (Greenberg, 2002; Liew, Chen, & Hughes, 2010; Neu, 2013; Wentzel & Berndt, 1999) suggest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s may provide a powerful social context for ethnic, linguistic, and cultural minority children. These studies suggest that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s may positively impact language develop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greater involvement in classroom learning environments.

2. Teacher-parent Communication

Teacher-parent communication has also been shown to be important in the maxim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early years. Miedel & Reynolds (1999), for exampl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 involvement in early education and children's later school performance. In their longitudinal study of 704 parents of preschool and kindergarten children in Chicago, USA, researchers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arent involvement in schools and higher reading achievement.

Likewise, Cheatham & Ostrosky (2013) conducted an analysis of conversations in teacher-parent conferences with native Spanish speaking, Latino bilingual and native English speaking parents and teachers. For this

study, researcher gave teachers three different methods of setting goals for their children. The first method involved the teacher telling the parent a goal they had set for the children. In the second method, the teacher asked parents a goal they would like to establish for their children. In the third method, the teacher shared with parents a goal they had established and requested parent input into how to address this goal. Examples of goals described above included items like working with other children, helping the child better understand math patterns and help with writing letters. This investigation found that cultural differences and misunderstanding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might affect children's goal setting differently. For example, when teachers largely controlled child goal setting during parent-teacher conferences, particularly native Spanish speaking parents were confused by teachers' decisions but reluctant to ask teachers for a detail explanation. This study concluded that understanding of cultural backgrounds of children's families were productive when recognizing the value of what families can bring to teacher-family communication.

Eberly, Joshi, & Konzal (2007) also found that teachers in their study struggled to interpret parents' child-rearing practices due to different cultural perspectives. In their qualitative study, teachers indicated that they could not make generalizations about a child's culture based solely on their race or ethnicity because "there are cultures within cultures." For example, teachers were confused and struggled in terms of understanding child-rearing styles when parents mentioned "we give our babies coffee because coffee to us is a dessert," or when Puerto Rican mothers says to a child "you touch it and die… because I said so." A teacher also expressed different cultural aspects on gender: "… in certain cultures education for girls is not valued as much as it is for boys." The researchers concluded that more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resulted from better teacher understanding of the families' perspectives.

Children of multi-ethnic families are a growing population in Korea. In order for all children to be competent in a global society, diversity should be

addressed from an early age. However, little research exists regarding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especially regarding teacher preparation. This study sought to fill the research gap of Korean teache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analysis of very recent data emerging from the 2011 KICCE survey relating to diversity issues.

Ⅲ. Research Question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guided this investigation: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ty self-efficacy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What teacher variables appear to impact the level of teachers' self-efficacy regarding diversity?

Ⅳ. Methodology

1. Data Sourc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collected in 2011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A total of 1,425 surveys were distributed to Korean teachers of children ages birth to 5 years who worked at national public daycares and kindergartens, and at private, religion-based early childhood programs. The response rate on the survey was approximately 45.2%. Accordingly, total 800 cases were used to investigate diversity self-efficacy of Korean early childhood teachers.

2. Instrumentation

The survey was developed by KICCE to obtain national data regarding Korean childcare and education. The survey included separate questionnaires for teachers, mothers and fathers. Sinc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state-of-the-art diversity status concerning classroom teachers, only data from the teacher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is study. The Teacher Survey portion of this survey required self-reported responses to questions based on a 5-point Likert-type scale ranging from 1(strongly disagree) through 5(strongly agree). For this study, we selected only survey items that were related to the diversity variabl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is included teacher self-efficacy, child-teacher relationships, parent-teacher communication, and awareness of Korean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for childcare programs. The teacher self-efficacy survey (7 questions) was developed based on Bandura's (2006) Teacher Self-efficacy Sca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ree items that measured teachers' confidence in their ability to promote diverse students' learning were selected and named diversity self-efficacy. These included the following items:

1. efficacy to motivate academic achievement for children at-risk,
2. efficacy in supporting children to work collaboratively
3. efficacy to help children overcome poor environments that prevents them from learning.

Each score of the three items was aggregated to get the total score for diversity self-efficacy. Also, within the survey, the three main predictor variables were measured as follow: 1) ten items relating to teacher-child relationships were used to measure teachers' use of various methods to interact with children, 2) four items considered teacher-family communication to measure how well teachers maintained communication with families and 3) awareness of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was measured. The KICCE survey also included teacher's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i.e. gender, teaching experience, and teacher certification). Teaching experience was measured by months of classroom teaching. Teacher certification was defined

as whether the participant was certified to teach children in early child settings.

3.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was teachers' level of diversity self-efficacy (DSE) as measured by the survey.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under investigation, the following predictor variables were investigated: 1) teacher-child relationship, 2) teacher-family communication, and 3) awareness of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Total scores of the three items were calculated respectively. Teachers' characteristics were also consider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se included: 1) gender, 2) teacher certification, and 3) teaching experience. Gender variable was used as a dummy variable indicating male (ref. female). Whether teachers were early childhood certified was indicated by the dummy variable (ref. not certified). We aggregated the teaching experience from each institution where the teacher taught, and then, the aggregated total teaching months, were controll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Table 1> provides a summary of variables explored investigated in this study.

<Table 1> Summary of Variables

Variable	Descriptions
Dependent variable	
Teaching Efficacy	Total scores of Teacher Self-Efficacy on diversity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A dummy variable indicating gender (0 = Female, 1 = Male)
Teacher certification	A dummy variable indicating certification (0 = No, 1 = Yes)
Teaching experience	Total teaching experience (unit: months of teaching experience)
Teacher-child relationship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children
Teacher-family comm.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 and parents/families
Curriculum awareness	Awareness of latest early childhood educational policy

4. Analytical method

A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what variables might better explain teachers' level of diversity self-efficacy (DSE). The follow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was used for this study.

$Y = \alpha + \beta 1E1 + \beta 2\ E2 + \beta 3\ E3 + \beta 4\ E4 + \beta 5\ E5 + \beta 6\ E6 + e$

Where

Y = level of diversity self-efficacy

E1= gender,

E2= teacher certification,

E3= teaching experience,

E4= child-teacher relationship,

E5= family-teacher communication,

E6= awareness of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Ⅴ. Findings

This study used results of the KICCE survey to explor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early childhood teachers' level of DSE and predictor variables relating to the levels of DSE. Findings related to Research Question 1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is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ors' DSE? The mean of total DSE score in this study was 11.49 (out of a possible score of 15). This suggests that Korean early childhood teachers, in general, were comfortable in their ability to celebrate diversity in their preschool classrooms. Most of the participant teachers (99%) were females (n = 792). Data also suggested that the majority of teachers were certified to teach in childcare programs (n = 791) (only 9 teachers were not certified). Descriptive results of the variables are summarized in <Table 2>.

〈Table 2〉 Summary of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Variable	*N*	*Mean*	*SD*	*Min*	*Max*
Dependent variable					
Diversity self-efficacy	800	11.49	1.65	3	15
Independent variables					
Gender	800	0.01	0.10	0	1
Teacher certification	800	0.98	0.11	0	1
Teaching experience	792	70.02	59.30	0	311
Teacher-child relationship	800	42.30	4.65	10	50
Teacher-family comm.	800	17.73	2.13	4	20
Curriculum awareness	800	6.20	1.06	2	8

Research Question 2: Teacher variables effect on diversity self-efficacy.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teacher variables effect on diversity self-efficacy are presented below in <Table 3>.

〈Table 3〉 Summary of Regression Analysis of Predictors of Diversity Self-efficacy

Variable	*Beta*	*S.E.*	*p-Value*
Intercept	2.013	.666	.003***
Gender	.519	.464	.264
Teacher certificate	-.358	.438	.415
Teaching experience	.003	.001	.001***
Teacher-child relationship	.188	.012	.000***
Teacher-family comm.	.048	.025	.060*
Policy awareness	.139	.047	.003***
R^2	.382		

* $p < .10$, ** $p < .05$, *** $p < .01$.

As can be seen in the <Table 3>, the prediction model for this stud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6, 800) = 3.02$, $p < .001$, and accounted for approximately 38% of total variance of the DSE (R2=.38). A significant effect on DSE was not found in either gender($\beta = .52$, $p > .10$) or teacher certification($\beta = -.36$, $p > .10$). Since the data included very few of certified teachers (0.02%) as well as very few male teachers (0.01%), the dummy results were not likely affected. The teacher-family communication effect was estimated to be about .048 at the 10% significant level ($p = .06$). This

suggests that when one point of teacher-family communication increases, .048 point of the teachers' DSE increases. Other significant predictors from the survey were stronger indicators of the teachers' level of DSE. First, the effect of teaching experience was significant at the p = .001 level. This suggests that if one unit (month) of teaching experience is increased, the level of DSE was increased by .003. For example, a teacher who taught ten months more than another can be predicted to score .03 higher in DSE. This suggests that more experienced teachers may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working with diverse children and families.

Second, teacher-child relationship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19 (p < .01) of the variance. Third, awareness of recent educational policy was positively related to teachers' DSE (β = .14, p < .01). This suggests that DSC scores increased by .14 points with each additional degree of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awareness Thus, teachers who were more aware of the standardized national curriculum tended to have higher levels of DSE.

Overall, approximately 38% of all variance investigated in this model was accounted for by the dependent variable. This suggests that DSE may be best predicted by examining predictor variables of teaching experienc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awareness of national standardized curriculum. Data from this study also found that teacher-parent communication was moderately related to DSE. Thus,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parents may help promote more positive atmosphere where cultural gap may be reduced between school and home. Such positive communication appears to be more ideal when there is an open, two-way communication between teachers and their care givers.

Ⅵ. Discuss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self-efficacy (DSE) and its predictor variables Selected from the recent KICCE teacher

survey. The most important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it appears that progress is beginning to emerge in the area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nfidence in dealing with diverse children. While this finding offers optimism that we may be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it also raises a number of issues. First, the human race has been consistent over the years in sometimes not necessarily doing what they know they should. This may well be the case with teachers in this study. They may feel relatively competent in dealing with classroom diversity; yet, instructional practices may present a different result. From this, it appears a highly productive line of research might be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DSE and evidence in the classroom supporting a given DSE level. For example, do teachers who score high in DSE have classrooms with children's books, posters, and artifacts of diverse children? Perhaps an even more productive line of research might be to compare teachers' DSE with measures of children's views toward diversity?

Commensurate with previous studie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Brown, 2002; Miedel & Reynolds, 1999), teachers in this study tended to have higher DSE as they professed closer relationships with children. Based on the specific survey items asked of teachers, closer teacher-child relationships may be summarized as a teacher who: 1) has positive attitudes when communicating with children, 2) encourages children to work together, and 3) a teacher who actively responds to children's demands with affection. These items address views toward general interactions between teachers and children within the classroom. Yet, close teacher-child relationship can be defined differently from the above. For example, Pianta (2001) defined closenes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 as child's view of how much teachers support them and are appreciative of students as a resource. Another possible definition might be how attuned teachers are to children as individuals. For example, do teachers know families personally (e.g. number of siblings, family issues such as being refugees from North Korea), cultural background (e.g. nation, origins of family), and special interests of children

(e.g. pets, goals). It may be, then, that the more a teacher knows about children and their family, the more likely teachers might be to respond more appropriately to instruction. More qualitative classroom-based research may allow researchers to better assess possible differences in what teachers profess and the reality of their relationships with children. Such research, for example, might explore specific ways that a teacher might support a child's adjustment while children are in transition (e.g. learning a new language, culture shock).

Teacher-parent communication showed a moderate relationship with teachers' DSE. Descriptive result showed that teachers tend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families through various methods (M = 17.73, SD = 2.13). Teachers in the sample reported that they frequently communicated with families via phone, face-to-face, text messages, and newsletters. While these methods may support greater teacher-family involvement, they may be overlooking even more effective methods not mentioned. Methods of communication such as these tend to represent a uni-directional flow of information- i.e. from the teacher to parent. In such one-way information flow, families who are cultural/linguistic minorities may not be fully considered as active participants. The ethnic minority participant parents in the KICCE survey were only .5% of total sample parents (n = 9). Since diverse families are likely to rapidly increase, it is important for future research to begin to explore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building stronger teacher-family relationships. Further, the data from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family involvement strategies identified in the KICCE survey consisted primarily of teacher oriented activities such as: inviting families for their children's performances and reporting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hild. Teachers may have to find more effective ways to support families in tak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teacher-parent relationships. This is likely to be especially true when considering parents of mixed race. Lack of teacher knowledge of diverse cultures can widen this critical relational gap. Given the impact of this variable upon the child development, however, effort in

this area appears likely to result in highly positive outcomes.

Teacher awareness of curriculum was also found to be significantly related to diversity self-efficacy. Korean educators appear to be knowledgeable of the new policy relating to development of dispositions toward supporting diversity in classrooms. Since the most recent Nuri Curriculum places major emphasizes upon diversity, this trend suggests that teachers may be more aware of diversity issues in early childhood programs. However, as discussed above, it is worth noting that higher DSE does not, in itself, predict how effectively teachers actually interact with diverse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light of national diversity goals, it would appear prudent to investigate in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DSE and instructional proficiency as it relates to diversity in the actual classroom.

Results also suggests that teachers with more teaching experience profess to have greater confidence in dealing with diversity in their classrooms. Based on our nation's long history as a homogeneous nation, this result was a bit surprising. If, for example, preparation for diversity is just beginning to be included in teacher preparation programs, it would seem that more recent teachers in the field would be more knowledgeable and supportive of diversity than teachers who were educated when multicultural issues were not included in teacher preparation. It might be that this finding simply suggests that more experienced teachers are more confident in dealing with a host of potential classroom issues- diversity being but one. Further, a more experienced teacher might have had more experiences working with ethnic minority students- both good experiences and bad ones. Perhaps a more important issue that "self efficacy" would be to what extent more/less experienced teachers impact the development (cognitive, social, emotional) in a more positive direction. Thus, it could be that while teachers with less experience may be less confident in their "ability" to deal with diversity in their classroom, they might, in fact, be more likely to impact the actual educational attainment of diverse learners.

1. Suggestions

1) Suggestions for Educators and Policy Makers

In light of data from this KICCE survey relating to diversity self-efficacy of teacher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ppear warranted for early childhood educators. First, early childhood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would do well to provide specific information on how to ensure that dispositions towards valuing diversity is increasingly stressed in both teacher training and in-service education. Second, Korean teac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would do well to create campus climates and experiences that foster positive diversity values. In particular, institutes of teacher education have the responsibility to prepare early childhood educators to support diverse learning communities where all children have the equal opportunity to learn. Third, in addition to providing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diversity knowledge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in pre-service teacher preparation, attention is also needed for educators who are already classroom teachers who have not had diversity preparation in their programs.

2) Suggestions for Future Study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pplies to every child equally- especially for ethnic minority children who are most vulnerable. This global standard for humane treatment of children obliges educators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children in developing their full potential regardless of cultural background. While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teaching competence for the world' s children has emerged as a central issue in education in very recent years, little is known about the extent to which Korean educators are prepared to meet this rapidly emerging cultural challenge. This study h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First, research is needed to determine the nature and quality of diversity

preparation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field experiences and in-service workshops. This information would assist decision-makers in determining those activities/programs that appear to be more productive in achievement of a national diversity goal.

Second, as described above, there might be a major gap between teacher's professed confidence in working with diverse children and what strategies they might actually use in their classroom to support positive diversity dispositions. Qualitative investigations into this potential problem could be especially helpful in addressing national diversity goals.

Finally,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more productive ways to develop better relationships between immigrant children and their families. Research from other nations might provide positive directions for strengthening such relationships.

3) Conclusion

Children come into our world without cultural bias. As early as age 3, however, biases begin to emerge and often last a lifetime. If Koreans purport to create a nation based upon justice and equality for all, serious attention to diversity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earliest years. Derman-Sparks & Edwards (2010) suggest that children are aware from the earliest ages that color, language, gender, and physical ability differences are connected with privilege and power. While recognizing differences is a natural component of cognitive development, accepting and respecting these differences are the result of moral development that is acquired within a socio-cultural context. Prominent researchers (e.g., Piaget, Vygotsky, and Bronfrenbrunner) are consistent in their view that a child's social environ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a child's cognitive development. Thus, an increasingly productive, yet diverse, society has no choice but to address cultural diversity in the earliest of years. National educational policy is beginning to respond to diversity challenges (e.g. diversity emphasis in Nuri curriculum and becoming more supportive of multicultural families) (Lee,

2013). However, much work remains if we are to promote a culturally appropriate education for all of our children.

As results of the KICCE survey suggest, Korea has made progress in the area of diversity. However, our long-term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as a major economic force in the world may well depends as much upon our ability to respond to diversity as our traditional emphasis upon academic acumen of our students. Twenty-first century citizens need 21st century competencies. Skill in dealing with diverse cultures may well determine Korea's future. It is now time for Korean educators to move ahead full-speed in addressing multicultural educational challenges that will dramatically impact the future of Korea.

References

Ahnert, L., Milatz, A., Kappler, G., Schneiderwind, J., & Fischer, R. (2013). The Impact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on Child Cognitive Performance as Explored by a Priming Paradigm. *Developmental Psychology, 49*(3), 554-567.

Brown, E. L. (2002). Mrs. Boyd's fifth-grade inclusive classroom: a study of multicultural teaching strategies. *Urban Education, 37*(1), 126-141.

Cheatham, G., & Ostrosky, M. (2013). Goal Setting During Early Childhood Parent-Teacher Conferences: A Comparison of Three Groups of Parents.

Choe, S. -H. (2009, November 1). South Koreans Struggle with Rac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2009/ 11/ 02/world/asia/02race.html?pagewanted=all&_r=1&

Eberly, J. L., Joshi, A., & Konzal, J. (2007). Communicating with Families Across Cultures: An Investigation of Teacher Perceptions and

Practices. *The School Community Journal. 17*(2), 7-26.

Gorski, P. C. (2009). What we' re teaching teachers: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coursework syllabi.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5*(2), 309-318.

Greenberg, P. (2002). Bringing Home Into the Classroom. *Early Childhood Today. 17*(2), 32-4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 *Report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2013* (2012-33). Seoul, Korea. DC: Kim, E., Do, N., wang, Y., Song, Y. H., Yi, Y., Jung, Y., & Kim, Y.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1). *Department of Social Statistics, Demographic Trends Division: Cases of Multicultural birth*. Seoul, Korea. Retrieved from http://kosis.kr/ abroad/ abroad_01List.jsp?parentId=A

Lee, Y. (2013). Analysis of Korean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Based on Cri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09-127.

Liew, J., Chen, Q., & Hughes, J. N. (2010). Child effortful control,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achievement in academically at-risk children: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5*(1), 51-64.

Miedel, W. T., & Reynolds, A. J. (1999). Parent involvement in early interven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does it matter?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4), 379-402.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2008). *Professional Standards for the Accreditation of Teacher Preparation Institutions*. Washington, DC. Retrieved from http://www.ncate.org/ Portals/ 0/ documents/ Standards/NCATE%20Standards%202008.pdf

Moon, S. (2010). Multicultural and Global Citizenship in the Transitional Age: The Case of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12(1), 1-15.

Neu, R. (2013). An Exploration of Oral Language Development in Spanish-Speaking Preschool Student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1*(3), 211-218.

Pianta, R. C. (2001). *STRS: Students-Teacher Relationship Scale*. Lutz,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Wentzel, K. R., & Berndt, T. (1999). Social influences and school adjustment: over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1-2.

◈ Session 2 ◈

제 6 주제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 발표

사회: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만족도가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민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이보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2. **영아어머니의 가족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허청아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3. **Relations among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and Early Social Development in Korean Infants**
   차기주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박사과정)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양상,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anges of Parenting Stress, Childcare Subsidy, Satisfaction on Childcare Institution and Community's Nurturing Environment on the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이정민[1] · 이보람[2]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from 0 to 3 years of child's age on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Furthermore, the effect of child-care support policy(child-care subsidy, satisfaction on child-care institution and community's nurturing environment o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parenting stress and on additional childbirth intention were examined. This study used the 1st to 4th years' data of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stress of mothers has increased from 0 to 3 years of child's age, and the individual variance was significant. Second, higher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hild-care institution, lower was the rate of change of parenting stress. Third, higher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community's nurturing environment, lower was the initial value of the parenting stress. Fourth, the satisfaction on child-care institution and community's nurturing environment was more effective than child-care subsidy on parenting stres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quality of child-care facility and service and stable child-care infrastructure are essential to assure the efficacy of current subsidy-entered child-care policy.

1) 서울대학교 박사과정(noi24@snu.ac.kr)
2) 서울대학교 박사과정(bboram7@snu.ac.kr)

Ⅰ. 서 론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OECD, 2013) 이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성 감소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 보육 정책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보육 정책이 출산율 증가를 주요 목표로 함을 고려할 때, 다양한 보육 지원 사업이 실제 후속 출산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정책의 평가에 결정적인 부분이다.

이처럼 후속출산의도를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은 1-3회에 걸친 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여러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후속출산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된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취업 여부나 사회적 지원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갖고 있어 실제 사건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Flavell, Miller와 Miller(1993)에 따르면 마음은 실제의 경험을 중개하여 한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왜곡할 수도 있고,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외부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과거의 정서 상태나 경험 또는 기대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인지적 적응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Tayler, 1993)고 본다.

즉,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해도, 후속 출산 의도는 부모의 장기적인 심리적 과정이 수반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인식이나 신념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비의 부담을 크게 인식하거나,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아이들이 자라기 어려운 곳이라고 인식한다면 자녀를 낳는데 주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과열 풍조는 부모로 하여금 양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육아 및 교육 정보 가운데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을 느끼도록 한다. 실제로 4차년도의 아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후속 출산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이미 계획한

수만큼 아이를 낳았기 때문’ (28.2%)과 ‘자녀 교육비용 때문에’ (27.1%) 순으로 나타났다(김은설 외, 2012). 이 연구에서는 일련의 보육지원 정책이 부모의 심리적 요인인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후속 출산 의도를 저해하는 기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패널자료를 사용한 일련의 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가 후속출산의도와 부적인 상관관계(서미정, 2010)이거나,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더 낳겠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송영주, 이주옥, 김춘경, 2010)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양육스트레스가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으로, 부모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지하게 하며 나아가 후속출산의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해당 연도의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4차년도의 자료가 정리된 현 시점에서, 자녀의 출생부터 3세에 이르기까지 양육스트레스가 발달하는 추세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수면 부족이나 훈육 문제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서 돌봄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는 반면에, 교육비의 부담이나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의 발달 추이에서 개인차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출생부터 3세에 이르기까지 양육스트레스가 발달하는 추세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후, 이에 따라 후속출산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4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연령에 따른 후속출산의도의 비율은 0세 28.0%, 1세 35.0%, 2세 32.5%, 3세 20.1%로, 0-2세 사이에는 대체로 후속출산의도가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다가 3세부터 감소하는 추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1-4차년도의 양육스트레스 변화 궤적이, 4차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후속출산의도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들이 밝힌 양육스트레스와 후속출산의도도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후속출산의도가 없는 가장 큰 이유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보육료 지원 정책이 이러한 교육비 부담을 얼마나 경감시키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보육 정책은 주로 보육료 지원 중심으로, 전체

보육 예산에서 보육료 지원이 79%(보건복지부, 20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수혜 여부가 양육스트레스 또는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보육료 지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육아지원 정책의 수혜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아동패널의 참여자인 2008년 출생아의 경우 최근 4년간에 걸친 보육료 지원 사업의 주요 개편을 경험했다는 집단적 특성이 있다. 2009년 7월의 1차 개편과 2011년도의 2차 개편을 거치면서 차등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은 월 소득 258만원이하에서 480만원이하의 가구(4인 기준)로 확대되었다(최현수, 최준영, 이서현, 박경희, 2011). 이러한 지원 기준은 2012년도 3월에 만 0-2세와 만5세의 경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 단가대로 전액 지원을 받는 것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아동패널 참여자인 2008년 출생아는 2012년도에 만 3세로, 전액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도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닌 만 3-4세 집단에 속했으나 2013년 3월부터는 전액 지원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보육료 지원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는 혼선 가운데,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나 후속출산의도가 달라졌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육 정책에서 보육료 지원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시설 지원은 비율도 낮으며 그 중요성도 간과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설 지원 사업은 인건비, 기능보강(국공립 신개축 등), 평가인증사업, 차량 및 교재교구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등을 포함하며 전체 보육 예산의 17% 정도를 차지한다(보건복지부, 2012). 이처럼 시설 지원은 보육료 지원에 비해 비율이 작지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Jones & Urasawa, 2012). 특히 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지원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및 후속출산의도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보육서비스가 후속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indfuss & Brewster, 1996; 김광수, 2010). 따라서 보육료 수혜 여부와 더불어 부모들이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시설 지원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양육한경 만족도 또한 보육지원 정책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인프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및 서비스가 실제로 구축되어 있는 정도인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수로 측정할 수 있다(유재언, 2013). 이는 보육료 지원이나 시설 지원 사업보다 거시적인 체계에 속하는 사회적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및 후속출산의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상 살펴본 내용을 연구문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4차년도에 걸친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 및 변화율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발달곡선 및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에서 수집한 1차(2008년) ~ 4차(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표본은 2008년 4~7월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총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1년의 4차년도에는 1,754명이 참여하여 1차년도 조사 참여 패널 기준 84.4%가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 참여한 아동과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특성을 보면, 남아가 903명이고 여아가 851명으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대상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째 46.5%, 둘째 42.2%의 순서였으며, 월령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38개월(27.3%), 39개월(23.0%), 37개월(18.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월령	
남아	51.5(903)	35개월	2.1(36)
여아	48.5(851)	36개월	9.9(173)
출생순위		37개월	18.3(321)
첫째아	46.5(816)	38개월	27.3(478)
둘째아	42.2(740)	39개월	23.0(403)
셋째아	10.2(179)	40개월	12.3(216)
넷째아	1.0(17)	41개월	5.9(103)
다섯째아	0.1(2)	42개월	1.4(24)
계		100.0(1,754)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은 중소도시 39.8%, 대도시 39.2%, 읍면 지역 20.0%였으며, 가구 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33.6%로 가장 많았고 531만원 이상 24.8%, 301~400만원 23.9%. 401~530만원이 17.67% 순이었다. 부모의 특성으로 연령과 학력을 보면,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77.1%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졸이 42.7%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역시 30대가 82.6%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 역시 대졸이 38.4%로 가장 많았다.

〈표 2〉 가구의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베율(수)
지역 규모	대도시	39.16(686)	가구 소득	300만원 이하	33.56(588)
	중소도시	39.84(698)		301~400만원	23.92(419)
	읍면지역	20.00(368)		401~530만원	17.69(310)
				531만원 이상	24.84(435)
부 연령	20-29세	4.1(70)	모 연령	20-29세	10.8(186)
	30-39세	77.1(1,323)		30-39세	82.6(1,428)
	40-49세	18.5(316)		40-49세	6.7(115)
	50세이상	0.5(8)		50세이상	-
부 학력	무학	-	모 학력	무학	0.1(1)
	초등학교 졸	0.1(1)		초등학교 졸	0.1(1)
	중학교 졸	0.7(13)		중학교 졸	0.5(9)
	고등학교 졸	26.0(452)		고등학교 졸	29.9(522)
	전문대 졸	20.2(351)		전문대 졸	26.0(455)
	대졸	42.7(742)		대졸	38.4(669)
	대학원	10.4(180)		대학원	5.1(95)

2. 측정변인과 연구도구

1) 종속변인

(1) 후속출산 의도

후속출산 의도는 2011년도 어머니 대상 질문지 기준 5번 '현재 자녀 외에 앞으로 더 낳으실 계획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낳겠음(또는 임신중), 낳지 않겠음, 잘 모르겠음과 기타의 4개 항목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낳겠음(또는 임신중)을 1로, 그 외의 응답은 0으로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독립변인

(1)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2011년도 어머니 대상 질문지 기준 19번 '다음은 ○○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양육스트레스 관련 문항은 총 1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예를 살펴보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등과 같다. 11개 문항에 대해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응답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11개 문항에 대한 1, 2, 3, 4차년도 각각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2) 보육료 수혜여부

보육료 수혜여부는 2011년도 면접조사용 질문지 81번 '현재 ○○는 국가로부터 보육, 교육비용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지원받지 않음,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 장애아동 전액 지원, 농어업인 자녀 지원, 기타 중에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지원받지 않는 경우는 0, 소득하위 70%이하 지원은 1으로 코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 아동과 농어업인 지원의 경우는 보육료 지원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육아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육아지원기관 이용만족도는 세 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2011년도

어머니대상 질문지 가운데 44, 45번 자녀가 주로 다니는 기관과 교사에 대한 선호도와 면접조사용질문지 80번의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4)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는 네 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2011년도 어머니 대상 질문지 가운데 32, 33, 34, 39번 문항인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충분성, 유치원 충분성, 사교육기관 충분성 및 전반적인 양육 적절성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Curve Modeling)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되 개인의 변화와 개인 간 변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측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Duncan, Duncan, Strycker, Li, & Alpert, 1999).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얻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 변화율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동시에,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χ^2대신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χ^2검증에서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며, χ^2값이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 중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는데, 이 지수들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TLI와 RMSEA는 모형의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TLI와 CFI의 경우 .95이상일 때, RMSEA의 경우는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잠재성장모델을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은 AMOS 18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등의 기초분석은 SPSS 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주요변수의 일반적 경향

잠재성장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각 측정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최대최소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는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지원기관 만족도를 살펴보면, 우선 아동의 기관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6점, 아동의 교사만족도는 평균 3.96점, 어머니의 전반적 만족도는 4.05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지역사회양육환경 만족도를 살펴보면, 5점 만점에 보육시설 충분도는 평균 3.26점, 유치원 충분도 2.79점, 사교육기관 충분도 2.78점, 전반적 양육적절성 3.21점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N*	평균(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양육 스트레스	1차년도	1,849	2.74(0.62)	1.00	4.70
	2차년도	1,887	2.73(0.64)	1.00	5.00
	3차년도	1,761	4.82(2.79)	1.00	4.82
	4차년도	1,693	4.82(2.79)	1.00	4.82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아동의 기관만족도	1,337	3.96(0.68)	1.00	5.00
	아동의 교사만족도	1,376	3.96(0.69)	1.00	5.00
	모의 전반적 만족도	1,328	4.05(0.67)	1.00	5.00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	보육시설 충분도	1,701	3.26(0.93)	1.00	5.00
	유치원 충분도	1,700	2.79(1.00)	1.00	5.00
	사교육기관 충분도	1,701	2.78(1.01)	1.00	5.00
	전반적 양육적절성	1,701	3.21(0.78)	1.00	5.00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한 이분변수인 후속출산의도와 보육료 수혜

여부의 빈도는 <표 4>와 같다. 현재 자녀 이외에 자녀를 더 출산하겠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전체의 21.7%였다. 현재 보육료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10.5%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단위: %(명)

구분		*N*	%
후속출산의도	낳겠음(임신중)	343	21.7
	낳지 않겠음	1,236	78.3
	계	1,579	100.0
보육료 수혜여부	지원받음	225	12.8
	받지 않음	1,529	87.2
	계	1,7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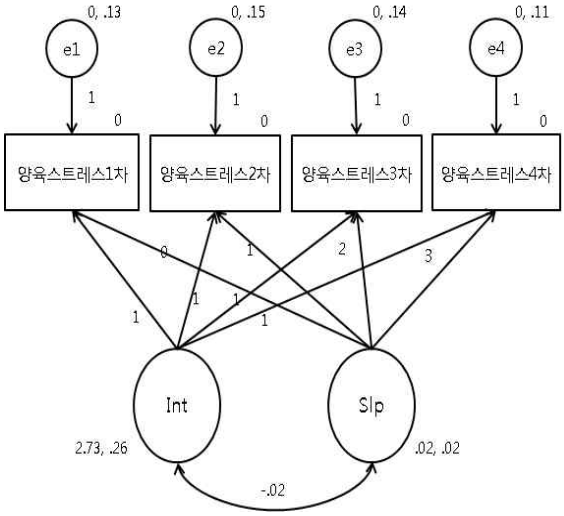
2. 잠재성장모형: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2008년~2011년의 4시점에서 측정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변화 함수를 적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먼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여 초기치의 영향을 1로 고정하여 모형을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양육스트레스가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선형모형을 적용하였다. 선형모형은 변화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율로 가는 경로를 0, 1, 2, 3로 고정시켜 주었다.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양육스트레스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비선형모형을 검증하였다. 선형모형과 달리 비선형모형은 변화가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제곱항인 0, 1, 4, 9로 고정하여 검증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무변화 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의 검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양육스트레스의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비선형모형의 비교

	χ^2	*df*	*p*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88.457	5	.000	.945	.972	.088(.073-.105)
선형모형	13.490	3	.004	.988	.997	.040(.020-.063)
비선형모형	19.742	3	.000	.981	.994	.051(.031-.073)

종합적으로 χ^2값과 TLI, CFI, RMSEA 값을 살펴본 결과 양육스트레스는 선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양육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

이렇게 제시된 모형을 토대로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형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평균 2.732, 분산 .259, 변화율은 평균 .018, 분산 .015로 나타났고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스트레스는 1차년도의 평균 2.73에서 매년 .02씩 증가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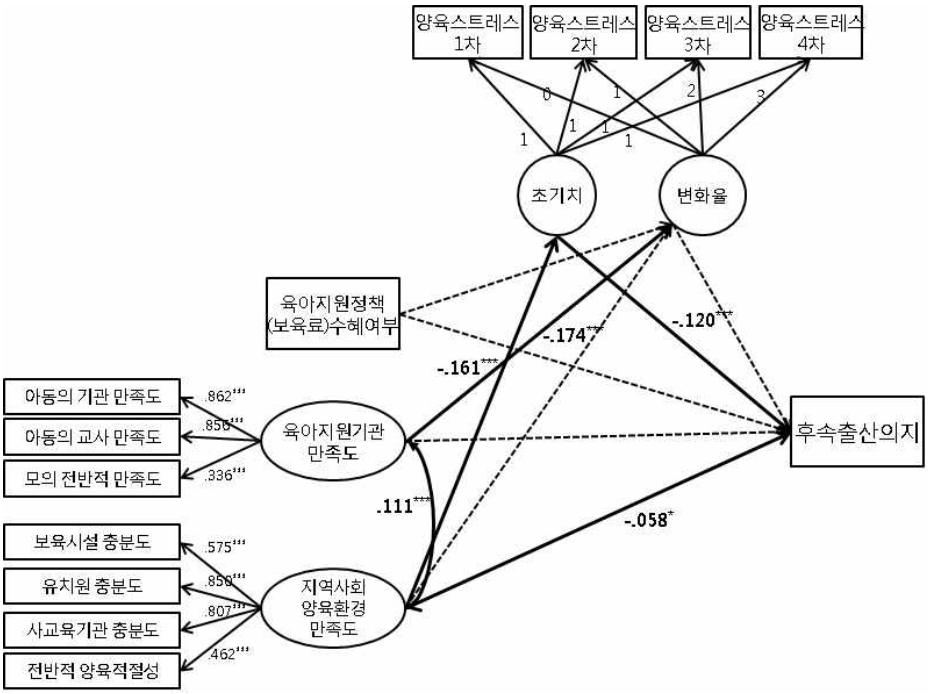
〈표 6〉 양육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분	평균	분산
초기값(intercept)	2.732***	.259***
변화율(slope)	0.018***	.015***
공분산(초기값, 변화율)	-.016***	

*** $p < .001$.

3. 구조모형분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얻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 변화율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주 1) 그림에 표현된 경로 중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2) 그림에 기재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
* $p < .05$, *** $p < .001$.

〔그림 2〕 양육스트레스의 변화,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

그 결과 <표 7>와 같이 구조모형적합도 지수는 $\chi^2(58)=205.18$ (p=.000)로 기

각 되었으나 χ^2검증에서 영가설의 내용이 엄격하여 모형이 너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고,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가 있어 TLI, CFI, RMSEA 지수를 살펴보았다. TLI=.966, CFI=.978, RMSEA=.034(.029-.040)으로 나타나 Hu & Bentle(1999)의 구조모형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된 모형은 [그림 2]과 같다.

〈표 7〉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적합도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205.18	58	.000	.966	.978	.034(.029-.040)

구체적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력(β=-.157, p<.000), 육아지원기관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β=-3.906, p<.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표 8〉 후속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구조모형 경로계수

경로	*B*	β	*S.E.*	*t*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양육스트레스 초기치	-.196	-.157	.039	-5.027***
보육료 수혜여부→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12	.033	.013	.968
육아지원기관 만족도→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94	-.171	.024	-3.906***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양육스트레스 변화율	-.007	-.024	.013	-.570
보육료 수혜여부→후속출산의지	.027	.021	.031	.859
양육스트레스 초기치→후속출산의지	-.097	-.120	.023	-4.173***
양육스트레스 변화율→후속출산의지	-.030	-.009	.137	-.220
육아지원기관 만족도→후속출산의지	-.078	-.043	.057	-1.369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후속출산의지	-.060	-.060	.028	-2.150*

* $p < .05$, *** $p < .001$.

한편 후속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양육스트레스 초기치(β=-4.173, p<.000)와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β=-2.150, p<.05)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후 초기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출산 의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의 경우,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후속출산의도에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율보다는 초기치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양육 초기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며, 보육료 수혜여부보다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 후속출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이 연구는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자녀가 0세부터 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료 수혜여부, 육아지원기관 만족도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및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가 0세에서 3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스웨덴의 0-3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Ostberg와 Hagekull(200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아졌다고 나타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는 횡단적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자녀의 발달에 의한 변화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연령 또한 높을 수 있음으로 미루어볼 때, 양육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3-5세 자녀를 둔 미국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Crnic, Gaze와 Hoffman(2005)의 연구에서는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관련 스트레스 및 일상생활 사건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연령대가 다르긴 하지만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양육스트레스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현상은 한국사회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는 학업 성취 및 미래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토착 심리가 존재한다(박영신・김의철・탁수연, 2005). 그리고 이에 가족주의 가치가 더해져서 부모는 자녀의 성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하며, 자녀의 학업 성취가 높으면 양육효능감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경우 스트레스와 좌절을 느낀다(박영신・김의철・한기혜, 2009). 이러한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미루어볼 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돌봄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줄어드는 반면에 자녀가 보육・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자녀의 교육 문제를 직면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잠재성장모형에서 양육 스트레스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자녀가 0세에서 3세가 될 때까지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발달궤적은 개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에 따라서 양육스트레스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왜 부모들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육아지원기관 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느리게 증가함을 의미한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사회적 지지치계가 된다(김기현, 2000; 박성연, 고은주, 2003)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육아지원기관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에도 직접적인 영향(김광수, 2010; 이용복, 2004)을 미친다고 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즉 상황에 대한 인지적 지각 측면인 양육 스트레스와 실제로 추가 자녀를 낳고자 하는 후속 출산 의도가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다른 개인적・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육환경 만족도는 양육스트레스의 초기값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지역사회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는 육아지원기관의 충분도와 전반적인 양육환경 적절성에 대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자녀양육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양육초기의 스트레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양육초기의 스트레스 정도는 후속출산의도에 직접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거시적인 차원의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겠다. 맞벌이 부부의 둘째 자녀 출산의도와 출산기피 요인을 살핀 연구(마미정, 2008)에서도 자녀양육지원 요인이 출산기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점을 감안할 때, 어머니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넷째, 양육스트레스의 초기치와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는 후속출산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상과 달리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출산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료 처리 방식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후속출산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8%이나 되기 때문이다. 패널 조사가 4차년도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후속 출산 계획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에서는 4차년도의 자료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후속 출산의도가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 연도의 자료를 종합하여 후속출산의도가 있다고 응답했다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사람과, 그 반대의 경우 등으로 집단을 나누어 보다 세분화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보육료 수혜여부보다는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의 변화와 후속출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금전적인 정책지원보다는 환경적, 정서적 지원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상보육이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보혜(2010)에 따르면 현재 보육정책은 보육료 지원 확대에 치중하여 재정을 소요하고 있지만,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제한된 접근 가능성과 서비스의 낮은 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이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재원 등(2009) 또한 보육시설이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 투자를 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국공립과 같은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에 입소대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유희정 외, 2009)는 현재의 실태로 뒷받침된다. 즉 2012년도에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83.2%로, 공급률에 비해 이용률이 낮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90.8%로 전체보다 현저히 높았다(보건복지부, 2012). 전체 이용율이 공급율을 모두 채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정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보육료 수혜여부보다 육아지원기관 및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기존의 이러한 논의와 같은 맥락이다. 즉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는, 보육시설의 물리적·인적 환경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80%였기 때문에, 지역사회 양육환경 만족도가 후속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적인 방향으로 나왔다. 후속 연구에서는 후속 출산 의도를 0-3세에 걸쳐 변화하는 추이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문항을 전체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양육스트레스는 세부 문항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자녀가 어릴 때에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 수 있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양육스트레스의 성장모형을 포함하여, 보육정책이 양육스트레스 및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실증자료는 향후 정책의 방향에 구체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광수(2010). 보육서비스 구성변인이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현(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은설·도남희·왕영희·송요현·이예진·정영혜·김영원(2012). 한국아동패널 2012. 육아정책연구소.

서미정(2010). 유자녀 여성의 후속출산계획에 대한 양육관련 요인의 영향. 제1

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179-198.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0).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취업모의 심리적 특성과 가족 내 역할지각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99-220.

박성연·고은주(2003).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박영신·김의철·탁수연(2005). 청소년과 부모의 실패와 미래성취 의식을 통해 본 한국인의 성취관련 토착심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2), 73-108.

박영신·김의철·한기혜(2009). 부모가 지각한 자녀 효도의 구성개념 및 영향: 자녀양육효능감과 가정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간발달학회지 16**(3), 203-241.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http://central.childcare.go.kr

보건복지부(2013). 2012년 보육통계. http://central.childcare.go.kr

유재언(2013).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영유아 부모의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25개 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희정·이미화·민현주·강민정·선보영·서영숙·이영환·백혜리·이순영·최혜영·송영주·강정원·최은영(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보육시설방문면접조사. 보건복지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prism.go.kr

이용복(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의도와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재원·정진우·이경화·박정언·김성우·배인수·최윤정(2009). 수요자 중심의 보육료 지원 전달체계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지방재정학회. www.prism.go.kr

임현주(2012).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주보혜(2010). 영유아보육료지원의 확대가 여성 경제활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최현수·최준영·이서현·박경희(2011). 2011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조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www.prism.go.kr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243-264.

Crnic, K. A., Gaze, C., & Hoffman, C. (2005). Cumulative parenting stress across the preschool period: relations to maternal parenting and child behaviour at age 5.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4*(2), 117-132.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L. A., Li, F., & Alpe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Flavell, J. H.. Miller, P. H., & Miller, S. A. (1993). *Cognitive Development. Prentice-Hall International.* 정명숙(옮김, 2003). **인지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Johns, R. S., & Urasawa, S. (2012). *Sustaining Korea's convergence to the highest income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65, OECD Publishing. www.oecd.org/library

OECD (2013). Population, Total fertility rates.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http://www.oecd-ilibrary.org

Ostberg, M., & Hagekull, B. (2000).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to the understanding of parenting stres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4), 615-625.

Rindfuss, R. R., & Brewster, K. L. (1996). Childrearing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 258-289.

Taylor, S. E. (1983). Adjustment to threaten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61-1173.

영아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을 중심으로

The Influence of Infant Mother's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Stress and Moderating Effect of Geographic Location

허청아[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infant mother's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on parenting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eographic location. Using the forth year Panel Study on Korea Children(PSKC) conducted by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hierarchial regression was conducted.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specifically, educational level was the only significant factor that had an influence on parenting stress. The parenting stress of the mother who had higher educational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Second, in factor of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the recognition of safety in community and the recognition of sufficient nursery facilities in community had a significant reducing effect on the parenting stress of infant mother. Third, the geographic location had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and the parenting stress of infant mothers. These findings mean the perception of family-friendliness of community may be a more important variable for parenting stress than the infrastructure of the community.

1) 서울대학교 석사과정(cahuh@snu.ac.kr)

Ⅰ. 서 론

저출산, 이혼율 증가, 결혼의 기피 등 개인주의와 가족의 결속 약화로 인해 대두되는 많은 사회적 문제와 함께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정책의 개입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안 중 하나로 돌봄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지원체계로 모색되는 2007년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법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확산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이루어지고 있으며(김혜영 외, 2009)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며(노신애, 진미정, 2012) 가족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아도 지역 주민의 가족 친화성 인식 점수(노신애, 2012), 경제적 자족능력과 주거가용성, 자녀보호 프로그램, 노인보호 서비스, 공원, 여가시설(Bookman, 2004), 안전성, 학교의 명성, 주거 환경,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Sweet et al., 2005) 등으로 구성되며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는 이처럼 통일성 있게 구성되지 않는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가족 친화성의 수준이 실제로 가족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홍승아 외, 2007)를 구성 틀로 하여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변수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가족 친화성 인식이 양육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성을 갖는지 알아보고자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투입하고자 한다. 대상에 있어서는, 양육의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어머니(김혜금, 2012)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4차년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거주 지역

의 규모의 조절효과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있어 지역사회의 가족 친화적인 생활요소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양육 스트레스

1)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

양육스트레스는 구체적 상황 하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로서 부모들이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감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감을 유지하는데 불만을 느끼고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한다(노신애, 2011; 재인용).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 Abidin(1990)의 연구를 살펴보면, 양육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 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 정도와 일반적인 생활 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3영역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영역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박정희 외, 2003; 재인용).

2) 영아 어머니와 양육 스트레스

영아의 경우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영아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영아의 요구와 행동을 이해하고 반응해야 한다. 또한 영아기는 심신 양면으로 모성보호에 크게 의존하는 시기이고 끊임없는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반응적인 돌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정옥분, 2004). 영아기는 인간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동시에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기로의 전이에 따라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 부모로서의 역할 부담에서 오는 내적 긴장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험하는 신체적인 피로와 갑작스럽게 증가된 가사노동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편은숙, 2004). 또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의 끊임없는 신체적 보살핌과 주의를 필요로 하며, 격리로 인한 불안이나 죄책감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성인이 기대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는 등으로 인해 양육스트레스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기현 외, 2000). 김미숙, 문혁준(2005)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하였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어머니의 연령에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편은숙, 2004; 김영주, 송연숙, 2007)에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인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스트레스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지배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해 노애민(2008)은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있고, 어머니의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3) 지역사회와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의 거주 지역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관련변인을 탐색한 연구(박정희 외, 2003)에 의하면,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도시지역 어머니들은 일반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가족형태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적 특성상 가족형태에는 덜 민감하고 신체적 건강상태나 학력수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건강상태나 학력수준, 가족형태 같은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하고도 양육스트레스에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돌봄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정책 차원에서나 연구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 변인을 포괄할 수 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한 접근은 찾아 볼 수 없다(노신애, 2011).

2.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국가의 육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육아 지원은 영아와 그 어머니에게 육아 지원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므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유아를 키우기에 안전하며, 여가 시설 및 공간이 충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문화시설이 다양하게 있는 지역사회는 영유아를 키우기 좋은 곳이다. 지역사회 육아 지원에 대해 어머니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지를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육아 지원 정책을 입안한다면 지역사회의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김혜금, 2012).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란, 돌봄을 분담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사회 환경을 말한다.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가족친화성은 다양한 변인들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신애(2012)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가족친화성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사회 가족친화성 인식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Bookman(2004)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넓은 범위의 조건을 포함하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인덱스를 개발하였다. 경제적인 자족능력과 주거가용성/ 학력 전 자녀보호프로그램(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교육의 질/ 노인보호서비스/ 공립 도서관/ 공원, 여가시설, 개방공간/ 교통 서비스/ 공공안전과 이웃의 안정성/ 통합된 건강 및 가족지원서비스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한 Sweet 등(2005)은 가족친화라는 지역사회 개념과 가장 관련이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 지표로는 안전성, 학교의 명성, 주거환경, 배우자 직장과의 거리, 공원과 도서관과 이벤트, 여가, 동네의 규모, 쇼핑기회, 자신의 직장과의 거리, 친척과의 거리, 세금 등이 선정되었다(정영금, 2007; 재인용).

이처럼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요소는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 연구원에서 개발한 홍승아, 김혜영, 류연규, 相馬直直, 조순주, 진미정(2007)의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를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 친화적 서비스 인프라가 가져야 하는 원칙으로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친화성을 제시한다. 박성신 등(2009)도 이와 비슷하게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을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의 원칙으로 나누어 생활가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할 뿐 지역주민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밖에 차성란, 이해욱(2011)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 서비스 인프라 중에서 보육시설을 중요한 물리적 환경요소라고 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있어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 중 보육시설 충분성은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실제 보육시설 이용자는 유아가 대부분이지만 잠재적인 보육시설 이용자로서 영아 어머니의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에 대한 연구는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연구에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 어머니에게 중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로 '편리성', '안전성', '보육시설 충분성'의 세 가지 변수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영아 어머니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김혜영 등(2009)의 연구에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순으로 가족친화성이 높았던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역사회의 규모가 영아 어머니의 가족친화성 생활환경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지역사회 규모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어떤 것이 있는가?

2.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영아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 인식, 편리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 지역의 규모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조사모집단은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단계 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조복희 외, 2009).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를 근거로 하며, 연구 대상은 주요 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남녀 영아 1,754명의 어머니이다.

2. 연구도구

1) 사용 변인

(1) 양육 스트레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PSI-SF(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 Abidin, 1990)를 기초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 스트레스 척도'로 78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연구 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한국아동패널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고,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 범위는 11점부터 55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관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해당 문항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74로 나타났다.

〈표 1〉 양육스트레스 문항내용과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α
양육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11	.874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α
트레스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조사에서는 서문희 외(2005)의 연구인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편리성, 안전성, 보육시설 충분성의 각 항목별 점수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은 '매우 불편함(1점)'부터 '매우 편리함(5점)'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편리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성 인식'은 '매우 위험(1점)'부터 '매우 안전(5점)'으로 구성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과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의 두 항목은 2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가능한 점수범위는 2점부터 10점까지이다.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은 '매우 불충분함(1점)'부터 '매우 충분함(5점)' 중에서 평정하는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시설 충분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항목은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 가능한 점수는 3점부터 15점까지이다.

범주별 해당 문항은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지역사회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이 .687, 지역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831, 보육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이 .821로 나타났다.

〈표 2〉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의 문항내용과 신뢰도 계수

		문항내용	문항수	Cronbach α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지역사회 편리성 인식	여가 공간/시설 이용의 편리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공공 여가 공간・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문화시설 이용 편리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박물관, 기념관, 미술관, 공연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이용이 편리합니까?	2	.687
	지역사회 안전성 인식	치안 측면의 안전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치안 측면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안전사고 측면의 안전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는 안전사고 측면(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서 자녀를 키우기에 안전합니까?	2	.831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어린이집 충분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놀이방)이 충분히 있습니까? ※ 선교원은 제외. 유치원 충분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유치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제외)이 충분히 있습니까? 사교육기관 충분성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동네에는 자녀를 보낼만한 기타 시설이나 학원 등 사교육기관이 충분히 있습니까? ※ 사교육기관이란 각종 학원, 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문화센터 등을 모두 포함함.	3	.821

(3)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로 물어보았으며 위의 4개 변수는 모두 회귀분석 시 통제변수로서 포함되었다.

① 연령

연령은 응답자의 생년월일을 직접 적도록 하여 계산하였다.

② 최종학력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기능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졸업’, ‘대학원 박사 졸업’의 7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하였다.

③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이와 같은 소득을 모든 가구원에 대해 합산한 것을 지칭하며 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만원 단위로 직접 적도록 하였다.

④ 거주 지역 규모

거주 지역 규모는 조사 당시 연구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로 선택지를 나누어 물어보았다. 거주 지역 규모 변수에서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여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3. 분석방법

자료처리를 위해 사용된 통계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에 응답한 영아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영아 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한다.

Ⅳ.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3>와 같다. 응답한 대상자 중 주요 연구변수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한 총 1,754명의 영아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표 3〉 영아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N	%
모 연령 (M=33.79, SD=3.69)	20~29세	186	10.6
	30~34세	1012	57.7
	35세 이상	549	31.3
	결측값	7	0.4
	소계	1,754	100.0
모 최종학력 (N=1,754)	고졸이하	533	30.5
	초대졸	455	25.9
	대졸	669	38.1
	대학원졸이상	89	5.1
	결측값	8	0.5
	소계	1,754	100.0
월 평균 가구 소득 (M=533.01, SD=814)	200만원 미만	133	7.58
	200~400만원	874	49.83
	400~600만원	444	25.31
	600만원 이상	303	17.27
	결측값	2	0.1
	소계	1,754	100.0
거주 지역 규모 (N=1,754)	대도시	686	39.1
	중소도시	699	39.9
	읍면도시	369	21.0
	소계	1,754	100.0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3.79세(표준편차 3.69)이며, 30~34세가 5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최종학력은 대졸(38.1%), 고졸 이하(30.5%), 초대졸(25.9%) 순으로 많았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533.01만원(표준편차 814)이며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집단이 전체 49.8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도시로 나누었을 때, 그 비율은 각각 39.1%, 39.9%, 21.0%로 중소도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거주 지역 규모의 준거집단은 대도시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 시에는 결측값을 제외하였다.

2. 영아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영아 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 지역의 규모가 조절하는지를 검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인 연령,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거주 지역 규모 변수를 투입해 관련성을 살펴보고, [Model 2]는 이러한 영아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 즉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이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Model 3]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 지역의 규모가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절변수를 투입했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고려하기 위해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 변수, 즉 지역사회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의 세 변수에 대해 센터링(centering) 작업을 실시한 후 상호작용항을 만들었으며, 모든 변수의 VIF 값이 10 이하로 공선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어머니의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및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b(S.E.)*	*β*	*b(S.E.)*	*β*
(사회 인구학적 변수)	3.466(.202)***		3.798(.205)***		3.866(.220)***	
연령	-.002(.004)***	-.013	.000(.004)***	-.002	.000(.004)***	-.002
최종학력	.058(.017)***	-.087	-.035(.017)***	-.052	-.037(.017)***	-.055
가구소득[1]	-.050(.026)***	-.049	-.040(.026)***	-.040	-.039(.026)***	-.038
거주 지역 규모[2]						
중소도시	.016(.035)***	.012	.037(.035)***	.028	-.222(.179)***	-.169
읍면도시	-.026(.042)***	-.017	-.051(.043)***	-.033	.023(.198)**	.015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b(S.E.)*	*β*	*b(S.E.)*	*β*
(지역사회 변수)						
편리성 인식			-.001(.011)***	-.003	-.001(.018)***	-.003
안전성 인식			-.061(.012)***	-.142	-.043(.020)***	-.099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021(.007)***	-.082	-.041(.011)***	-.161
(조절 변수)						
중소도시*편리성					.009(.025)***	.043
중소도시*안전성					-.008(.028)***	-.044
중소도시*충분성					.028(.016)**	.208
읍면도시*편리성					-.026(.030)***	-.086
읍면도시*안전성					-.048(.031)***	-.198
읍면도시*충분성					.041(.019)***	.225
F	4.222**		9.728***		6.368***	
Adj.R^2	.010		.040		.043	
$\triangle R^2$			.032		.006	

주: 1) 자연로그를 취함
2) 준거집단: 대도시
** $p < .01$, *** $p < .001$.

먼저 [Model 1]을 살펴보면,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4.222, p<.01), 수정된 R^2 값은 .010로 자료전체의 산포 중에서 약 1.0%가 회귀함수에 의해 설명된다. 상수, 연령, 최종학력, 월 평균 가구소득, 취업여부, 거주 지역 규모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Model 1]에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인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Model 2]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9.728, p<.001), 설명력은 약 4.0%로(수정된 R^2 값=.040) [Model 1]에 비해 설명력이 3.2% 만큼 증가하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Model 2]에서 추가한 변수 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의 변수가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즉,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Model 3]은 거주 지역의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친화

적인 생활환경 요소인 지역사회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변수들과 거주 지역의 규모 변수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이다. [Model 3]의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6.368, p<.001), 설명력은 4.3%(수정된 R^2 값=.043)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Model 2]의 설명력보다 0.6% 증가했다.

최종적인 모형인 [Model 3]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는 최종학력,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 지역사회의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이 있다. 즉, 영아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으며, 지역사회의 편리성과 보육시설 충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상호작용 변수는 읍면도시*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이었다. 이는 읍면도시에 거주하는 영아 어머니가 지역사회에 대해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느끼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아 어머니가 지역사회에 대해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감소시키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한국아동패널연구(PSKC)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를 양육하는 1,754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했을 때 영아 어머니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안전성 인식, 편리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뒤, 이러한 지역사회의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인식하는 것이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거주 지역의 규모가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문제에서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주요 변수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투입시킨 변수는 먼저, 영아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로 연령,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거주지역의 규모였고, 다음으로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

로 지역사회의 편리성 인식, 안전성 인식,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변수를 투입하고, 마지막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의 조절효과를 알기위해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와 거주 지역 규모와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수는 최종학력이었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다는 많은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영아 어머니 또한 학력수준과 양육스트레스가 부적 상관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거주 지역 규모에 따른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기 전과 후 모두 영아 어머니에게 있어 보육시설 충분성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보육시설의 주 이용자가 아닌 영아의 어머니에게도 보육시설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서 투입했던 이 변수의 유의미한 효과가 가져다주는 시사점은, 잠재적 보육시설 이용자인 '영아'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양육 스트레스에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서문희 외(2011)의 연구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당수의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영아들은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양육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육'에 대한 정책 등에 있어, 영아 어머니의 보육시설에 대한 잠재적 수요와 욕구가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최종모형에 의하면 거주지역의 규모는 영아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며,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식 변수 중 안전성 인식과 보육시설 충분성 인식 변수가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감소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아 어머니가 지역사회에 대해 얼마나 안전하고 보육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에 있어 거주지역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이는 박성신(2009)의 연구에서 객관적인 인프라를 중심으로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인식을 평가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제한점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로, 객관적인 '인프라' 자체 보다 가족 친화적 생활환경 '인식'이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연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넷째,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읍면도시인지의 거주지역

의 규모는 영아어머니의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효과가 있었다. 즉, 읍면도시에 거주할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영아 어머니보다 지역사회에 대해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 양육스트레스가 더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은 연구모형에 적합한 변인을 위주로 선정하였으므로, 양육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모든 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최종모형에서도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량(Adj. R^2)이 크지 않으므로 결과 해석 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 인식이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감소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더 잘 설명하는 다른 변인을 투입해 그 영향력을 연구한다면 영아 어머니를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인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 도구 선택에 제한을 가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적인 대표집을 가지고 2세 미만의 영아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 인식과 양육스트레스의 관계를 분석했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가족 친화적인 생활환경 요소를 통일성 있게 구성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 개발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를 중심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영아 어머니의 인식을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객관적인 지표 중심이었던 가족 친화적 환경에 대한 연구의 한계를 조명하였고, 그 결과 영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역이 편리하고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양육 스트레스와 같은 돌봄의 부담을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생활요소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조성한다면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고순옥(2004). 영유아 정상아동의 언어발달과 사회정서발달 및 환경요인과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기현·조복희(2000).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관련 변인 탐색. **한국아동학회, 21**(4), 35-50.

김미숙·문혁준(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김영주·송연숙(2007). 1세-3세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 지식과 양육 스트레스.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75-493.

김혜금(2012).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지역사회 육아 지원과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1), 5-24.

김혜영·홍승아·이택연·선보영·진미정·홍성만(2009).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노신애(2011). 가족친화적 지역사회와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노신애·진미정(2012).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인식이 미취학자녀 부모의 양육 효능감 및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3), 135-149.

노애민(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아분화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성신·이원아·김혜란·류전희(2009).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가로 연구. **가족과 문화, 21**(1), 151-174.

박정희·장영애(200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31-44.

백영숙(2007). 어머니의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죄책감이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최진원(2005). 2004년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 1-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송연숙·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정영금(2007).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한 일-가족 균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1), 37-51.

정옥분(2004). 영유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조복희·신나리·안재진·이정림·최윤경·송신영(2009). 한국아동패널 2009.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차성란·이해욱(2011). 가족친화마을 환경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아파트 내・외부 및 근린환경 선호에 관한 연구 -대전시 아파트 거주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45-62.

편은숙(2004).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스트레스.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홍승아·김혜영·류연규·相馬直直·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Bookman, A. (2004). *Starting in our own backyards: How working families can build community and surve the new economy.* London: Routledge.

Sweet, S., Swisher, R., & Moen, P. (2005). Selecting and assessing the family-friendly community: Adaptive strategies of middle-class, dual-earner couples. *Family Relations, 54*, 596-606.

Relations among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and Early Social Development in Korean Infants

영아기의 부정적 정서성, 지원적 양육, 초기 사회성 발달간의 관계

차기주[1)]

본 연구는 출생 후부터 약 2년여의 영아기 동안 영아의 기질(부정적 정서성), 부모의 지원적 양육행동 (온화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 영아의 초기 사회성 발달지표 (의사소통, 개인-사회성, 문제해결력) 간 상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한국아동패널연구 데이터 중 초기 3차년도(출생 후 5~7개월, 생후 1년, 생후 2년)까지의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행동, 영아의 초기 사회성 발달 간에는 복잡한 양방향성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성과 부모의 지원적 양육행동은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정도의 종단적 지속성 (경로계수 0.4)을 보였다. 하지만, 초기 사회성 발달 지표들의 지속성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양육-자녀기질' 간 상호성을 지지하는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 및 결혼만족도,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부모의 지원적 양육행동만이 다음해의 영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아의 사회성 지표 중 문제해결력이 지원적 양육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녀-부모 관계의 양방향성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 사회성 발달 지표들에 미치는 부정적 정서성 및 자녀양육의 폭포효과 (Cascade effects)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영아기 동안 온화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 하는 것으로, 예비부모교육 및 생애 초기 동안의 질 높은 교·보육 제공에 대한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1) Stanfo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박사과정(kijoocha@stanford.edu)

Ⅰ. Introdu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young child's temperament and the behavioral patterns exhibited by parents is highly likely to be bidirectional: that is, a child's temperament likely elicits certain behavioral patterns from parents over time (Bridgett, Gartstein, Putnam, McKay, Iddins, Robertson, et al., 2009) which in turn are likely to affect the child's temperament (Rispoli, McGoey, Koziol, & Schreiber, et al., 2013). Despite recent increase of longitudinal studies examining the bi-directionality in a parent-child interaction, many of extant studies have relied on simple concurrent correlational results (Putnam, Sanson, & Rothbart, 2002; Sanson, Hemphill, & Smart, 2004), which limits the ability to make judgments about causality and directionality. Furthermore, relatively fewer studies have examined the interplay among child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s, and early indices of social development comprehensively over time. To address these gaps in the literature, this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ransa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and their cascade effects on chil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longitudinally with data spann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among Korean infants.

1. Temperament and Parenting

Temperament refers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ctivity and self-regulation that are biologically based and influenced by heredity, maturation, and experiences (Rothbart & Bates, 2006; Sanson et al., 2004). In the New York Longitudinal Study (NYLS), the first large-scale study of temperament, Thomas, Chess, Birch, Hertzig, and Korn (1963) identified nine dimensions of temperament: Activity Level, Rythmicity, Approach vs. Withdrawal, Adaptability, Intensity, Threshold, Mood, Distractibility, and Attention Span/Persistence. In this study, Thomas et al. (1963) constructed a

cluster of what they referred to as difficult temperament that included negative mood, withdrawal, low adaptability, high intensity, and low rhythmicity amongst the identified nine dimensions. Despite an ongoing controversy on temperamental dimensions and qualities characterizing difficultness (Putnam et al., 2002; Rothbart & Bates, 2006), negative emotionality has remained the essential, overarching dimension of the difficult temperament (Rothbart & Bates, 2006).

Negative emotionality refers to a child's tendency to react to stressors with high degrees of negative affect (e.g., anger/resistance to control, irritability/frustration, fear, sadness, shyness, etc.; Rothbart, Ahadi, & Hershey, 1994). Extant research that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responsive parenting have revealed inconsistent findings (for a review, see Crockenberg, 1986; Crockenberg & Leerkes, 2003; Paulussen-Hoogeboom et al., 2007): even though most studies have shown negative associations (e.g., Belsky et al., 1991; Bridgett et al., 2009; Calkins, 2002 (only for boys); Field, 1994; Lee & Bates, 1985; Mertesacker, Bade, Haverkock, & Pauli-Pott, 2004; Rubin, Stewart, & Chen, 1995; Rispoli et al., 2013), some studies report positive associ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responsive parenting (e.g., Washington, Minde, & Goldberg, 1986) or no association (e.g., Hagekull, Bohlin, & Rydell, 1997).

A few studies have reported cross-lagged transactional relations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ttributes and disruption in positive parenting (e.g., Eisenberg et al, 1999; Lengua, 2006; Lengua & Kovacs, 2005). Lengua and Kovacs (2005) found that in a one-year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aged 8 to 11 years (N=92), maternal inconsistent discipline predicted greater negative emotionality (fearfulness and irritability) at a later time, and child irritability predicted increasing inconsistent parental discipline across time. Longitudinal transactional rel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were also found in a non-European-American sample. Lee, Zhou, Eisenberg, and Wang (2012) examined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ger/frustration and effortful control) and parenting style (authoritative and

authoritarian) in Chinese children (n=425, 6-9 years). They found that children's higher effortful control and lower anger/frustration predicted higher authoritarian parenting across time and higher authoritarian parenting at earlier time predicted higher effortful control and lower anger/frustration at later time.

2.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has been defined as "the behavior patterns, feelings, attitudes, and concepts children manifest in relation to other people and the way that these various aspects change over age" (Schaffer, 1996, p. 1). Based on this broad conceptualization of social development, this section reviews temperament and parenting research concerning various domains of social development affecting social competence.

Research that examined how child temperament is related to social development has shown that child negative emotionality, such as impulsivity and anger,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djustment problems (Eisenberg et al., 2001, 2005; Karrenman et al., 2010). For example, high impulsivity was associated in two studies with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s (Eisenberg et al., 2001; 2005) whereas low impulsivity and high sadness and fear (Eisenberg et al., 2001; 2005) and high fear and shyness (Leve, Kim, & Pears, 2005) were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behaviors among school-aged children. Similar results were also replicated among three-year olds (Karrenman et al., 2010); high impulsivity and anger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whereas fear and low impulsivity were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behaviors.

Regarding research on parents' influence on child adjustment, relevant studies has reported a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parenting and child socio-emotional well-being. For example, parents' negative control, such as, criticizing and ignoring the child, and parents' over-involvement or over-protection, has been found to predict poor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longitudinally (e.g., externalizing problems or lower social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Bradley & Corwyn, 2008; Cooklin et al., in press; Mantymaa, Puura, Luoma, Salmelin, & Tamminen, 2004; Morris et al., 2002). In contrast, positive control, such as limit setting, provision of structure and sensitivity, is associated with fewer externalizing problems (Newby & Fischer, 1991) and higher levels of prosocial behaviors (empathy) (Kiang, Moreno, & Robinson, 2004).

In sum, previous research has revealed the reciprocal nature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at both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and parenting are related to overall child social development. However, there are still gaps in this research area. There are only few longitudinal studies that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 during infancy as a foundational period for later social competence over time. Social competencies should be fostered as early as infancy, considering the continuous interplay between biology, environment, and care-giving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Shonkoff & Phillips, 2000). Thus, the present study aims to expand the literature by studying 0 to 2 year-old infants with a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dataset.

3. Research Questions

To address these gaps in prior research, this study aims to test a cascade model linking temperament (negative emotionality) and supportive parenting practices to subsequent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across a 2-year period (See [Figure 1]). Specifically, the present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1) How stable is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respectively over time (Model 1 in [Figure 1])?

2) Are there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infant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s over time (Model 2 in [Figure 1])?

3) Are there cascading effects from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behaviors to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over time (Model 3 in [Figure 1])?

4) Are there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over time (Model 4 in [Figure 1])?

5) Do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impact subsequent parenting behaviors (Model 5 in [Figure 1])?

Ⅱ. Methods

1. Participants

The sample of the present study came from a large-scale national panel study,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PSKC has followed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approximately 2,000 children and their families in Korea since 2008 through yearly data collection. The present study used data from the first three measurement waves spann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First data collection (at W1) on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ocio-demographics was conducted within 3 to 10 months in child age (75%: between 4 and 5 months) through a standardized child assessment tool (K-ASQ) and parent questionnaires (N=2,078, boys: 50.8%, girls: 49.2%). At W2, with attrition of 226 families and recruitment of additional 52 families, 1,904 children (boys: 50.5%, girls: 49.5%) and mothers in total participated in the data collection. Second data collection was done within 13 to 15 months in age among 80.5% of the study infants; 6.6% were younger than 12 months and 8.4% were older than 16 months. At W3, about 72% of the sample children (n=1802) were 25 to 27 months old (boys: 50.9%, girls: 49.1%).

2. Measures

1) Child Temperament: Negative Emotionality

Information on temperament (emotionality & activity) was collected through parent questionnaires. The temperament questions were from Buss and Plomin's (1984)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 In the current analysis, items regarding emotionality only were included. Five items measuring emotionality were : (a) my baby cries easily; (b) my baby tends to be somewhat emotional; (c) my baby often fusses and cries; (d) my baby gets upset easily; and (e) my baby reacts intensely when upset. These items were rated on a 5-point scale (from not typical of my child (1 point) to very typical of my child (5 points)). Scores from the five items were summed for analyses. Thus, higher scores on emotionality indicate high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of the infant.

2) Parenting Behaviors

Information on parenting behaviors was also collected through the parent questionnaire. The parenting behavior items were from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 Bornstein, 1989) that was developed to index differences in domains of parenting behaviors with 20 month-old infants. The items included in the PSKC were concerned with two facets of positive parenting behaviors: parental warmth (e.g. "I provide my child with positive affectionate displays of warmth and attention") and responsiveness (e.g., "I promptly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my child's expressed distress or discomfort"). The items were rated on a 5-point scale (from hardly at all (1 point) to all the time (5 points)), and scores on the items were summed, so that higher total scores signified more warm and responsive parenting (supportive parenting, hencefo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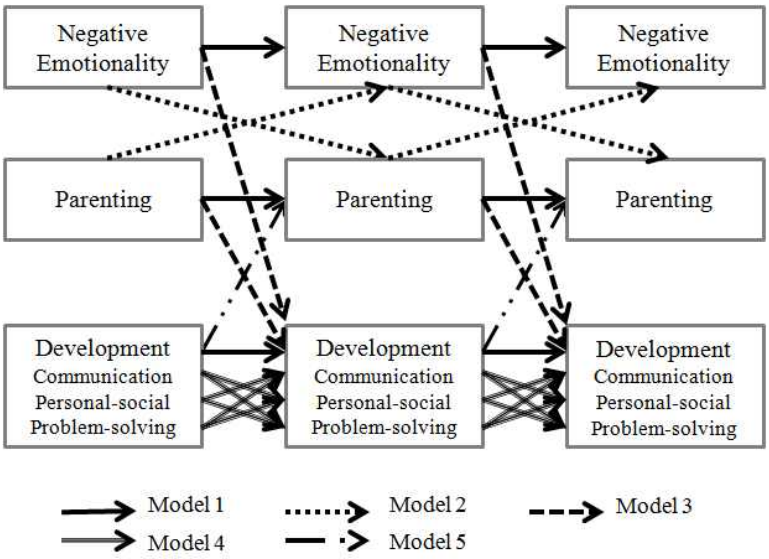
3)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hild developmental outcomes were measured by Korean Age & Stages Questionnaire (K-ASQ), a Korean version of Age & Stage Questionnaire (ASQ). The ASQ is a tool to assess developmental status of young child across five developmental areas: communication, gross motor, fine motor, problem solving, and personal-social. Since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in child social development, for the current analysis, only three developmental areas regarding children's orientation towards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personal-social) and signs of autonomy and adaptive behaviors (problem-solving) were included. There are 6 questions in ASQ for each developmental area (in total, 30 questions). Depending on how well each item describes the infant's performance, questions are answered "Yes" (10 points), "Sometimes" (5 points), or "Not yet" (0 points). K-ASQ maintains these traits of the original ASQ. Scores on each item were summed within each developmental area (maximum: 60).

3.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used to test a cascade model consisting of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transactional paths along and between emotionality, parenting, and three development outcomes (i.e.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across three waves of data (see [Figure 1]). The model also included within-time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ity and parenting and between parenting and each developmental outcome, although for readability and simplicity, they are not presented in the final model ([Figure 1]). Within-time cor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outcomes were not controlled since overall, no consistent concurrent significant associations were found between emotionality and developmental outcomes throughout the three measurement

points (Tables 2, 3, & 4). The model was estimated using the MLR estimator in Mplus 5.2 (Muthén & Muthén, 1998-2006). Missing data were handled using the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ption.



〔Figure 1〕 A Conceuptual Model

Considering previous studies suggesting that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raumatic family experiences might affect both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the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on both emotionality and parenting were controlled in the model to prevent spurious associations from appearing. However, family SES (a composite of parental education and family income), child gender were not included as confounders in the final model ([Figure 2]) because unlike prior studies, family SES was found to have only very weak correlations with both emotionality and parenting across three waves (overall r<.1) 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evelopmental outcomes (Tables 2-4). Child gender was weakly correlated with emotionality, parenting, and development only at W3 so not controlled.

Ⅲ. Results

1. Descriptive Statistics

Descriptive statics of all temperament (emotionality), parenting, and developmental outcomes are presented in <Table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emperament, Parenting, & Developmental Outcomes

Variables	*N*	*M*	*SD*	*Min.*	*Max.*
Negative Emotionality (NE)					
NE at W1	2044	13.58	3.06	5	25
NE at W2	1892	13.55	3.13	5	25
NE at W3	1758	16.16	2.07	7	23
Supportive Parenting (SP)					
SP at W1	1860	24.30	3.03	6	30
SP at W2	1895	23.38	2.96	12	30
SP at W3	1764	34.12	4.61	9	45
K-ASQ: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t W1	1992	53.53	9.01	10	60
Communication at W2	1903	49.21	11.30	5	60
Communication at W3	1778	52.82	11.04	0	60
K-ASQ: Personal-Social					
Personal-Social at W1	1992	54.37	8.40	5	60
Personal-Social at W2	1903	52.49	10.93	0	60
Personal-Social at W3	1778	54.84	8.81	0	60
K-ASQ: Problem-solving					
Problem-solving at W1	1992	56.02	7.35	0	60
Problem-solving at W2	1903	49.52	11.90	0	60
Problem-solving at W3	1778	54.09	7.84	0	60

2. Correlations among All Study Variables

The concurrent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all study variables at three measurement points are presented in Tables 2-4.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showed a modest negative correlation at W1 (r=-0.115, p<.001) and W2 (r=-0.215, p<.001) but no association at W3. Supportive parenting tended to have weak positive associations (r~0.1) with al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across all waves, whereas emotionality had very weak negative associations with only personal-social (r=-0.079, p<.001) at W2, problem-solving (r=-0.049, p<.05) at W2 and at W3 (r=-0.048, p<.05). Correlations among three developmental outcomes were moderately strong (r~0.5) at W1 and became slightly weaker at W2 and W3(r~0.3-0.4).

Next, none of the examined probable confounders (i.e., family SES, child gender and age, mother's depression, stressful life events, marriage satisfaction) was simultaneously correlated with all of emotionality, parenting, and developmental outcomes, except for maternal depression at W1, and child gender at W3. However, overall, as expected, traumatic family contextual factors (maternal depress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consistently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emotionality and parenting (not with developmental outcomes). That is, throughout all three measurement points, maternal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consistently showed positive associations with negative emotionality and negative associations with supportive parenting.

Unexpectedly, family SES was found to have only very weak, inconsistent correlations with both emotionality and parenting across three waves (overall r<.1) an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developmental outcomes. Child gender was weakly correlated with emotionality and parenting only at W3, but girls tended to show significantly higher performance on developmental outcomes than boys since W2. Child age was correlated with only one or two among all emotionality, parenting, and developmental outcomes spanning three waves of measurement.

3. Testing the Cascade Model

The structural model ([Figure 1]) fit the data well; χ^2= 274.6 (df=139, n=2,150, p=.000), CFI=0.97, TLI=0.95, RMSEA=0.021, SRMR=0.026. These results satisfy the criteria recommended by Hu & Bentler (1999) for a relatively good fit between the data and a hypothesized model: comparative fit index (CFI)≥.95,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06, and standardized root-mean-square residual (SRMR) ≤.08. Results concerning the research questions are presented in this section. Only significant paths are presented in [Figure 2].

1) Stability of Temperament, Parenting, &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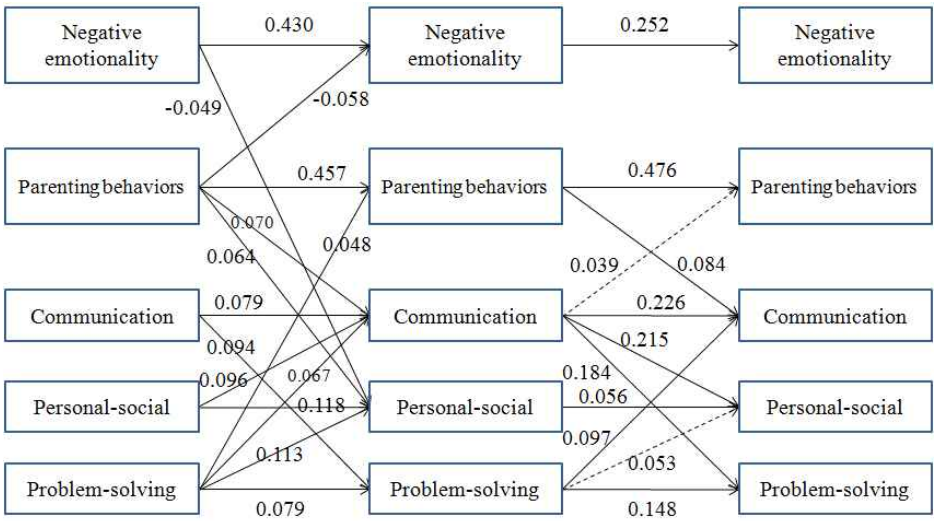
All the autoregressive path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n positive directions, suggesting a cross-time stability in negative emotionality,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 problem-solving). However, while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ositive parenting show a moderate strength of stability over time (~0.4), developmental outcomes tended to show only a very weak strength of consistency over time (~0.1).

2)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Infant Temperament & Parenting

Accounting for domestic experiences that have negatively affected both temperament and parenting (i.e., mother's depression, stressful life events, and marriage satisfaction) and concurrent associ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three developmental outcomes at each measurement point, only supportive parenting at W1 longitudinally predicted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at W2 (-.058, p<.01).

3) Cascading effects from Temperament and Parenting to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Negative emotionality at W1 negatively predicted child personal-social outcome at W2 (-0.049) while supportive parenting positively predicted both child communication and personal-social outcomes at W2 (0.070 and 0.064 respectively), when concurrent correlations among them were taken into account. The magnitude of the standardized coefficient of a path from supportive parenting at W1 to personal-social at W2 (0.064) is larger compared to the one from negative emotionality at W1 to personal-social at W2 (0.049). Also, supportive parenting at W2 positively predicted child communication outcome at W3 (0.084).



[Figure 2] A cascade model among negative emotionality, positive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1)

〈Table 2〉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to Temperament, Parenting,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Socio-demographics, & Domestic experiences at W1

	1	2	3	4	5	6	7	8	9	10
1. Family SES	–	–	–	–	–	–	–	–	–	–
2. Child gender	0.040^{+} (n=1968)	–	–	–	–	–	–	–	–	–
3. Child age	0.191*** (n=1968)	0.045* (n=2077)	–	–	–	–	–	–	–	–
4. Mother's depression	-0.083*** (n=1750)	-0.033 (n=1850)	-0.056* (n=1850)	–	–	–	–	–	–	–
5. Stressful life events	-0.128*** (n=1761)	-0.036 (n=1863)	0.052* (n=1863)	0.256*** (n=1850)	–	–	–	–	–	–
6. Marriage satisfaction	0.146*** (n=1758)	-0.001 (n=1857)	-0.071* (n=1857)	-0.384*** (n=1847)	-0.199*** (n=1857)	–	–	–	–	–
7. Negative Emotionality	-0.062** (n=1937)	-0.018 (n=2044)	-0.121*** (n=2044)	0.206*** (n=1821)	0.052* (n=1832)	-0.120*** (n=1826)	–	–	–	–
8. Parenting	0.061** (n=1758)	0.014 (n=1860)	0.014 (n=1860)	-0.266*** (n=1847)	-0.073** (n=1860)	0.224*** (n=1854)	-0.115*** (n=1829)	–	–	–
9. Communication	-0.0004 (n=1892)	-0.017 (n=1992)	-0.013 (n=1991)	-0.058* (n=1766)	-0.033 (n=1779)	0.044+ (n=1773)	-0.023 (n=1958)	0.105*** (n=1776)	–	–
10. Personal-social	0.012 (n=1892)	-0.044* (n=1991)	-0.026 (n=1991)	-0.064** (n=1766)	-0.049* (n=1779)	0.007 (n=1773)	0.018 (n=1958)	0.109*** (n=1776)	0.500*** (n=1992)	–
11. Problem-solving	0.031 (n=1892)	-0.015 (n=1992)	-0.013 (n=1991)	-0.050* (n=1766)	-0.032 (n=1779)	0.007 (n=1773)	0.020 (n=1958)	0.093*** (n=1776)	0.500*** (n=1992)	0.518*** (n=1992)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3〉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to Temperament, Parenting,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Socio-demographics, & Negative Domestic experiences at W2

	1	2	3	4	5	6	7	8	9	10
1. Family SES	–	–	–	–	–	–	–	–	–	–
2. Child gender	-0.001 (n=1810)	–	–	–	–	–	–	–	–	–
3. Child age	0.129*** (n=1862)	0.041 (n=1852)	–	–	–	–	–	–	–	–
4. Mother's depression	-0.123*** (n=1847)	-0.023 (n=1838)	-0.041 (n=1889)	–	–	–	–	–	–	–
5. Stressful life events	-0.184*** (n=1861)	0.015 (n=1851)	0.015 (n=1903)	0.330*** (n=1889)	–	–	–	–	–	–
6. Marriage satisfaction	0.083*** (n=1836)	0.006 (n=1824)	-0.029 (n=1874)	-0.339*** (n=1860)	-0.222*** (n=1874)	–	–	–	–	–
7. Negative Emotionality	-0.072** (n=1850)	0.022 (n=1840)	-0.077*** (n=1892)	0.268*** (n=1885)	0.129*** (n=1892)	-0.129*** (n=1863)	–	–	–	–
8. Parenting	0.075 (n=1853)	0.016 (n=1843)	0.080 (n=1895)	-0.338*** (n=1883)	-0.083*** (n=1895)	0.214*** (n=1866)	-0.215*** (n=1886)	–	–	–
9. Communication	0.030 (n=1861)	0.155*** (n=1851)	-0.011 (n=1903)	-0.035 (n=1888)	0.023 (n=1902)	0.015 (n=1873)	-0.045+ (n=1891)	0.090*** (n=1894)	–	–
10. Personal-social	0.0004 (n=1861)	0.087*** (n=1851)	-0.017 (n=1903)	-0.069** (n=1888)	0.024 (n=1902)	0.021 (n=1873)	-0.079*** (n=1891)	0.086*** (n=1894)	0.393*** (n=1903)	–
11. Problem-solving	0.021 (n=1861)	0.075** (n=1851)	0.001 (n=1903)	-0.025 (n=1888)	0.034 (n=1902)	0.034 (n=1873)	-0.049* (n=1891)	0.065** (n=1894)	0.393*** (n=1903)	0.428*** (n=190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4〉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Related to Temperament, Parenting,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Socio-demographics, & Negative Domestic experiences at W3

	1	2	3	4	5	6	7	8	9	10
1. Family SES	–	–	–	–	–	–	–	–	–	–
2. Child gender	0.026 (n=1532)	–	–	–	–	–	–	–	–	–
3. Child age	0.020 (n=1586)	0.0009 (n=1733)	–	–	–	–	–	–	–	–
4. Mother's depression	-0.081** (n=1557)	-0.054* (n=1707)	0.033 (n=1757)	–	–	–	–	–	–	–
5. Stressful life events	-0.182*** (n=1566)	-0.033 (n=1717)	0.003 (n=1767)	0.312*** (n=1765)	–	–	–	–	–	–
6. Marriage satisfaction	0.097*** (n=1550)	0.036 (n=1698)	0.002 (n=1748)	-0.323*** (n=1747)	-0.189*** (n=1756)	–	–	–	–	–
7. Negative Emotionality	-0.003 (n=1550)	0.058* (n=1701)	-0.027 (n=1750)	0.195*** (n=1749)	0.110*** (n=1758)	-0.028 (n=1740)	–	–	–	–
8. Parenting	0.135*** (n=1557)	0.054* (n=1707)	-0.006 (n=1756)	-0.312*** (n=1754)	-0.135*** (n=1764)	0.235*** (n=1745)	-0.025 (n=1747)	–	–	–
9. Communication	0.100*** (n=1563)	0.197*** (n=1721)	-0.028 (n=1768)	-0.101*** (n=1742)	-0.040+ (n=1753)	0.065** (n=1733)	-0.017 (n=1735)	0.158*** (n=1743)	–	–
10. Personal-social	-0.026 (n=1563)	0.104*** (n=1721)	0.001 (n=1768)	-0.035 (n=1742)	-0.037 (n=1753)	0.078** (n=1733)	-0.035 (n=1735)	0.069** (n=1743)	0.283*** (n=1778)	–
11. Problem-solving	0.058* (n=1563)	0.118*** (n=1721)	-0.002 (n=1768)	-0.036 (n=1742)	-0.025 (n=1753)	0.041+ (n=1733)	-0.048* (n=1735)	0.083*** (n=1743)	0.385*** (n=1778)	0.384*** (n=1778)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4) Transactional Effects among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Communication at W1 positively predicted problem-solving at W2 (0.094) and problem-solving at W1 positively predicted communication at W2 (0.067). This cross-lagged transactional association between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was found again in between W2 and W3: communication at W2 positively predicted problem-solving at W3 (0.184) and problem-solving at W2 positively predicted communication at W3 (0.097). Regarding associations between personal-social and communication, personal-social at W1 predicted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at W2 (0.096) and in turn, higher communication ability at W2 predicted higher personal-social ability at W3 (0.215).

Unexpectedly, some cross-lagged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were stronger than the over-time stability within each developmental area. For example, while there was only a very weak stability in personal-social between W2 and W3 (0.056, $p<.05$), the path coefficient from communication at W2 to personal-social at W3 was 0.215 ($p<.05$). Likewise, communication at W2 showed a greater over-time association with problem-solving at W3 than an over-time association between problem-solving at W2 and W3 (0.184 vs. 0.148).

5) Impact of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on Subsequent Parenting

When concurrent covariance among parenting and three developmental outcomes was controlled in the model, infant problem-solving ability at W1 positively predicted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 at W2 (0.049, $p<.05$) and communication ability at W2 marginally predicted supportive parenting at W3 (0.039, $p=0.084$).

Ⅵ. Discussion

The major goal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ongitudinal interplay among child temperament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and child social development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life. Results revealed moderate degrees of stability in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during this period; however, stability in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was weak. Second, supportive parenting behaviors for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at W1) significantly predicted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one year later (W2) even when taking into account other family contextual factors that might have affected both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However, no significant path from child temperament to subsequent parenting practices was found. Third, supportive parenting for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exerted positive effects on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contrast, negative emotionality at W1 exerted negative effects on propensity and preparedness for social interaction (i.e., personal-social outcome) in one year. Fourth, there were cross-lagged transactional effects between different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even when accounting for concurrent correlations between them. Finally, infants' problem-solving ($p<.05$) and communication abilities ($p<.10$) predicted higher levels of subsequent supportive parenting.

In the present study, only unidirectional effects from supportive parenting to child negative emotionality were found, with no significant path from negative emotionality to parenting. When accounting for within-time correlations between child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factors that might have influenced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behaviors (i.e., maternal de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supportive parenting for the first few months of life revealed significant predictability of lower levels of child negative emotionality one year later (W2) but not vice versa. The strength of the effects of supportive parenting on negative emotionality found in this study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0.056, $p<.05$) was similar to the average effect size ($r=.06$, $p<.05$) revealed in Paulussen-Hoogeboom et al., (2007)'s meta-analysis of studies concerning

the association between negative emotionality and supportive parenting. This finding confirms that despite the assumed strong genetic basis of child temperament (Rothbart & Bates, 2006), even difficult temperamental traits are somewhat malleable to environmental effects (e.g. parenting practices as well as family contextual factors such as maternal depression, stressful life events, etc).

The uni-directional associations in the parent-child interactions differs from prior studies showing a significant impact of child temperament on parenting behaviors (e.g. Bridgett et al., 2009; Crockenberg & Leerkes, 2003; Eisenberg et al, 1999; Lee et al., 2012; Lengua, 2006; Lengua & Kovacs, 2005; Mertesacher et al. 2004).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unidirectional path from parenting to child temperament found in this study does not indicate that the socialization process for the early years in life is solely determined by parents with no contribution from infants. Although temperamental emotional negativity did not predict changes in parenting longitudinally, infants' problem-solving ($p<.05$) and communication ($p<.10$) abilities at an earlier time point significantly predicted higher levels of supportive parenting at a later point in a positive direction. The finding that communication ability at W2 is predicted by previous supportive parenting at W1 demonstrates one aspect of reciprocity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during the initial years in life. Also, although no bi-directionality was found in terms of the temperament-parenting relations in this study,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might interact reciprocally during different developmental periods. That is, as children grow and their more differentiated temperamental characteristics emerge, specific dimension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may reveal different patterns of cross-lagged associations across different developmental periods. Thus, it will be important to investigat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specific temperamental dimensions and parenting behaviors across different developmental periods. Based on this logic, more consistent and stronger associations between family SES and child temperament, developmental outcomes, and parenting might

appear in subsequent developmental periods as children become gradually exposed to a greater amount of socio-cultural influences, although only very weak, inconsistent correlations were found in the present study concerning infancy.

Findings of this study offer a more comprehensive picture of interactions among child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 than previous research, revealing cascade effects among them. First, regarding parenting behaviors, supportive parenting at earlier time points was found to be associated with decreased negative emotionality and increased social development at later time points: Supportive parenting at W1 and W2 predicted higher levels of predisposition for communication (communication) at W2 and W3 and supportive parenting at W1 predicted higher levels of infants' orientation towards social interactions (personal-social) at W2. These results support previous study findings that positive parenting is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child negative emotionality (Belsky et al., 1991; Field, 1994; Kochanska & Aksan, 2004; Rispoli et al., 2013) and higher levels of child social competence (Kiang, Moreno, & Robinson, 2004; Newby & Fischer, 1991). It is also conceivable that in the present study, the influence of supportive parenting at W1 is indirectly carried forward to all of the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at W3 through its significant direct contribution to the communication outcome at W2. In other words, the established longitudinal relationship suggests that providing positive parenting is important particularly in the first few years of life given its direct and indirect lasting effects on subsequent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Next, regarding child temperament, in align with the previous findings that specific dimensions of negative emotionality (e.g., anger/frustration, impulsivity, inhibition, withdrawal, etc.) have been associated with subsequent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in young children (Eisenberg et al., 2001, 2005; Karrenman et al., 2010; Leve, Kim, & Pears, 2005), negative emotionality in this study predicted lower levels of subsequent personal-social outcomes between W1 and W2. Taken altogether,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supportive parenting were both found to independently predict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the opposite direction while simultaneously, parenting behaviors predicted lower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infants' problem-solving ability on later parenting behaviors as well, these results well reveal the complexity in the associations among child 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s, an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and the significance of warm and responsive parenting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for better child social competence and well-being.

Although this study presents a unique attempt to longitudinally examine the interplay between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al outcomes across the first two years of life, important limitations should be noted. First, as discussed above, all data used in the current analyses were gathered through parental report and thus exposed to measurement errors by parents' subjective evaluations and judgment. Also, since parents were a common source of both child temperament and their own parenting behaviors, these two lines of information might not be potentially independent (Putnam et al., 2002). Next, this study only focuses on one dimension of temperament, negative emotionality, which is a broad measure of overall child negative reaction and irritability, not specifying specific dimensions of negative emotionality. Thus, the amount of knowledg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isting literature might be limited in this respect. However, this study makes greater contributions compensating for this limitation in that it captures the comprehensive interplay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 during infancy with non-clinical sample from non-western culture. Finally, this study focuses exclusively on mothers. A more complete examination of the association among negative emotionality, parenting, and social development requires the inclusion of data from fathers and other caretakers, which needs to be addressed by future research.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e complexity of the associations among temperament,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a

need to take into account this complexity to make proactive and positive efforts to generate better social developmental and life outcomes among young children. Numerou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childhood social competenc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chool adjustment and success (Ladd, Birch, & Buhs, 1999; Malecki & Elliott, 2002) and that childhood social competence tends to remain moderately stable even to emerging adulthood (Obradović, Burt, & Masten, 2010). Thus, given that early years in life are a crucial period in which developmental foundations for later successful functioning are formed (Shonkoff & Phillips, 2000),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new parents and child-care workers with implications: children differ from an early age in their emotional reactivity and difficult temperamental traits are more or less susceptible to external stimuli, including warm and responsive parenting practices. To policy-makers, th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various channels to provide important relevant information to new parents and child care workers and delivering high quality, sensitive and warm child care for young children who are at the beginning stage of life with much potential.

References

Bell, R. Q. (1968). A reinterpretation of the direction of effects in studies of socialization. *Psychological Review, 75*, 81-9

Belsky, J., Fish, M., & Isabella, R.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21-431.

Bornstein, M.H. (1989). Between caretakers and their young: Two modes of interaction and their consequences for cognitive growth. In M.H. Bornstein & J.S. Bruner (Eds.), *Interaction in human development: Behavioural and biological perspectives* (pp. 147-17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Bridgett, D. J., Gartstein, M. A., Putnam, S. P., McKay, T., Iddins, E., Robertson, C., et al. (2009). Maternal and contextual influences and the effect of temperament development during infancy on parenting in toddlerhood.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2*(1), 103-116.

Buss, A.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lkins, S. D. (2002). Does aversive behavior during toddlerhood matter? The effects of difficult temperament on maternal perceptions and behavior.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 381-402.

Cooklin, A. R., Giallo, R., D'Esposito, F., Crawford, S., & Nicholson, J. M. (in press). Postpartum maternal separation znxiety, overprotective parenting, and children's social-emotional well-Being: Longitudinal evidence from an Australian cohor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Crockenberg, S. (1986).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 Lerner & R.Lerner (Eds.), *Temperament and psychosocial interaction in childre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Vol. 31, pp. 53-73). San Francisco: Jossey-Bass.

Crockenberg, S., & Leerkes, E. (2003). Infant negative emotionality, caregiving, and family relationships. In A. Booth & A. C. Crouter (Eds.), *Children' s influence on family dynamics: The neglected side of family relationships* (pp. 57-78). Mahwah, NJ: Erlbaum.

Eisenberg, N., Fabes, R. A.,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 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 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 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entine, C., et al.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 193-211.

Field, T. (1994). The effects of mother's physical and emotional unavailability on emotion regulation. In N. A. Fox (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pp. 208-227) (2-3, Serial No. 240).

Hagekull, B., Bohlin, G., & Rydell, A. M. (1997). Maternal sensitivity, infant temperament, and the development of early feeding problem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8*, 92-106.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Kiang, L., Moreno, A. J., & Robinson, J. L. (2004). Maternal preconceptions about parenting predict child tempera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children's empathy. *Developmental Psychology, 40*, 1081-1092.

Kochanska, G., & Aksan, N. (2004). Development of mutual responsiveness between parents and thei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5*, 1675-1676.

Ladd, G. W., Birch, S. H., & Buhs, E. S. (1999). Children's social and scholastic lives in kindergarten: Related spheres of influence? *Child Development, 70*, 1373-1400.

Lee, C. L., & Bates, J. E. (1985). Mother-child interaction at age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56*, 1314-1325.

Lee, E. H., Zhou, Q., Eisenberg, N., & Wang, Y. (2013). Bidirectional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styles in Chinese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 57-67.

Lengua, L. J. (2006). Growth in temperament and parenting as predictors of

adjustment during children's transition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5), 819-832.

Lengua, L. J., & Kovacs, E. A. (2005). Bidirectional associ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parenting, and the prediction of adjustment problems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1-38.

Leve, L. D., Kim, H. K., & Pears, K. C. (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s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 5 to age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Malecki, C. K., & Elliott, S. N. (2002). Children's social behaviors as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 longitudinal analysi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7*, 1-23.

Mantymaa, M., Puura, K., Luoma, I., Salmelin, R. K., & Tamminen, T. (2004).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 parental mental health and symptoms of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toddlers.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7*, 134-149.

Mertesacker, B., Bade, U., Haverkock, A., & Pauli-Pott, U. (2004). Predicting maternal reactivity/sensitivity: The role of infant emotionality, maternal depressiveness/anxiety, and social suppor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5*, 47-61.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Sessa, F. M., Avenevoli, S., & Essex, M. J. (2002). Temperamental vulnerability and negative parenting as interacting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461-471.

Newby, R. F., & Fischer, M. (1991). Parent training for families of children with ADHD. *School Psychological Review, 20*(2), 252-266.

Paulussen-Hoogeboom, M. C., Stams, J. J. M. G., Hermanns, J. M. A., & Peetsma, T. T. D. (2007).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parenting from infancy to preschool: A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43*(2), 438-453.

Putnam, S. P., Sanson, A. V., & Rothbart, M. K. (2002). Child temperament and parenting. In M. H.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pp. 255–277). London: Erlbaum.

Rispoli, K. M., McGoey, K. E., Koziol, N. A., & Schreiber, J. B. (2013, in press). The relation of parenting, child temperament, and attachment security in early childhood to social competence at school entry.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R. M. Lerner,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Vol. 3, pp. 99–166). New York: Wiley.

Rubin, K. H., Stewart, S. L.,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e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255–284). Hillsdale, NJ: Erlbaum.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 142–170.

Schaffer, H. R. (1996). *Social Development*. Malden, MA: Blackwell.

Shonkoff, J. P., & Phillips, D. A. (Eds.). (2000).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Thomas, A., Chess, S., Birch, H. G., Hertzig, M. E., & Korn, S. (1963). *Behavioural individuality in early childhood.*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Washington, J., Minde, K., & Goldberg, S. (1986). Temperament in preterm infants: Style and stabili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5*, 493–502.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행복한 육아, 행복한 대한민국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Tel. 02 398 7700 Fax. 02 730 3313 www.kicce.re.kr

한국아동패널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anel.kicce.re.kr
panel@kicce.re.kr